제13호 특별호

경기 문화 저널

경기도문화원

담론 2017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제13호 특별호

경기 문화 저널

경기도문화원

담론 2017

CONTENTS

Ⅰ. 정책. 이슈

01. 불쑥 나타난 문화다양성 _ 최혜자(문화디자인 자리 대표)
02. 문화 다양성 한발 더 들어가기 _ 최혜자(문화디자인 자리 대표)
03. 문화민주주의와 시민문화활동가 양성 _ 정윤수(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교수)
04. 문화원 인적네트워크 확보방안 _ 강성봉(성북문화원 사무국장)
05. 활동가 양성사업의 필요성과 방향_거버넌스25사업중심으로 _ 진형우(거버넌스25 감독)
06. 마을큐레이터의 탄생을 위하여 _ 고영직(문학평론가)
07. 이천문화원'시민기록자'양성사업 _ 이동준(이천문화원사무국장)
08. 지속발전 가능한 문화원 만들기 액션플랜 _ 최영주(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09. 플랫폼이란? 지역문화의플랫폼을 한다는 것 _ 조용호(비전아레나대표)
10. 마을플랫폼, 공간과 사람이 이어주는 생활문화 _ 양평 세월리 사례를 중심으로 _ 김지연(문화기획자)
11. 지역에서 주민센터와 문화원의 역할은 실제로 어떻게 다른가? _ 나명철(용인문화원 과장)
12. 생활문화와 지역문화 – 최영주(경기도문화원연합회사무처장)
13. 활생문화로 나아가는 생활문화 _ 양원모(경기도어린이박물관 과장)
14. 새 부대의 운명은 아무도 모른다 〈생활문화 이어보기〉 프로젝트에 대한 단상 _ 고영직(문학평론가)
15. 자발적공동체와 매개자의 역할 _ 임승관(문화바람 대표)

II. 문화원 사람들 이야기

1. 새정부 문화정책과 문화원 발전방향
가. 문화원 직원들이 읽는 새정부 문화정책1 _ 김명수
나. 문화원 직원들이 읽는 새정부 문화정책2 _임대성
다. 문화원 직원들이 읽는 새정부 문화정책3 _최실비
라. 문화원 직원들이 읽는 새정부 문화정책3 황수근
마. 새정부의 문화정책 방향 문화원에 적용하기 _ 이미경(이천문화원 과장)

2. 지방문화원 소소한 담론
가. 문화원에 근무하는 문화기획자로서의 고민 _ 정희진(광명문화원 부장)
나. 생활문화! 지방문화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_
최영주(경기도문화원연합회사무처장)
다.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 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_
최영주(경기도문화원연합회사무처장)

CONTENTS

Ⅲ. 아젠다31_지속발전가능한문화원만들기액션플랜(Action Plan)을 중심으로

〈아젠다31_ 섹션Ⅰ〉 다른 곳과 다른 그래서 더 좋은 특별한 우리동네 만들기 _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가. 발제문 : 문화원, 과거에서 현재로 가는 길 _ 서교송(문화기획 단비 대표)

나.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현재를 재구성하기 위한 구체적 아젠다 도출을 위한 포럼

다. 아젠다 채택 및 선언문

라. 사례발표 Ⅰ : 의왕시 고천동의 어제와 오늘 _ 고동윤(의왕문화원 마을큐레이터)

마. 사례발표 Ⅱ : 오래된 향기를 찾아서 _ 이상숙(하남문화원 마을큐레이터)

바. 사례발표 Ⅲ : 이천의 일상을 기록하다 _ 문초진(이천문화원 마을기록활동가)

〈아젠다31_ 섹션Ⅱ〉 역사와 전통이 현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_ 경기향토문화대학을 중심으로

가. 발제문 : 경기향토문화대학의 추진과정과 의의 _ 정원철 (시흥문화원장)

나.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향토문화연구의 방향찾기를 위한 구체적 아젠다 도출을 위한 포럼

다. 아젠다 채택 및 선언문

라. 지역학과 향토문화연구 _ 김장환(용인문화원 사무국장)

마. 지역사 연구, 지방문화원이 중심이 되어라 _ 황수근(평택문화원 학예연구사)

바. 지방문화원 향토문화연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_ 김성태(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수석연구원)

〈아젠다31_ 섹션Ⅲ〉 내가 노인이 되면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까 _ 경기도어르신사업의 로드맵 만들기

가. 발제문Ⅰ: 경기도 노인대상사업이 현재 그리고 향후 방향의 제안 _ 유설아(문화활동가, 전)경기일보 기자)

나. 발제문 Ⅱ :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 제안 _ 김인숙(대전광역시 대덕문화원 사무국장)

다. 발제문 Ⅲ :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경기도 지방문화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을 과연 성공시킬 수 있는가? 그 전제조건은? _ 박정근(의정부문화원 사무국장)

라. 경기도류(流)의 어르신 사업 로드맵 및 향후 방향수립을 위한 구체적 아젠다 설정을 위한 포럼

마. 아젠다 채택 및 선언문

〈아젠다31_ 섹션Ⅳ〉 지방문화원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_ 지역문화커뮤니티활동가양성과정〈품앗이안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가. 지방문화원이 시민 주도적, 잘발적, 창의적, 지역적 활동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 아젠다 설정을 위한 포럼

나. 아젠다 채택 및 선언문

다. 시민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의 의미_ 조두호(관인 플레이그라운드 예술감독)

라. 문화향유를 넘어 시민창작예술의 시대로 _ 박성희(인천 남구학산문화원 사무국장)

마. 사례발표 Ⅰ : 시흥 품앗이안프로젝트가 문화원, 그리고 시민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었는가 _ 이병권(시흥문화원 사무국장)

바. 사례발표 Ⅱ : 스스로 즐기고 함께 나누는 힘 〈알고 타는 의정부경전철 역명이야기〉 _ 서영진, 유정순(의정부문화원 품앗이안)

사. 사례발표 Ⅲ : 차와 함께하는 노강서원 이야기 _ 고경화, 이진욱, 김춘옥, 정갑자(의정부문화원품앗이안)

좋은 질문은 현실을 객관적이고 정교하게 분석하는 힘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염 상 덕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담론 시리즈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기획은 경기도의 후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웹진)경기문화저널〉에 게재된 글을 오프라인 상에서도 읽을 수 있도록 책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된 것 중에 문화원연합회에 담론 생산 기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책 생산 기능이 없다는 것은 조직에서는 대단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현실을 긍정하고 세상을 배우면서도 세상을 닮지 마세요. 세상을 따르지 마세요.'라고 시인 박노해는 말합니다. 정책은 문제의식으로부터 나옵니다. 좋은 질문은 현실을 객관적이고 정교하게 분석하는 힘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저마다 다른 문제의식을 담을 그릇이 필요했고, 다양한 시각을 담아 낼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문화원연합회가 해야 할 역할 중 하나인 것입니다.
자의적, 주관적, 자기 욕망이 충만한 '비판'이 아닌 정당하고 객관적인 보편성이 담보되는 '비판'을 담아낼 장치를 마련하는 것. 그것이 〈경기문화저널〉사업의 기획의도입니다.
때문에 〈담론2017〉에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지방문화원이 함께 나눈 1년간의 각종 회의, 토론회, 원고 등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더 다양한 주제를 선정했고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추진한 〈지속발전가능한문화원만들기액션플랜〉을 중심으로 한 아젠다 포럼 내용을 충실하게 싣고자 노력했습니다.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1년간 경기도 지방문화원이 만나고 말하고 토론한 내용을 다 싣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윤색과 교정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문화원장님을 포함한 직원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소중히, 그리고 정확히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같은 얘기만 되풀이 해 왔습니다. 같은 얘기만 한다는 것은 그만큼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얘기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잊지는 맙시다. 지금은 해결 가능한,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이야기하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극복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담론2017〉에서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주신 경기도 31개 시,군지방문화원 임직원여러분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올해로 두 번째로 발간되는 〈담론2017〉을 통해 지방문화원이 해결해야 할, 그리고 각자가 하고 싶은 말과 글이 지방문화원 발전에 긍정적 기여를 하길 바랍니다.

여 백

Ⅰ. 정책. 이슈

문화다양성 첫걸음1_불쑥 나타난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 첫걸음2_문화 다양성 한발 더 들어가기
최혜자 (문화디자인 자리 대표)

문화민주주의와 시민문화활동가 양성
정윤수(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교수)

문화원 인적네트워크 확보방안
강성봉(성북문화원 사무국장)

활동가 양성사업의 필요성과 방향_거버넌스25사업중심으로
진형우(거버넌스25 감독)

마을큐레이터의 탄생을 위하여
고영직(문학평론가)

이천문화원'시민기록자'양성사업
이동준(이천문화원사무국장)

지속발전 가능한 문화원 만들기 액션플랜
최영주(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플랫폼이란? 지역문화의플랫폼을 한다는 것
조용호(비전아레나대표)

마을플랫폼, 공간과 사람이 이어주는 생활문화_양평 세월리 사례를 중심으로
김지연(문화기획자)

지역에서 주민센터와 문화원의 역할은 실제로 어떻게 다른가?
나명철(용인문화원 과장)

생활문화와 지역문화
최영주(경기도문화원연합회사무처장)

활생문화로 나아가는 생활문화
양원모(경기도어린이박물관 과장)

새 부대의 운명은 아무도 모른다. <생활문화 이어보기> 프로젝트에 대한 단상
고영직(문학평론가)

자발적공동체와 매개자의 역할
임승관(문화바람 대표)

문화다양성 첫걸음1

이 기획시리즈는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진행합니다. 문화사업과 활동에 있어 어느덧 중요한 가치로 자리한 문화다양성. 이주민사업을 칭하는 다문화사업과 달리 문화다양성은 더 넓은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회 시리즈로서 연재하는 이 문화다양성 기획은 문화다양성에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한 이야기자리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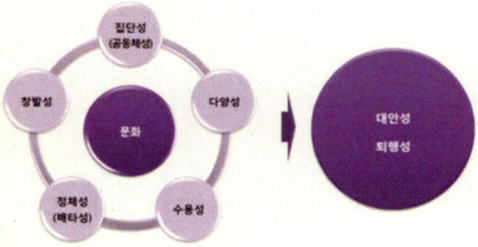
불쑥 나타난 문화다양성

최혜자 (성공회대학교 대우교수/문화디자인자리 대표)

들어가는 말

문화다양성이라는 말은 그리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문화가 다양하다는 것쯤은 누구나 알기 때문입니다. '백인백색''아롱이다롱이' 등 사람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말들은 일상적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또한, 집단의 문화가 다르다는 의미에서 '집집마다 장맛이 다르다'는 말도 있습니다. 문화다양성은 이토록 우리 생활과 삶에서 일상적으로 알고 느끼는 감성입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감성은 우리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이 각각의 모습이라는 것이나 가정이나 집단마다 제 각각의 문화가 있다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사회라면 나타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 집단의 본질적인 성격으로 문화의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예컨대, 문화는 개인의 특성과 달리 집단성(공동체성)을 가지며, 다양하고(다양성), 서로 섞일 뿐 아니라(수용성), 때로는 서로 간 충돌하기도 하고(배타성), 새롭게 구성되기도(창발성) 합니다. 이러한 문화의 특성으로 인해 문화는 인간 집단의 문제를 해결해나가기도 하고(대안성), 내적 균형을 잃게 되면서 쇠퇴하기도(퇴행성) 합니다.



문화의 다양한 속성

특별할 것 없는 "문화다양성"의 발견

그런데, 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감성이 사회 전체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인간 본성에 해당되는 이 감정을 사회에서 받고 말고 할 것이 없을 듯 한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까닭에, 문제인지 아닌지조차 헷갈리는 수준이라는 것이 차곡차곡 발견되었습니다. 즉, 이러한 보편 감성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음에도 우리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 바로 국가 체계 속에 법과 제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질서 속에 개인의 감성 따위는 매우 사치스럽거나 위험한 것으로 취급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가적 이념과 법 그리고 제도 속에 진행되는 일들은 언제나 선한 것으로 모두 따라야 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바로 1900년대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은 유럽의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왜 인간은 원하지 않으면서 전쟁을 치르고, 죽여야 하는가? 무엇이 이렇게 만드는가?



폭력과 학살이 권장되던 2차 대전의 모습 (출처:http://nsholocaustproject.weebly.com/photography.html)

무엇보다 인간에 대해 저질러진 참혹한 학살과 만행은 단지 한두 명의 선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대한 권력의 욕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세계대전이 끝난 지 3년이 지난 1948년 UN에서는 역사적인 "세계 인권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거대한 권력도 인간이 가진 본연의 존엄을 강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인권선언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선언 중의 하나일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권정신에 입각하여 권력의 전횡을 막는 각종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 왔으며, UN은 그것을 권장하고 때로는 강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도 그러한 인류적 경험지혜와 합의에 입각해 법과 제도를 보완해 왔으며, 아직도 지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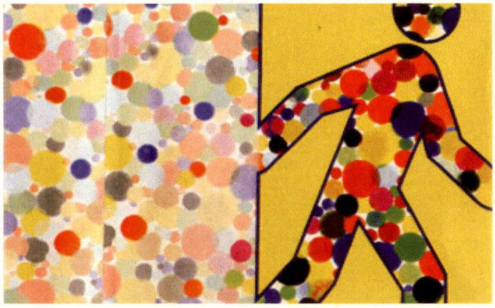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마침내 특별해진 "문화다양성"의 등장

그러나 이것으로 인간이 가진 다양성이 지지되고, 집단의 정체성이 다양하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인간에 의해 저질러지는 참혹한 학살과 만행은 한두 명의 선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인간 스스로 내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사회의 이러한 고통은 누군가를 징벌하고,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로 인간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바로 개개인이 가진 내적 힘이며, 그것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문화다양성입니다.

문화다양성은 인류학적 성과 즉, 모든 개인과 집단의 문화는 상대적이라는 문화상대주의에 입각한 개념입니다. 개인 혹은 집단이 개인의 삶과 특정한 역사 속에서 체득한 문화는 정체성의 표현이며, 지속가능한 삶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대적 질서와 규칙을 거부하고 개개인의 삶과 가치의 발견이며, 1960-70년대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된 탈근대적 사회운동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발견과 성과는 기술혁신과 함께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는데, 오늘날 사회의 변화는 이러한 사유의 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몇몇 사람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1960년대 이미 유네스코에서는 문화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문화다양성과 경제적 권리에 대한 논의까지 확산하였습니다. 마침내 2002년 유네스코는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는 흔히 1948년 "세계 인권선언"의 문화적 버전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권리를 선언함으로써 권력으로부터 인간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과 집단의 문화다양성을 선언함으로써 스스로 정체성을 사회적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2002년 문화다양성 선언의 상징 이미지 (출처:유네스코 위원회 홈페이지)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읽고, 관점을 입자

문화다양성은 2002년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이후 유네스코에 의해 권장되고 확산되는 가치입니다. 이는 유네스코에 의해 각 국의 상황과 진전을 점검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는 인류보편의 지향입니다. 또한, 2005년 문화다양성 세계통상협약은 국제 통상협약으로서 상업적 이익에 의해 인류 보편의 가치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문화체육부에 의해 처음으로 정책화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다문화사업과 맞물리면서 진행된 측면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과 분리되어 2012년 새롭게 추진된 정책입니다. 그래서 불쑥 나타난 것처럼 보일기도 합니다.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진행된 문화다양성 연수 (제공:문화디자인자리)

그러나 이 글을 여기까지 읽고 있는 독자분이라면, 문화다양성의 관점이 그냥 트랜디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성찰을 통해 발견된 인간의 보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보편성이 상실된 사람들에게 문화다양성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닌듯합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에서 굳이 선언을 하는가 하면, 각 국의 문화정책과 국가 운영방향에 권고 혹은 강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야 할 문화다양성의 가치는 인간과 사회의 보편가치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문화다양성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편성이 선언되고, 보편행위가 정책이 되는 정도로 우리의 본성은 훼손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화다양성을 단순히 프로그램화하고 사업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지점을 봐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은 물론 실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관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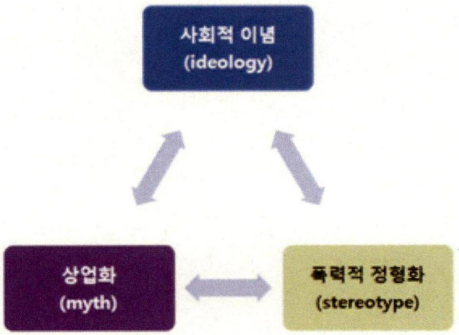
특히 문화원은 전통과 현대, 세대 간의 만남 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통에 대한 새로운 해석, 세대의 가치에 대한 성찰 등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반드시 관철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문화다양성은 문화원이 새롭게 혁신하는 동력일지도 모릅니다.

문화다양성 한발 더 들어가기

최혜자 (성공회대학교대우교수/문화디자인자리대표)

다양성이 상실 된 문화

지난 글에서 문화다양성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등장하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다양성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다양성의 상실은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겪은 구체적 현실이었습니다. 유럽과 같은 나라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지만, 아직도 지구상의 많은 나라에서는 현재 진행형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근대국가체제, 관료 시스템, 근대교육제도 등을 통한 국가 건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기존과 다른 강력한 권력을 구축할때, 가치와 질서를 통합하는 이념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념이 다른 이념을 압도하거나, 다른 이념을 제거하는 유일한 이념으로 작동하게 되면 사회적 획일화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획일성이 정형화되고, 자본주의의 진전으로 상업화가 가속화될수록 다양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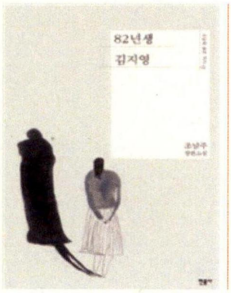
다양성을 훼손하는 것들

유럽의 여러 나라도 그러했지만, 우리나라도 그러한 획일적 이념 속에 다양성은 불필요하거나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물론, 부탄과 같은 나라는 그러한 근대 자체를 마치 건너뛸 것 같은 접근을 하지만, 그것은 극히 예외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겪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그 다양함으로 인해 나라마다의 문화다양성의 내용과 깊이, 정도가 다릅니다. 우리사회에서 제기되는 문화다양성을 과제를 이러한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적 맥락과 문화다양성

유럽사회는 300년 동안 근대화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사람의 인생 안에서 다양성이 상실된 경험이 일어난 것도 아니며, 다양성이 증대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조금씩 변화한 것이며, 그러한 변화는 역사적 설명을 통해 이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조금 다릅니다.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 획일화되는 시대를 겪었고, 다시 다양성이 증대되는 사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즘 많이 읽히는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통해 그러한 모습을 추적해보면 한층 확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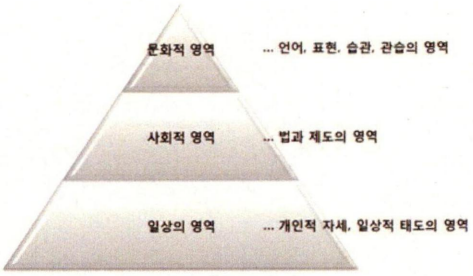
"82년생 김지영"의 표지

김지영은 1982년생으로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김지영은 여성에게 억압적인 사회 현실에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것에 항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에게는 보다 평등하고 다양한 사회가 펼쳐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김지영의 엄마 오희숙 여사는 이제 초로의 여성으로 우리의 현대 역사를 고스란히 겪은 여성입니다. 어릴 적 근대화바람을 타고 공장에 나와 돈을 벌어 남자 형제들을 가르쳤고, 잘난 남자 형제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사는 중산층 여성입니다. 오희숙 여사는 혼자 야학으로 고등학교를 마쳤으며 공무원남편을 만나 시모를 봉양하고 살았고,

딸 둘에 겨우 아들 하나를 낳아 면피(?)를 한 사람입니다. 오여사는 전업주부였지만, 가계를 위해 화장품 방판, 야쿠르트 배달을 하는 다른 아줌마들처럼 가내 부업, 야매 미용실로 아이들 학비를 번 이름 없는 가계 부양자입니다. 그리고 두 딸과 손주들의 삶이 변화를 보면서 자신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던 삶의 다양성이 열리는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물론 소설에서는 여전히 여성에게 닫혀있는 사회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지만, 필자는 오희숙 여사가 겪은 삶의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사회는 1960-70년대 이후 하나의 가치로 획일화되었고, 1990-2000년을 경과하면서 다시 새로운 가치로 해체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나 그러한 삶을 산 사람들의 자녀와 손주로 구성되어 어떠한 형태이건 획일적 가치와 삶에 대한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다양한 삶의 가치나 개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하는 장치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다양성은 "표현의 다양성"으로부터 "삶의 다양성으로"

세대를 나누어서 사회적 변화를 흡수한 유럽사회와 달리 우리사회는 개인의 삶에 대한 오해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말이 쉬어서 오해이지, 사실 삶에 가해진 사회적 폭력에 대한 규명과 화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유럽과 다른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담론의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문화다양성의 영역

문화다양성은 일상의 영역과 사회적 영역 그리고 문화적 영역에서 다양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상의 영역에서의 변화 없이 사회적, 문화적 변화는 다시 개인과 관계의 굴절을 낳게 됩니다. 따라서 문화다양성은 일상의 영역 즉, 주체의

삶과 생각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고 사회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삶 안에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문화다양성선언에서는 "문화권"이라고 명명합니다. 모든 사람은 문화적 권리를 가지며 이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인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문화다양성은 개인의 문화권에 기초해야 하며, 이렇게 될 때 표현과 삶의 다양성이 확장될 것입니다.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문화다양성 워크숍 장면

표현되는 삶, 삶의 다양성으로

우리 사회는 촛불시민에 의해 새로운 사회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거대한 정치적 변화인 듯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염원과 관계가 변화한 것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이미 자신의 문화적 권리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주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블랙리스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정권의 코드에 맞지 않는 예술인을 배제하는 리스트를 가지고 관리했다는 이 사건은 단지 예술인 탄압 혹은 삐뚤어진 문화예술정책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문화예술은 이 사회의 표현 영역의 가장 앞에 선 영역입니다. 흔히 우리는 TV나 영화 혹은 광고, 음악 등을 통해 새로운 시선과 방식을 수용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영역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는 삶의 다양성을 훼손한 일대 사건입니다.
문화다양성은 단지 표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표현 속에 있는 삶의 가치, 일상의 가치를 발견하고, 스스로 그러한 삶의 주체로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문화다양성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재구성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이웃을 발견하는 가치입니다.
이것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단체인 문화원도 다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문화 민주주의와 시민문화 활동가 양성

정윤수 (성공회대 문화대학원 교수)

2016년, 전세계를 강타한 문화적 사건은 팝가수 밥 딜런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일 것이다. 밥 딜런의 노래는, 오래 전부터, 격조 있는 어휘에 읊조리는 듯하면서 라임이 적절하게 전개되는 높은 수준의 문학적 음악성을 지녔음을 평가받아 왔으나, 그래도 노벨'문학'상까지 수상할 정도인가 하는 부정적인 견해도 없지 않았다. 한국의 시인 고은을 비롯하여 미국의 소설가 필립 로스, 2016년에 '박경리문학상' 수상자가 되어 내한한 아프리카 케냐의 응구기 와 시옹오, 몇 년째 유력자로 거론되는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 등에 비한다면 밥 딜런의 수상이 의외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스웨덴 한림원의 발표문이나 기자회견을 자세히 살펴보면 21세기의 문화예술이 어떤 가치와 지향을 가져야 하는가를 짐작할 수 있고, 그 점에서, 밥 딜런은 수상작가가 되기에 충분하다. 스웨덴 한림원은 밥 딜런의 노래 가사가 '시의 형식에 흡사'하다거나 '대중음악 가사도 문학의 일부'라는 이유로 결정한 게 아니다.

시를 비롯한 수많은 예술 형식은 비교적 긴 시간대를 버티긴 하지만, 그래도 일정한 역사적 주기를 따라 변화한다. 똑같은 '소설'이라고 하지만 세르반테스와 발자크와 카프카는 적어도 그 형식에 있어서 전혀 다른 예술의 옷을 입고 있다. 미술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다빈치와 세잔과 백남준은 당대를 대표하는 미술가이지만 그 표현의 옷은 전혀 다르다. 중요한 것은 거시적이긴 하나 틀림없이 변화하는 어떤 예술의 옷, 즉 '형식'이 아니라 그런 차이와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철되는 예술 그 자체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와 사회적 의미, 그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스웨덴 한림원은 판단했다. 이른바 '문학이 아니라 문학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선정했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학적인 것'이란 '문학과 형식상 흡사한'이란 뜻이 아니라, 기존의 제도와 관습으로 보면 장르로서의 문학은 아닐 수 있지만 문학이, 혹은 문자가 역사상 해온 예술적 본질과 사회적 의미를 담은 것이라면 그 겉옷, 즉 제도로서의 형식이 기존 문학에

부합하느냐 하는 것은 결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결정이다.
같은 맥락에서 스웨덴 한림원은 이미 2015년에, 정형화된 소설이라기보다는 생존자들의 인터뷰를 재구성한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작품들, 즉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체르노빌의 목소리〉, 〈마지막 목격자들〉 등을 쓴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에게 문학상을 수여한 바 있다. 이때도 스웨덴 한림원은 "그가 한 수 천 건의 인터뷰는 우리가 잘 몰랐던 인간 존재의 역사를 알려주는 동시에 감정의 역사, 영혼의 역사를 보여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고전적인 소설의 형식을 잘 갖춘 소설이냐 하는 점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러한 '실험'이 문학 내부를 더욱 확장시켰다고 평가한 것이다. 다시, 밥 딜런 얘기를 하자면 그는 수상 소감에서 셰익스피어를 언급하면서 "문학 작품을 쓰고 있다는 생각은 그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무대를 위한 말을 썼다"고 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셰익스피어가 '문학'을 쓰기보다는 "이 역에 맞는 배우는 누구지? 어떻게 무대에 올리지? 이 작품 배경을 덴마크로 설정하는 게 맞나?" 같은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문제에 골몰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전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2015년, 영국의 최고 권위 미술상인 터너상 수상자로는 리버풀의 낙후한 주거단지에서 활동해온 18명의 20대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이 선정되었다. '어셈블'(Assemble)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유서 깊은 항구도시이자 산업도시인 리버풀의 오래되고 낡은 공공주택단지를 개조하는 프로젝트 '그랜비 포 스트리츠'(Granby Four Streets)로 수상을 했다. 18명의 젊은 예술가들은 황폐한 빈민가에 남아 마을을 지키려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낡은 집을 수리하고 놀이터를 만들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미술 프로젝트를 전개했다. 폐자재들을 모아서 책장도 만들어 자활과 재생의 모범을 선도했다.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도시의 고급주택화로 원래 살던 주민이 대책 없이 떠나야만 하는 현상)에 맞서 예술이 실제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줬다는 것이 심사평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이 선정하는 '2016 올해의 작가상'도 조지은과 양철모로 구성된 프로젝트 그룹 '믹스라이스'가 받았다. 그들의 주요 작업은 이주노동자들과 연대한 문화활동이다. 오랫동안 그들은 경기도 마석 가구단지 같은 곳에서 제3세계에서 온 이주노동자들과

관계를 맺어왔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건들을 겪었고 따라서 문자, 사진, 공연, 영상 등 수많은 기록물을 갖게 되었다. 이를 선별하고 재구성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그들의 '미술작업'이다.
일본에서도 이같은 작업이 크고 작은 도시들,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 중소 도시의 경우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전반적으로 쇠락해가고 있는데, 그 사이로 예술가들이 들어가서 주민들과 함께 자활과 재생과 활력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제주의 소리〉가 답사하고 취재한 바에 따르면, 히로시마의 경우 '칡 아트 프로젝트''휴경 논 진흙 벨리 대회' '반딧불 이벤트''문화재 DIY 복구''납량 불꽃 축제' 등 마을 고유의 자원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다. "100여개 단체에서 200여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총 참여인원은 5000명에 달한다. 수익모델 마련에 조급해하는 대신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 더 행복한 일상에 초점을 맞췄다. 궁극적으로 이 같은 방식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고, 히로시마 주민들의 마음을 〈제주의 소리〉는 전하고 있다.
그 주도적인 인물이 토호쿠예술공과대학 교수이자 studio-L의 대표인 야마자키 료. 사람과 마을이 서로 연결되는 방법을 찾기 위해 탐색하고, 현지 주민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 분석 데이터와 디자인 제안을 공공사업에 접목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펼쳐온 인물이다. 국내에 그의 주저인 〈커뮤니티 디자인〉과 〈작은 마을 디자인하기〉 등이 출간되어 있다. 야마자키 료는 〈커뮤니티 디자인〉에서 "우리들이 마을에 들어가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외부 사람은 언젠가 그곳을 떠난다. 차라리 그 마을에서 우리와 뜻이 같은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 사람들과 활동의 참맛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주체를 새롭게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때 "디자인은 장식이 아니다.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디자인이 아니라 과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디자인이다. 디자인은 design이라고 쓴다. de-sign이란 단순히 기호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사인(sign)에서 벗어나(de), 과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된다.
〈제주의 소리〉 취재진은 "그는 애당초 어떤 구상을 미리 정해놓고 마을에 들어가지 않는다.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는다.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주민들이 직접 해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연결하고, 판을 깔' 뿐이다. 현지 주민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들의 제안을 공공사업과 접목한다"고 야마자키 료의 작업을 평가(이상 인용한 기사는 〈제주의 소리〉, 2017년 7월 20일자)한다.

이렇게 여러 사례들을 먼저 소개한 것은, 이 글의 핵심 주제, 즉 경기도문화원의 시민활동가 양성 사업의 필요성과 그 방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와 같은 가히 '전세계적'인 문화적 양상부터 살펴야 했기 때문이다.

아다시피, '경기도'와 '경기도문화원'에서도 위에 두루 소개한 바와 같은 맥락에서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시민 문화 활동을 촉진하고 그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활동가들을 양성하고자 한다. 이 활동과 사업이 국지적이고도 특수한 일이 아니라 나라 안팎에서 전반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문화적 흐름이자 의미 있는 운동임을 재삼 확인된 셈인데, 이를 위하여 몇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의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에서도 '마을 재생'을 화두로 꽤 오랫동안 지속적인 정책과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10년 가까이 이 사업들은 피상적이거나 국지적으로 산만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10년 가까이 유지되어온 중앙 권력이 사실상 이 '마을 재생'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빈곤하였고 그에 따라 의미 있는 방향 제시와 정책적 의지의 결행이 부족했다. 경기도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에서, 이 문화 운동을, 단순히 '마을 가꾸기'가 아니라 높은 차원의 지방 자치와 분권의 차원에서 접근한 것도, 중앙 정부의 정책과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결론을 미리 말한다면, 이 사업은, 개별 마을과 주민과 활동가들에게는 '마을' 단위의 작고 소중한 일상이지만, 지방 자치와 민주주의라는 거시적 안목에서 우선 접근해야 한다. 지난 7월 25일, 국회에서는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가 주관한 토론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자율과 협치의 원칙으로 문화분권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문체부와 지자체, 광역·기초 문화재단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 지역문화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해 협치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무엇이 네트워크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협치인가. 이날 토론회에서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형식적인 '협치 가버넌스' 문화를 "1년에 두세 번 회의 개최하는 것, 회의에 오자마자 계좌번호 쓰고 사인하게 하는 것, 한 마디씩 돌아가며 덕담하는 것. 이건 협치가 아니다"고 통렬히 비판하면서 협치의 본질은 "국가를, 도시를, 권력을, 재원을 함께 기획하고 나누고 사용하며 조율하는 것이다. 최근 도시정책을 둘러싸고 유행하고 있는 참여민주주의, 사회적 경제, 협동, 공유, 생태계, 커뮤니티 등의 개념들이 지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협치라고 강조한다.

김종휘 성북문화재단 대표도 새로운 시대의 지역문화 정책은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출발"해야 하며 지역의 마을 민주주의 역량을 두텁게 하고 드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예술가들이 주민과 함께 하는 것이며 또한 지역 주민들 중에서도 역량 있고 주체적인 사람들이 시민문화 활동가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럴 때 예술가들과 시민문화 활동가들은 "마을 민주주의를 씨 뿌리고 꽃 피우는 과정에서 예술의 가치와 사명을 표현하고 행동할 줄 아는 시민-주민이자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가령 '엘 시스테마'(El Sistema) 사업을 보자. 가난한 아이들에게 악기를 나눠주고 클래식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말이다. 베네주엘라에서 시작하여 세계적인 흐름을 탔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자체와 뜻 있는 음악가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그러나 베네주엘라를 제외한 나라들에서는 시혜적인 차원에서 그친 경우가 많았다. 이 운동은 경제학자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가 1975년에 지하차고에서 시작한, 음악을 통한 사회개혁(Social Action for Music)의 일환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사회개혁(Social Action)이다. 엘 시스테마 프로젝트의 정신과 가치, 그것은 곧 사회개혁이다. 아브레우는 베네수엘라의 극빈층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구제하고 이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도모하는 한편, 나아가 문화적 차별과 소외를 해결하고 빈부격차까지 최대한 좁혀볼 수 있는 방안으로 비경제적인 분야, 즉 음악을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저 가난한 아이들에게도 '고급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해주자'는 식의 시혜적 차원의 일이 아니다. 베네주엘라의 '엘 시스테마'는 사회개혁을 위하여 음악의

미덕을 훌륭히 활용한 것이다. 이 정신과 거리가 먼, 선심성 행사의 변형된 '엘 시스테마'는 여러 곳에서 중단되거나 실패하고 말았다. 중요한 것은 역시 민주주의와 일상 문화의 결합이며 그 핵심에 참여하는 주민과 열성적인 시민문화 활동가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시민문화 활동가는, 단순히 특정한 예술적 재능의 확산이 아니라, 지역 상황에 대한 이해 및 각 문화 사업에 대한 기획과 운영에 대한 참여까지도 가능해야 한다. 나이, 성별, 직업 등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지역사회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속에서 적극적인 시민문화 활동가가 나와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베 레비츠키의 〈모두를 위한 예술?〉은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 21세기의 공공 예술 혹은 시민 참여 예술은 "더 이상 도시미화를 위해 공공 공간에 투입되거나 단순히 물리적으로 장소 특수적 설치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를 넘어서 공공 즉 모두를 위해 민주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실천적인 성격을 본질"로 삼는다. 단순히 "예술작품을 건물 또는 장소에 부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 사고를 도시개발의 과정 안으로 직접적으로 편입시키고 이용자들 또는 주민들 사이에 소통의 과정들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임을 우베 레비츠키는 역설한다. 공공미술의 과거와 현재, 그 예술적 실천의 배경이 되는 인문학적 이론, 새로운 유형의 공공미술 작품들에 대한 정보 등을 개괄하는데 이 책은 요긴하다.

레비츠키의 책이 주로 이론과 작가 중심이라면 파블로 엘게라의 〈사회 참여 예술이란 무엇인가〉는 시민과 함께 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의 예술 활동의 실천적 근거와 사례를 살피는데 유용하다. "프로젝트에 대해 주인 의식을 느낄 만한 다른 동기도 없는 상태에서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도 못하는 협력자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나 노력을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어떤 한 집단 전체가 한번 경험 삼아 해보자는 식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동기가 없다면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투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엘게라는 지적한다. 또한 엘게라는 예술가의 '기능'이나 창의적 '의도'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예술가들은 작업의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사회학, 교육학, 언어학, 민족학 같은 다양한 학문에서 축적된 지식에서 큰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상의 책과 더불어 국내 학자들과 예술실천 활동가들이 공저한

〈생활 예술〉은, 바람직한 문화 민주주의의 확산과 시민참여 혹은 시민주도 문화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례와 제안을 담고 있는 책이다. 시민의 삶에 기반한 '생활예술'에 대해 꾸준히 활동하고 토론한 학자·활동가·행정가 등이 함께 썼다.

공저자들은 생활 예술에 대해 "시민(주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예술적 활동"이라고 정의하면서 주민(시민)들이 일·가족·사교 등의 사적 영역에서 자기를 계발하고 표현하는 예술 활동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19세기 중후반의 첨단 예술가 중심의 모더니즘 전통에서부터 문화와 생활의 모든 요소가 상품으로 되는 신자유주의 광풍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사 전반을 비판적으로 점검하면서 '삶의 예술' 곧 생활예술의 가치를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를, 공저자들은 다양한 이론 점검은 물론 성남문화재단의 사랑방문화클럽, 인천의 시민문화공동체 '문화바람' 등 국내의 다양한 실천 사례를 검토한다.

이상의 여러 사례들과 책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역시 '민주주의'다. 시민 문화, 마을 재생, 마을 예술, 마을 가꾸기 및 시민 문화 활동가 등의 진정한 활성화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하는 점이다. 시혜적인 차원의 단순한 문화 체험이나 나누기가 아니라, 문화를 통하여 삶을 성찰하고 예술을 통하여 일상 생활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시민 문화이며 생활 예술이다. 그 적극적인 참여자이자 주도자가 바로 시민문화 활동가다. 이러한 인식이 결정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우리는 서있다.


야행
2017 생활예술매개자(FA) 공통워크숍

문화원 인적 네트워크 확보방안

– 지역, 지역사람과의 관계 맺기 –

강성봉(성북문화원 사무국장)

인간론–인간은 사회적 동물, 네트워크가 답이다.



인간은 태어나서 홀로 살아갈 수 없으며 죽는 그날까지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인생을 살아간다. 인간(人間)이라는 한자를 살펴보면 보다 쉽게 이해된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를 뜻하는 것으로 사회적 관계망 속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은 의·식·주 생활문화를 토대로 복잡한 공동체를 이루며 보다 풍족하고 살 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문화는 인류가 쏟아 부은 노력의 총화이자 사람과 사람이 만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 때문에 문화란 인간과 인간, 주체와 주체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 속에서 비로소 그 결실을 보고 지속적인 발전과 창달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지역의 문화 사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리이다. 지역마다 열정적으로 문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문화원이 제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역량 강화도 물론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역 내의 인적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유의 역할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

본고에서는 우선 최근 우리나라의 문화 환경의 변화추이와 지방문화원의 현재 위상을 살펴본 뒤, 본인이 속해 있는 성북문화원이 이루어낸 최근의 의미 있는 성과들을 중심으로 전문인력 확보의 중요성, 문화원 사업 전개 프로세스의 확립 방안, 지역 문화 네트워크 구축과정 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오늘날 문화적 상황의 변화에 발맞춘 지방문화원의 능동적인 대처 방안과 지역 문화 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의 위상 강화 및 고유의 역할 수행을 위한 방법론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2017년 문화 환경의 변화 추세

세계적으로 지역문화진흥이라는 패러다임이 부상하고 있다. '글로컬(Glocal)'이라는 신조어에서도 보듯이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가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하겠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는『문화기본법』(2014.3),『지역문화진흥법』(2014.7),『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2015.11) 의 제정과 시행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환경의 변화 및 이에 대한 문화적 차원의 빠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문화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추세 속에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주체로서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정책이 펼쳐지고, '문화의 사회적 가치 증대'라는 추세 속에 급속한 경제성장, 도시화, 고령화 등에 의한 사회적 문제 및 비용 해소를 문화로 해결하려는 모습이 눈에 띈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앞 다투어 지역문화의 경제적 가치 인식 증대를 위한 정책을 펼쳐 국가적지역적 정체성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원도 이러한 최근의 문화적 환경 변화와 트렌드를 포착, 분석하여 적절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나아가 지역 문화의 발전을 위한 자체적인 전망과 계획을 제출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지방문화원의 존재감은?

그렇다면 각 지역에서 문화원의 존재감은 어느 정도일까? 문화재단, 문화센터, 문화의 집, 주민센터, 문화예술관련 협회 및 기관, 학교 등이 지역에서 지방문화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들 단체 및 기관들이 문화원과 협업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지 우리는 잠시 생각을 해봐야 한다. 물론 지역에서 협치와 문화상생을 위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문화원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예산, 인력, 시설 등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원들 또한 많다고 생각된다.
본인도 2012년 성북문화원에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시점에는 정말 말도 안되는 예산과 인력으로 문화원이 운영되고 있었다. 당연히 지역 주민들은 물론 기관들도 문화원의 역할이나 사업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아예 그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는 형편이었다. 더구나 같은 해 성북문화재단이 설립되어 구청에서 기대하는 문화원의 역할 또한 대폭 축소되려는 시점이었다. 이러한 상황과 맞닥뜨려 본인은 우리 지역에서 문화원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원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일지에 대해 수없이 고민을 거듭했다. 이렇게 해서 내린 결론은 우선 문화원 자체의 문화 사업 수행 역량을 키우고 지역의 다양한 문화시설, 기관, 단체 등과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 가동해야 한다는 거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한 원천 문화콘텐츠의 수집, 정리가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문화원이 인적, 내용적 기초를 가져 지역 내에서 기반을 다진 뒤에라야 시대의 흐름에 맞는 문화사업을 기획할 수 있고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회, 단체들과 교류하며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지방문화원의 전문인력 확보가 우선



지방문화원의 인적역량 강화는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문화사업 또한 결국엔 사람이 창조하고 일구어 나가는 일이다. 지방문화원에 몸담고 있는 인력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문화사업을 기획하고 진행을 하는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한다. 지자체에서 기획, 위탁한 것만을 피동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원이 먼저 지역에 필요한 문화사업을 기획하고 제안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역사·문화자원의 조사와 예술·축제사업 등을 해나갈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절실하다.
성북문화원의 경우 2012년 9월 당시 간사 1인, 직원 1인, 사무국장 1인 총 3명으로 사업을 수행해나가고 있었다. 우선 지역의 역사문화콘텐츠를 발굴·연구하며 이를 토대로 문화예술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원장님과 이사님들에게 제안하여 박사과정을 수료한 학예사를 한 명 채용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먼저 예산은 전혀 없었지만 문화원의 힘은 향토자료의 확보라 생각하며 지역의 문화유산을 비롯해 산신제, 도당제 등 마을의 전통 문화 등에 관한 조사를 구술 인터뷰 등과 같은 방법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진행해 나갔다. 또한 문화원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1년에 2~3개 동씩 학술조사를 시작하였고, 한국문화원연합회, 서울시문화원연합회의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것 외에 시야를 보다 넓혀 서울특별시, 국가보훈처,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양한 기관의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진행했다. 이로써 전보다 주체적으로 지역에 더 특화된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할 수 있었고 자체 예산의 부담도 최소화하였다. 그 결과 2013년 한 해 동안 공모사업 16개가 선정되면서 비상근 인력 한 명을 더 충원할 수 있었다. 이러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자 그제야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 관련 기관, 단체들이 우리 문화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인력의 증원이나 원천콘텐츠의 확보가 전부일 수는 없었다. 수집·발굴한 원천 콘텐츠를 지역의 기관, 단체, 문화예술인 들과 창조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문화예술콘텐츠로 발전시켜 재생산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지방문화원의 사업 전개 프로세스 확립

전문인력의 보강은 성북문화원 사업 전개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기존 사무국 구성을 개편하여 문화예술교육사업팀과 향토사연구팀으로 구성하여 '자료발굴(원천자료 수집 및 연구)→아카이빙(스토리북 제작, 대중서 발간)→지역전문가양성(시민강좌, 해설사 양성, 예술인 교육)→문화예술교육사업(연극, 뮤지컬제작, 축제기획, 문화콘텐츠

제작)'으로 사업전개 프로세스를 구축해나갔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먼저 전문인력들이 현장 답사 및 기록물·문헌자료 확보 등 지역 조사를 진행하고, 이와 관련된 원천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나면 이를 바탕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하거나, 아카이빙 작업을 통한 자료집 또는 스토리북 등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학술회의를 통해 도출되거나 아카이빙 작업을 통해 모인 자료들을 기반으로 시민강좌를 진행하였고, 또한 직접 주민들과 함께 탐방을 진행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각종 자료들을 활용하여 연극·뮤지컬 등의 공연콘텐츠를 재생산하여, 이를 활용한 다양한 축제와 문화제를 주최하였다.

만해 한용운 선생과 심우장과 관련해 펼친 일련의 사업들이 좋은 예이다. 성북문화원은 우선 만해 한용운과 심우장에 관련된 흩어진 자료들을 모으고 연구했고, 이를 토대로 '만해와 심우장 시대(1933~1944)'란 주제 아래 학술회의를 개최,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해 한용운의 심우장 시대' 시민강좌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문해설사들을 교육해가며 해설이 곁들여진 심우장 탐방을 진행하였다. 더 나아가 지역연고 예술단체 '극단 더늠'과 함께 창작뮤지컬 '심우'를 기획·제작하여 역사적 장소인 심우장에서 직접 공연하여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 다른 예로 정릉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아내 이은숙 여사와 관계된 콘텐츠 생산을 들 수 있다. 지난 2013년 성북문화원은 정릉 지역 향토자료 조사 사업을 진행하면서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 이종철 선생(정릉동거주)과 직접 만나 인터뷰하여 그것을 채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토리북과 인터뷰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잊혀진 이름 이은숙 : 어느 아나키스트의 아내'라는 주제의 시민강좌를 진행하였고, 같은 이름의 창작뮤지컬을 역시 지역 연고 예술단체와 함께 기획·제작하여 주민들에게 선보인 바 있다.

'자료발굴과 아카이빙 → 지역전문가양성 → 문화예술교육사업'이라는 새로운, 어찌 보면 당연한 이와 같은 문화 사업 프로세스는 지역의 역사적 사실과 부합할 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이해와 공감에 바탕을 둔 창조적인 문화콘텐츠의 생산을 가능하게 했다. 그 결과 오늘날 범람하는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비역사적, 상업적 문화콘텐츠의 무분별한 생산과 제공을

막을 수 있게 되었고, 콘텐츠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함으로써 한층 탄탄한 사업 진행을 가능케 했다. 또한 이와 같은 프로세스는 요즈음 많이 주목하는 '원 소스 멀티 유즈(OSMU, One Source Multi Use)' 방식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소스나 콘텐츠로 다양한 유형의 결과물을 만들어내 공급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성북문화원이 새로이 확립한 사업 전개 방식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하나의 원천 자료를 응용하여 자료집 발간, 탐방로 확보, 문화콘텐츠 제작, 시민강좌 개설, 축제·문화제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문화 네트워크 구축과정



앞에서 설명한 문화사업들은 문화원 혼자서 외롭게 진행한 것이 아니다. 지역 내의 유관기관, 협회, 단체, 학교, 종교시설 등과 지속적인 업무 교류 및 협약을 통해 진행되었다. 이들 문화 주체들과 처음부터 원활한 교류를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점차 각자의 입장만 고수를 하는 것이 아닌 문화공동체의 일환으로 함께 기획하고 진행해야 함을 공통으로 인지해 나가면서 지역 문화 사업 수행을 보다 넓은 협치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성북문화원은 각 단체 및 기관 등의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였고, 지역문화의 플랫폼 구실을 수행하는 네트워크의 허브가 되려고 무척이나 노력했다. 먼저 지자체에 올바른 지역문화의 방향성을 제안하고 청사진을 그려나갔다. 예산과 인력을 먼저 요청하기보다는 올바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문화원을 적극 활용하라는 제안과 기획서들을 제출했다. 이에 합당한 예산과 각종 문화행사 및 문화기획에 문화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해 나가면서 지역의 문화 현안을 같이 고민하였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적대적 인식이 아닌 상호 협치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여러 차례 대화와 토론을 거쳐 차근차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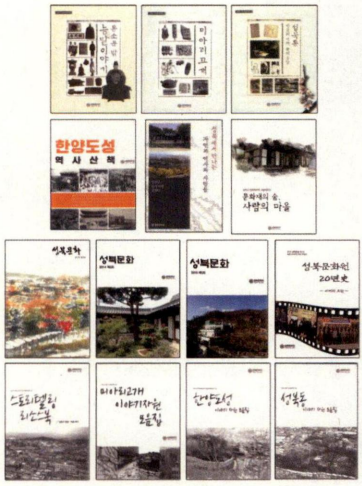
역할을 분담, 정립해 나갔다. 그 결과 문화원은 역사문화콘텐츠의 발굴 및 인문학적 학술 기반을 제공하고, 문화재단은 이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전개하기로 역할 구분을 하였다. 예를 들어 문화다양성 관련 학술회의 및 시민강좌 등을 공동주관하였고, 재단이 진행하는 문화사업에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역사적인 고증과 자문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러자 문화원과 문화재단에서 각자 공모에 선정된 사업들 또한 공유해가면서 협업하며 공동기획 및 공동 주관 행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서로의 신뢰감이 쌓이고 경쟁자가 아닌 지역문화 동반자라는 인식이 가능했기에 이루어낸 성과라 하겠다. 최근 들어 각 기초지자체마다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지방문화원의 지역 내 입지가 좁혀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협력적 역할 구분을 통해 상호 윈-윈하는 사례가 더 많아지길 희망한다.

지역 내 문화시설과의 협력 관계 구축도 중요한 성과이다. 성북문화원은 지난 5년간 지역 내 문화시설인 한국가구박물관, 우리옛돌박물관, 최순우옛집, 고려대박물관, 성신여대박물관 등의 문화시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 탐방, 문화가 있는 날, 지역축제 등의 행사를 함께 기획해 가며 진행하였다. 특히 교육청과 구청 교육청소년과와 연계하여 혁신교육의 일환인 역사리더십캠프, 역사동아리사업, 문화재청이 발주한 방문교육 사업을 통해 관내 초·중·고교에 직접 문화유산강좌 및 방과후 학교 사업을 수행하였다.

복지기관, 종교단체, 문화예술단체, 민간 영리단체와도 얼마든지 함께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았다. 우선 관내 복지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복지실무협의회에 문화원이 참여하여 지역아동센터, 노인회관, 복지시설 등에 문화복지실현을 위한 공동업무를 진행하였고, 종교시설인 정각사와 함께 청소년 여행프로그램의 일환인 '길위의메아리학교'사업을 주관해 나갔으며, 길상사·성북동성당·덕수교회 등과 같은 종교시설과 지역문화행사 및 축제에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갔다. 주민과 상인들에 대한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재의 시민사회에서는 지역 상인협회, 친환경음식업소와 협력하여 마을 동축제, 성북동야행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성북구의 국악협회·연극협회·사진가협회·미술협회 등과 교류하면서 공동으로 축제기획과 전시·공연을 기획하기에 이르렀다.

지역의 대학과도 교류 협력을 진행했다. 최근 대학 평가에서는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교류·협력이 중요한 평가 지표로 부상하고 있어 지역 내 기관들과의 교류가 점차 확대되는 형편이다. 성북문화원의 경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지역 내 국민대·한성대·동덕여대·성신여대·한예종 등과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의 문화시설 부족을 대학 시설로 대체하고, 전문인력의 부족 문제를 대학의 연구진들과 함께 풀어나갔다. 또한 대학생들의 취업문제와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근로장학생제도를 적극 활용하였다. 지역의 대학 학생지원팀과 교류하면서 대학생 인력을 지원 받음으로써 별도의 자체예산 없이 인력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밖에 지역의 협동조합, 시민단체, 사회적기업과 지역의 문화자원을 제공하고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도모했다. 특히 성북공유원탁회의라고 하는 지역 문화주체들간의 정기 모임에 문화원이 적극 참여하여 지역예술인과 정기적인 문화소통을 지속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축제 및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였다.
몇 년 사이 성북구는 시민활동가 양성사업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각 동마다 마을코디네이터를 두고 마을계획단을 꾸렸다. 각 동별로

마을의 현안과, 애로사항, 동 축제 등을 시민들이 토론을 거쳐 직접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여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재개발 문제, 낙후된 시설 개선, 주민 커뮤니티의 조직 등 획기적인 사업들이 마을 곳곳에서 펼쳐지게 되었다. 문화원도 이 과정에서 각 마을의 정체성과 문화사업의 자문역할을 수행하면서 네트워크 확대를 이루었다. 마을방송에도 적극 참여하여 '성북학개론'이라는 팟캐스트 방송도 진행하게 되었다. 최근 마을 단위의 커뮤니티 조직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인데 이 과정에서 마을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활발한 재조명과 마을 주민 간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원은 이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기존의 역량을 강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예술 단체 및 문화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민, 상인들과 협치를 이루어내 극대화한 작업은 문화재청 발주사업인 '문화재 야행'에 '성북동 야행'이 선정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광고홍보마케팅, 음악감독, 미술감독, 공연감독으로 구성하여 성북동야행 민간사무국을 만들어 함께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전문기획업체를 통하지 않고 지역의 문화주체들이 힘을 모아 축제를 진행하였다. 특히 마을계획단, 상인협회, 국악·미술·연극·사진가협회·공유원탁회원·동덕여대·한성대 학생 등으로 축제운영팀을 구성하여 지역의 역사·인물·문화콘텐츠를 근간으로 뮤지컬, 연극, 무용, 음악 공연 등을 각 문화시설에서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다양한 계층의 협치를 이루기 위한 하나된 축제 및 문화행사를 기획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문화원 내부의 역량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직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었을 때 지자체의 계획 부분부터 참여가 가능하고 사회복지기관 및 문화기관과 협회 등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원천콘텐츠의 확보와 이에 기반을 둔 다양한 문화사업을 기획하는 일이라 생각된다. 지금 말한 부분들을 모든 문화원에 일괄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앞에 놓인 문제의 실마리를 푸는 중요한 단초는 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및 모든 문화원들의 건투를 빈다.

활동가 양성사업의 필요성과 방향

– 서울문화재단 〈거버넌스25〉사업을 중심으로

진형우 (거버넌스25 운영감독)

문화예술 저변확대 정책에 무언가 빠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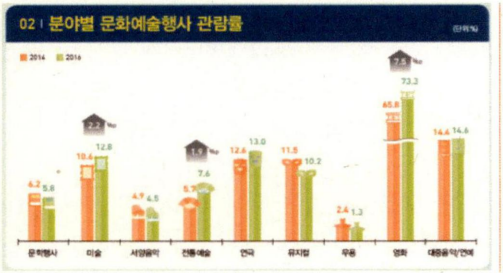
1988년부터 시작된 〈문화향수 실태조사〉는 2016년 조사결과를 발표한 현재시점까지 28년간의 조사데이터를 축적하였다. 그 중 〈문화예술관람률〉항목에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추이를 비교하고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두 가지의 흥미로운 관점이 엿보인다. 그 중 첫 번째는 2003년 이후 점진적으로 문화향수를 체험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2014년에 비해 7%의 큰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반면에 두 번째는 약간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이미 짐작하겠지만, 영화관람의 증대가 결정적 요소라는 점이다. 물론, 다른 분야의 예술행사도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소폭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연평균 관람횟수도 영화는 3.7편이나 미술전시 0.3·전통예술 0.1 정도다. 미술전시와 전통예술부문은 〈2016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 관람률 증대에 일조한 부문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미약한 상황임을

반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게다가 분야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현재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광역시도에 집중된 관람현황, 주말에 집중된 향수활동, 매스미디어 중심 문화향수, 알찬 내용을 요구하는 학교 외 문화예술교육 현장, 점차 확대되는 문화동호회의 성장, 문화예술관람 비용의 부담감 등으로 표현된 문화예술부문의 현 상황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다.

한편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에서는 "문화융성 체감 확산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예산편성 방향으로 삼고 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화의 일상화측면에서 "문화가 있는 날"사업, 인문정신문화 확산을 위해 "도서관"중심의 사업, 예술인 창작 역량강화 및 기반조성으로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및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등으로 문화예술 부문의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망라하고 있다.

그러나 무언가 주요한 내용이 빠진 것 같다. 문화예술의 저변확대가 필요함이 다양한 텍스트로 표현되는데, 정작 정책내용은 이를 담지 못하는 것 같다. 예술의 언어를 대중의 언어로 통역하는 기획자들의 다양한 노력을 발산시킬 내용도 없고, 대중들이 예술을 소비하고 흡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예술은 대중으로부터 지지받고 확산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창작지원을 하니 예술가들은 알아서 생존하라는 흐름으로도 읽힌다. 대중으로부터 지지와 확산을 이끌어 내는 것이 빠져있고, 향수에 대한 실질이 빠져있다.

매개자 역할 : 여기서 "중간"을 이야기 하다.

흔히 매개자는 서로 다른 두 개를 잘 연결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와 비슷하게 퍼실리테이터는 어떤 일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끔 촉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이 둘의 공통점은 병렬적인 관계의 중간이든, 사업위계관계의 중간이든 "중간"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특히 요즘은 "중간지원조직"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다양한 작용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나 〈NPO센터〉가 좋은 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기업〉또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음을 감안해 보면 "중간"의 필요성은 이미 사회적으로 상당부분 인정되고 있고, 역할도 세분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간"의 역할은 상당히 피곤하다. 상호 관계를 깊숙하게 알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일이 틀어질 때 비난받기 일쑤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무척작고, 어떤 때는 추진력마저 생산해 주어야하는 상황도 부지기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이 필요한 것은 〈연결성과 원활성〉을 이끌어 내야하는 환경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인체의 〈유연성〉은 뼈 마디를 구성하는 연골이 담당한다. 연골이 없다면 온 몸의 기관들은 결코 작동할 수 없다. 연골이 있기에 우리 신체는 원활하게 작동된다. 즉, "중간"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유연성을 달리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이런 역할이 매개자이며 퍼실리테이터라고 할 수 있다.

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지원단의 〈거버넌스25〉 사업은 사실 매우 딱딱하고 어려운 사업이다. 각 자치구를 기반으로 생활예술동아리와 활동공간을 찾아 연결하고 나아가 생활문화지원조례를 통해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기에 형식과 틀에 매우 집중한 사업이다. 눈 씻고 찾아봐도 〈유연성〉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생활예술동아리들이 존재함을 온갖 서류로 남기고, 다양한 공간이 도처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도 모자라 지역축제로 나오게 하며 모두 한마디씩 하게 만들어 지원조례를 만드는 일련의 과정은 결코 유연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거버넌스25〉사업에서도 유연함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런 존재가 바로 FA(facilitating Artist)다. 선정과정의 방법상 자치구FA(자치구선정), 재단FA(서울문화재단 선정)로 편의상 구분하고 있으나 역할은 거의 같다. 매개자·촉진자로서 역할개념을 도출했고, 현재 18개 자치구에서 각자의 역할을 깊이 있는 고민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사실 이들의 역할은 매우 광범위하다. 사람들을 만나서 몇몇 서류를 작성하면 되는 일로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다양한 이들의 수많은 생각들을 너른 마음으로 듣고 이해하고 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가족 간 대화에서도 유연함을 펼치기 어려운데 타인의 이야기를 내면에서 끌어 올리는 일은 결코 쉽다고 말할 수 없음이다.



들어주는 사람으로서 FA : 수다네트워크를 향하여

몇 일전 어느 FA는 활동 중의 어려움을 내게 토로하였다. 꽤 강한 어조로 "공간을 내놓으라"며 항의성의 말문을 열었다. 몇몇 동아리를 찾아 만나보니 그들만의 활동공간이 없다는 상황이 문제이고, 그들에게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활예술 네트워크 형성은 불가하다는 이야기였다. 심지어는 활동공간을 내놓지 못할 것이면서 왜 FA활동을 진행했냐는 볼멘소리도 어디선가 삐져나왔다. 생활예술의 활성화라는

추상적인 비전을 다시금 그려가며 설명해보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내놓을 것이 없다는 뜻으로 알겠다"라는 대답이었다. 안타깝고 화가 나는 순간이었다.

생활예술의 활성화를 말하면서 제반 환경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 안타까웠고, 이를 알면서도 진행해야 하는 모든 처지에 화날 지경이었다. 아마도 생활예술의 네트워크에 동참하자라는 말을 건네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들려오는 대답도 곱진 않았을 것이다. 누구라도 동아리 문제의 해결방법을 당장에라도 내밀고 싶었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 속상함은 꽤 컸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 "경청"의 중요성이다. 마셜 B.로젠버그는 저서 〈비폭력 대화〉에서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고, 공감으로 듣고, 강요보다는 부탁을 통해서 진행하며 원인과 자극을 구별하는 일"을 대화와 소통을 이어가는 중요한 방법(NVC: Nonviolent Communication)으로 제안하고 있다. 즉, "듣는"일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NVC방법에서는 권위주의적 사회모습에서 소통은 필요치 않아졌고, 때문에 인간관계보다는 옳고 그름을 따지고, 다른 것을 배척하는 현 사회모습을 띄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에 소통하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를 "경청"으로 두고 있다. 이는 FA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된다. FA는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결하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사람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재단FA교육에서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과 다양한 이야기를 모으는 이유에 대하여

많은 담론을 나눈 바가 있다. 나아가 FA역량을 세부적으로 나누고 설명하였지만 본질은 들어주는 사람으로서 역할이었다. "경청"은 그만큼 FA에게 중요한 요소이며, 거버넌스25의 주요사안임은 분명하다.

경청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인다. 얼마간의 시간이 쌓이면서 함께 이야기도 쌓인다. 일종의 수다네크워크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야기가 모여야 하고, 이야기가 모이려면 일단 수다가 쌓여야 한다. 잡스러운 말이라도 좋다. 상호신뢰란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일도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또한 부질없어 보이는) 접점을 무수하게 형성할 때 신뢰가 움틀 수 있다. 이런 신뢰의 토대에서 생활예술네트워크가 작동해야 소위 〈건강한 네트워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수다〉가 〈건강한 네트워크〉로 이행한다니 이 얼마나 대단하고 〈생활적〉인가? 그 정중앙에 FA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문화예술 저변의 확장? : 듣고 이야기하며 네트워크로



이 글의 주제인 〈활동가 양성사업〉의 필요성에서 〈활동가〉라는 말은 짐짓 목적의식적인 집단을 연상케 한다. 문화예술분야의 활동가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겠지만, 이들과 함께하면 왠지 거대한 의무가 엄습해올 것 같다. 특히 생활예술동아리 참여하는 사람이 활동가와 지속적인 만남을 약속하기란 부담스럽지 않을까? 조금 다르게 〈중간자〉와 〈생활적〉이라는 개념을 드러내고, 단기적 효과보다는 다소 긴 호흡을 염두 하면 훨씬 좋은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거버넌스25사업에서도 무척 딱딱하고 목적의식적인 역할로 설명되고 있다. 인적자원FA·공간자원FA·기획홍보FA의 세 역할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는 추후 FA활동이 지역사회에 다소 확대되었을 때를 염두한 형식적 포석이다. 현재는 〈만나고 듣는 일〉에 모두가 주력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향후 각 자치구 내 문화자원이 다양하게 발굴되는 시점에 이르면, 본래 설계된 각 주력분야에 집중하여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나, 역시 이때도 〈중간자, 매개자, 조력자〉로서 역할이 세심하게 배려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문화예술정책의 핵심은 예술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문예생태계를 중요시한다. 또한 콘텐츠에 집중하고 창작인프라에 집중하고 있다. 허나 저변확대와 삶의 질에 관한 정책논의 속에는 〈선 경제성장, 후 문화향수〉라는 의미가 은연중 깔려있음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오히려 경제논리의 하부구조로서 문화의 입지를 굳히고, 나아가 문화적 수준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문화예술의 근간마저 해칠 수 있다.

때문인지, 현재 향유되고 있는 방식을 점검하고, 다양한 생활 속 경로로 전달되는 방안을 구체화 하는 게 중요해졌다. 생활예술의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하는 방식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문화예술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문화예술의 발전은 예술향수의 크기와 연동되고, 매개자들의 수다네트워크의 크기와 비례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생활예술의 네트워크에서 생산된 논의가 여러 테이블 위에서 이야기될 수 있을 때, 비로소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본격적으로 논할 수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일상의 언어로 〈생활〉과 〈예술〉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형성될 수 있는 토양이 필요하다. 이는 문화예술생태계에서 중요한 지점이다. 그 중요 지점에 우리 FA(매개자, 중간자, 조력자)가 있다. 앞으로 이들 없이는 작은 확대조차 꿈꿀 수 없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듣고 이야기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온갖 무게중심이 이들을 향해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야기했던 항의성 말을 던진 FA와의 결말을 이야기 해야겠다.

사실 난 그 FA에게 뾰족한 해법을 드리지 못했다. 그런 해법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네트워크는 참여의 대상이지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난 그저 "사람들로 인해 마음 다치지 말고 활동해 달라"고 당부 아닌 당부만을 전하였을 뿐이다. 이런 나의 아쉽고 식어빠진 말을 뒤로하고 가는 FA의 뒷모습에 숙연함마저 느껴왔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이 무엇인지는 서로가 알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분명히 우리FA들은 어디선가 〈중간자〉〈매개자〉로서 생활 속 예술을 잇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경청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렇기에 분명히 〈튼튼한 생활문화 네트워크〉는 멀지 않은 곳에 있으리라 의심하지 않는다.

〈참고자료:생활문화지원단 거버넌스25-FA 역할·활동·평가, 교육자료 중 발췌〉

※ FA의 역할·활동·평가의 대부분을 소통과 조율능력으로 중요시하고 교육을 구성하였음.

핵심과제	역할	활동	평가
인적자원관리 -생활예술의 조직가	FA는 지역 내 동아리를 조사·발굴한다.	문화센터, 주민센터 등 전화 및 방문 후 조사한다.	조사정리, 분석 인터뷰, 청취 문서작성
		동아리 활동지 방문 및 시민과의 인터뷰를 통한 면대면 조사한다.	
		DB 구축을 위한 기본공통자료 작성한다.	
	FA는 동아리가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식을 촉진한다.	동아리의 활동 및 운영에 대한 이야기 청취한다.	공감. 조직화
		자생적인 동아리 운영과 성장을 위한 조직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정 제시한다.	
	FA는 동아리와 자치구 네트워크를 매개한다.	서로 간의 소통을 위한 추진체와 만남 매개한다.	소통 및 협의력
	FA는 동아리 간의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자생적인 소넷 활동을 촉진한다.	동아리 간 네트워킹 모임 및 그룹별 조직형성을 위한 비/정기적인 모임 및 이벤트 구성한다.	소통 및 조직력
	FA는 지역의 자발적인 리더를 발굴한다.	동아리 활동자 중 자발적인 리더를 찾아 지역 생활문화 인재풀로 확보한다. (소넷짱 추천 등)	인재발굴 능력
	FA는 소넷 간의 네트워킹을 통하여 그루넷을 구성·운영한다.	소넷 간의 갈등을 조율하며 지속적인 유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성한다.	갈등조율 및 소통능력
	FA는 그루넷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돕는다.	소넷 간 지속적인 유대를 통해 소넷 간 새로운 활동, 모임이 구성되도록 지원한다.	조직운영 및 기획능력

핵심과제	역할	활동	평가
공간자원관리 –공간중심 네트워크 프로모터	FA는 기초적인 생활예술 시민의 연결자이다.	역 내 생활문화의 기초적인 공간 자원과 정보를 연결한다	지발굴 및 매개 능력
	FA는 공간 활성화와 공간발전을 촉진한다.	FA는 지역의 생활문화공간이나 유휴공간들의 정보를 찾는다.	정보수집
		FA는 공간에 대한 분석치를 만든다.	분석능력
		FA는 찾은 정보들은 실제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하고 관계자를 인터뷰 한다.	공감능력, 소통능력, 인터뷰,
		지역 내 다양한 생활예술활동공간을 발굴하고, 그루터 인증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안함으로써 활동을 촉진한다.	기획능력,
		전문·시민FA 등이 보유한 공간이 다양한 생활예술 담론 공간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한다.	소통능력,
	FA는 동네의 생활문화공간을 찾아 서로 연결한다.	FA는 공간의 활용정도를 분석하여 생활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	활용계획
		FA는 발굴된 지역의 동아리와 공간을 연결한다.	분석, 활용계획
		FA는 공간과 공간(공간운영자)을 연결하여 필요한 부분의 서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게 장을 만든다.	네트워킹
		FA는 생활문화 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도록 홍보한다.	홍보
		FA는 적합한 공간은 생활문화지원센터로 가입할 수 있도록 이끈다.	주민협력

핵심과제	역할	활동	평가
지역콘텐츠 -생활예술의 스토리텔러	FA는 동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엮는다.	FA는 지역의 문화, 역사, 주민 등의 이야기 소스를 수집한다.	정보수집
		동아리의 활동 및 운영에 대한 이야기 청취한다.	
		FA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지역의 터줏대감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다.	인터뷰
		FA는 생활문화 자료가 축적되 있는 지역의 단체, 기관을 찾아 자료를 찾는다.	인터뷰
		FA는 지역의 의제와 맞는 재미있는 주제를 정해, 이야기를 정리한다.	정리, 분석, 아이디어
		FA는 이야기를 가시화 할 수 있는 콘텐츠로 제작한다.	컨텐츠 기획, 구현
	FA는 동네의 이야기를 소문낸다.	FA의 활동과정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홍보한다.	온, 오프라인 홍보
		FA는 주민들에게 생활문화를 전파한다.	의사소통
		FA는 만들어진 컨텐츠를 주민들에게 배포한다.	의사소통
		FA는 동아리, 주민과의 만남에 참석한다.	의사소통
문화지도/ 지역축제 -생활예술의 기획자	FA는 지역내 문화자원을 연결한다	FA는 제작된 콘텐츠를 지역의 행사와 연계시킨다.	컨텐츠 기획
		FA는 지역내 다양한 문화자원을 연결하는 문화지도를 제작할 수 있다	기획능력
		FA는 축제 등을 통해 지역내 문화자원을 결집시킬 수 있다.	소통능력
		FA는 축제 등을 통해 인적·공간 자원을 발굴할 수 있다	기획능력

핵심과제	역할	활동	평가
문화지도/ 지역축제 -생활예술의 기획자	FA는 다양한 생활예술활동이 기획하고 홍보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지원한다	FA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지역의 터줏대감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다.	인터뷰
		FA는 축제(문화지도)활동을 통해서 지역별 생활예술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다.	홍보능력
거버넌스 -협력프로세스 진행자	FA는 시민, 동아리, 단체, 공공조직(원)을 연결한다.	FA는 동아리들의 협의체 구성과정에 도움을 준다	동아리활동 경험, 조언
		FA는 건전한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노하우와 정보를 준다	동아리활동 경험, 조언
		FA는 체계적으로 지역의 생활문화 동아리 정보를 여러 주체들에게 공유한다.	홍보. 의사소통
		FA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 소넷, 권역 그루넷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동아리활동 경험, 조언
	FA는 함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조력한다.	FA는 시민 동아리, 단체, 공무원이 함께 의견을 지시할 수 있는 자리와 방식을 만드는 데 협조한다.	협치
		FA는 함께 만든 의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협치

마을 큐레이터의 탄생을 위하여

고영직 (문학평론가)

1년 전 어느 칼럼에서 '비빌리힐스'라는 신조어를 작명한 바 있다. 비빌 언덕이라는 우리말에 마을[里]과 언덕(Hills)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외래어를 변주해 '비빌里Hills'라고 변주한 것이다. 마을에는 비빌 언덕이 있다는 뜻도 되고, 마을이 비빌 언덕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자 했다. 대한민국이라는 삶터가 비빌 언덕이 되어야 한다는 나의 믿음을 그런 신조어로 표현하고자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삶터가 과연 비빌 언덕인가.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답변은 여전히 회의적이다. 우리 사는 삶터에는 놀이가 없고, 관계가 없으며, 이야기(서사) 또한 부재하다는 것이 잠정적인 나의 결론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각자도생을 꿈꾸고 살아가지만, 저마다 각자고생하며 겨우 연명하듯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사람들 사이에 놀이가 살아 있고, 관계가 살아 있으며, 이야기가 살아 있는 삶터의 복원이 필요하다. 우리 사는 삶터에 놀이와 관계와 이야기를 회복할 수 있는 문화기획자들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7년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시민활동가양성사업을 추진하며 '마을 큐레이터'라는 용어를 제시한 것도 그런 이유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으리라.

마을 큐레이터: 의미 생산자, 이야기 생산자

어쩌면 마을 큐레이터라는 말은 커넥터(connector)로서의 문화기획자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전기가 통하도록 전기 기구와 전선 또는 전선과 전선을 서로 연결하여 주는 접속 기구인 커넥터의 기능처럼, 마을에서 이것과 저것을 서로 연결하는 문화기획자(활동가)로서의 마을 큐레이터를 양성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커넥터로서의 마을 큐레이터는 의미를 생산하고 이야기를 생산하는 마을문화 기획자(활동가)를 의미하는 셈이다.
이러한 시민활동가양성사업은 충분히 그 의미가 있고, 당연히 필요하다.

시민활동가양성사업에는 〈마을 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를 비롯해 〈문화체육자원봉사활성화 사업 내 커뮤니티활동가양성과정〉과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와 협력사업으로 진행되는 〈향토문화대학〉 프로그램이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주민들이 '끈끈한' 관계의 발효(醱酵) 과정을 통해 참여 지방문화원들과 '단단한' 협력의 구조로 전환할 수 있다면, 지방문화원으로서도 사업의 내실을 꾀하는 동시에 활동의 외연을 확장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2010년대 이후 문화정책의 기조가 문화의 민주화에서 문화민주주의로 근본적으로 전환되었고,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으로 생활문화정책이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는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전국적인 망(網)을 구축하고 있는 문화원연합회 차원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변화하는 문화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참여 주체들을 양성하는 의미가 있다. 최근의 각종 정책사업의 목표가 갈수록 지역문화 활성화라는 하나의 큰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다시 말해 지역의 입장에서는 생활문화정책이든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이든 문화예술교육이든 마을공동체 활성화든 간에, 결국 중요한 것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격(格)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삶터)문화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정책사업의 목표를 지역 상황에 맞게 조율하고 구현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지방문화원을 비롯해 지역의 문화예술(인)단체 입장에서는 개별 정책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지역 전체의 관점에서 지역 이슈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이 더없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 개별 정책사업에 참여하면 할수록 지역에 대한 통합적 사고와 역할을 고민하는 대신에, 되레 지역을 지극히 파편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게 된다고 확언할 수 있다.

왜 그러한가. 규칙들의 유토피아(The Utopia of Rules)를 지상에 구현하려는 관료제 사회의 칸막이 행정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문제에 관한 한, 지역이 주도권을 갖고 실제 지역의 필요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다양한 형태의 정책사업들을 지역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참여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18세기 영국 시인 알렉산터 포프(1688-1744)가 "만사에 대해 그 고장의 신령에게 물어보라(Consult the

genius of the place in all)"라고 한 의미 또한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은 지역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며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자는 언명으로 보아야 옳다.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는 자발적 문화자치 공동체의 형성과 강화가 정책사업의 새로운 화두라고 할 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간명한 명제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사업의 기조 변화에 대해 개별 지방문화원 차원에서 일일이 대응하는 일은 만만치 않다. 지역 분권과 지역 민주주의-문화분권과 문화민주주의-지역문화와 생활문화, 이러한 정책적 가치 사슬들을 지방문화원 스스로 고민하고 풀어가는 것은 혼자 해결할 수 없다. 시·도 문화원연합회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매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무엇이 좋은 매개자인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해 '사라지는 매개자'로서 자기 역할을 규정하고 한계 지으려는 마음가짐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주요 문화기반시설로서 제 역할을 수행해온 것은 분명하지만, 지역 사회에서 각 지방문화원이 수평적인 협력의 경험들을 충분히 축적해왔다고 간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원장 1명-사무국장 1명-직원 1~2명으로 구성된 지방문화원의 경우 인력 부족 문제는 항상적인 문제였다. 하지만 지역 사회에서 주민들을 비롯해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들에 협력의 손길을 먼저 내미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2014년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조사한 연구보고서 《지방문화원 실태조사》(코뮤니타스, 2014.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방문화원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인력은 '평균 3.0명'이고, 한 해 동안 1개 지방문화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숫자는 '평균 38.9개'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문화원이 추진하는 문화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지역 이슈들을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주민 및 문화예술인들과의 파트너십 형성은 중요하다. 그런 수평적 협력을 위한 다양한 실험들을 고민하고 실제적인 협력의 경험들을 축적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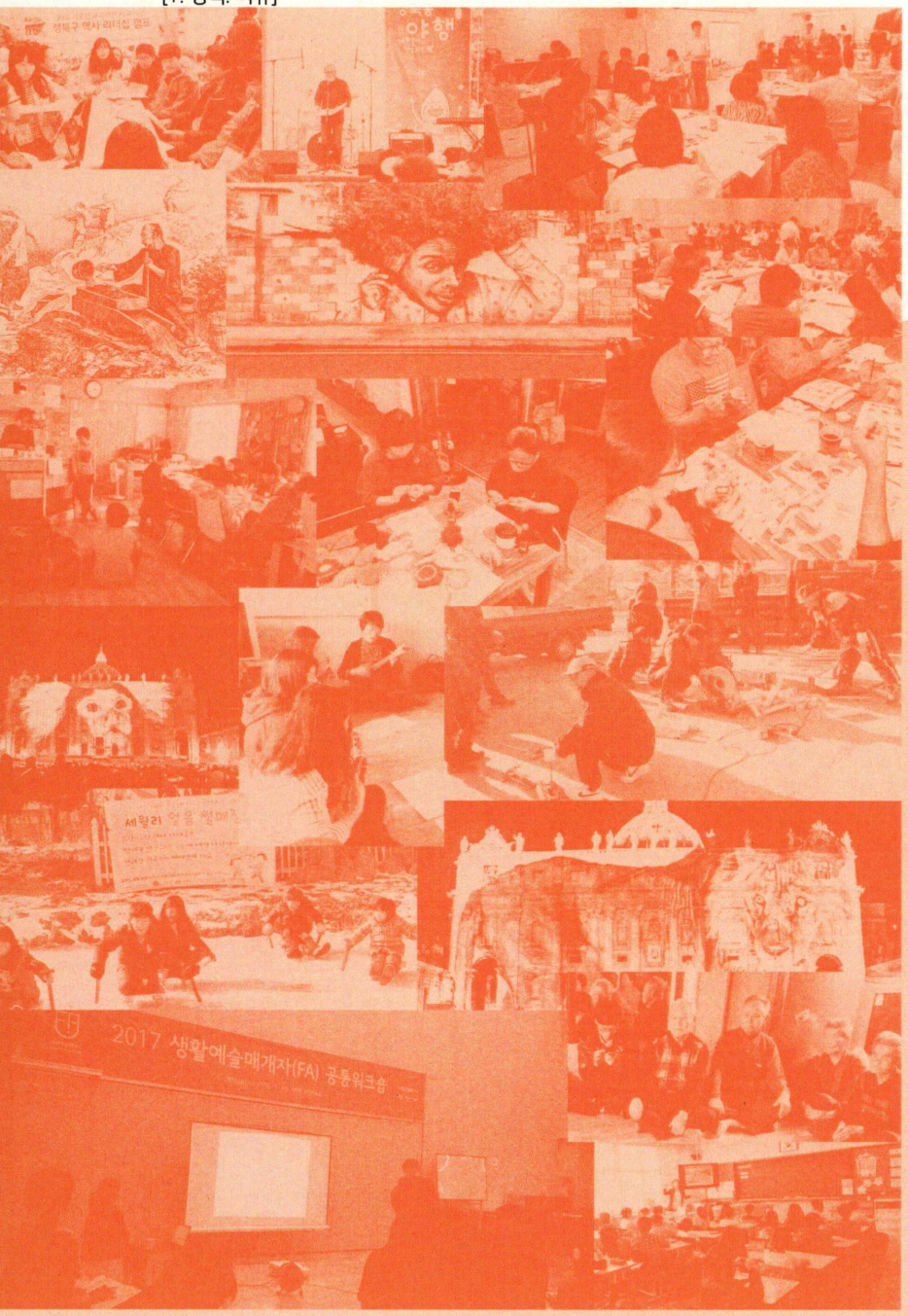
우리 안의 '미소니즘'을 넘어

현재 마을 큐레이터 사업은 경기도 2개 권역(의왕/하남)에서

생활문화동아리 육성지원사업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마을 큐레이터는 "지역의 현재(일상)를 조사하여 지역 자원(사람, 사물, 장소, 분위기, 커뮤니티 등)을 발견"하고, "발견한 지역자원을 새롭게 분류, 조합하여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특징을 만들고,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역사적·문화적·사회적 의미를 담은 콘텐츠 제작"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지역의 가치를 발견하고, 지역에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견자(見者)로서의 로컬 문화기획자라고 할 수 있다. 지방문화원과 지역 커뮤니티 연결망을 구성해 지역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겠다는 사업 의도를 엿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문제는 낯설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는 미소니즘(Misoneism)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이다. 정치적/문화적 차원의 보수주의를 의미하는 미소니즘은 기존의 상투적 관행들로부터 좀처럼 벗어나지 않으며, 기존의 관성을 그대로 묵수(墨守)하려는 견고한 마음의 습관을 의미한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미리 도달해야 할 어떤 목표를 상정해 놓고, 거기에 모든 프로세스를 짜맞추려는 방식으로는 풀 수 없다. '작고 시시한' 지역 이슈를 발굴해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며 서로의 주파수를 맞추어가며, 함께 해석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동시에 또래압력(peer pressure)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구현해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왜 작고 시시한 프로젝트인가. 그것은 작고 시시한 프로젝트에는 결코 작고 시시하지 않은 가치들이 내장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작은 것에서 큰 흐름을 찾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것은 퍽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작고 시시한 프로젝트를 같이 수행하며, 수평적 협력의 문화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문턱과 빗장 또한 풀리게 된다. 그런 협력의 의례를 구현하려는 과정들 속에서 지방문화원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문화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또한 정립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 점에서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생활문화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 문화체육자원봉사사업의 방향을 주민의 문화생활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실제 활동할 수 있는 매개자(문화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의의가 있다. 시흥, 화성, 안성, 의정부문화원과 진행하는 커뮤니티활동가 양성과정을 통해 참여

문화원들이 주민들의 활동 거점이 되고, 자원봉사자 간 네트워크를 제대로 구축한다면,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직면한 사회문화적 도전과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화적 접근의 한 형식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문화체육자원봉사라는 정부 주도의 '사업'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누가 시켜서 하는 자원봉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자원봉사를 하지 않을 권리 또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경기학연구센터와 협력사업으로 진행되는 경기향토대학의 경우 향토(鄕土)라는 어감이 주는 정체(停滯)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정체되지 않는 정체성을 어떻게 응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연구자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전환하느냐가 관건이다. 길 위의 학교를 의미하는 로드스꼴라 형식의 과정설계를 하고 진행하면 어떨까. 자기 자신과 지역에 대해 부정을 통한 혁신을 경험할 수 있는 과정설계는 퍽 중요하다.

2017년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추진하는 시민활동가양성사업은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을 함께 부르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이 한 사람의 시민으로 형질전환을 하게 되고, 한 사람의 로컬 커넥터로서 활동한다는 것은 문화적 삶이란 무엇이고, 문화적 접근이란 무엇인가를 체득해가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적 삶과 문화적 접근이야말로 지금·여기 우리가 직면한 여러 형태의 사회문화적 문제들에 가장 적절히 개입(engaged)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확언할 수 있다. 문화를 단순히 소비하고 생산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아직도 우리 삶터가 비빌리힐스가 되었으면 한다. 어쩌면 당신도 그러할 것이다. 마을 큐레이터를 비롯해 시민활동가들의 즐거운 분투를 기대한다.


성북구 역사 리더십 캠프
야행
세탁리
2017 생활예술매개자(FA) 공통워크숍

이천문화원 '시민기록자' 양성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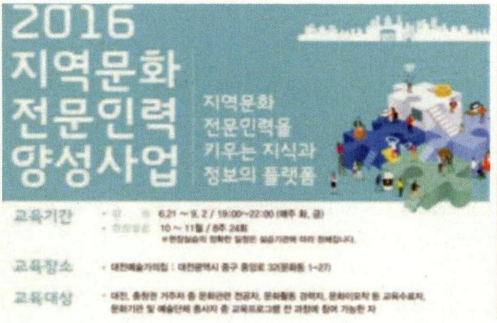
이동준 (이천문화원 사무국장)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 그 이후 우리는 무얼 했나?

2013년 12월에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세 가지다. 지역문화와 생활문화, 그리고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이다. '지역문화'란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일컫는다. 여기서 지역이란 단순히 행정구역이나 지리적, 공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성과 공동체성을 토대로 한 개념이다. 지역의 관점에서 문화를 주체적으로 바라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행하는 활동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지역문화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역문화유산은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자산을 뜻하며, 지역문화예술은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인이 행하는 유형·무형의 활동과 예술 작품을 뜻한다. 그럼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무얼 말하는가? 지역문화는 무엇보다도 한 지역에서 역사적 공동경험을 통해 형성된 동질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문화에는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복합적으로 지역과 문화의 화학작용이 일어나야 한다.

지역문화 - 문화원은 지역문화의 진흥에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가?

그동안 우리는 '문화'하면 문화예술이나 문화재만을 떠올렸다. 그래서 '문화예술'하면 그쪽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고 소수의 예술가들이나 전문집단을 위주로 하는 활동을 문화예술이라고 생각했다. '전통문화'하면 문화재 발굴과 보존이 전부이고 박물관, 미술관은 이를 전시하거나 재현하는 것이 주된 일이라고 믿어왔다. 그래서 전통문화는 과거의 것에 머물러 현재와 소통하기가 불가능했다.



또 예술 활동은 예술인들만의 리그에 머물러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지역문화진흥법을 통해 '지역문화'와 '생활문화'가 등장했다. 이런 개념은 사실 이천에는 매우 낯설다. 문화가 '지역'이라는 공간과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그리고 지역주민의 일상적 생활 속에 피와 살을 가진 구체적인 모습을 하고 나타나야만 비로소 '지역문화'가 뿌리내리고 '생활문화'가 꽃피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천에 아직 이렇다 할 '지역문화'도 형성되지 않았고 지역주민도 진정한 '생활문화'를 향유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면 지금 지역의 상황은 어떤가? 지역의 예술단체들은 예술인들만의 문예활동과 창작에만 몰입해서 정작 그 지역의 예술인으로, 그리고 지역주민 속에서 활동하는 일들은 소홀히 해왔던 건 아닐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르면 '지방문화원'은 무엇보다도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문화원은 지역의 문화를 세계화된 시각에서 바라보고 새롭게 가치를 창출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좁은 의미의 문화 영역에 갇혀서 그 지방의 향토문화만을 자신의 영역으로 고수해온 건 아닐까? 기초지방자치단체의'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경기도에도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12군데나 된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지역문화재단은 아직 독자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보다는 다른 문화단체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행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종속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즘 광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지역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문화원은 잠잠하기만 하다.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지역문화 대신 향토문화에 대한 미련과 향수에 아직도 젖어있는 것은 아닐까?

생활문화 – 주민의 일상적 삶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라!



지역문화와 함께 등장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바로'생활문화'다. 생활문화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일상적으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오랜 세월동안 문화는 특권계급만이 누려왔고 그래서 시민이 감히 누려볼 수 없었던 그들만의 전유물이었다. 그런데 그 문화를 이제 시민들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예술은 예술가의 전유물이라는 생각도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문화가 공급자, 예술가 중심에서 이제는 주민 중심으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생활문화란 과거 특권층이 남겨놓은 이른 바 '기름진 삶의 양식'을 누리는 단계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 그들 자신의 삶의 방식과 삶의 기술을 생활 속에 양식화하는 과정이 과제로 남는다. 수동적으로 소비되는 문화가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꿈꾸고 상상하고 끊임없이 시도해보는 과정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며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해야 한다. 생활문화의 지향점은 분명하다. 일반대중이 일상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게 하는 것, 자기만의 호흡과 자기만의 속도로 길을 가게 하는 것이다. 창의성과 상상력은 수많은 외부적 자극과 도전에 직면해야 일어날 수 있다. 그들만의 독특한 대응방식이 그 지역의 문화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생활문화는 자발성, 일상성에 근거해야 한다. 생활문화는 지역이라는 토대 위에서 주민이 그들의 삶과 문화를 새롭게 해석하고 가치를 부여하면서 스스로 창출해 나가야 하는 작업이다. 삶을 바라보는 태도, 인간다운 삶의 질, 삶의 방식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바꾸어 가는 것, 그게 바로 문화인 것이다. 과거 권력층이 누렸던 호사스런 문화를 우리도

한번 누려보자는 것이 아니다. 이제 문화의 주체로 나서게 된 주민이 새로운 삶의 양식을 스스로 창출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지점에서 지역을 토대로 일상적 문화 활동의 주체가 되는 사람, 창조적 인재로서의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런 창조적 인재가 그 지역에서 얼마나 신나게,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느냐에 따라 그 지역의 미래가 좌우된다. 창조적 환경은 창조적 인재를 키우고 창조적 인재는 창조적 환경을 만든다. 그러니 진정한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서는 먼저 사람을 키워야 한다. 그렇다면 요즘 수 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동아리는 무얼 말하는가? 그저 모이기만 하면 동아리인가? 아니면 공동의 관심사나 취미,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을 말하는가? 아니다. '동아리'는 새로운 삶의 양식을 창출하는 생활문화의 씨앗들이다. 지역을 기반을 해서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실천적 학습을 통해 그 지식을 생활현장에서 실행하며 자신의 삶 속으로 통합시켜나가려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지역을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새로운 삶의 대안과 양식을 모색하는 모든 문화적 활동의 주체가 바로 '생활문화동아리'다.

생활문화동아리 - 공동체적 관심을 가진 동아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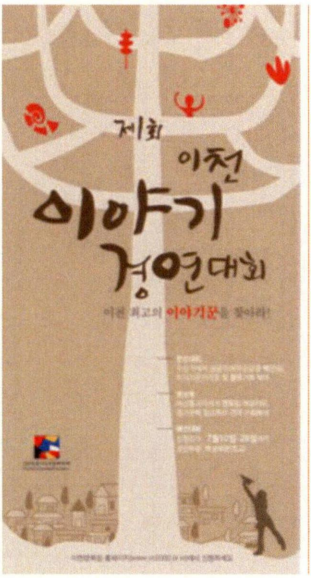
우리는 이제까지 그저 동아리만을 얘기해 왔다. 장르, 분야, 기능을 가지고 동아리를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그런 걸로는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모래알 같이 그저 자신의 이해에만 머물러있을 뿐이다. 이제는 공동체문화를 어떻게 만들까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그 삶 안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방식의 문화를 우리가 공동체문화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천문화원에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해왔던 문화학교를 쇄신하기 위해 문화학교 강좌의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 그것은 생활문화동아리로의 전환이다. 강사중심, 예술가중심에서 주민중심, 생활중심으로 전환을 시도했다.
이런 관점에서 학습자가 배운 것을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해보고 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시작했다.
생활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문화원이 해야 할 역할은 동아리의 든든한 후원자요, 동아리 활동의 플랫폼이 되어주는 일이다. 이천문화원이

가고자 하는 생활문화강좌는 이런 것이다. 할머니를 강사로 모셔서 옷 잘 다리는 법, 밥 잘 짓는 법, 장 잘 담그는 법을 배우거나, 연세 지긋한 할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동네에서 잘 자라는 약초를 알아보고 그 약초를 캐고 쓰는 법을 전수받는 강좌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동네 자원을 직접 찾아보고 사람을 만나고 알아가는 과정과 활동이 바로 진정한 우리 동네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천은 2004년 평생학습도시가 됐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평생학습도시가 153개나 된다. 평생학습도시란 시민들이 전 생애를 통해 학습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도시를 말한다. 하지만 시민들의 학습이 왜 필요한가? 배우는 즐거움?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른 재고용 증대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천시가 시민들의 평생학습 분야에 투자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기서 이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서다. 시민들의 인문학적 상상력이야 말로 창조도시의 기반이다. 하지만 이천에서 이루어지는 평생학습은 아직도 강좌 중심이다. 동아리 중심, 공동체 중심으로 가기에는 갈 길이 멀다. 평생학습의 기초가 되면서 지향해야할 목표가 있다. 바로 이천이라는 지역이다.
지역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리는 평생학습이란 시민들에게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인문정신을 갖게 만들며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조적인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결국 평생학습이 나아가야 할 목표는 주민이 개별적으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함으로써 학습욕구를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관심이 지역공동체로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다. 동아리를 만들고 뭔가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하고 새로운 작업과 일들을 벌여보는 것이다. 이렇게 지역마다 자생적으로 다양한 모임과 문화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야 말로 평생학습의 바람직한 미래 모습이다.

지역문화전문인력 - 여기에 미래가 달렸다!

지역문화의 진흥이라는 지방문화원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문화도 결국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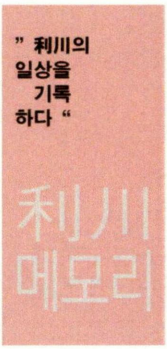
지역에 사는 주민에 대한 고려와 접근이 중요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천문화원은 지역문화의 창조적 인재를 키우기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4년째 이어가고 있다. 인문학을 통해 사람을 남기려는 시도다. 2014년 '인문학으로 이천 읽기' 2015년 '이천을 스토리텔링하다' 그리고 2016년 '모든 길은 이천으로 통한다' 등으로 이어지는 인문학 과정을 통해 이천문화원은 이천이 필요로 하는 지역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2015년에 시작된 '이천이야기꾼'은 이천에 구전되는 다양한 소재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시민들에게 들려주는 사업이다.

이천이야기꾼은 케이팝스타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자는 1차 관문을 통과하면 2개월간 전문가의 멘토링 지도를 받으며 이야기 대본을 완성한 후 본선 발표를 통해 이천이야기꾼으로 탄생한다.

'조각작품 도슨트'는 20회에 이르는 국제조각심포지엄을 통해 만들어진 200 여점의 조각작품을 시민들에게 쉽게 해설하는 프로그램이다. 조각작품 도슨트는 시민들이 공원에 배치된 작품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조각공원 지도를 만들고 관객의 눈높이에 맞게 작품을 해설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큰 호응과 반향을 일으켰다.

'문화유산교육교사'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우리고장 탐구학습을 보다 생동감 있게 교육해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이천시와 교육지원청, 그리고 문화원이 MOU를 체결하고 권역별 체험학습 코스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을 지도했다. 학교현장의 반응은 뜨거웠다. 올해는 사업이 관내 모든 학교로 확대되어 15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게 된다.

원천콘텐츠발굴 목록화 사업이 놓치고 있는 지점들...





2017년 모든 지방문화원이 참여하고 있는 '원천콘텐츠 발굴 전수조사 및 목록화 사업'은 그동안 지방문화원이 조사·발굴했거나 간행했던 향토자료와 지역의 원천자료들을 모두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잘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이 지역문화의 원천자료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혹시 일반 서적류나 문화원 간에 발송한 발간물들을 원천콘텐츠로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물론 그동안 문화원이 발간한 간행물이나 관내에서 조사·수집한 자료가 1차적인 목록화의 대상이 되겠지만 문화원은 다음 네 가지 분야의 목록화 작업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앙기관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 관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망라하여 업데이트된 목록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그 지역의 문중이나 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문집류, 유물 등의 자료를 모두 조사하고 국역작업 등 메타데이터 작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사라져가는 근현대 문화유산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와 더불어 주민의 기억과 증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보해 나가야 한다. 넷째, 지자체마다 시군지 편찬을 위해 선행적으로 조사, 수집했던 기초조사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에 책임 있게 이관하여야 한다.

이천문화원은 이런 관점에서 2017년 인문학 주제를 '이천의 일상을 기록하다'로 정하고 '시민기록자 양성 과정'을 6월에 개설했다. 지역의 원천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아카이빙해가기 위해서는 시민 아키비스트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천에 대한 기억들을

간직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기억을 기록으로 바꾸는 작업이 시급하다. 그런데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주민 인터뷰를 통하여 구술된 기록과 개인적 논평들은 근현대의 역사적 사건들을 이천의 주민이 어떻게 경험했는지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이다.
이천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주민의 기억과 일상적 삶의 내용을 기록하는 전문적인 구술기록자가 있어야 한다. 서울에서는 기억수집가'란 이름으로[1], 원주, 파주, 시흥에서도 아키비스트 양성을 위한 강좌를 시도하고 있다. 과거에는 구술의 주관적 성격과 개인적 경험의 한계를 이유로 구술 작업에 비중을 두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구술자의 주관성이 오히려 역사적 기록의 배후에 있는 주민의 경험과 그들의 삶에 끼친 변화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과거에는 기록 작업이 권력자 중심, 중앙사 중심의 실록편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지역민들이 삶의 주체로 나서서 주민 관점에서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를 발굴하고 새롭게 써내려가는 시대가 되었다. 시민기록자란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주민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기록하며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사람이다.

시민기록자 - 이제 주민들이 자신의 삶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

6~7월에 실시된 시민기록자 인문학과정의 후속과정으로 9월 초에는 시민기록자 워크숍을 실시하여 시민기록자들이 구술채록 방법론, 인터뷰방식, 마을조사와 공동체에 대한 이해 등 시민기록자 활동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식과 방법론을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시민기록자들이 마을로 들어가 마을답사, 주민인터뷰, 사진찍기, 구술채록, 기록관리 등 이천에 대한 생생한 기억들을 수집하고 기록하는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두 개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첫째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이천시지 대중서 편찬사업에서 시민기록자들이 한 챕터를 맡아 공동집필하는 프로젝트다.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시지 집필 작업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자못 크다. 둘째는 이천문화원이 그동안 지역을 주제별로 집중 취재하여 발간해온 아카이브 형식의 문화지 '설봉문화'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집필하는 프로젝트다.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이천의 노거수'다. 마을에서



주민들의 삶의 애환을 지켜보며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노거수를 통해 마을의 역사와 숨겨진 이야기를 다루어보려고 한다. 노거수는 역사적으로 마을단위 제의의 중심이 되는 장소요, 주민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음식을 나누며 더위를 피하는 열린 공간이기도 하다. 노거수 취재를 구실로 주민들을 인터뷰하는 작업은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와 마을구성원의 삶을 복원하고 정리하는 일이기도 하며 마을에 대한 애정과 공동체성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마을기록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시민기록자가 주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이천의 마을기록사업이다. 마을기록사업은 마을의 역사와 주민의 생활상을 조사, 기록하여 마을 문화의 정체성을 밝히고, 문화자원을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지역의 시군지 편찬이 지역의 통시적 기록사업으로 이어져왔지만 주민의 일상적 삶의 내용을 담아내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그런 일들은 소수의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수십 권의 방대한 시군지 편찬사업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주민 중심의 마을지만들기 사업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지역민의 기억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래로부터 다양하고 다선적인 역사해석의 지평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는 과거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지배권력 중심, 관찬 중심의 역사이해에서 벗어나 평범한 개인들의 삶의 내용들을 지역의 역사로 만드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천문화원은 앞으로 시민기록자들이 주민들의 일상적 삶의 모습을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하고 되살리는 활동을 통하여 아키비스트로서의 전문성을 키워나감으로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이천형 문화일자리로 정착시켜나가려고 한다.



시민기록자 양성과정 참가자들('여주두지' 전시탐방)

1)서울시에서는 2013년부터 기억수집가 양성을 통해 서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터뷰하고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서울의 역사를 끌어내어 기록으로 남기는 메모리[人]서울 프로젝트 사업을 해오고 있다.

플랫폼이란?
지역문화의 플랫폼을 한다는 것

조용호 (비전아레나대표)

플랫폼 논의의 시작



1848~49년 미국
골드러쉬(Gold Rush)

플랫폼이란 단어는 하나이지만 다양한 맥락에서 다르게 정의되고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정의로 플랫폼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과거에 미국 서부에 금맥 찾기 광풍인 골드 러시 (Gold Rush)가 일어났을 때에도, 정작 큰돈을 번 사람은 광부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청바지를 팔거나 물을 판 사람이었다는 말도 있다. 플랫폼을 떠올리면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가고 중간에서 길목 지키기로 막대한 이윤을 얻는 무언가를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진정한 플랫폼이란 그 이상의 가치를 창조하는 것을 요구한다. 물건을 떼다가 많이 파는 사업이 아니라 참여하는 고객, 파트너들이 모두 가치를 얻어가는 나보다 더 큰 시스템(계)을 만드는 것이 플랫폼이다. 따라서 플랫폼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려면 과거의 자원 (Resource) 중심의 사고를 먼저 버려야 한다. 그리고 관계 (Relation) 중심의 사고로 바뀌어야 참의미의 플랫폼을 이해 할 수 있다.

그 차이는 무엇인가. 자원 중심은 내가 가진 것을 기반으로 활용과 확장만을 염두에 둔다. 무엇(What)을 가지고 있고 어디(Where)에 팔지가 관건인 것이다. 관계 중심의 사고는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우리를 통해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누구(Who)와 왜(Why) 함께 공동으로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다.

플랫폼을 어떻게 정의하나?

플랫폼은 알면 알수록 매우 동양적인 사상과 어울리는 개념이다. 그 이유는 관계와 허를 다루는 부분 때문이다. 동양의 바둑과 서양의 체스를 생각하면 딱 제격이다. 서양의 체스는 말을 움직여서 상대의 왕을 먼저 잡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말과 말이 직접 격돌하며 상대방의 말이 있는 자리에 내가 들어가면 상대의 말이 내 것이 된다. 반면 동양의 바둑은 왕이라는 개념이 없다. 그리고 내가 얻은 상대의 돌이 몇 개가 있는 것과 승패는 무관하다. 빈 공간에 해당하는 집을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그리고 상대의 돌을 내가 가지는 방법도 해당 돌을 나의 돌로 둘러싸는 포위의 방식을 쓴다. 상대적으로 빈 공간(허)와과 대상을 아우르는 관계적 구조가 바둑 게임의 기본 체계다. 플랫폼이 그러하다. 상대가 들어올 공간이 없이 꽉 차있고, 관계를 구축하고 확장하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플랫폼이 아니다. 안의 공간이 가구와 전자제품으로 꽉 차있는 공간을 우리가 쾌적한 공간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그런 면에서 플랫폼이란 허를 통해 실을 얻는 전략적 도구라고도 할 수 있다. 정리해보면 플랫폼은 '미리 완결하지 않음으로 경쟁력을 가지는 허虛의 계系(Unoccupied System)' 다. 그릇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릇은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야 그 용도가 생긴다. 또한 플랫폼은 '내부와 외부, 외부와 외부 간 연결의系(Link System)'다. 물위에 세워놓은 다리와 같다. 누군가와 소통을 통해 앞서 비워있는 공간을 채워야 한다. 이렇게 미완의 상태를 열어놓고, 소통하며, 채워감으로써 지속적 성장 모델을 꿈꾸는 것이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그 자체로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플랫폼의 개념이

어느덧 도 닦는 이야기로까지 들릴 수 있다. 하지만 꼭 그렇게 어렵거나 먼 이야기는 아니다. 단지 우리가 허와 실이 공존하는 구조를 가져야 강력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만을 기억하기 바란다.

플랫폼을 도입하는 방법

전통 산업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기존의 사업 (또는 운영체계) 자체를 플랫폼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제품과 서비스가 결합되고, 기존 사업에 虛의系와 연결의 系를 적용함으로서 가능하다. 특히 내부의 자원과 외부의 자원을 서로 연결 짓는 오픈 플랫폼 관점에서 외부의 힘을 활용해, 과거에 가져왔던 고유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주목 할 만 한 부분이다.

플랫폼 경영은 또한 관계 기반 경영이다.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시작해서, 고객입장에서 완성도 있는 가치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객과 虛를 채워주는 보완자(Complementor)와의 관계가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 여기서 보완자라 함은 경쟁자의 정반대의 의미이다. 보완자는 나와 함께 함으로서 우리의 가치를 증진시켜주는 대상을 의미한다. 경쟁자의 경우는 그 반대라 할 수 있다. 보완자를 찾는 좋은 방법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내가 속한 체계 (시스템)을를 좀 더 상위의 레벨에서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행사의 경우 항공 티켓 뿐 아니라 숙박, 렌트카, 보험, 현지 가이드 서비스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다. 여행을 비행기를 타고 특정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기능적인 측면이 아니라 경험과 추억을 판매하는 보다 큰 차원에서 해석하여 고객에게 함께 제공함으로써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보완자와의 관계가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

기존의 제품 전략은 다분히 거래 지향의

전략이었다. 고객이 좋아할 만한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판다는 측면에서 거래가 될 만한 물건이 무엇인지, 시장이 있는 지 미리 설정하고 들어간다. 거래와 관계의 차이는 서로의 관계됨에 대한 시간적 지평선이 얼마나 길게 연장되느냐에 달려있다. 거래는 내가 성공적으로 거래를 마치는 것에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판매 금액이 중요하다. 상대가 누구인지, 다시 나의 매장에 들를 지에 대해서는 무심하다. 흔히 터미널 인근에 있는 식당들이 불친절한 이유가 지나가는 행객이 많기 때문인데, 이 또한 관계 자산을 쌓을 그 만큼의 노력을 더 할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 거래 지향적으로 움직이기 쉽기 때문이다. 관계 지향적인 경우는 고객과의 건설적인 관계 자체가 지속될수록 서로 간에 얻는 가치가 증대되는 경우 좀 더 효과적이다. 과거에는 유통, 식당, 통신 등 서비스 업종에서 주로 이러한 고려가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중장기적으로 지속 성장하려는 모든 조직이 관계 지향적으로 고객과 파트너를 보고 움직여야 하는 세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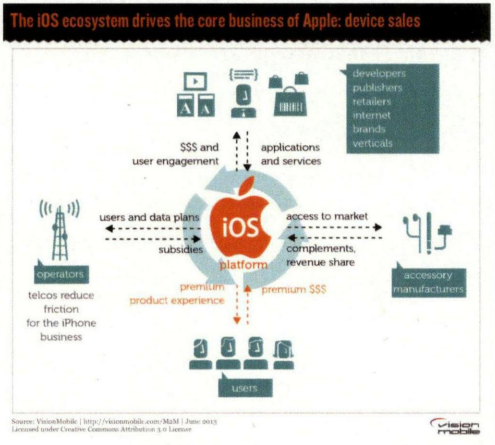
사업전략, 특히 마이클포터가 집대성한 경쟁우위전략은 기본적으로 전쟁이론에서 나온 것이다. 전투가 이루어질 곳과 싸울 상대를 정하고, 어떻게 유리한 고지를 먼저 선점할 지, 필요한 자원(병참 자원과 군마)과 역량(전투력, 사기 등)은 어떻게 확보하고 활용할지 정한다. 비즈니스 전략은 그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 만들어진다. 플랫폼 전략은 경쟁 뿐 아니라 협력을 중요시한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플랫폼끼리는 경쟁, 플랫폼 내에서는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협력하여야 하는 이유는 플랫폼의 허를 채우고 같이 공존가치를 발전시키는 데에 함께 협력하는 보완자(파트너, 넓게는 고객까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플랫폼을 단지 일개 단위조직의 일로 치부해 버리면 진정한 큰 틀에서의 연결을 통한 플랫폼 전략이 나오기 어렵다.
비슷한 예로 애플이 하드웨어에서 대부분 수익을 내지만, 아이튠즈 부문이 없었다면 이런 성과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각 부문별로 최대의 수익을 내는 것을 성과의 지표로 삼았다면 했다면 음악 가격, 앱가격의 높아지면서 하드웨어가 팔리지 않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 스티브잡스처럼 전체 시스템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아이폰이 잘 팔리면 애플이 좋은 것이니 아이튠즈 부문이 수익이 덜 나더라도 전체 애플의 성과를 기준으로 보상해준다고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단위조직들을 매끄럽게 잇는 전략적인 정렬 (Alignment)이 필요하고, 기업의 대외 협력 문화와 성과 보상에 대한 기준도 남달라야 한다.

플랫폼이 만들어내는 성과들

스타트업 중에 가장 높은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기업은 우버, 에어비앤비 등이다. 또한 커머스 기업 중에서는 알리바바, 이베이, 아마존 등이 멀찌감치 앞서 나가는 플랫폼 기업이다. 최근에 어려워진 미국 장난감 유통 공룡기업인 토이저러스도 아마존을 통한 장난감 온라인 구매 방식 증가에 따라 유통업체로서의 주도권을 잃고 있는 것이다. 세계 IT기업의 매출 등을 감안한 가치 순위로도 플랫폼 기업인 구글,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가 상위 5위 안에 포진해 있다. 미국에서는 많은 1조원 이상의 가치를 평가받는 유니콘 스타트업들이 지속적으로 출



애플의 플랫폼 전략

현하고 있지만 이들도 독자 생존보다는 구글, 페이스북 등에 인수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플랫폼이 이슈가 된 것은 8년 가까이 되었지만 여전히 반복해서 한해 걸러 시장의 메인 이슈가 되고 있다. 그 성공 법칙이 시장에서 계속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플랫폼기업의 선두로서의 우위는 더욱

강화되고 있고 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플랫폼이 공유하는 주요 속성들

전통적인 파이프라인 비즈니스에서는 공급과 수요 간에 상호작용이 없거나 제한적이다. 플랫폼의 경우 수요와 공급 간에 상호작용이 플랫폼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촉매 (Catalyst)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플랫폼의 기여에 의해서 상호작용은 더 활발해지고, 참여자들이 얻는 가치도 증대된다.
이곳에는 플랫폼만의 몇 가지 특성이 존재한다. 그 중 세 가지만 공유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네트워크의 가치다. 참여자가 많아지고 상호작용이 증가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연결로 인한 가치가 증가한다.
두 번째로는 상호보완의 관계성이다. 보완자(complementor)는 함께 함으로서 서로의 가치를 증대시켜주는 사람, 파트너를 의미한다.
세 번째로는 비대칭성이다. 플랫폼의 수익구조는 단순하게 수수료 기반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료 고객 / 무료 고객, 유료 제품 / 무료 제품 간의 복합적인 구조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플랫폼은 주로 고객, 제품 측면에서 보조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배달의민족의 경우 가맹점주가 광고비를 내고 일반 소비자는 별도 비용을 내지 않는다. 과거에 질레트가 면도기를 무료로 나누어지고 면도날로 돈을 벌었던 모델도 상호 보완적인 제품 간에 가격 체계가 서로 비대칭적으로 연결된 사례라 하겠다.

이처럼 네트워크, 보완성, 비대칭성 등은 플랫폼 구성의 일부 요소이지만 다른 것과 플랫폼을 구분 짓는 주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플랫폼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우리의 조직에 어떻게 해당 개념을 적용해서 가치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다.

지역 문화 플랫폼의 출발점

모든 것이 플랫폼일 필요는 없다. 이 말의 의미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의미다. 플랫폼화를 통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먼저 명확히 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플랫폼이라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실행 경로인지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만큼 플랫폼을 만들고, 실제로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종종 어려운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전문가로 불러줄 때에서야 비로소 전문가가 된다. 플랫폼 역시 마찬가지다. 플랫폼과 관계하는 사람들, 지역주민, 파트너, 지자체, 그 밖의 지역 문화 이해관계자들이 플랫폼으로서 지역문화원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야 사람들이 플랫폼에 모인다. 그래서 플랫폼은 사람들에게 가치를 증거로 제시하기 이전에 사람들이 우선 믿게 만들어야 하고(비전을 팔아야 하고), 지속적으로 플랫폼을 통한 성공 사례들을 창출하여 사람들이 플랫폼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플랫폼이란 나보다 더 큰 내가 되는 방법이다. 이를 초월자아 (Super Ego)라 한다. 이는 고립이 아닌 외부의 세계와의 관계 맺기를 통해 우리(We)를 만들고 그 안에서 가치가 만들어질 때에만 가능하다. 우리를 통해 더 큰 나가 발견되고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문화원 입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지역문화원은)

- 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어야 할까?
- 그러기 위해 나와 관계 맺기 할 대상은 누구인가?
- 그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우리는 또한 어떠하길 기대하는가?
- 왜 그것이 과거의 고립된 나를 뛰어 넘는 더 큰 나를 만든다고 확신하는가?
- 우리에 포함될 사람들이 우리의 플랫폼에서 풀 수 있는 문제와 얻어갈 가치는 무엇인가?

- 그것이 과연 사람들로 하여금 기꺼이 우리가 되길 희망하도록 강력한 것인가?
- 만약 그렇다면 왜 지금, 바로 당장, 내가 앞장서서 실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마을 플랫폼,
공간과 사람이 이어주는 생활문화

– 양평군 세월리 사례를 중심으로

김지연(문화기획자)

마을학교축제로 시작한 세월초, 그리고 세월문화사랑방을 만들다.

본인이 양평 세월리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이 벌써 10년이 되어간다. 2007년 양평지역 교육연극 교사연수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세월초등학교.
당시 세월리는 많은 농촌의 마을이 그렇듯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가는 마을이었고, 이 마을에 위치한 세월초등학교는 전교생이 60여명이 안되어 분교, 폐교 논의가 몇 년째 반복되는 학교였다. 동문들이 학교를 살리기 위해 장학금도 마련했고, 교회 목사님이 차량운행으로 등교를 도왔지만 재학생을 늘리기에는 한계였다. 그러던 와중에 양평지역 교사들 사이에 학교의 교육을 새롭게 만들어보자는'작은 학교 운동'이 있었고(현 '혁신학교'의 전신), 세월초등학교는 양평지역의 첫 번째 학교가 되었다.
2008년 세월초등학교 교사들과 함께 기획했던 행사'세월마을학교축제-달님과 손뼉치기'는 일 년 동안의 교육과정이 축제에 묻어나고, 마을의 이야기가 축제가 되는 시간이었다. 이 과정에서 당시에는 낯 설 수 있는'마을학교'를 내걸었던 것은 몇 몇 농촌학교에서 '오케스트라''골프'등 특별수업 수강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를 찾아 왔다가 학교 지원이 끝나고 나면 떠나가는'기러기'같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농촌에서 학교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전학을 오더라도 학생과 학부모들이 마을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계속 살고 싶은 마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에 마을과 학교는 불가분의 관계라 여겼다.
2008년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과 축제는 학교와 학부모, 마을 주민 모두의 노력으로 성황리에 끝났고 이 과정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세월초등학교 학생 수는 4년 사이에 두 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처음 교사들과 본인이 함께 이야기했던'마을학교' 의 실현은 쉽지 않았다. 외지에서 온 학부모들이 마을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 매우 드물었을 뿐더러 마을에 그들이 머물 집도 부족했고, 잠시 마을에 살다가 10Km 떨어진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마을 어른들에게 세월초등학교 학생들은 예전처럼 이미 알고 있는 이들의 아이가 아닌 낯선 가족이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예의 없는 행동들은 마을의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2013년 이 과정을 지켜본 몇몇 교사와 학부모, 본인은 학교의 과제를 넘어 함께 논의하는 모임 "세월모꼬지"를 만들었고, 학부모들과 함께 하는 '나눔장터'를 마을에서 진행하며, 주민들에게 음식 대접을 하기도 하고, 옛날 영화를 보여드리기도 했다. 그러던 중 마을회관 2층이 거의 비어있는 것을 보면서 이 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해 학부모와 학생, 마을 주민의 교류공간이 되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고, 2014년'세월문화사랑방'이라는 공간을 만들게 된다.

세월리 생활문화 플랫폼 "세월문화사랑방"



'세월 문화사랑방'

세월리 강상면에서 일 천만원 지원을 받아 학부모들이 직접 공사를 진행하여 2014년 6월 세월리 마을회관 2층에 '세월문화사랑방'이 시작되었다. 작은 공간이지만 여러 사람의 기부를 받은 책장과 책, 음식을 만들어 나눠 먹을 수 있는 작은 부엌, 손수 제작한 책상, 아이들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남긴 벽과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는 빔 프로젝트 등으로 채워졌다. 13평의 작은 공간이지만

초등학생들의 놀이터, 초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이 마을에 일찍 돌아와 머물 수 있는 휴식 공간, 학부모들의 모임, 마을 주민들의 배움터이자 회의공간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우리에게 "세월문화사랑방"은 세월리 마을 주민들과 세월초등학교 학부모, 아이들을 이어주는 공간이기를 바랐다.
2014년 개관 초기에는 사랑방을 24시간 오픈하였다. 마을회관은 모두에게 열려있어야 한다는 당시 이장님의 제안을 따른 것이었고, 개인이 물건을 잃어버려도 그것 또한 마을의 일이라는 마음에 기인한 것이었다. 세월모꼬지 인원을 중심으로 외부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아이들을 위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 학부모 달인 프로그램, 마을 주민을 위한 천연비누, 천연치약 만들기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였고, 초기 시작했던 '달시장'을 정례화 하였다.

그러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수적으로 많지 않은 학생들과 마을주민들 안에서 수강 인원모집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공간을 함부로 이용하는 아이들로 인해 공간이 난장판이 된다는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운영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원봉사로 공간을 지킨다는 것이 주민들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는 생각에 공간이 좀 더 유연성을 갖기를 희망하였다. 이러한 생각 끝에 고안한 방법은 사랑방에 번호키를 설치하고, 주민들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었다.

이제 개관 이후 4년이 되면서 '세월문화사랑방'은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지난 시간 진행된 학부모와 주민의'우쿨렐레''가죽공방'수업이 동아리가 되어 주 1회 모임을 갖고 있고, 학부모들이 만든 '손바느질'동아리까지 일주일 중 3일은 학부모 동아리가 공간을 채우고 있다. 그리고 매 주 금요일에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번개 간식방'을 운영하면서 세월초등학교 아이들이 '세월사랑방'을 맛난 간식을 먹으며 책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월 1회 마을 이장 및 운영진들의 마을회의가 이곳에서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진행된다. 이 회의에 함께 참여하는 본인은 학교의 소식들을 전달하며 마을과 학교의 다양한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세월초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은 이 공간에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간식을 만들어먹기도 하며 조금씩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세월 문화사랑방'모임



농촌 마을의 생활문화 플랫폼 '사랑방'

2015년 생활문화정책이 확장되면서 생활문화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플랫폼은 유형일수도 있고 무형일수도 있다. 본인이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플랫폼 지원 사업으로 펼친 '강상 산중마을 징검돌'프로젝트는 지역의 예술가 및 생활 예술가를 발굴하고 지역의 예술가들이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무형의 플랫폼 역할을 하였다.
한편, '세월문화사랑방'은 '생활문화 플랫폼'정책 이전부터 마을과 세월초등학교 학부모들의 관계가 밀접해 질 수 있도록 지역의 공간을 주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자발적 모임으로 출발하였다. 때문에 외부환경을 새롭게 구축하기보다 현 상황에서 유연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하는 유형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끔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세월문화사랑방'을 시작으로 마을과 다양한 소통 환경을 만들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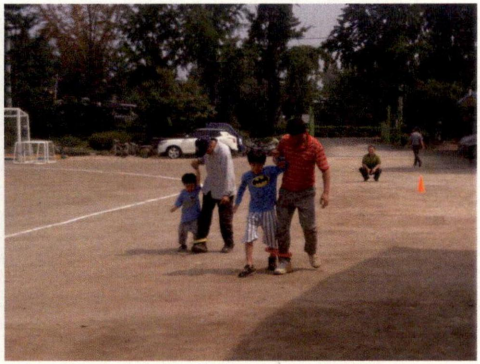
했던 노력으로 2015년 세월리의 '행복마을 만들기'사업과 맞물리면서 마을 청장년들은 아이들을 위한 썰매와 썰매장을 만들어주었다. 그리고 2016년 콘테이너를 개조해 제작한'달빛 갤러리'를 에서 팔순이 되신 짚풀 할아버지 임경재옹의'짚풀공예전'을 개막전으로 시작해서 '세월 옛 사진전'을 열기도 하고 지역예술가 작품, 주민 작품, 아이들의 작품 등을 전시해오고 있다. 또한'달리는 피아노'사업단의 찾아가는 공연을 초청하며 후원 되어진 '공유의 피아노'를 마을회관 앞 정자에 놓아 주민들과 아이들이 종종 지나가며 연주를 한다. 그리고 2016년 마을 주민들의 자전거 및 버려진 자전거들을 수리하여 '세월 달시장'에서 저렴하게 판매를 하기도 하였다. 매년 '신나는 예술여행'을 통해 주민들이 마을회관 앞에서 전문예술단체의 공연을 즐기기도 했다. 작년에는 외부 단체에서 마을 어르신들에게 웨딩드레스를 입혀드리는 행사를 하였고, 원주민과 이주민들이 다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세월초 운동장에서 '마을운동회'를 열어 2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세월초등학교와 세월모꼬지, 세월리의 활동은 다른 농촌 체험마을 만들기와 달리 일상 속에서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고집 센 어르신들도 함께 놀다보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런 어울림을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생활 속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다양한 외부활동들이 매개 되는 것이다.





세월리 얼음 썰매 만들기

세월리 마을 운동회

'사랑방'은 공간을 넘어선 사람과 사람의 매개를 만들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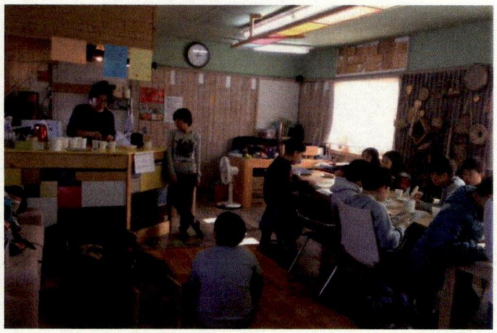
1990년~2000년대 지역문화정책이 생기면서 중소도시 곳곳에서 문예회관이라는 하드웨어가 생겼다. 그러나 점차 그 곳은 공간만 있고 운영에 대한 지원의 부재로 비어있는 공간이 되어갔다.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 확장되기 시작한 지역문화재단은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만들어내면서 문예회관과 지역의 여러 단체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지역마다 있는 문화원들도 2000년대 지역문화 활성화 속에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지역문화조사를 수행하거나 지역예술가들의 예술프로그램 공간을 넘어서 점차 현 시대의 문화를 읽어내고 만들어내고자 하는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민간단체들 중심으로 기획 된'우리 집에서 걸어가는 거리에 만들자'라는 작은 도서관 운동은 2012년 작은 도서관 진흥법의 재정으로 확장되어지고, 몇몇 작은 도서관은 단지 책 읽는 공간이나 학습공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생활문화플랫폼 공간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듯 몇 년 사이에 문화예술은 커다란 하드웨어 공간만이 아닌 가까운 일상 속 소소한 문화의 필요성으로 확장되었고, 다양한 문화 공간들이 그 역할을 만들어 내가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한편 이 공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은 '사람'이다. 일상 속 공간, 자발적 운영을 내세우다보니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주민들의 자발성과 지역마다의 특수한 환경을 읽어내어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해야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작은 문화 공간 존재여부의 중요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엮어내는 사람의 역할이다. 비어있는 공간, 혹은 운영자와 참여자가 이원화 되어있는 공간이 된다면 이 공간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나 계속적인 환경 개선과 서비스만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특히 오늘날처럼 많은 정보가 오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곳곳에서 벌어질 때 지역 공간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늘어나며 불만족의 목소리만 커지게 되는 것이다.
'사랑방'도 마찬가지이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운영하게 되기까지에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필요와 공감을 읽어내고 그들 스스로가 그 역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지와 지원해줄 수 있는 매개자가 필요하다. 그들의 제안을 조율 할 수 있으며 그들의 관심이 확장되도록 사고를 키워줄 수 있는 운영과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변화되어가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본인이 '세월'에서 하는 역할도 그것이다. 마을사랑방의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한 목표는 마을과 학교, 학부모들의 거리를 가깝게 만들어가는 상징적 공간으로서의 '사랑방'이다. 그 사랑방이 어느 한 편의 소유물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각자가 공간의 필요를 공감하며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과 학부모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수렴하고 활동들을 조율하며, 새로운 일들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거나 지원해줌으로써 상징적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읽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그 가능성은 한 번의 경험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오랜 시간을 거쳐 본인의 생각과 차이를 느끼며 이해해 가기도 한다. 그 하나가 피아노를 야외에 두는 것에 대한 찬반 문제이기도 했고 청소년들의

공간 활용에 대한 생각의 차이이기도 했으며 사랑방을 학교 공간으로 오해하는 양자의 생각을 이해시키며 끊임없는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이기도 하였다. 이런 시간을 통해 마을'사랑방'은 단지 프로그램을 하는 공간이 아닌 주민, 학부모들의 마을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주민 주체로 운영되는 세월리 '사랑방'

마을 속 생활문화플랫폼

농촌의 어느 마을에나 다 있는 것은 '마을회관'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마을회관은 노인들의 경로당을 주 역할로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중소도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 공간들이 새롭게 바뀌기도 하고 곳곳에 작은 도서관들이 생기기도 했다.
인구에 비례할 수는 없겠지만, 과거에 있었던 공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새로운 공간들에 공공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공간들은 주민들의 관심과 멀어져 있으며 몇몇 사람들의 전용공간이 되어있다.
본인은 '생활문화플랫폼'의 주 역할은 주민들의 소통을 확장시키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소통의 확장 속에 생활문화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과거에 모여 수다를 떨거나 교육 강좌로서만 활용되었지만 이제 '사람'으로 만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의 필요와 관심이 반영되고 그것이 확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만남과 소통이 일어날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을의 생활문화가 확장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만남과 소통과'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들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생활문화플랫폼은 마을 곳곳에서 크고, 작게 생겨야 한다.

지역에서 주민센터와 문화원의 역할은 실제로 어떻게 다른가?

나명철 (용인문화원 과장)

용인시 인구가 100만 명을 넘었다. 예전에 '동사무소' 혹은 '면사무소'라고 부르던 곳이 있다. 주민센터다. 민원을 처리하는 곳이라면 주민센터는 우리 동네에 자리 잡고 우리의 생활을 가장 가까이서 돕는 공공 기관이라 볼 수 있다. 요즘에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을 위해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주민센터 운영 프로그램

용인에서 비영리 특별법인 공인단체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기관이 있다. 용인문화원이 바로 그곳이다. 용인시청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향토문화의 전승, 발굴 창달선양사업, 향토사 발간사업, 지역의 특색을 개발한 향토축제의 토착화, 평생학습의 사회교육프로그램인 문화학교 운영, 향토문화 고취사업, 문화예술창달사업 등 다양한 문화 사업이 그 임무다. 또한 지역민의 문화적 향수와 욕구를 충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의 발판에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발길을 내딛고 있다.

주민센터란 일정한 지역에 생활터전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복지를 향상시키는 구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다. 따라서 주민센터가 올바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주민센터의 공공행정서비스는 짧게는 수 백 년, 길게는 수 천 년에 걸쳐서 이어져 오는 행정업무다.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에 의해서 주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수단의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즉 주민센터는 국민을 관리, 통제하는 국가권력이 행해지는 주민과의 접점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점에서 이뤄지는 행정업무는 주민에 대한 인적정보 관리, 주민의 주소정보 관리, 건물. 토지의 관리, 재산의 관리, 병역관리 등이다. 이러한 업무는 행정문서의 형태로 관리되었기 때문에 동사무소는 국가정보, 국민의 정보를 보관하는 중요한 물리적 시설이라는 측면이 강했다. 그러므로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이러한 행정문서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행정정보를 엄밀하게 집행하는 집행자의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민센터의 모습이 바꾸기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 1990대 초반부터 진행되기 시작한 정부의 행정전산망구축사업이 이러한 관행에 일대 변화를 근본에서부터 가져오기 시작했다. 그 동안 종이의 형태, 혹은 종이문서의 형태로 관리되던 주민정보와 국가정보들의 관리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다. 일차적으로 시작했던 것들이 그 동안 종이로 관리되던 행정문서, 정보문서들을 사진의 형태로 전환시키는 작업들이 진행된 것이다. 토지정보 전산화, 주민등록 정보의 전산화, 건물정보의 전산화, 주민 재산 정보의 전산화, 등이 본격적으로 1990년대부터 이뤄진 것이다. 국가 및 주민에 대한 중요 정보에 대한 행정문서의 관리라는 동사무소의 역할과 사명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행정전산화라는 작업을 통해 이뤄지게 시작한 것이다. 행정전산화가 진행되면서 동사무소 공무원들의 기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속도에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종이문서를 찾아서 대서하거나, 복사해서 나눠주던 기존의 업무방식에 비하면 전산화된 정보를 찾아서 프린트해주는 형태의 업무방식은 동사무소 공무원들의 업무강도와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행정업무에 소요되는 절대적인 시간소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동사무소 직원, 공무원들에게 약간의 여유가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민센터를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주민센터를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할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시설과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할애하는 것은 적절하다. 이 공간을 통해서 주민들이 마을과 지역에 대한 주인의식을 함양하고, 스스로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가는 활동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는 것이다.
주민센터는 지역이슈를 해결하는 중심축으로 전환돼야 한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들은 요즘 많은 해결할 이슈들을 안고 있다. 이를테면 고령화 문제, 아이들의 교육 문제, 범죄 문제,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 일자리 창출 문제,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을 안고 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나 지자체들이 이와 같은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노력을 해 왔다. 이러한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주민센터는 최종의 접점에서 상부 정책을 실행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적극적 의미에서 '지역의 이슈'를 지역을 중심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민센터의 역할과 의미를 새롭게 규정하면서 기존의 행정서비스를 넘어서는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발굴하고 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제기했던 고령화 문제, 아이들의 교육 문제, 범죄 문제,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 일자리 창출 문제,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 등의 문제에 대해서 지역을 중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다양한 형태로 주민센터 중심의 지역문제 해결 활동의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요즘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서비스디자인이라는 접근법을 공공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디자인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물체에 대한 사용자들의 심미적 가치를 창조하는 작업으로 인식되어 왔고, 실제로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지금까지 디자인 작업들이 이뤄져 왔다. 대부분의 디자인은 그 동안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산업디자인, UI, UX등의 전문분야로 나눠져서 그 전문성이 발휘되어 왔다. 최근에 이러한 흐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서비스디자인이라는 개념이다. 디자인이라는 전통적인 방법론을 사용하여, 공공분야의 서비스를 새롭게 설계하는 방법론이 바로 서비스디자인이라고 보면 된다.
서비스디자인의 과제들이 주민센터와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주민센터의 변화는 공공행정의 유구한 역사의 흐름과 괘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와 같이 행정전산화가 이뤄진 상황에서 전통적인 역할의 주민센터가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를 창조하는 주민센터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서비스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주민센터는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와 이슈들을 해결하는 지역단위의 중심축으로 변모를 해야 한다는 것이며,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지역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의 지역활성화 프로그램과 방법론들이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그 방법론이 서비스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센터가 새롭게 지역의 공공행정서비스를 디자인하는 활동들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을 기대해 본다.

주민센터의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문화원은 해방 이후 급속하게 이행되어가는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도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 왔다. 전국 200 여개가 넘는 문화원은 그동안 지역 주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자긍심을 일깨우는데 앞장 서 왔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문화원이 처한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아 보인다. 무엇이 문화원이 처한 오늘의 현실인지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기로 하자.
먼저 문화원의 정체성 문제이다. 전통적으로 문화원의 활동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다양한 문화단체의 출현으로 축소되어가고 있고 지역적 편차에 따라 문화원에 부과되는 역할이 분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천 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에 유적이 아닌 곳이 없고, 유물이 아닌 것이 없지만,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문화담당자들이 배출됨으로써 한정된 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던 문화원의 전문성이 쇠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율적 운영의 어려움이다. 현재 문화원은 국고보조나 지방정부의 보조금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또한 일정부분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 사업이나 기타 부대사업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한정된 인력으로 전통적인 문화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독립채산제에 입각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이 문화원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며 자칫 실적주의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민간기구화 되면서 지역문화 분과를 두고 지역에서의 다양한 문화 활동과 예술의 현장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활착시키려 하고 있음은 눈 여겨 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와해된 지역 공동체 문화의 재생과 확대 재생산에 새로운 시각을 가진 신진 활동가들이

지역주민들과의 유대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 결코 문화원의 역할과 무관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 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 연구 활동 등의 고유한 문화원의 업무가 대학 박물관, 연구소, 문화예술단체 등의 업무와 중복, 충돌됨으로서 자칫 문화원의 역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이야기를 뒤집어 본다면 문화원이 과거의 영역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문화원의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시대의 변화와 민중의 욕구를 감지하고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하느냐의 여부가 앞으로 문화원의 중요성을 가늠하는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양상은 이미 문화원 내부에서부터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에 그치고 있지만 문화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이 문화원 내로 유입되고 있고 문화원의 역할을 바꿔 보려는 시도가 감지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문화원은 지금보다 더욱 확대된 조직과 독립적인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방정부가 주관하고 있는 축제가 600개가 넘는다. 모든 축제의 동기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려는 데 있다. 그러다보니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큰 목표는 실종되고 전시적이고 소비향락적인 행사로 전락해버리는 예를 허다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편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하나의 희망을 제시해 보자.



용인문화원 문화학교 발표회

지역 축제의 중심축은 문화원이 되어야 한다. 행사의 기획과 결과에 대한 비판과 반성은 문화원에서 시작해서 문화원에서 끝나야 한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몇 가지 전제가 충족될 수 있다면 성취 가능한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각 지역이 가지고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충분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으며 토착민의 정서를 지니고 있는 문화원의 인력이야말로 지역 축제를 축제답게 만들고 계승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앞으로의 문화원의 활동방향과도 연관이 있는 사항이지만 지역문화 현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문화원이 수행해야할 문화 인력, 시설, 활동내역, 지역민의 문화 향수 실태 조사 등의 연구 활동의 활성화에 달려 있다고 본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다가 중단한 '문화의 집'의 선례를 보더라도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거나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비용절감의 측면에서나 사업의 집중도 면에서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미 조성되어 있는 문화원의 조직을 지역의 문화 활동의 허브로 정착시키는 일은 전적으로 지방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곧, 문화원의 활성화는 지방정부의 지역문화 창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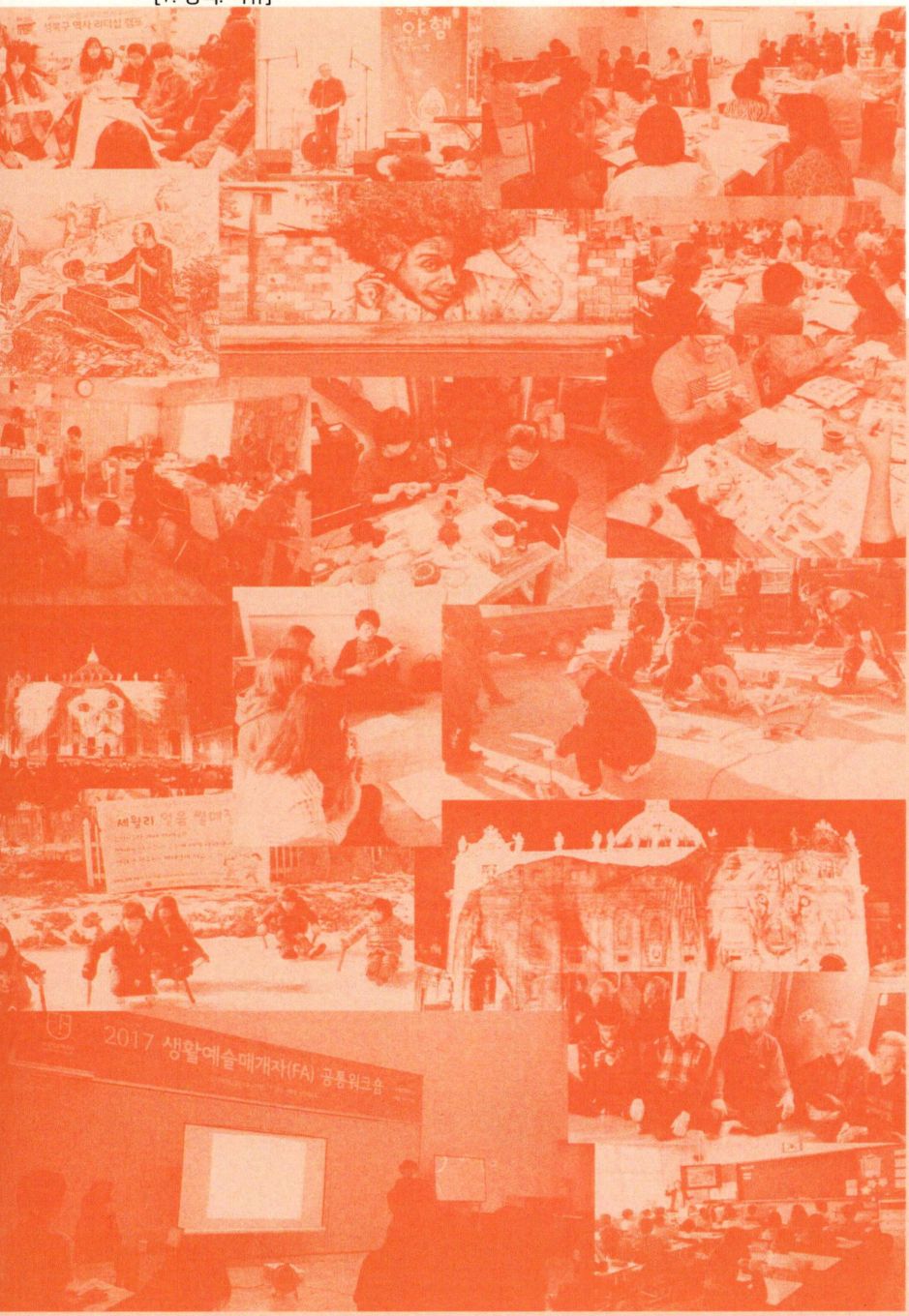
용인문화원은 최근 100여명의 회원을 355명으로 늘렸으며, 용인문화원 최초로 자체 적립하는 문화발전기금을 적립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적립액을 늘려나갈 계획 등 열정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활기 넘치는 문화원으로 재탄생 시키고 있다. 350여 명의 회원을 4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용인 서부지역에서 이사 및 문화위원을 확충해 동서 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찰대 부지 활용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지만 만일 문화원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면 서부지역을 아우르는 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포은문화제, 처인성예술제를 비롯해 백암 백중놀이, 시민문화대학, 찾아가는 향토사 교육, 할미성대동굿, 전국역사문화기행, 각종 세미나 및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며 바쁜 문화사업 일정을 소화해 내고 있다.



용인 통기타 동아리 축제

'지역 문화활동'을 한갓 치적으로

생각한다거나 예산 집행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문화원을 지방정부의 산하기관쯤으로 여긴다면 궁극적인 지역문화 창달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문화 창달에 관련되는 정책은 전시적이거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반드시 문화원을 비영리단체로 인정하고 독립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지역주민의 평판에 구애됨이 없이 지역의 특수성과 독창성을 찾아내고 존속시키는 활동 영역을 보장해 주는 열린 사고가 필요하다.
전국 단위의 조직을 가진 문화원 연합회는 산재한 지방문화원 간의 편차를 좁히거나 아니면 각각의 특성을 살려 차별화하는 정체성 확립을 도출하는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표준화된 사업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하고 문화원 인력의 균등화와 더불어 전문화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문화원의 이념 설정은 문화원을 구성하고 있는 인력들의 성향에 끌려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작금의 문화원의 운영 실태는 앞서 지적한대로 타 문화 교육 시설 및 단체들과의 프로그램 중복, 백화점식의 프로그램의 나열로 문화원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현상을 야기하기도 한다. 국회나 중앙정부에서 원칙 없이 입안하고 있는 문화원에 관련된 법률의 개정이나 신설 시도는 이와 같은 문화원의 정체성이 흔들리는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지역의 문화를 창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문화원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문화원을 구성하고 있는 인력들이 현재의 문화원의 위치를 냉정하고 바라보고 비판할 수 있는 용기를 드러낼 때 가능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7 생활예술매개자(FA) 공통워크숍

생활문화와 지역문화

최영주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개념을 규정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개념을 규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규정하는 것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 목적과 방향설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개념 설정, 규정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나는 그것이 한국문화원연합회, 광역시,도문화원연합회, 지방문화원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생활문화란 무엇인가? 지역문화란 무엇인가.
'생활'은 무엇을 말하는 개념인가. '문화'란 무엇을 말하는 개념인가.
'지역'은 무슨 의미인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또는 원론적인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문화원은 '생활'을 어떻게 개념규정하고 있고, '지역'을 어떻게 개념규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규정이 자의적,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 객관적 추론에 의한 합리적, 논리적인 규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몇 가지 질문을 해 보자.

- 문화원은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가, 생활문화를 지원하는가.
- 지원하는 것인가,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가.
- '생활'이라는 개념은 문화원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 '생활'이라는 개념을 '활생'이라는 개념으로는 바꿀 수 없는가.
- '지역문화원'인가, '지방문화원'인가.
- '지역'은 무엇을 말하고, '지방'은 무엇을 말하는가.
- '향토문화'는 '지역문화'인가, '전통문화'인가.
- '전통'은 반드시 '역사적'이어야 하는가.
- '역사'는 반드시 '과거'이어야 하는가. '현재'는 역사가 아닌가.

– '전통'과 '역사''향토'와 '민속'은 어떻게 다른가.
이러한 수많은 질문에 문화원은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해 문화원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혹시 답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합의하는 답은 아니지 않은가? 즉, 자신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문화원에서 생각해야 할 수많은 개념들이 산재해 있는데 약간의 과장을 섞어서 말하자면, 어느 하나 명쾌한 개념으로 정의한 것이 없다. 정의했다고 할지라도 그 정의는 개인적, 자의적, 주관적이라는 혐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개념에 대한 정의가 막연하다. 모호하다.
사정이 이러한데 문화원은 '지역문화의 중심''지역정체성의 중심'이라는 얘기를 자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가 다 타당하다. 그러나 문제는 일관된 내용이 아니라, 저마다 다른 논리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중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한 가지 사례

2017년 11월 생활문화진흥원이 지역문화진흥원(원장 나기주)으로 명칭을 개칭했다.
언뜻 보기에는 '생활'을 '지역'으로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함의하고 있는 맥락을 읽어내는 것은 생각보다 깊은 사유를 필요로 한다.
명칭을 바꾼 정책 관계자들의 의도를 얼마나 정교하게 파악하느냐가 향후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생활문화를 진흥하겠다는 것에서 지역문화를 진흥하는 기관으로써 자기 위상을 변경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난 2014년 1월 28일 신규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의 제2조(정의)부분에서 '지역문화'와 '생활문화'를 정의한 것에 따르면,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1)]

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2017년 12월 생활문화진흥원에서 지역문화진흥원으로 개편된 홈페이지에 올린 소개 글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지역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 분야 국정과제로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를 선정하고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진흥원은 설립 이후 '국민의 생활 속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민의 자발적 문화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의 문화적 역량 증진 및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기능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생활문화가 지역문화 발전의 핵심적 요소임에도 종합으로 지역문화진흥을 포괄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지역분권과 자치, 협업이 강조되는 현 시대 흐름에 맞추어 지역문화가 균형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 정비하고자 생활문화진흥원을 지역문화진흥원으로 개편하였습니다.[2)]

1) 지역분권과 자치, 협업이 강조되는 현 시대 흐름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시대가 바뀌었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시대를 지탱하던 철학이 수명을 다 했다고 나는 파악한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자본이 국가 간 장벽을 허물고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게 했던 논리였고, 자본 물신화의 완성 단계였다. 그것의 한국적 적용은 천박한 자본주의 체제로 왜곡되어 드러났고, 가치와 정의보다는 실리와 이권이 중시되는 사회였고, '돈'이라는 블랙홀에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는 사회였던 것 같다.
그리고 한국사회는 식민과 해방,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다는데 동의한다면, 그동안은 한국사회와 사회적 의식구조는모든 것이 단위 중심이었다. 국가단위, 민족단위 등 말이다. 즉 그동안 개인은 없었고, 주목 받지 못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내가 태어난 것은 독립적인 개인이 아닌 민족의 틀 안에 국가를 발전시켜야 하는 하나의 부속물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되었다. 어느 특별한 또는 위대한 인물이 폿대를 들고 앞장서는 시대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2005년 문화바우처 사업이 시행되면서 등장한 중요한 의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문화기획이었다.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이 갖는 의미는 제도권(국가 또는 문화기관 등)에서 국민을 위해 문화적 '혜택'을 주는 구조가 아닌 국민들의 문화적 수요와 욕구를 제도권이 '반영'을 하는 형태로의 전환을 말한다.
상급기관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지역분권, 지역자치가 강조된다는 것은 그동안 중앙집권적 권력구조가 지역으로 이관되기 위한 사회시스템이 구축된다는 것이다.
시골에서 도시로, 중앙의 주변이란 의미의 '지방'이 '지역'이라는 개념으로 전환되고 중앙 집중형 개발이 아닌 '다시 지역으로'를 외치기 시작했다.
그동안 지방문화원은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기관이라는 자기 인식이 있었다. 이제는 '공평과 존중, 그리고 평등'의 원칙으로 각각의 기관, 단체가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각 기관과 단체가 공평한 권리와 평등한 관계로 서로 협업하는 시스템 구축. 그것이 현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지방문화원이 더 이상 정신적인 상위기관이라는 '자부심'에 도취될 때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누구도 특별하지 않다. 이미 서울특별시는 '거버넌스25'라는 이름의 협력시스템 구축을 시작했고, 민관협력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제는 '단위 지향'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산업화 시대의 거시적 인식에서 벗어난 각 개인의 삶이 행복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미시적 인식이 필요하다.
그것이 '지역특성화'라는 이름으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함의이다.

2) 지방문화원-연합회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생활문화에서 지역문화로 명칭을 변경했다는 것이 지방문화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활동, 사업을 추진해 왔고, '지역문화'의 중심, 지역의 정체성, 지역의 역사, 지역의 문화예술의 중심기관임을 자부해 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각 지자체에 설립되어 있는 개별 지방문화원을 연결시키고, 힘을 모아내는 역할을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는 구조가 담당하고 있다.
즉, 지방문화원-연합회라는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 '지역문화'를 선도하고 이끌어 가고 있다는 구조인 것이다.
생활문화진흥원에서 지역문화진흥원으로 바뀐다는 것은, 향후 지방문화원-지역문화진흥원이라는 연결고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추론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문화진흥원으로 개칭한다는 것은, 각 지역의 '생활문화센터'가 '지역문화센터'가 된다는 것을 뜻하고, '센터'는 '중심'이다.
그러므로 지역문화의 중심은 '지방문화원'이 아닌 '지역문화센터'가 담당하게 된다는 설정이 가능하다.
그 지점에서 '지방문화원'을 연결하고 있는 연합회는 굳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추론이 가능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렇다면 연합회는 어떤 입장과 원칙을 가지고 향후 대응 할 것인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면모를 파악, 향후 어떤 사업들을 담당하게 될 것인가. 그 지점에서 한국문화원연합회를 포함한 지방문화원의 위치 규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협력 가능한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구체적인 대안은 어느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조직이 네트워크화 되어 있다는 것은 조직 구성원들이 있다는 것이고, 구체적인 대안, 방향을 설정한다는 것은 조직 구성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합의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앞서 언급한 미시적 차원의 접근으로 사고를 전환할 때 비로서 가능하다.
그것은 개별 지방문화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연합회에서 조직해 내고, 취합해 내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어떠한 일련의 움직임도 없어 보인다.
근본적으로 지방문화원이 가진 한계와 그 한계를 가진 조직을 연합, 네트워킹하는 기구로써의 연합회의 한계에서 노정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자기 비판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5월 생활문화진흥원이 설립되고, 한문연에서 담당하고 있는 '생활문화공동체'사업이 이관이 되었고, 현재 전국에 91개의 생활문화센터[3]가 만들어져 있고 그 센터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지방문화원 그리고 연합회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문화원이 향토,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은 생활 문화적 측면이 훨씬 강한데도 불구하고 전통, 역사, 향토문화를 고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이제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정체성, 역사성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심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흐름으로 작용하고 있는 키워드에 따른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구도를 짜야 한다.
문화예술에 대한 개인적 욕구가 있으면 사람들은 이미 스스로 만들어서 향유하고 즐긴다. 지금은 일부러 무엇인가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아도 시민 스스로 알아서 만들어낸다.
지방문화원의 일은 개인적인 문화 예술적 욕구를 그룹 차원에서, 지역차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을 공익적 차원으로 연결, 커뮤니티를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현실적으로 사업의 형태가 되었건

조직의 형태가 되었건 실현해 내야 하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4]에도 규정되어 있는 이른바 '목적사업'이 그것이다.
그러나 지방문화원의 목적사업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때문에 본연의 일을 못하고 있다. 지방문화원의 대부분의 일은 법에 근거한 목적사업이 중심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집행하기 애매한 부분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로 포화상태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탁사업은 안한다고 할 만큼 문화원에서 해야 할 일을 중심을 잡고 다 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단순히 예산이 많으면 문화원이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한다. 즉, 중심은 없고 곁가지만 존재하는 꼴이다.
그러니 정권이 바뀌거나 원장이 바뀌거나 지역 정가의 압력에 의해 원장, 사무국장, 직원 등이 안정적으로 일할 분위기를 못 만들고 있다.
중심이 없으니 곁가지만 쳐 내는 모양새니까 말이다.
지방문화원 그리고 연합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지역문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1)지역문화진흥법 제2쪼(정의) 부분의 1항, 2항
2)지역문화진흥원 소개글 http://www.rcda.or.kr/intro/intro1.asp
3)생활문화센터가 지방문화원 내에 만들어 진 경우도 있다. 경기도의 경우 수원문화원과 동두천문화원이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4)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지방문화원의 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도록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1. 지역문화의 계발, 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의 발굴, 수집, 조사, 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이 그것이다.


2017 생활예술매개자(FA) 공통워크숍

활생(活生)문화로 나아가는 생활문화

양원모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관장)

생활 속 예술, 예술 품 안에서의 생활

바람이 선선한 초가을이 되면 인천 남구학산문화원에서 주최·주관한 '학산마당극놀래'마당예술동아리 잔치를 보고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 인천으로 향한다. 삼년 째다. 삼십 여 년 전 푸른 젊은 시절의 인연으로 비롯된 것이다. 탈춤의 신명에 이끌려 마당 판에서 춤추고 노래하였는데 군복무를 마친 다음, 나는 창작 탈춤과 마당극을 전문으로 하는 놀이패 '한두레'에서 활동하였다. 그 후 인천으로 옮겨와 호인수 신부님의 도움으로 주안 5동 성당에서 문화한마당(문화학교)를 열고 후배들과 함께 놀이패 '한광대'를 결성하였다. 사물놀이와 노래, 춤, 그림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나날이 늘어 주안역 앞 건물 한 층을 빌어 문화공간 "쑥골마루"를 열었고 놀이패 '한광대' 노래패 '산하' 그림패 '갯꽃' '일손나눔'과 손을 맞잡고 갈래별 크고 작은 예술동아리를 이끌어내며 '우리문화사랑회'를 꾸렸었다.
지금도 인천에는 제 신명으로 활동하는 생활예술동아리가 많다. 특히 인천 남구는 학산문화원과 학산생활문화센터'마당'이 지역문화 플랫폼이 되어 생활예술 동아리 공동창작활동과 발표를 안받침하고 있다.



학산마당극놀래 퍼레이드

경기도에도 생활예술동아리는 많다. 특히 성남은 15년 남짓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마련하며

생활예술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을 꾸준히 해왔다. 그 결과 생활예술 진흥의 본(本)이 되고 있다.
이제는 생활예술이란 말이 생경하지 않고 자연스럽다. 하지만 생활예술이란 명칭은 순수예술과 대비되는 실용예술을 일컫는 또 다른 표현이었다. 그러다가 전문예술과 대비되는 아마추어예술을 생활예술로 명명하게 되었고 지금은 시민 참여 형 또는 시민 주도 형 예술을 생활예술이라 칭하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정신과 문화지형이 반영된 듯하다.
생활 속 예술, 예술 품 안에서의 생활, 이것은 우리인류 호모 사피엔스의 자기다움을 담지(擔持)한 것이다. 호모 사피엔스는 생리적, 심리적, 정신적 갈망이 충족되어야 존재 의의를 느끼고 자존감이 향상되며 자긍심을 갖고 삶에 응할 수 있는데 생활 속 예술, 예술 품 안에서의 생활은 삶을 넉넉하게 하고 관계를 도탑게 한다.

공동체 기반 생활예술

경기도는 현재 생활예술동아리 육성과 생활문화 공간 조성에 열심이다. 지원을 뒷받침하는 조례와 국가단위의 진흥법도 마련되었으며 예산과 지원 기관도 있다. 시민들의 문화기본권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으며 생활문화를 진흥하는데 함께 할 전문 인력 양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예술동아리 육성과 지원에 나설 때 무엇보다 먼저 고려해야하는 것은 생활예술의 뿌리가 지역사회 공동체에 튼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그래야 생활예술의 내용과 형식이 풍성해지고 스스로 진화 할 수 있는 힘을 갖춘다. 달리 말하면 공동체에 기반 한 생활예술이 되어야 지지자, 후원자를 끌어 모으며 자생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다.
공동체 기반 생활예술은 문화 창조 역량을 귀히 여긴다. 그리고 예술로서의 이야기 주권 회복과 행사를 중시한다. 그래서 공동체 기반 생활예술은 공동체의 의제·이슈 또는 문제·과제에 주목한다. 공동체의 관심과 이해(利害)에 기초한 예술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공동체의 이해 당사자들이 행하는 예술이기에 공동체 안팎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읽으며 문제 제기 형 또는 문제 공유 형 예술의 형태를 띤 것이 많다.

예술을 통해 문제인식을 심화하고 집단지성으로 해법을 찾아나가면서 문제를 타개할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 공동체 기반 생활예술의 역사는 깊다. 예전에는 마을마다 풍물패가 있었다. 정월 대보름과 단오 날에는 전국 곳곳에서 풍물굿이 펼쳐졌다.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달아올랐던 탈춤 부흥운동 덕에 배움 공동체인 대학에서도 탈춤 동아리와 풍물 동아리가 우후죽순 돋듯 생겨났고 1980년대 중반에는 노래 동아리와 그림 동아리가 전국 대학으로 넓게 퍼져나갔다. 1980년대 후반에는 공단의 직장공동체에도 수많은 풍물 동아리와 노래 동아리가 생겨났고 신앙공동체인 천주교와 기독교 교단에서도 탈춤 동아리, 풍물 동아리가 생겨났었다. 법당 안마당에서는 전통혼례를 창조적으로 변용한 현대 민속혼례가 올려 졌고, 성당에서는 국악 반주의 미사가 왕왕 집전되었다. 교회 안에서 마당극이 공연되기도 하였다. 공단 작업장 외벽에는 근로자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벽화가 그려졌고 크리스마스 카드가 해맞이 그림 연하장으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방송 매체의 도움 없이도 카세트 테이프에 담긴 창작 민요와 노래 동아리에서 작사 작곡한 노래들이 입과 입을 통해 퍼져나갔다. 배움공동체, 직장공동체, 신앙공동체 모두가 생활예술 동아리를 키워내며 대항적인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였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공동체 기반 생활예술은 새로운 대안 창출을 위한 실험 속에 함께 있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 마을문고, 작은 도서관. 방과 후 학교, 계절학교, 대안학교, 생활협동조합, 인문학공부방, 마을 카페, 공방, 소극장, 마을 예술제와 연계되어 있었다.
2010년대 공동체 기반 생활예술은 지역재생과 마을 디자인, 재래시장 리뉴얼, 문화공간과 예술거리 조성, 그리고 텃밭과 공원, 숲 등 도시 재구성과 새로운 생활양식 태동을 주목하고 있다.

생활문화 ?!

지역사회 시민문화의 일상을 이루는 생활문화는 시민들의 자각이 함께하지 않으면 숙성되지 않으며 변성(變性)없이는 문화향유는 되겠지만 새로운 문화 창조는 쉽지 않다.
현재 우리 인류는 기로에 서 있다한다. 과소비, 난개발, 지구 토양 오염,

바다 쓰레기 집적, 밀림과 숲의 축소, 탄소 배출 과다, 지구 해수면 상승 등등으로. 지속가능한 삶이 되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생활문화를 바꾸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세대가 너무나 큰 부담을 지어야하고 그들에게 전가될 고통이 지나치게 크다고 세계 지성들은 경고한다. 우리의 생활문화, 무엇부터 바꾸어야 하나? 그리고 생활예술은 어떻게 진작시켜야하나?

저비용, 저에너지 생활예술을 찾아내 즐기는 것부터 시작하자

한국전쟁 직후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는 기억하고 있다. 그들이 젊었을 때 동그랗게 둘러앉아 통기타와 하모니카만으로도 훈훈하고 정겨운 시간을 가졌던 것을. 그리고 북, 장구, 꽹과리, 징, 사물만 있으면 온 마을 사람이 신명난 춤판을 즐길 수 있었던 것을. 무대 없이도 마당만 있으면 연극이 가능했던 시절을. 그들이 청소년이었던 시절에는 유독 문학의 밤이 많았다. 시집을 사서 읽고 맘에 드는 시를 골라 낭송하는… 어린 시절에는 종이인형과 종이옷을 직접 그리고 오려 입히며 소꿉놀이를 했고 동네 골목에서는 친구들과 고무줄놀이를 했으며 구슬치기, 딱지치기, 술래잡기, 다방구(다살이)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던 것을.
적색국가에서 녹색국가로 전환한 쿠바에서는 지금도 시가(cigar: 엽궐련)를 마는 공장에는 문학고전을 읽어주는 낭독가가 있어 노동의 무료함을 이겨내게 하는 한편 삶의 깊이를 더하게 하기 위해 책을 읽어준다 한다. 저비용 고효율의 생활문화의 본이라 할 만 하다.

십시일반(十匙一飯)하며 모은 공동기금의 문화를 되살리자.

예전에는 마을 대동굿을 펼칠 때 집집마다 지신밟기를 해주며 굿전과 쌀을 추렴하였다.
이때 내준 쌀은 집집마다 십시일반하며 모아 놓은 것이었다.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공동기금을 조성할 줄 알았던 선조들의 지혜가 배어 있는 전통이었다.
십여 년 전 수원에서 만원계를 꾸린 적이 있다. 1인 당 만원씩을 내고 모아 달마다 한 번씩 술자리를 갖는 주계(酒契)였다. 의정부에서는 차를 마시는

다계(茶契)를 하는 벗님도 있었다. 서로에게 부담이 없고 남는 돈은 모아 적립하였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이것을 종자돈 삼아 일일 주점을 열어 공동기금을 조성하였다. 이 기금은 크게 상부상조하는 일에도 쓰였고 공동의 문화공간을 조성하는데도 한 몫 하였다.

더불어 함께 즐기는 문화를 일구자

옛 기록을 보면 우리겨레는 춤추고 노래하기를 즐기는 민족이라 하였다. 함께 노래 부르기, 다 같이 춤추기를 일상에서 되살릴 필요가 있다. 같이 부르기 좋은 노래모음집을 만들고 광장에서 포크 댄스를 배우고 더불어 춤을 추는 기회가 잦으면 좋겠다. 안산 원곡동에 있는 작은 공원에 가면 중국에서 건너온 재중 동포들이 이삼십 명씩 모여 춤을 즐긴다. 정신 건강, 몸 건강에도 좋을 것 같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세계 여러 나라 공동체놀이를 보급하여 더불어 즐기며 친구를 사귀게 하고 군포 문화예술회관에서 하였듯 실외 외벽에 거울벽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춤 연습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면 한다.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그래피티 아트

친자연 문화를 일으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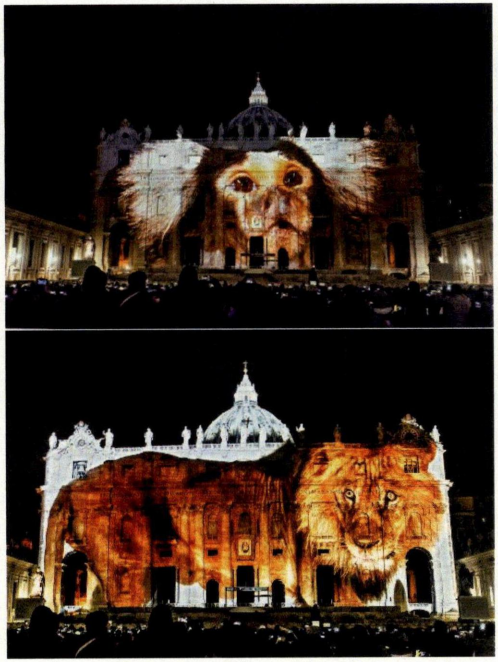
공동운영 텃밭에 참여하는 가족들이 많다. 유기농 채소를 기르고 이웃도 사귀고 산출된 것들은 서로 나누며 땅도 살리고 공동체도 자연스럽게 살려낸다.
유럽에서 실험 중인 "나우토피아(Nowtopia)"에서는 '가이아의 정원'이 실험되고 있다 한다. 다년생살이 곡식, 약초, 화초, 과실나무를 섞어

심어 조성한 정원으로 일명 "먹거리 숲"이라 부르기도 한다. 공공공원의 일부를 분양받아 실험하기도 하고 공동으로 또는 개인이 땅을 구입해 조성하기도 한다. 재래종 씨앗을 모으고 나눈다. 가이아의 정원의 모델은 동아시아의 옛 정원이었다고 하는데 오랜 종가집 앞마당과 뒤뜰에 조성된 정원이 연상된다. 사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우리 겨레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생활 속에서 자연미를 흠뻑 즐길 줄 알았던 매우 슬기로운 민족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인들이 뜨악해하는 아파트 공화국을 만들어 스카이 라인을 훼손한지 오래되었고 그윽한 자연의 미감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다시금 친자연 문화를 되살려 생태적 미감과 미의식을 회복하였으면 한다.

활생(活生)의 생활문화

생활문화를 비롯하여 문화일반의 핵은 사회구성원이 그들이 사는 세계를 이해하고 구성하는데 길눈이가 되어 줄 세계관이다. 인류문명의 대전환을 앞두고 프란체스코 교황은 새로운 세계관, 신앙관의 기초가 되어 줄 바탕 학문으로 "온전한 생태학" 연구와 토론을 제안하였다.
현존하는 인류, 호모 사피엔스가 구성한 사회에서는 고대와 중세에는 신 중심의 세계관이 대세였으며, 근현대에는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팽배해있다. 하지만 다가올 문명은 이를 넘어 설 수 있다. 범 생명 중심의 세계관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으로 살처분 된 동물들이 너무도 많다. 공장식 축산으로 전염이 가속화되었는데 이를 개선하는 노력은 더디기만 한다. 동물들이 가축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밥상에 오르기 직전까지는 그들도 짝을 짓고 새끼를 기르고 그들 나름의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하는데 사람들이 돈벌이에 급급해 생산성 향상과 수지타산만을 따지며 그들을 죄수보다 못한 취급을 하며 생지옥으로 내 몬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 인류의 업장(業障)이 깊어 메르스 사태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다시 올 수도 있다. 동물복지에도 관심을 갖고 조선시대 건강식 같이 단백질 섭취를 균형 있게 취할 필요가 있다. 이것 또한 생활 문화와 관련된 것이다.
4년 전 인도의 환경산림부는 돌고래를 '비인간인격체(nonhuman

persons)'로 보아야하며 이에 따른 고유한 권리를 지닌다고 공표했다. 따라서 돌고래를 포획하여 공연목적으로 길들이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고래류는 바다를 삶의 근거지로 하는 고등생명체이며 그들 또한 그들끼리의 언어를 구사하며 사회생활을 한다. 최근에는 코끼리 또한 언어생활을 한다는 것이 코끼리 언어연구학자에 의해 밝혀졌다.
근래 식물의 뇌에 관한 책들이 여럿 소개됐다. 식물 또한 만만치 않은 존재들이다.
사람 중심의 세계관, 인간 중심주의, 인류 종 우월주의를 포기하고 뭇 생명 모두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며 범생명 중심의 세계관에 공감을 표하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미 세계관의 변화는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 안에서 현대를 넘어서는 이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식의 지도 역할을 하는 역사 연구가 확장되고 있다. 빅 히스토리(Big History)의 등장이다. 빅뱅부터 현재까지 137억년의 우주사와 46억년의 지구사 그리고 35억년의 생명의 역사를 다룬 서적과 영상이 소개되고 있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빅 히스토리 연구와 보급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대이론물리학자들은 초끈이론을 심층연구하다 M이론을 내왔는데 11차원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시간이라는 차원을 바탕에 깔고 10차원의 공간을 밝히고 있다.
점차 가까워오고 있는 지구촌 시민사회 형성을 위해 확장된 의식이 필요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불어 주고받는 공유지식이 밑바탕을 이루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빅히스토리로 쓰여 진 예루살렘 히브리대학 유발 하라리 교수의 『사피엔스』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의 생활문화는 공진화하여 2020년대에는 활생문화로 나아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생(自生)하고 상생(相生)하며 공생(共生)을 희구하는 바람은 자연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며 뭇 생명 모두를 살리는 활생(活生)의 생활문화를 지구촌 곳곳 지역사회 안에서 싹을 틔우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서 펼쳐지고 있는 생활예술과 이를 감싸 안은 생활문화도 숙성하면 활생문화의 진면목(眞面目)을 보일 것이다. 앞날을 내다보고 슬기롭게 오늘을 돌보는 것이 생활문화정책의 바탕이 되길 바래본다.

새 부대의 운명은 아무도 모른다

_ 〈생활문화 이어보기〉 프로젝트에 대한 단상

고영직 (문학평론가)

시민 개개인의 행복을 위하여

2016년 6월 28일, 서울시는 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 계획안에서 개인/공동체/지역/도시 차원에서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한 도시가 핵심적으로 공유하고 추구하려는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각 단위별로 설정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 차원에서는 삶을 기획하는 시민문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주권'을 표방하고 있으며, 공동체 차원에서는 다양성이 공존하는 공동체 문화를 위해 '문화공생'의 가치를 강조한다.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는 재생(再生)을 통한 문화적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재생'을 강조했으며, 도시 차원에서는 지속가능한 문화를 위한 '문화창조'에 역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계획안》 수립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기본 계획안의 뼈대를 만들고 살을 붙였다. 나 역시 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자문회의에 응한 바 있고, 한 도시(나라)의 문화정책은 이제는 성장사회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탈성장사회(세르주

라투슈)로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무엇보다 이번에 발표한 서울시 '비전 2030' 계획안이 기존의《2015 문화도시 기본계획》과 다른 점이 있다면, "도시의 문화적 발전"을 강조한 예전 계획안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시민 개개인의 행복"을 강조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있다고 확언할 수 있다.

서울시 문화정책의 이러한 방향전환은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고, 창조적 장소(Creative Placemaking)를 구축하려는 도시정책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갈수록 무연(無緣)사회화하는 사회에서 가장 큰 병통은 관계의 빈곤이라는 점에서 '시민 개개인의 행복'을 문화정책의 기조로 선택한 서울시의 비전 2030 계획은 오히려 참신하다. 개인의 건강, 자아실현, 가족을 매개로 한 새로운 가치관 형성, 고령(화) 사회로의 진화, 사회적 양극화와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다양한 치유활동 증가와 대안적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 등의 구체적 정책들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는 점차 개인의 행복과 문화적 권리를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오늘날 문화의 기능은 이미 존재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욕구를 창조하는 동시에 기존의 욕구들이 영원히 충족되지 않은 채로 남도록 하는 것으로 바뀌는 양상이다. 세계화와 대규모 이주와 인구의 혼합이라는 새롭고 강력한 힘의 등장에 따라 문화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셈이다. 메갈로폴리스 서울의 경우 요동치는 문화변동은 우리나라 어떤 도시보다 더 실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 개개인의 행복에 역점을 두면서도 지역과 도시 차원에서 공동체의 재생과 복원을 강조하는 도시 비전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것은 정책적 모순일까. 그렇지 않다. 이제 개인은 도시와 직접 관계하는 대신에, 공동체와 지역을 매개로 하여 도시와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재생 중심의 도시 발전, 지역을 매개로 한 공동체적 관계 복원, 다양한 온-오프라인 공동체 형성은 이제 탈성장 시대(저성장 시대가 아니라!)의 핵심적 문화적 문법이다. 소위 자유시장에 대한 믿음이 2008년 금융 위기 이래 무너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수년 전부터 서울시가 공유도시를 표방하며 사람과 사람들이 사용하는 자원 사이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도시정책을 펴고 있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환상은 금물이다. 계획은 계획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비전 2030 수립은 우리나라 도시비전 차원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한 것은 분명하지만, 개인-공동체-지역-도시를 서로 연결해 새로운 도시 정체성을 만들고, 시민들이 함께 부르는 합창(合唱)을 완성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몫이다. 결국, 도시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만든다. 우리는 자주 이 자명한 사실을 잊고 지내는 것이 아닐까. 나는 이 점에서 "도시는 사람이다"라는 명제를 여전히 신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기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페인어 푸에블로(pueblo)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 하나는 '마을'이나 '도시'를 뜻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뜻하는 말도 된다. 이 의미를 풀어보면 "도시(마을)는 사람이다"라는 뜻이다. 우리나라 도시 비전과 정책 수립 그리고 도시 정체성 측면에서 푸에블로라는 말이 갖는 이중적 의미를 충분히 헤아려야 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하고 있는 무엇이다

한 도시의 문화는 예술가(단체)와 대중이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정책에서 비롯한다.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장르 중심의 지원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지역 내 다양한 분야의 장르 간, 단체 간 협력 사업을 강화하고 우선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문화정책의 새로운 화두로 부상한 생활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이 요청된다. 특히 생활문화를 라이프스타일(Lifestyle)의 측면에서 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의 라이프스타일은 지금의 삶과는 좀 '다르게' 살고 싶어 하고, 지금의 문명과는 좀 '다른' 문명의 바깥을 상상하려는 우리 욕망행위와 관련이 있다. 프랑스 철학자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 1901-1991)가 정의한 일상성에 대한 재(再)전유를 통해 내 안의 리듬과 우리 사회의 리듬을 바꾸려는 시도들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생활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결국 무엇이 좋은 삶이고 무엇이 좋은 사회인가에 대한 고민들과 접속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생활문화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지자체(광역/

기초문화재단)의 과도한 관심이 공급자 위주의 시선으로 새로운 정책사업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고민일 뿐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의 생활문화 지원사업은 여가사회 담론의 맥락 안에서만 논의되고 있다. 여가사회 담론이란 기존의 견고한 노동사회 담론을 전제한다. 그런 여가사회 담론의 관점에서는 생활문화정책이란 물량 위주의 사업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발상이 현실화될 우려가 매우 높다. 그럴 경우 외부의 힘에 덜 의존하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상의 문화를 향유하고 창조하겠다는 취지와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생활문화 현장 또한 지원제도의 덫에 갇히게 된다. '최소한의' 행정으로도 잘 돌아가는 생활문화활동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요구해야 하는 동시에, 생활문화 사업의 '자폐성'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활문화활동을 통해 일상의 문화를 가꾸고 바꾼다는 것이 결국 무엇에 대한 자율성이고, 무엇을 위한 자율성인가를 묻는 질문의 과정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질문의 과정이 없는 생활문화정책/활동은 쉽게 외풍(外風)에 의해 무너진다. 어쩌면 그런 질문을 품은 사람들이 나 자신의 일상을 바꾸고, 동네(지역)를 바꾸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활문화센터의 경우 '공간이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점에 대해 더 숙고해야 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공간에서 협력 자체가 예술이 되는 삶-예술의 경지를 일상적으로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놀 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런 공간을 우리는 창조적 공유지라고 부른다. 결국, 사람을 키워야 하는 것이고, 시민과 지방정부 간에 거버넌스의 회복과 부활이 필요하다. 미국 교육자 파커 J. 파머가 "민주주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무엇이다"라고 말한 것도 그런 이유와 결코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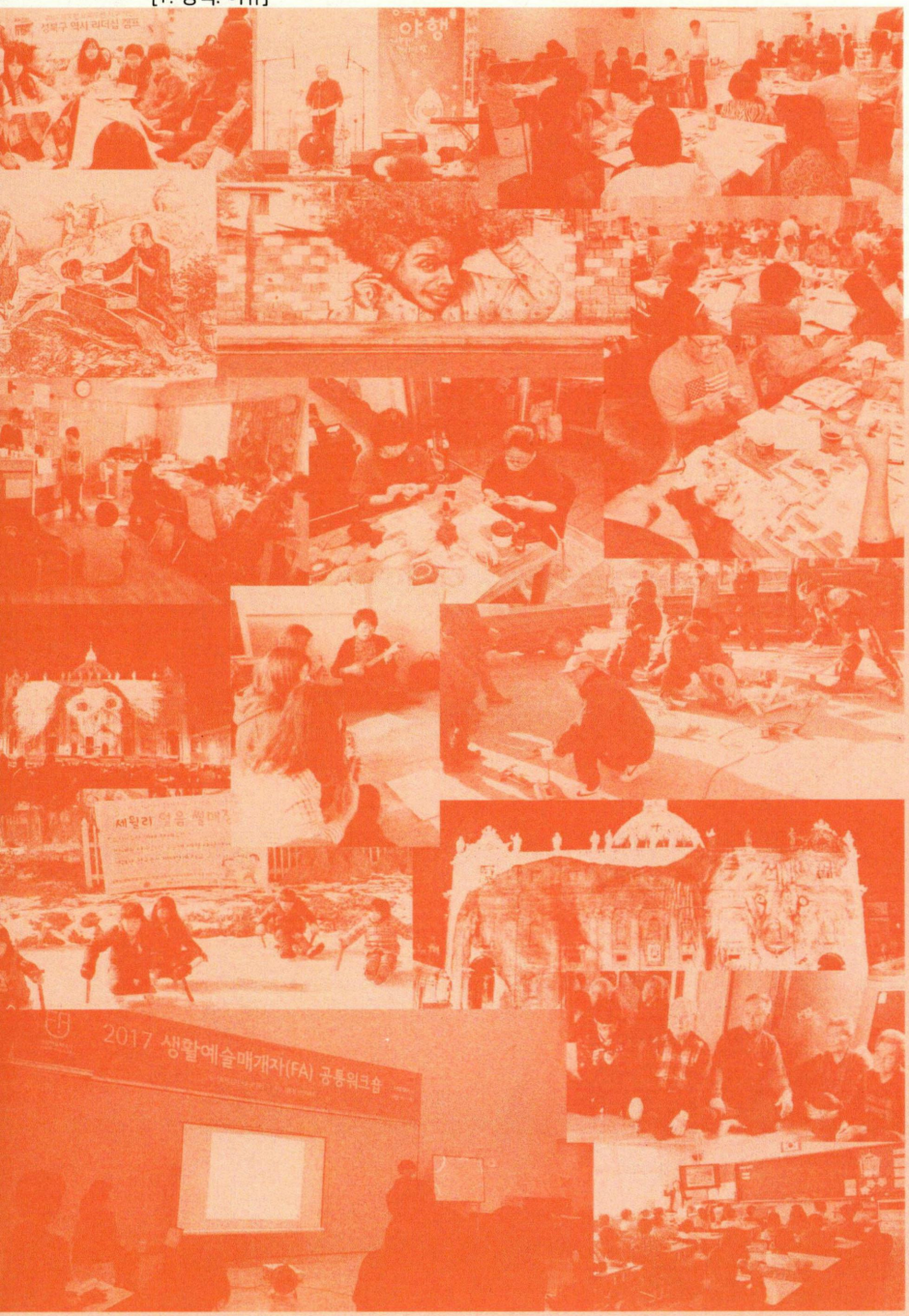
2016년부터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추진하는 생활문화플랫폼 사업을 비롯해 생활문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생활문화 다시보기〉 프로젝트는 다음 스텝의 정책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나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생활문화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인 민주주의적 감수성 제고와 시민성의 형성·강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지금의 생활문화활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하고, 예술·생태·지역을 비롯한 주요한 사회적 의제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 또한 역부족하다. 전국에 수많은 생활문화 동아리들이 있지만, 대체로 자족적인 활동으로 그치고 마는 것은 우리들의 작은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시민성 형성과 강화라는 관점과 목표의 부재에서 비롯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시민 개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해진 시절을 맞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삶이 매우 중요한데, 어떻게 개인의 주체성과 내면성을 형성하고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섬세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런 개인들이 자신이 사는 커뮤니티와 어떻게 접속되고 연결될 것인가가 중요하다. 어쩌면 이러한 고민은 예술성의 강화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생활문화활동에서 활동을 하면 할수록 예술성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착하지 않은 착함의 예술 활동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활동 기간 내내 자원 활동인가, 자원봉사인가 회의하고 갈등하다 착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솔가와이란이 부른 노래 〈같이 산다는 건〉의 가사를 음미하는 것으로 글을 맺을까 한다.

"같이 산다는 건 날 덜어내고 너를 채우는 일 / 같이 산다는 건 내 우주 너의 우주 만나는 일."

〈생활문화 다시보기〉를 넘어 생활문화지원사업의 다음 스텝을 고민하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즐거운 분투를 바라마지 않는다. 나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활동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옛말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활동이 되기를 바란다. 새 술은 언제나 차고 넘치며, 새 부대의 운명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미리부터 새 부대의 운명을 걱정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오히려 더 중요한 태도는 '행동 먼저, 생각은 나중에' 하겠다는 담대한 용기일지 모르겠다. 나는 이 우연성의 힘을 여전히 신뢰한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꽉 차인 계획표대로만 움직이지 않았던가.


야행
2017 생활예술매개자(FA) 공통워크숍

자발적 공동체와 매개자의 역할

임승관 (시민문화공동체 문화바람 대표)

근래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은 점차 심화하는 소득 양극화와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안전한 생활과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 불안과 위협[5]을 느끼고 있다. 개인은 주거, 복지, 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 담론에서 소외당하며 '사회적 배제'라는 고립감과 고독감을 겪는다. 이렇게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되는 심리적 문제는 근래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6] 시장경제와 국가주의 논리로 성장만을 최고로 추구해온 근대 산업문명이 낳은 현상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과 대안을 위해 공동체 관련 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펼치고 있다.[7] 문화예술 분야도 그렇다. 2011년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하면서 생활문화를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지원 사업 비중이 높아졌다. 하지만 성공사례는 찾기 힘들다. 지원 사업이 끝나면 공동체가 더 이상 성장을 멈추거나, 언론을 통해 모범사례로 알려져 유명해진 벽화 마을들은 그곳 주민에 의해 지워지고 새로운 갈등을 남겼다.



지금은 없어진 이화마을 벽화

공동체는 구성원 개인들의 역량이 발현되어 조화를 이룰 때 성장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동체 지원 사업이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과 참여의식, 주인의식을 목표로 제시한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체성은 구성원들의 도덕적 양심이나 의식 수준뿐만이 아니다.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표현과 소통,

민주적인 합의, 자율적인 협동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더욱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공동체 사업의 성과와 목표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다만 '결과'는 '과정'에 따른 부수적인 현상이다.

평등하고 수평적인 관계

시민들이 생활예술 동아리 활동을 선택하는 첫 번째 동기는 기능 습득과 숙련을 기대하는 자기만족 추구다. 오직 자신을 향한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선택이다. 기타를 잘 치고 싶고, 대중 앞에서 신나는 밴드공연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동아리를 찾아 가입한다.
하지만 동아리 활동을 하며 몇 주가 지나면 만족 동기는 '나'에서 '우리'로 확장된다. 구성원과의 새로운 관계에서 느끼는 익숙함과 소속감이 더 큰 만족을 주는 것이다. 동아리 외부 사회관계는 소득과 교육수준, 직업, 나이 성별 등 사회적 위계질서가 작동하는 서열 관계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하지만 경쟁과 이해 관계없이 같은 취미를 매개로 만난 동아리 구성원은 수평적인 평등한 관계로 보다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렇게 현대인들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느끼는 고립감을 피하고자 자신이 받아들여지는 혹은 그러기 바라는 특정한 집단에 속하려고 한다. 소속된 집단으로부터의 인정을 통하여 개인이 느끼는 고립감을 극복하고 심리적 안정을 받기 때문이다.
생활예술 활동은 경쟁이 필요 요소가 아니다. 스포츠 활동과 같이 결국 이기고 지는 것을 경쟁하지(과정이 공정하고 모두 인정하더라도) 않아도 의미가 있으며 무엇보다 즐겁다. 이런 생활예술 활동의 속성으로 구성원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다양한 이야기를 남에게 쉽게 드러내고 다른 의견에 공감하며 신뢰를 쌓는 환경이 마련된다. 이 과정에서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참고할 만한 것이 되기도 한다. 나의 존재가 누군가의 참고가 된다는 사실은 사회적 존재감을 높인다. 그동안 고립감과 배제감을 느끼던 개인이 사회적 개인, 즉 공적인 존재로 바뀌는 것이다.
자유 의지로 선택한 공동체는 다른 구성원이 인정하는 조건, 즉 합의된 규율을 지켜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이는 공동체가 공유하는 유 무형의 가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합의에 동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개인은 공동체를 선택하고 환대받으며 개인의 정체성은 '우리'라는 새로운 소속감으로 재규정 된다.
이렇게 기존의 사회적 위계질서와 다른 새로운 자아 정체성은 주로 소속 공동체 내에서만 유효하지만 공동체에서 성장한 경험, 즉 민주적 소통과 표현, 상호의존관계로 높아진 자존감은 다른 일상생활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모든 공동체는 건강하다?

구성원과 낯선 사람인 이방인을 구별하는 것은 공동체 속성이다.
공동체의 지속성은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는 결속력으로 외부와의 구분을 유지하는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때 나타나는 문제가 소속에 대한 개인의 지나친 의존이다. 집단 정체성에 경도된 배타적 집단주의는 다른 집단과의 우월적 차별을 위해 증오나 갈등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소속된 개인은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집단만을 대변하는 존재로 전락한다. 요사이 한국에서 일어난 참담한 국가적 대형 사고들을 대하는 치열한 의견 대립이 그랬다. 사건이 일어난 사회 구조와 부정의에 분노하기보다는 내가 속한 집단 정체성을 내세워 타 집단을 적대적으로 규정하며 비이성적인 증오와 멸시, 폭력을 자행하는 명분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사회를 양극단으로 대립시키고 서로를 증오하는 부정적인 에너지로 공동체를 결집한 경우이다. 이때 개인의 행동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이타적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사익 추구가 주된 목적인 연줄 네트워크나 이익 담합공동체로 이기적인 행동이다.
결국,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조건은 집단 내에서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을 얼마만큼 용인하는가이다. 찰스 타일러 Charles Taylor는 전체 내의 소수자 집단에 요구하는 정체성을 '동일성'으로 정의하는 위험성을 지적한다. 현대 자유민주주의를 비판하는 정치와 종교, 문화적 근본주의가 자신의 견해가 타 집단보다 우월하다는 명분으로 세력을 키워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개인의 자율과 집단적 근본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 정치와 종교, 문화적으로 통일된 집단주의는 일상에서도 개인의 자율성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 개인의 자발성과 의지로 자율적 협동이 일어나는

조건은 효율적인 관리나 통제가 아니다. 구성원과 권력을 나누고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는 소통구조를 제도화해야 기대할 수 있다. 하버마스는 의사결정이 실천적인 행위로 이어지려면 그 조건으로 '그 결정에 영향을 받을 사람이 가능한 한 모두 참여하였는가?''그 결정에 따른 유, 불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는가?''참여자들이 어떠한 강제와 강압에 의하지 않고 '예''아니요'를 표명하는 실천적인 소통을 하였는가?'를 지표로 제시했다. 모두가 동의하지 않아 무임승차가 이루어지고 소수자가 배제되는 현상은 공동체의 자율적 협동에 가장 큰 장애이기 때문이다.

참여와 개입 효과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발성은 내적 동기에서 나온다. 공동체의 현안을 내 문제로 바라보는 구성원들의 주인의식이 자발성 요인이다. 그리고 그 주인의식 또한 구성원의 도덕적 양심이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적 시스템의 효과다.

주인의식의 핵심은 재정 운영과 사업 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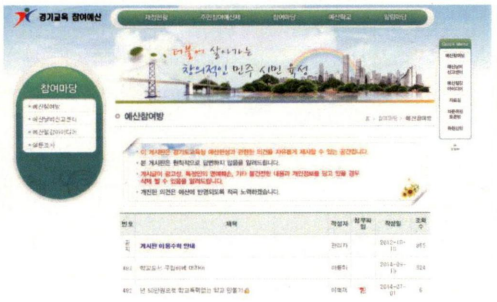
문화 공간 구성원들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사업, 비전에 대해 자기결정권이 없으면서 지도 감독과 서비스 수혜 대상이라면 자발성은 기대할 수 없다. 구성원은 백화점, 대형마트 문화센터 등에서 경험한 이용자나 민원인의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통제의 환상'이라는 이론이 있다. 어떤 견디기 어려운 조건에 처한 사람이, 만약 내가 이 상황에 개입하여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같은 조건에서도 만족감과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이론이다. 생활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일반 예술가 지원과 다르게 설계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수월성이나 트렌드로 그 결과가 상대적으로 평가되는 전문예술과 달리 생활예술은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얻는 삶의 활력과 생활에 대한 긍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결과가 민주적인 소통과정으로 내 의견이 참고 되었다면 내 바람과는 다른 것이 결정되었어도 그 합의에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의 작은 도시 뽀루뚜알레그리는 '참여 예산제'를 실시한다. 주민의 주인의식을 일깨워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전 세계가 주목했다. 이유는

정책 시스템 때문이다. '참여 예산제'는 작고 가난한 마을 주민들까지 모든 시민은 평등하게 시 정부의 정책과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다. 이러한 협치는 그동안 행정역량으로 불가능했던 현안들을 해결했으며, 주민의 창조적인 정책 제안으로 예산 효율성을 높였다.



경기도교육청 주민 참여 예산 홈페이지

'참여 예산제'의 핵심은 공동체의 사업과 예산 분배, 집행 그리고 관련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이 모두에게 열려 통제 환상 효과를 현실에서 증명했다. 그동안 정치로부터 배제되고 몫이 없는 시민들이 몫을 행사한 결과다. 결국, 공동체 구성원의 주인의식은 참여나 개입, 정보 공유를 제도화하는 협치 철학을 지닌 매개자로부터 대부분 이루어질 수 있다.

생활예술 철학을 지닌 촉매자





'문화바람' 활동

매개자나 활동가 역할 없이 생활예술 공동체가 공적 활동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예술적 취향'과 '사회적 관계''조직 내부'와 '조직 바깥'을 매개하고 조율하는 문화매개자로서 전문 역할을 요구하기 때문이다.[8]
생활예술 매개자는 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자나 헌신하는 봉사자가 아니다. 이 경우 매개자는 관료화의 오류에 빠져 구성원을 대상화하기 쉽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매개자 임무를 수행하는 활동가는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매개자의 예술적 감수성과 이해도는 생활예술 공동체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행정 업무 능력, 구성원 내 관계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조급하지 않은 인내심이 필요하다.
매개자는 생활예술이 지닌 철학적 비전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다양한 관계 경험과 현안 해결을 통해 얻은 지식(Know how)을 수행하는 전문가이다. 그래서 매개자는 공동체 구성원을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을 함께 나누어 협치 해야 한다. 그러려면 매개자들 내부 조직도 개성을 중시하고 협동을 중시하는 상호의존적인 관계 문화를 이루어야 한다.
매개자는 공동체 구성원을 만나고 소통하며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매개자 조직 내의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자율성 보장은 매개자의 자존감을 높여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게 된다. 하지만 매개자가 조직의 권위적인 소통체계나 양적 성과나 결과에 책임과 부담을 느낀다면 이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주인의식을 저해하는 통제나 관리의 사업방식에 원인이 된다.
전업 활동가는 시민을 잘 통치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율과 협동의 가치를 실행할 수 있는 마당을 조성하고 환경을 가꾸는 역할을 해야 한다. 즉 활동가는 공동체 구성원을 계몽적으로 전달하거나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을 넘어 '참여'로 함께 이루는 사람들이다. 전업 활동가는 구성원들을 자신과 공동체의 주인으로 만드는 자다.[9]

나가며

우리가 바라는 '문화사회'는 구성원 누구나 문화적인 소통이 가능한 사회다.



결국,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만나고 그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이유는 특정 예술 장르의 기능 습득과 숙련을 넘어 지금보다 나은 사회를 스스로 만들고 참여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자본주의 패러다임은 산업 문명이었다. 산업사회는 국가주의와 집단적 획일주의, 시장 경제와 성장주의로 무한경쟁을 일으키며 자율적 개성을 억제하고 통제하며 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이 산업문명은 구질서가 되어 가고 있다. 세계는 디지털 기술을 통한 초연결사회로 진입하면서 자유로운 개인들이 개성과 자율의 힘으로 새로운 요동을 만들어 내고 있다. 랑시에르는 예술과 민주주의의 관계에서 민주주의는 demo(민중)+cracy(통치) 즉, 지금의 의회 민주주의나 대의 민주주의 형식은 능력자들에 의한 위임, 대리 통치와 달리 '자격 없는 자들의 통치'라고 했다. 자격 없는 자, 몫 없는 자가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부여하는 것은 관계를 통한 감성적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10] 그 동안 자신을 배제했던 구질서를 거스르고 넘어서는 요동이다.

'생활예술'은 감성적 실천 영역에서 자유롭고 해방된 주체로 갱신되고 고양하는 개인이 호명한 '예술'에 대한 새 이름이다.

5)재단법인 희망제작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획연구 '시대정신을 묻는다'에서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정신, 지향해야 할 미래 가치를 "안전한 '놀이터'와 지속가능한 삶"으로 제시했다. 안전한 '놀이터'란 사회가 개인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바람직한 환경으로, 생존을 위협받지 않으면서 마음 놓고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 있는 열린 환경을 말한다. 그 안에서 개인들이 생존을 위한 과도한 경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선 안에서 공존·공생하는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하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원하는 사회의 상이라는 것이 희망제작소의 분석이다.
http://www.huffingtonpost.kr/zeitgeist-korea/story_b_10519818.html.

6)'한국사회의 빈곤 상태에 대한 경험적 연구'(강신욱 외, 2005)

7)한국정책학회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6개 정부 부처 14개 사업이다. 예산 규모는 2014년 1조 1700억 원, 2015년 1조 1800억 원 등이다.

8)강윤주. 심보선. 2013. [생활예술 공동체 내 문화매개자의 역할] 경제와 사회. 한을 출판사. 겨울호

9)임승관. 2017.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다섯 요인] 성공회대 문화대학원

10)심보선. 『그을린 예술』. 민음사. 2013

여 백

Ⅱ. 문화원 사람들 이야기

1. 새정부 문화정책과 문화원 발전방향

2. 지방문화원 소소한 담론

1. 새정부 문화정책과 문화원 발전방향

가. 문화원 직원들이 읽는 새정부 문화정책
김명수/ 임대성/ 최실비/ 황수근

나. 새정부의 문화정책 방향 문화원에 적용하기
이미경(이천문화원 과장)

문화원 직원들이 읽는 새 정부 문화정책 1

향토문화 인프라를 통해 지방문화의 자생력을 확보하자

김명수 (화성문화원)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새 정부는 탄핵까지 불러왔던 과거정부와의 결별을 통해서 새로운 발걸음을 떼고 있는 중이다. 실제 정권에 대한 호불호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인들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지원금이 없이 생존하기 어려운 현실을 이용해 굴복시키고자 했던 시도는 두말할 필요 없이 청산이 되어야 하는 과제일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에게 거는 기대는 각 문화의 주체마다 많은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특히 과거 지역의 유일한 문화기관이었다가 그 역할을 점점 다른 문화기관에 내어주고 있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생존의 셈법이 복잡할 것이다. 모두가 새로운 물결에 동참하라고 할 때 우리만이 유일했던 과거로 회귀하자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필자는 문화원으로 오기 전까지 구비문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했다. 구비문학은 민요, 설화, 무가, 판소리 등 글보다는 입으로 전해지는 문학이다. 이것을 흔히 구전문학이라고도 부르는데 구전문학이 아닌 굳이 어려운 비석 비(碑)자를 쓰는 이유는 단순히 전해진 것이 아닌 집단이 선택하여 비석에 새기듯이 간직해온 문학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함이다. 구비문학 공부를 위해서는 실제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나 노래를 청하고 녹음하여 기록하는 필드워크과정이 필수적이다. 필자가 처음 문화원과 만난 계기도 바로 이러한 필드워크를 수행하면서다. 특정지역을 조사하기 전 가장 먼저 들러야 하는 곳이 바로 주민센터와 문화원이다. 주민센터에서는 관의 협조를 얻어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문화원은 실제 연구팀이 조사해야할 지역의 대표 이야기꾼과 소리꾼의 정보를 얻는다. 물론 지역 노인정을 중심으로 기습적인 조사를 하고 그런 곳에서도 훌륭한 자료제보자를 찾기도 하지만 대부분 문화원에서

추천하는 이야기꾼이 지역에서 제일가는 인물일 때가 많다. 그때 당시는 문화원이라는 곳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스스로의 고용안정을 위해 소속기관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현재 화성문화원에서는 크게 〈문화학교〉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문화강좌 프로그램, 주로 인문학 명사들을 초청하는 각종 특강들, 크고 작은 축제무대와 행사를 진행, 향토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연구 자료집 발간, 전국의 문화재를 답사하는 〈문화유산을 찾아서〉 답사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종 동아리에 활용공간을 제공한다. 그렇게 지원하는 단체 중에는 지역향토문화를 자율적으로 연구하는 향토문화연구소도 포함되어있다.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거의 모든 활동은 지역의 문화재단의 프로그램과 겹친다. 또한 좀 더 전문화된 인력이 더 큰 규모와 더 좋은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이다. 작은 예를 들어보면 문화원에서 지역 성악가의 무대를 기획한다면 문화재단에서는 유명한 외국의 지휘자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진행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같은 서예반, 민화반이라도 더 좋은 시설에서 두 세반이 로테이션 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니 거리가 가깝다면 주민들의 만족도는 문화재단 쪽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하지만 워낙에 부족한 한국의 문화 인프라를 생각해보면 이런 부분은 서로의 체급차이를 인정하고 강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보완이 가능하다. 문화원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역접근성도 강점이 될 수 있고 우리 이웃인 성악가의 무대를 보는 것 또한 지역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원에서 운영 중인 강좌의 가격도 훌륭한 경쟁력일 것이다. 화성시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공존의 가능성은 아주 커 보인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렇다면 문화재단 등 새로 생겨나는 문화기관보다 문화원이 나은 점 그래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지역문화를 오랫동안 책임져왔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한 진정한 지역문화개발이 아닐까 싶다. 특히 주류학계에서 다루기 어려운 디테일한 향토사와 지역사에 최고의 접근성을 가진 것이 문화원의 가장 큰 무기일 것이다.

얼마 전 대통령은 강력한 지방분권 시대의 개막을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만약 구상대로 진행된다면 경기도가 서울의 위성도시를 벗어나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획일화 되고 있는 도시에서 고유의 지역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향토사를 재료로 민속학, 구비문학, 인류학 연구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동안 중앙 학계의 관심이 뻗치지 못했던 향토사가 주목받게 되는 순간이며 문화원이 타 단체들보다 비교우위에 설수 있는 지점이며 이 중심에는 지역 문화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향토사연구소와 같은 학술연구단체가 자리하고 있다.
물론 해결해야할 과제들은 많이 있다. 대부분의 주류학계에서는 향토사연구소의 학술성과에 대해 편견이 있고 그 편견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많은 향토사학자들이 열악한 현실을 열정으로 극복하는 연구를 진행해왔고 그에 따른 도움이나 지원이 열악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료수집의 조건을 누락하는 경우도 많고 글에도 허점이 있는 경우가 있는 편이다. 그래서인지 실제로 향토사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학술지들이 발행되고 있으나 실제 인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중앙학계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직접 수행하는 연구도 문제는 많다. 가장 큰 문제는 라포 형성의 어려움이다. 라포는 일종의 친밀감, 신뢰감을 이야기하는 용어이다. 민요나 설화 같은 구비문학부터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과 같은 현대사의 갈등에 대한 증언까지 지역 연구를 위한 구술 자료의 폭은 아주 넓다. 가장 좋은 자료는 제보자와 조사자의 친밀함이 극대화 되어 자기 안에 있는 진짜 생각을 그대로 끄집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역 문화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예사나 향토문화 연구 인력일 수 있다. 그래서 문화원은 향토문화 연구가들이 어디든 통용될 수 있는 좋은 연구 자료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중앙학계의 조사 방법론 학습을 지원하고 자신들의 생각이 담긴 연구 성과물들을 평가받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공적인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한다. 향토사 연구자들은 그들의 열정이나 성과에 비하여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부분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실제 직업을 수행하고 남는 시간에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관련 학위를 취득한다든지 하는 연구 활동을 하기는 어렵다. 그들의 자존감을

보호하고 그들의 열정을 지역사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는 까닭이다.
현재 화성문화원에서는 화성지역의 산업화 상황에 대한 구술자료 확보 및 연구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의 회원들에게 구술채록 관련 교육을 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부분에 참여시키고 관련된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협업의 경험을 주고자 하려는 의도로 기획된 사업이다. 우수한 향토문화 연구가를 양성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형성된 지역정체성의 모범답안 위에서 문화콘텐츠 개발이나 축제 개발도 이루어지는 것이 맥락과 원형이 살아있는 좋은 콘텐츠 제작의 지름길일수 있을 것 이다.문화원 주변에는 오랫동안 지역문화에 애정을 가지고 지켜왔던 많은 인적자원과 네트워크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 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자산임을 인식하는 것이 문화원 자생력 확보 시작지점이 될 것이다.



2012년 1월 27일 철원 전쟁체험담 구술조사

문화원 직원들이 읽는 새 정부 문화정책 2

새 정부 문화정책과 문화원의 방향

임대성 (안산문화원 총무팀장)

故최고은 작가는 1979년생이었다. 그녀의 직업은 영화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였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영화과를 졸업하였으며 2002년 단편영화 〈연애의 기초〉를 통해 데뷔했다. 이후 작가는 2004년 〈새벽정신〉, 〈젖꼭지가 닮았다.〉 등을 발표했고 2006년에는 아시아나 국제단편영화제에서 단편의 얼굴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능 있던 이 젊은 작가는 2011년 1월 29일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그리고 故최고은 작가의 사망소식은 우리사회에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그녀의 사망소식이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그녀의 유작 혹은 미발표된 작품 때문이 아니라 "쌀이나 김치를 더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면 밀린 돈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서, 이후 전기세는 꼭 정산해드릴게요." 라는 내용의 쪽지 때문이었다.

일전에 영화를 하던 친구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다. 그 친구가 한창 영화 연출 관련하여 이론 공부를 하려고 중고 서적을 사서 읽는 와중 중간에 이런 말이 낙서처럼 적혀 있었다고 했다. '영화는 이제 그만 해야 한다. 살아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 기업 그리고 대중들의 문화예술에 관한 관심은 대형 기획사 소속 연예인과 그들이 출연하는 드라마 혹은 대중가요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관심을 얻고 있는 이른 바 '한류열풍'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한류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연예인과 대형 기획사,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낸

여러 장르의 작품을 유통시키며 이익을 창출하는 대기업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점차 그 영향력을 확장시켜나가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음지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당장의 생계를 고민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문화예술인들도 다수 존재한다. 대한민국 문화예술 산업의 파이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지만 여전히 굶주리고 힘겨워 하는 이들이 존재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6.25전쟁 직후 대한민국은 풍비박산 났다. 나라를 재건시키는 것만이 모두의 염원이었고, 쌀이나 공산품으로 치환할 수 없는 모든 활동은 사치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자동차를 만들어야 했고, 도로와 공장을 지어야 했으며 댐이 필요했고, 발전소가 시급했다. 국가의 모든 정책과 시선은 당연히 국토의 물리적 재건에 있었다. 그 시기에는 이러한 선택과 집중이 당연했다. '한강의 기적'은 하나의 종교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매김했다. 거덜 난 국토의 물리적 재건만으로도 벅찼고 힘겨웠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까지 신경 쓸 여유도 의지도 부족했다.
바로 여기서 우리나라의 천민자본주의가 시작됐다. 모든 활동의 가치는 온전히 경제적 지표로만 평가 받게 되었다. 돈이 되는 일과 돈이 되지 않는 일 사이에서 예술가들은 완벽하게 후자였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는 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정부는 농업을 위해 비료 관련 사업을 육성하고 공업을 위해 수도권에 대규모 공장단지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을 위해 학교를 지었지만 예술과 문화의 몫은 없었다. 배고프니 농사가 먼저고, 물건이 필요하니 공장이 먼저고, 애들 교육을 시켜야 하니 학교가 먼저였다. 이러한 정부주도의 홀대 속에서 예술가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스스로 결실을 맺어야 했다.



1994년 문화체육부 산하에 문화산업국이 신설되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예술을 장려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로 예전에 비해 정책 조직이나 예산, 제도적인 면에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며 지표상으로도 세계 문화산업 점유율 7위라는 성적을 거두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한류 열풍'이 중국, 일본, 그리고 대만을 휩쓸었다. 국내 드라마가 중국에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으며 국내 연예인을 보기 위한 해외 관광 상품까지 생겨났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자칭 문화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예전에는 홀대했던 문화산업이 어느 순간 한류의 이름을 타고, 기업들의 집중 투자를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문화와 예술에 대한 우리들 인식의 변화일까? 아니면 그저 문화산업이 돈이 되기 때문일까. 나는 아무래도 후자 쪽이라고 생각한다. 문화, 예술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은 사실 크게 변할 여지가 없었다. 현재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거나 투자를 받는 문화 콘텐츠 영역은 대중가요, 드라마, 영화 등의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 돈이 되고 수출이 가능한 형태의 문화산업은 정부의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돈이 되지 않는 종류의 문화 콘텐츠는 예전에 비해 대우가 달라지지 않았다. 물론 단기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당장 돈이 되는 산업에만 투자를 하는 것도 현실적이긴 하다.

하지만 문화와 예술은 다른 영역의 산업이 지니지 못한 고유한 특성이 있다. 그것은 바로 다양성과 유기성이다. 예를 들어 단순히 영화제작에만 투자를 한다고 해서 대중성과 작품성을 모두 갖춘 영화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다.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질의 시나리오와 사전 스토리라인 작업이 필수적이다. 좋은 스토리와 시나리오는 반드시 단단한 문학적 토대가 필요하다. 훌륭한 뮤지컬을 연기할 배우와 연출가는 어디서 배출되는가. 대학로의 소극장이 바로 훌륭한 무대 연출자와 배우들을 훈련시키고 배출하는 곳이다. 즉,

문화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인식의 변화 없이 단순히 돈을 벌려는 수단으로만 문화산업을 이해하고 정책을 만들게 된다면 이러한 정책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영화의 경우 문학, 음악, 연출, 영상기술이 집약되어 완성되는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좋은 문학, 음악 등 예술 작품이 먼저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과 의무를 기업 혹은 예술기관 등에게만 맡기는 것은 태생적 한계가 있다. '갑과 을'로 표현되는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산업구조 상 '을'이 약자일 수밖에 없는 여러 예술인들은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정부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을'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올바른 산업구조가 형성되도록 장려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불합리적인 구조를 개선시켜 다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대한민국 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까? 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시기인 것 같다.
그리고 이 문제는 새로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 수없이 개선해나가야 하는 많은 정책과제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또한 문화원 역시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 내 소외된 문화예술과 예술인들을 살피고 돌보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인 바람은 문화원이 누구든지 자유롭게 찾아오고 문화예술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며,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문화의 허브가 되길 꿈꿔본다. 그리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시행과

관련 문화원이 뒤에서 바라만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예술인들의 처지를 대변하며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 당연히 나를 비롯한 여러 문화원 직원들이 개인과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앞으로의 문화정책과 관련하여 이야기 한 '새 정부 문화정책' 관련 보고서에는 수많은 문화 관련 정책들이 열거되어 있지만, 그 효용성을 판단할 만큼의 전문지식을 나는 갖추지 못했다.
다만, 문화산업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 변화와 관련한 교육정책이나 소외된 문화예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정책들이 좀 더 풍성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질 나쁜 토양 속에서 실뿌리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나무는 결국 시들 수밖에 없다. 크기의 차이가 곧 나무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 문화산업은 향후 추진될 새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실뿌리가 제대로 박힌 나무들이 서로 공생하며 자라가는 문화생태계로 가꿔져나가길 기대해본다.

문화원 직원들이 읽는 새 정부 문화정책 3

문화, 쉼표의 자리

최실비 (평택문화원 학예연구사)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이 문화 정책의 기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전 정부의 잘못된 관여가 위축시킨 문화계의 분위기를 환기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고취시키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문화원은 이름 그대로 '지역'이라는 모체에 속해있다. 이 말은 여러 가지를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지방문화원이 지역을 이용하여 지역 문화의 발전에 구심점 역할을 한다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지자체의 지원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점이다. 문화원이 지자체의 지원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지자체의 감시와 정치의 개입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건 분명하다. 그들이 지원을 빌미로 간섭하기 시작하면 결국 지역에서의 문화원의 역할은 시정 홍보(이를테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보은을 갚는 수단으로서의 행사 등을 포함하는)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하부조직'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문화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역의 문화가 발전하기는커녕 단순히 보여주기 식의 저급한 일회성 행사 등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

새 정부는 문화예술계에 대한 공정하고 자율적인 장치 마련에 집중하려는 것 같다. 이를 위해 정부·문화예술지원기관·문화예술계 간 공정성 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이처럼 정치·관료가 지원 대상과의 적절한 거리두기를 하겠다는 정책은 참 반갑다. 지금이야말로 문화원이 정부의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계획을 세워야 할 때이다.

문화정책 톺아보기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 중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으로 문화유산의 가치 제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해 문화 균형 발전 이룩', '생활문화시대 창조'가 문화원에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 정책들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 항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지방문화원의 역할을 고민해보려 한다.

첫째,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으로 문화유산의 가치 제고
이 정책에서 새 정부는 '지역의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확대'와 '문화유산 교육 및 활용 확대'를 언급했다. 이는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축제 및 행사를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공모사업 신설 및 기존 공모사업의 확대 등이 이루어 질 듯하다. 이에 '지역'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지방문화원은 문화유산을 활용한 창의적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행사 등을 진행하여 지방문화원이 지역을 이용하여 지역을 뛰어 넘는 역량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콘텐츠 개발은 단순히 예술 분야에 국한되거나 유물 자체에 대한 이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역의 문화유산이 속한 당대의 정치, 사회, 문화 등 여러 측면과 연관시켜 당대의 문화유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담겨야 한다. 즉 그 문화유산만이 가진 이야기와 마을의 이야기가 담긴, 특화된 지역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진행하여 '우리 지역만의 것'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문화유산에 그런 특별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가상의 생활모습을 구성하여 당시의 문화를 생활 속에서 결합할 수 있도록 하여 참가자가 그 안에서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해 문화 균형 발전 이룩
이 정책에서는 '폐산업시설, 노후건물, 지하상가 등을 활용한 지역문화재생사업 확대'와 '문화도시 조성 활성화'가 눈여겨 볼만 한 이행과제이다. 근래에 폐공간(폐시설)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공간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공간에 담겨있는 '시간성'과 '역사성'을 기반으로 시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기능을 발굴하여 죽어버렸다고 판단되었던 공간을 다시 살리는 방식이다. 이는 공간이 담고 있는 문화적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함과 동시에 지역의 고유한 특성, 즉 정체성과 주변 주민들의 생활문화도 함께 지켜내야 한다. 지속가능한 도시 속 공간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그 공간만의 시간적·역사적 문화의 숨결을 더한다는 것은 지역을 모체로 가지고 있는 문화원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셋째, 생활문화시대의 창조
본고에서는 세 번째로 다루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에서 역점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생활문화시대의 창조'이다. 이는 바로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의 시대를 열겠다는 말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동네생활문화 환경 조성 및 생활문화동아리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벌써 기초문화재단과 몇 문화기업들은 발 빠르게 새 정부에 정책에 대응하여 생활문화동아리 육성 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원도 이에 뒤처지지 말고 생활문화동아리 육성에 발을 내딛어야 한다. 이름만 바꾼, 또 다른 문화학교나 주민센터의 강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단순 동호회 지원 형태의 강좌에서 벗어나 주민을 창조활동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먼저 지역(마을) 내 자발적·지속적으로 모이고 있는 문화예술 동아리를 파악하고 수요조사를 통해(마을별, 세대별, 장르별로) 전문예술가를

파견하여 전문화된 교육기회를 부여한 후 '마을문화기획자[1]'를 양성해야 한다. 이 마을문화기획자는 본인이 속한 동아리의 콘텐츠로 지속적인 창작과 공연을 하도록 하여 마을의 이야기를 창작물로 생산하도록 해야 한다. 결국 그것들이 모여 지역의 스토리텔링의 원천소스가 될 것이다.

쉼표를 넣다.



문화원은 지역을 지킨다. 그것은 시간이기도 하고, 역사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고, 이야기이기도 하다.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자원들을 이용하여 창의적인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퍼뜨려 지역주민들에게 문화가 삶의 가까이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문화원은 문화적 자율성을 가지고 활동하며 재정 또한 자유롭게 확보하는 단단한 위상을 가진 조직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여러 문화정책 중에서도 '쉼표가 있는 삶'이라는 말이 참 기분 좋다. 문화를 통해 쉼표를 얻는 삶, 그 쉼표로 사람이, 이 사회가 숨 쉬어 갈 쉼을 얻기를. 또한 그 쉼표를 문화원이 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

1)주민이 기획자가 되어 마을의 역사를 비롯한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어 콘텐츠화 하는, 창조적 문화발산자를 의미함.

지방문화원은 능동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

– 새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이 지방문화원에 미칠 영향과 그 대응

황수근 (평택문화원 학예연구사)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문화정책이 수립될 것이며, 이로 인해 지방문화원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영향이 얼마만큼, 어떻게 줄지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문화원이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받는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 정부의 문화정책이 지방문화원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할 것이며, 그에 따른 지방문화원의 대응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것이다.

지방문화원이 받는 영향력의 출처



지방문화원은 내부적으로는 임직원을 비롯해 회원들이 운영의 주체이며, 외부적으로는 국가기관을 비롯해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 개인 등으로부터 다양하게 관계를 맺고 영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영향의 양과 질을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출처를 살펴보면 단편적으로나마 이러한 영향력의 양을 수치로 확인 볼 수 있다.

구분	지역	문화원수	회원수	직원수	연간 참여자수	연간 예산액	자체자금	자체자금 비중
지역 1	서 울	25	12,186	104	1,228,696	14,006,804	7,050,332	50.34
	부 산	14	6,489	40	1,995,587	4,507,338	1,243,894	27.60
	대 구	8	2,613	18	295,078	2,031,916	354,848	17.46
	인 천	8	22,789	37	137,028	4,188,532	624,748	14.92
	광 주	5	5,376	11	19,495	1,299,822	161,552	12.43
	대 전	5	1,191	25	109,910	3,245,095	958,178	29.53
	울 산	5	2,037	20	98,884	2,640,006	273,843	10.37
	세 종	1	411	6	2,850	652,852	22,200	3.40
	경 기	31	13,050	127	828,603	17,883,530	2,467,277	13.80
	강 원	18	5,020	68	245,703	9,813,581	1,076,721	10.97
	충 북	11	4,763	27	1,002,055	5,736,065	328,533	5.73
	충 남	16	18,716	54	577,104	9,418,707	1,077,590	11.44
	전 북	14	5,951	38	168,823	3,532,528	284,767	8.06
	전 남	22	18,710	66	1,129,781	7,451,063	1,045,384	14.03
	경 북	23	16,214	64	380,402	10,883,142	1,085,103	9.97
	경 남	20	15,173	46	257,034	6,319,450	1,611,527	25.50
	제 주	2	2,049	7	16,002	804,664	106,624	13.25
	총 계	228	152,738	758	8,493,035	104,415,095	19,773,121	18.94
지역 2	수도권	64	48,025	268	2,194,327	36,078,866	10,142,357	28.11
	지 방	164	104,713	490	6,298,708	68,336,229	9,630,764	14.09
	총 계	228	152,738	758	8,493,035	104,415,095	19,773,121	18.94

〈표1〉 지방문화원 운영 현황(개소, 명, 천원, %)[2]

지방문화원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문화원 자체자금 비중의 평균은 전국이 18.94%, 경기도가 13.80%이다. 국비나 광역자치단체에 받는 비용은 대부분 매칭사업이나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지방문화원은 자부담 비율이 낮아 자립도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국비와 도비의 경우 선택적 사업인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유무가 지방문화원의 미치는 영향은 낮다고 보인다. 그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에는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받고 있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문화정책이 지방문화원에 미치는 영향



새 정부 문화정책이 지방문화원에 직접적으로는 미치는 영향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 것이다. 지난 정부의 경우 지방문화원과 관련이 있는 공모사업과 그 기조를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 등 문화향유의 확산과 생활문화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문화재청의 경우는 '야행''생생문화재'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등 문화유산의 접근성을 높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기조는 새 정부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새 정부 문화정책이 지방문화원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 따른 지방정부의 문화정책 태도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에 주는 영향을 생각하면 지방정부의 변화라는 간접적인 영향이 지방문화원에 더욱 강력하게 다가올 수 있다. 여기에 새 정부의 행정 정책 중 지방분권 실현이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정부의 문화정책과 방향성이 같은 경우 이러한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방향성이 다를 경우 변화의 속도는 늦어 질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지방정부에 가지는 문화정책의 태도를 확인해 보기위해 『새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 문화사회를 위한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문화민주주의의 일환으로 지역문화와 생활문화의 활성화를 말하고 있다. 여기서 지역문화와 생활문화의 활성화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초문화재단이며, 여기에 지방문화원은 빠져 있다. 국가기관 - 광역문화재단 - 기초문화재단의 구조에서 기존 하양식에서 앞으로는 상향식으로 변화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기초문화재단 중심의 의사협의 구조로 지역의 문화단체구조가

재편되고 여기에 지방문화원이 편입 될 가능성이 있다. 기초문화재단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단설립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문화재단 설립이 지방문화의 양적·질적 확대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지방문화에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며 건전한 경쟁 상실되고 옥상옥의 자리를 차지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들은 2012년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와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를 결성하여 지역 문화 정책에 대해서 공동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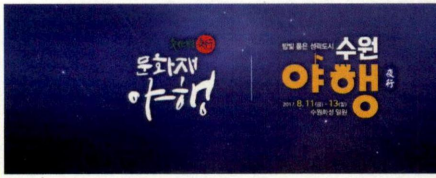
지방문화원의 대응



앞으로 새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에 따라 지방문화원은 이를 기회삼아 능동적으로 받아들여 지역문화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 호흡하고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변화에 모색하는 것이 지방문화원 경쟁력을 살리는 방법일 것이다. 여기서는 정책에 대한 지방문화원의 대응과 전국 지방문화원 사업 우수 사례를 통해 예시를 제시할 것이다.[4)]

첫째, 새 정부 역시 생활문화를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여기에서 지방문화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차별화를 모색해야 한다. 이미 지방문화원 뿐만 아니라 주민센터, 여성회관, 복지회관 등에서 천편일률적인 생활문화강좌가 개설되어 있어 강좌의 내용보다는 접근성이 더 중요해 지고 있으며, 이제는 지방문화원 만의 특별함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지방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지역내부 자원의 장르간 협업이나, 나아가 지방문화원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류, 민의를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차별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문화원의 내부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우수한 사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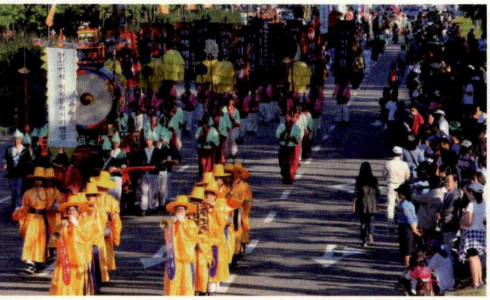


음성문화원의 국제미술제가 있다.

둘째, 새 정부에서 주요 문화 정책인 도시재생,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은 지자체, 재단에서 예술가와 협업을 통해 접근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실패한 사례를 종종확인 할 수 있다. 지방문화원은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높아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기 적합하다. 이미 동해문화원의 논골담길, 평택문화원의 웃다리문화촌, 강릉문화원의 예맥아트센터 등 성공사례가 있어, 지방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주축이 되어야 한다.

셋째, 문화유산의 활용은 새 정부에서도 지속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적극적으로 접근해야한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문화유산의 활용의 주체는 문화유산의 소유자와 문화기업[3])들이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국유문화유산을 활용할 단체가 마땅치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재단은 주로 정책과 생활문화, 예술에 편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박물관이나 문예회관의 경우 공간적인 한계성을 갖는 경우가 많고 일반문화단체의 경우 행정력의 한계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방문화원의 경우 문화유산과의 접근이 용이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며, 기본적인 행정력과 인적 네트워크 등이 있기 때문에 문화유산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유산을 축제화 한 송파문화원의 한성백제문화제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넷째, 지역특성을 반영한 콘텐츠를 생산해야 한다. 다양한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방문화원은 1차적인 자료수집의 역할에서 나아가





이를 활용해 지역을 대표할만한 콘텐츠를 제작하여야 한다. 한 예로 영도문화원의 절영도스토리투어는 자료의 발굴, 조사를 스토리텔링하여 문화지도를 제작하였다.

이처럼 정책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지방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한다. 한국문화원연합회 – 광역문화원연합회 – 지방문화원으로 이어지는 연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각각의 지방문화원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합회 차원에서의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해 지방문화원 발전의 도약를 이끌어 내야할 것이며, 지방문화원에서는 역량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2016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2017)

3)(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공동 주최로 4월 28일(금) 서울 시민청에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제안을 발표하였다.

4)『2014 지방문화원 총람』(2015)을 참고하였다.

5)문화재청의 2016년 생생문화재의 경우 총88개의 선정된 단체 중에서 지방문화원은 대구달서문화원, 광주남구문화원, 세종문화원, 전남순창문화원, 전남나주문화원, 경남함양문화원 등 6개원이 선정되었으며, 그 외에는 (사)문화살림, ㈜코리아헤리티지센터, ㈜컬쳐앤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 ㈜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 ㈜문화기획학교 등 대부분 문화기업들이 참여하였다.

2017년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의 경우 총87개의 선정된 단체 중에서 문화재소유주는 32곳, 지방문화원은 경기평택문화원, 전남곡성문화원, 전남해남문화원 등 3개원이 선정되었으며, 그 외에는 문화기업이 참여하였다.

2017년 문화재 야행의 경우 총 18개의 선정된 단체 중에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며 기초자치재단이나 지방문화원이 협조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문화원 중에서는 서울성북문화원, 경북경주문화원, 강원강릉문화원 3개원이 참여하였다.

새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 문화원에 적용하기

이미경 (이천문화원 과장)

문화정책 적용?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문화정책은 언제나 있었다. 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되는 모든 정책과제는 임기동안 추진할, 그러했어야 한다고 표방한 선거공약인 것이다. 그 당연한 것을 과연 문화원과 연결지여 고민하고 적용시켜 왔는가에 대한 생각을 잠시 해 본다. 문화정책방향에 따라 각 부처별 정책사업비 배분이 이루어 질 것이고, 그에 따른 사업지원과 각종 공모사업 등의 많은 문화예술사업이 진행 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인 문화융성 정책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사업을 알게 모르게 진행해 왔다. 경기이천만 해도 '창의도시 이천'이라는 케치플레이즈 아래 창조경영을 부르짖던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맞춰 진행하였다. 이천문화원 5개년 계획도 문화융성 정책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최순실게이트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모든 것이 재평가되고 있다. 그러한 사태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통감한다. 그러나 전국에 있는 문화원은 전 정부의 문화정책에서 과연 얼마나 불합리한 영향이 미쳤을까! 외부에서는 문화원을 보수진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아마도 각 문화원에 활동하는 회원의 연령층이 노인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일까 그이전도 직전도 문화원은 별다른 불합리함을 느끼지 못한 것 같다. 그러한 것이 결국 지키기만을 고수하는 변화하지 않는 문화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새 정부 문화정책 문화원에 입히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문화계 블랙리스트 적폐청산을 포함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9가지 문화공약을 제시하였다. 1.문화계 블랙리스트 적폐청산, 2.예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3.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4.일상에서 문화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5.창작·유통이 상생하는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6.문화유산의 보존·활용으로 문화유산 가치 제고, 7.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로 문화균형발전, 8.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기는 스포츠 복지국가, 9.쉼표가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 실현.

새 정부의 9가지 문화공약 모두 문화원에 연관성이 있겠지만 그 중 문화원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정책을 꼽으라면, 4.일상에서 문화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6.문화유산의 보존·활용으로 문화유산 가치 제고, 7.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로 문화균형발전, 9.쉼표가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 실현일 것이다. 그러면 '새 정부 문화정책을 문화원에 어떻게 적용시켜 생각해 볼까!'에 대해 미력하나마 일부분에 대해서만 적어 본다.

1. 일상에서 문화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생활문화활성화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지자체에서는 평생학습의 연장선상에 생활문화동아리 공모진행, 경기문화재단에서도 생활문화플랫폼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마을만들기 사업도 현지인을 중심으로 생활문화와 연결지어 주민이 사업의 추체로 활동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제는 시민이 누리는 삶 자체가 문화 즉 생활문화인 것이다. 문화원은 전국적으로 문화학교를 통해 생활문화강좌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년이 지나도록 단순 문화강좌에 대다수 문화원이 머물러 있다. 생활문화관련 모든 정책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는 생활문화진흥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보장,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확대,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문화기술 활용역량 제고, 동네 생활문화 환경 조성 및 생활문화 동아리 활성화, 공공도서관의 지속적 확충과 장서 구입 확대

2. 문화유산의 보존•활용으로 문화유산 가치 제고
지역문화원이 가장 잘 하는 것 중 하나가 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이다.

그러나 이번 정책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문화유산 활용확대'
'문화유산 교육 및 활용확대'이다.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인 것이다.
박재화된 문화재가 아닌 살아있는 문화콘텐츠 교육과 활용확대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매장문화재 발굴 비용 국가지원 확대, 선진적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지역의 근 현대 문화유산 보존 활용 확대, 문화유산 교육 및 활용 확대

3.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로 문화균형발전
문화균형지수 개발 기준표로 낙후지역으로 지정될 때 그와 관련된
문화지원금이 지원될 것이다. 또한 문화도시로 지정을 매년 4-5개
도시 5년 동안 최대50개를 지정한다고 한다. 문화도시가 되기 위한
지자체의 움직임을 눈여겨 볼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 지역문화진흥기금
확충으로 지역문화진흥기금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할 경우 모든 회비는
회원을 위한 사업비 외에 운영비 지출은 불가하게 될 것으로 추정한다.
사회복지기관 후원금에 대한 지출 규정이 그렇다. 그리고 지역문화재단의
운영 독립성, 자율성 보장을 정책적으로 분명하게 제시하듯이 지자체별
지역문화재단 생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재단 역할과 문화원의 역할 등의 정책토론을 전국문화원에서 실시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문화원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더욱 열심히 해야 할 것이다.
-문화균형지수 개발, 낙후지역 우선 지원, 지역문화진흥기금
확충(지역문화진흥기금 출연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
지역문화재단의 운영 독립성, 자율성 보장, 지역문화재생 사업 확대,
문화도시 조성 활성화

4. 쉼표가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 실현
우선 이 정책부분에서는 관광산업의 질적 경쟁력 강화에 개별 관광객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을 문화원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스몰웨딩,
미니멀라이프, 개별 관광객 등이 트랜드이다. 문화원에서 가장 잘 하는
지역적 특성이 가장 잘 반영된 스토리가 있는 코스 개발이 가능하다.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는 문화원이 강점이 될 것으로 본다.
-여행이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 실현, 관광산업의 질적 경쟁력 강화,

관광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관광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정책 활용을 생각하다.

이천문화원에서 진행하는 우리고장 이천알기 '문화유산교육교사' 양성과정에서 과천의 추사박물관을 견학하는 기회가 있었다. 그 기회를 통해 교육생들을 위한 '추사박물관 프로그램 안내 및 추진방법'에 대한 설명의 시간이 있었다. 기획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는 초등교육정책에 대한 것을 언급하였고 또한 초등 3학년 과정 '우리고장 알기'에 대한 교과서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기획한다고 하였다. 그렇게 기획된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은 아주 많으며, 체험 및 관람객들로 생동감 있는 추사박물관이 되었다.

'새 정부 문화정책, 문화사회를 위한 정책과제'를 읽고 정책방향에 대해 잠시나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화원은 지원비와 후원금, 공모사업으로 운영이 된다. 추진하고자 하는 지향점에 맞는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문화정책을 잘 읽어내어 사업을 진행한다면 지원금뿐만 아니라 적어도 정체되지 않는 문화원이 될 것이라 생각해 본다.

2. 지방문화원 소소한 담론

가. 생활문화! 지방문화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_ 최영주(경기도문화원연합회사무처장)

나. 문화원에 근무하는 문화기획자로서의 고민 _ 정희진(광명문화원 부장)

다.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 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_ 최영주(경기도문화원연합회사무처장)

생활문화!
지방문화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최영주 (경기도문화원연합회사무처장)

본 글은 지난 2015년 지방문화원 직원과 나눈 대화를 정리한 내용이다. 이미 2년 전 '생활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가지고 있는 직원에게 2017년 현재 지방문화원은 어떤 답을 제시하고 있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정리한 글이다.

경기도지방문화원직원 : 〈생활문화활성화〉를 위해 지방문화원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뭘까요? 동아리 지원육성이라고 봐야 하나요?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지역문화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는 대원칙이 있는 것인데 지역문화라는 것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등의 유형, 무형의 문화적 활동(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정의하는 지역문화)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이 주되게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문화유산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데 고민이 생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유산과 생활문화와의 관계문제를 해결하면 답이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문화유산이 과거의 유물이자 활동의 흔적일 뿐이고, 생활문화는 그 지역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주민들의 활동인가? 하는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문화유산은 문화원이 해야 하는 영역이고 생활문화는 문화의집 또는 다른 곳에서 해야 하는 영역인가?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공무원적, 문화원적 사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문화와 문화유산 사이에 절망적인 단절이 놓여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지점에서 현대철학에서 말하는 '미래'개념을 가지고 무기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한다고 말하지만, 미래는 무언가 모르는 시간적 차원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현재가 밀고 가는 개념으로 봐야한다."[1)]

다시 말하자면 문화유산의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는 그 시대의 '생활문화'였고, 지금 말하는 '생활문화'는 또 미래의 '무형의 문화유산'이 된다는 것이죠.
생활문화가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문화적 활동들이 미래의 전통문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그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과 지역성의 본질을 형성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원론적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구요.

과거의 생활문화 (무형의 문화유산) -> 현재의 생활문화(미래의 문화유산) 개념으로 본다면 첫 번째로 시,군지 보다는 마을단위의 역사와 문화전통, 생활공동체 형성과정을 기록하는 마을조사사업이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이고
마을조사의 방향은 지역민이 주체가 된 지역문화사, 생활사, 지역의 특성을 보여주는 독특한 관습, 민속, 구전설화, 개인의 구술생애사 등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의 생산이 두 번째 과정 _ 그 콘텐츠는 앞서 1차년도 사업을 통해 형성된 - 예를 들면, 광명은 참 특이해! 왜 지역적(?) 사고가 나를 힘들게 할까? 지방문화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왜 지역적(?) 사고를 쇄뇌시키고 있을까? 등등.
이것이 그 지역의 특수성으로 보게 되면 그것에 어울리는 콘텐츠 생산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예가 안 좋은가요? ㅋㅋ
즉,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콘텐츠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생활문화공동체가 회복된다는 것은 지역의 특성에서 현재적 시점에서 해석가능하고 미래까지 밀고나갈 수 있는 것들을 회복시켜내는 과정이다!

그 지역의 특성은 그 지역의 생활문화이고 그 생활문화는 과거와의 연결에서 밝혀지는 것이고 그것의 현재적 재해석과정을 통해 끝까지 밀고 나갈 때 미래의 생활문화가 되는 것이지요.
지역에서 생활문화사업을 통해 생활문화공동체가 회복된다는 것은 지역의 특성에서 현재적 시점에서 해석가능하고 미래까지 밀고나갈 수 있는 것들을 회복시켜내는 과정이라고 보면 동아리 육성사업은 좀 아니지 않을까요?

문화원의 특성을 반영한다면, 과거와 연결가능한 동아리 육성에서 발전해서 그 동아리가 직접 마을조사를 한다거나 해서 생산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전문가(컨설턴트, 예술가 등)와 콜라보레이션 등의 과정을 거쳐 콘텐츠(무용, 연극, 노래 뿐 아니라 책 발간, 시민공동체모임, 답사프로그램 등도 콘텐츠라고 할 수 있으니까)생산과 향유를 통한 공동체 회복의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것이겠지 ?!!

지방문화원직원 : 생활문화관련 신규 사업을 고민하는데 생활문화 개념을 계속 동아리사업으로만 국한해서 보고 있는 게 답답해요!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신규 사업에서 동아리 육성이라는 것을 포인트로 잡고 있다면 그 동아리를 단순히 문화예술동아리로 보지 말고 지역의 특성을 조사, 분석, 발굴하는 시민지역문화전문가 육성으로 보면 어떨까요?
1차적으로 "내 지역은 내가 조사한다. 나는 지역문화전문가!"
2차적으로 육성된 지역문화조사동아리 + 전문가와의 결합구조를 내오고
3차적으로 콘텐츠 생산이고
4차적으로 생산된 콘텐츠가 다시 지역으로 환원되는 선순환의 과정으로 엮는 것이죠.
통합적 실행이 어렵다면 시범사업으로 3개 지역 뽑아서 좋은 사례 만들어보세요. 좋은 공부가 될 거에요.

1)앙리베르그송 인지 메를 로 퐁티인지 정확하지 않다. 독자들이 이 글을 읽고 알려주면 반영키로 하겠다.

문화원에 근무하는 문화기획자로서의 고민

정희진 (광명문화원 부장)

문화정책의 아젠다

새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 문화사회를 향한 정책과제를 읽고 난 느낌은 문화융성으로 표현되는 전 정부의 문화정책과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스로의 이해력 부족일 수도 있으나 정책기조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되는 것이 없는 것도 사실일 것 같다.
문화원에서 혹은 지역에서 체감한 전 정부의 문화정책은 '생활문화지원센터'와 '생활문화공동체' 등으로 대변되는 그 내용이 어찌되었던 간에 '생활문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생활문화'를 지향한다.
'생활문화'와 더불어 지난 정부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도시재생'이었다. 도시재생의 영역에서 문화관련 기관단체들은 어떠한 역할을 했었는가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문화정책의 흐름과 실행방향 및 방법론

그렇다면 문화원은 '생활문화'의 영역과 '도시재생'이라는 화두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우선, 생활문화의 영역에서는 여러 문화원들이 생활문화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운영되는 곳도 있고 아직도 생활문화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곳들도 존재한다.
혹은 알지만 시도를 못하는 곳들도 분명 존재한다. 바로 이 지점이 고민점이다.
흔히 문화재단이나 중앙단위의 기관을 통해 진행되는 공모사업을 살펴보면 그 시점의 문화정책, 혹은 지향점이 보이는데 많은 문화원들은 그 내용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기존에 행하던 내용들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흐름이 보이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낀다.
물론, 문화원에서 수년간 양성된 동아리들도 '생활문화'의 영역 안에 포함될 수 있지만 동아리활동에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어떻게 결합 될 수 있는지도 고민해 봐야하는 지점이고 그래야 진정한 생활문화진흥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화두인 '도시재생'의 영역을 보면 생활문화보다 더 답답해진다. 도시재생을 벽화 그리는 것 말고 문화영역 혹은 문화원에서 접근해 본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일부 접근해본 지역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도시재생은 우리와 상관없다고 여길지 모른다.

문화원에서 도시재생부분을 주도하지 않더라도 일정부분 관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광범위한 도시재생의 영역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하기도 하고, 혹은 오래된 지역을 재개발하면서 도시재생이라 칭하기도 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을 통해 도시재생을 이루고자 하기도 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지역의 역사성과 고유성을 지켜나가고 있는 문화원이 참여함으로써 더 완성된 형태의 도시재생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문화현장에서 문화원의 한계점과 이유

현재 많은 문화원들이 지역문화재단과의 역할정립문제로 힘들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몇 십년간 지역문화의 터를 닦고 활동해왔던 문화원의 역사와 내용은 무시되고 기초단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여 재단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 기존에 활동하고 있던 기관, 단체에 대한 고민과 배려는 결여되어 있다.

이번 세미나의 마지막 발제자인 성북문화재단 대표의 글에 중앙-광역-기초로 연결되는 문화정책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 했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정책방향과 기초단체에서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영역과의 문제를 이야기했다.

기존의 문화체계, 기관단체가 부족해서 재단이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더 나은 문화환경을 제공하고 도시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재단이 역할을 해야 하고 문화원은 지역의 향토문화, 역사를 베이스로 하여 다양한 시도를 통해 시민들이 문화를 쉽게 접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원을 불러주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원이 먼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뜨겁다. 그리고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플랫폼사업' 이라고 한다. 문화원은 한국문화원연합회를 통해 '플랫폼사업'을 시도하다 방향이 선회되는 과정을 현재 겪고 있다.
4차 산업에서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고 문화라고 이야기하는데 한국문화원연합회를 비롯한 문화원들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미지수다.

고민과 대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의 활력을 주는 문화의 영역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해야 하는 때이다. 그리고 문화원 종사자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각 문화원, 연합회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문화원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중요 정책사업의 경우 지방문화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되어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이야기가 담긴 진정성 있는 사업과 지원으로 펼쳐지길 간곡히 바란다.

또, 지방문화원은 대통령령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는 공공성을 가진 비영리특수법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초단체에서는 지역의 몇몇 사람이 모여 회비를 내어 운영하는 일반적인 법인, 기관으로 치부되어지는 등 실제 문화원이 존재하고 운영되고 있는 상황의 지역적 한계점이 존재한다.

문화원이 정치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시민모두가 행복한 문화복지정책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경비의 보조 등)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지원한다.'로 반드시 수정하여 예산에 의해 휘둘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져야 하며, 광역단체(시, 도)의 문화원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문화원의 위상확립을 위해 각 지역의 문화원, 도연합회,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다 같이 문화원의 역할과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문화현장의 소리를 모으는 과정을 통해 행동하는 문화원과 연합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 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최영주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변명부터 해야겠다.
본 사업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고, 저마다 나름의 논리와 합당한 명분이 있을 것이다. 본인은 어떤 탁월한 식견을 갖춘 것도 아니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견해를 가진 것도 아니다.
이 졸고에서는 한문연과 지방문화원이 대체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본 글의 주제에 접근하는 선에서 멈출 수밖에 없음을 고백한다. 나머지는 고스란히 향후 과제로 남길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주기 바란다.

서로 다른 기억들의 충돌

청와대 오찬이었다. 그렇게 이 사업은 성립되었고, 콘텐츠진흥원이다. 사업비의 일몰이다. 파행을 거쳐 이 사업이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한문연)에 편성되었다.
그 때의 요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방문화원에 자료가 많다.
2. 사람과 예산이 없어 정리가 필요하다.
3. 정리만 잘하면 무궁무진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특화사업을 지방문화원이 추진하겠다.

이것이 이 사업의 첫 번째 기억이다.

사업은 '왜 해야 하는가'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명확히 있어야 한다. 그것이 목적이며 추진방향이다.
하지만 본 사업의 목적이 한문연에서 설정한 것이 아니었다.
몇몇 지방문화원의 요구에 의해 반영된 예산이 콘텐츠진흥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콘텐츠 사업으로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방향이 수립되게 된다. 이것이 두 번째 기억이다.

2017년 2월 7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한문연 정기총회의 브리핑이 있었다. 플랫폼 구축에 대한 사업계획 브리핑이 있었다. 변화된 사업계획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방문화원 보유자료의 전수조사 및 목록화 사업
2.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 지원사업
3.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플랫폼 구축사업 및 박람회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이다. 증강현실이다. 가상현실, 4차 산업혁명 등 개념어가 대량등장하고, 플랫폼이라는 적어도 원장님들에겐 생경한 용어들이 등장했지만 지방문화원에 약 4천 몇 백만원 정도 지원이 된다하니 한문연 지침에 따라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잘 수행하자는 아름다운 결론으로 안건이 승인된다. 몇몇 문화원장님은 여전히 168억 ÷ 229개문화원 = 약 7,000만원 이라는 공식이 각인된 상태였던 것 같다. 이것이 세 번째 기억이다.

2017년 3월 22일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전국사무국장들이 모였다. 이미 사무국장들은 한문연의 사업계획에는 관심이 없어보였다. 지방문화원의 각각의 주관적이기도 하지만 욕망들이 분출되었고, 저마다 다른 추진방향과 내용들이 난무한다.

한문연에서 설정한 사업의 목적과 추진방향에 대해 근본적 방향전환의 요구도 나온다. 그러나 일정과 내용에서 약간의 변화 외에 기존 사업계획에 따라, 그리고 추진일정에 따라 본 사업이 추진되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 10월이 되었다.

파행이다. 문제다. 본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갖가지 주장들이 난무했다.

한문연은 한문연대로 지방문화원의 한계를 목도하게 되고,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대로 한문연의 기획력과 추진능력에 대해 근본적 문제제기까지 하게 된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문화재청 '문화재야행'사업은 '역사를 품고 밤을 누비다'라는 한 가지

콘셉으로 전국 18개 지역에서 약 100억이 넘는 예산으로 추진한다. 한 가지 프로그램으로 말이다.
그런데 원천콘텐츠 사업은 고작 168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방문화원과 한문연의 역량과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모양새로 비치고 있다.

사업을 기획한다는 것은 맥락을 잡아내는 일이다.

본 사업은 근본적으로 어설픈 기획에서 출발한 사업이다. 지난 평창연수 때 지적된 바와 같이 사업명에서 부터 혼란스럽다.
본 사업의 공식적인 이름은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 지원사업〉이다.
원천콘텐츠라는 말이 생경하다. 전형적인 콘텐츠진흥원적인 사업명이다. '원천'과 '콘텐츠'가 합해진 말인 것 같다.
'원천'이라는 말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지방문화원이 보유한 '원천자료'를 뜻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연합회가 기획한 지방문화원 보유자료의 전수조사를 통해 그것을 목록화한다는 사업은 목적과 내용이 명확하다.
문화원이 얼마나 중요한 자료(원천소스)를 가지고 있으며, 활용 가능한 자료로의 전환(리소스)을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콘텐츠'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사업 기획의 어려움과 혼란이 생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 얘기가 길어지더라도 정리를 해보기로 하겠다. 최대한 짧게 요약해보자.

> 사업명 :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 지원사업
>
> 사업명 풀이〉 지방문화원이 보유한 자료를 전수조사, 목록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한문연에서 구축한 플랫폼에 장착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서비스를 하겠다는 사업!!
>
> 질문 1 : 지방문화원이 보유한 자료의 전수조사, 목록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한문연 답변 : 디지털 아카이빙을 하겠다.

질문 2 : 지역의 원천소스를 발굴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인가? 발굴된 원천소스를 대상으로 그것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겠다는 것인가?
한문연답변 : 일반콘텐츠제작과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겠다.

질문 3 : 한문연에서 왜 지방문화원이 보유한 자료를 다 가져가는가? 지방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될 것을...
한문연 답변 : 그래서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 플랫폼에 장착해서 지방문화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질문 3 : 이 사업을 왜 지방문화원이 해야 하는가?
한문연 답변 : 지방문화원이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그에 걸맞는 콘텐츠를 보유해야 할 필요가 있고, 보유된 콘텐츠를 한문연에서 구축한 플랫폼에 장착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하겠다.

Q&A풀이〉 지방문화원은 나이가 많다. 디지털이 익숙하지 않다. 최근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만 그것을 중심으로 변화된 모바일 환경과 디지털로 변화된 사회, 문화적 환경에 익숙하지 않다. SNS를 통한 활동도 소위 '짤방'을 만들어 올리는 것조차 어려워한다. 그런데 갑자기 문화원 자료를 디지털로 하라고 한다. 사회 환경이 변했다고 하니 지방문화원도 변해야 한다는 당위와 명분은 있어 보이니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유자료의 전수조사, 목록화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가의 문제에서 등장한 새로운 개념어 '아카이브'
보유자료(주로 책)에 도서관처럼 라벨을 붙여서 관리하는 것인가? 그런데 그것을 디지털로 아카이빙을 하겠단다. 자료를 PDF화일, 즉 디지털 파일로 전환한단다. 보유물건(유물 등)도 3D프린터를 활용해 입체적으로 파일화 시킨다고 한다. 어렵다. 문화원에서는 이 일은 지방문화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전문가가 각

문화원에 붙어줘야 가능한 일이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렇다면, 보통일이 아니다. 229개 문화원에 디지털 아카이빙 전문가가 최소 1명씩은 붙어줘야 하고, 그러면 예산이 장난이 아닐텐데,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어디까지 가능한 거지?
한문연은 사업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우리를 고생시키는가?
지방문화원에서 잘할 수 있는 일도 많은데, 왜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한문연에서 하고 싶어하는 일만 하려고 하는가?
지방문화원을 무시하는 것인가? 서로 동문서답이다. 그래서 나름 다른 방식으로 정리해보기로 하겠다. 질문 1~질문 4에서 본 사업기획의 맥락에 대한 한문연과 지방문화원의 혼란이 해결되지 않는 미궁으로 빠진 듯한 느낌이다.

본 사업은 추진 프로세스의 맥락을 잡아가는 일이 핵심이다.

앞서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본 사업은 사업추진프로세스의 맥락을 정확히 잡고 절대적 시간의 한계와 물리적 한계(한문연, 시도연합회, 지방문화원)를 고려한 '공평과 존중의 원칙'하에 끊임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사업의 구도를 짜야했다.

본 사업은 지방문화원이 보유한 자료의 전수조사, 목록화 사업추진을 통해 무엇이 중요한 자료인지 찾아내는 일(원천소스의 발굴)이 핵심이다. 그것이 1단계이다.
보유자료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찾아내는 일은 인문학적 성찰을 전제로 하는 일이다.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낯설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새롭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자의적''주관적'이 아닌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성찰을 말한다.
그 과정과 동시에 그것을 활용해 무엇을 만들어 낼 것인가가 지역별로 정리되어야 한다. 즉 '리소스' 과정이다. 그것이 2단계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지역정서를 찾아내 콘텐츠화 하는 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콘텐츠의 '사후적 분석'을 통한 활용, 보급, 홍보, 마케팅하기 위해 한문연은 '플랫폼'사업 을 추진했어야 했다.

본 사업의 목적은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방문화원이 보유한 원천소스를 활용(리소스)한 콘텐츠의 대국민서비스가 최종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최종목적은 '지역특성화'여야 했다.
다시 말하자면 "지방문화원이 보유한 원천자료를 발굴, 재해석, 재구성하여 지역의 색깔을 명확히 드러내는 콘텐츠로 제작, 그것을 지역에서 활용하여 지방문화원을 통해 지역문화가 살아있기에 '자랑스러운, 살기좋은 고장'만들기"가 목적이어야 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만들어진 개성 있고 특성화된 콘텐츠를 어떻게 엮어내어 홍보, 마케팅 할 것인가를 한문연은 고민했어야 했다.

지역을 특성화시킨다는 것은 지방문화원에 어떤 의미인가?

'사회는 구성되어가는 것이다'는 가설을 세워보자.
사회는 완성된 어떤 형태를 향해 나가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는 다양한 변화를 겪겠지만 결국에는 어떤 하나의 형태로 나아가는 경향을 갖는다는 말이다.
사회가 하나의 형태로 구성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그 형태로 귀속될 수 없는 이질적인 것들이 여전히 뒤섞여 공존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한 사회에 단일한 보편법칙을 상정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사회는 그 보편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특수성'을 갖게 된다.
사회를 구성되어 가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어떤 사회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이질적인 요소들이 하나의 완성된 형태를 향해 나가가는 '경향'을 갖는다고 본다는 것이다.
식민지 조선과 제국주의 일본, 동양인 한국과 서양인 미국은 결코 등가화 할 수 없는 이질성을 갖고 있지만 그 세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라는 형태로 점차 수렴되는 것처럼 말이다.
1960년대의 서울과 동경, 뉴욕은 아주 다른 도시였겠지만 지금은 형태나 작동방식, 나아가 시민들의 생활방식마저도 아주 비슷한 형태로 되어 가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가 발전한다.''사회가 완성된다.'라는 말이 담는 함의는 다른 시각에서 보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동질성이 확대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발전'이라는 것은 이질적인 것들이 해체되고, 이질성의 폭이 축소되어 가는 과정을 뜻한다.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특수하고 이질적인 것을 축소시키고 제거하는 방향으로 되어 간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아이러니, 즉 모순이 발생한다.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이한 점을 부각시켜 지역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다른 지역사람들과 다른 색다른 점들이 '내가 이 곳에 살게 하는 이유'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것을 '지역특성화'사업이라고 본다면, 자본주의 사회가 전사회적으로 완성되어가는 것을 지향하는 것과 지역을 특성화시킨다는 것과의 모순을 어떻게 극복, 해결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갑작스러운 결론일지는 모르지만 지역문화를 활성화, 특성화시킨다는 것은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일이다.
현재의 삶을 다시 보게 하는 일이고, 현재의 삶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일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일이고, 재구성하여 내가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뜻한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 지원사업은 '내가 살기 좋은, 좋아하는, 좋아했던 지역 만들기 사업'즉 '지역을 특화하는 사업'이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최종목적이어야 했다.
모든 지역을 서울식 문화표준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방문화원이 보유한 160만건의 자료를 발굴, 재해석, 재구성하여 서울과 다른, 그러나 달라서 더 좋은 OO지역을 꿈꾸는 일.
그것이 문화원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존재해야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문화원은 비합리주의적 아비투스로 구성된 연고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행정과 조직의 강점이 기획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마무리로

문화원은 근대적 문화지평을 넘어 이제는 현대적 문화지평에 발을 딛고 서야한다는 절박한 고민위에 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대안 문화를 고민해야 하는 지점에 서 있다.
수없이 많은 용어들과 개념들이 생산되고 시기와 장소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무수한 사례들이 있다.
새로운 개념과 용어가 생산되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지역마다,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다양하고 지향하는 가치가 그 만큼 다양해짐에 따라 그 만큼의 그릇이 필요하다는 뜻일 것이다.
시대를 읽어내야 한다.
이제는 동일한 문화적 잣대를 가지고 해석하고, 어떤 형태의 문화가 '올바른 문화(?)'임을 강조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과 맞지 않다.
다양한 문화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저마다의 가치와 지향을 가지고 있다.
'문화다양성'이라는 키워드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사람'이다.
그리고 '관계'다.
그 안에서 탄생되는 다양한 형태의 관계의 연결고리를 확장하고 다시 엮는 것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거기서 대안문화의 싹을 발견할 수 있다.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가 결합하여 문화원 활성화, 문화원 발전방향에 대한 조언과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그러나 그 보고서는 보고서로서 책장에 얌전하게 꽂혀 있고, 참고 서적이었을 뿐, 실제로 합의하고, 함께 연구해서 활성화를 위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천으로까지 연결되지 못했다.
수많은 이유를 댈 수 있고, 그 이유마다 타당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문화원 활성화, 문화원 발전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논의만 있다. 서로 고민과 문제를 공유하는 기회만 많았다.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서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지금까지는 문화원이 개별 독립법인이라는 이름으로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알아서 활성화하거나 발전을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을까?

문화원은 지난 50년 동안 해방공간과 더불어 지역의 문화적 구심체 역할을 했다고 자부해 왔다.
문화원장은 지역의 가장 덕망 있고 존경받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자리였다.
시대가 변해가고 또 이미 많이 변했다.
휘몰아치는 논리의 홍수 속에서 문화원은 어떤 논리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를 깊이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회의와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마련되었고, 보다 더 진지하게 현재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였다.

첫째, 지역문화의 거점으로서 문화원의 자기 위상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렇다면 문화원이 지역문화의 거점인가 하는 고민과 문화원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의 두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고민되어야 하는 질문이다.
둘째, 문화원이 현재의 시대적 흐름에 걸 맞는 문화 사업을 개발, 시행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시대적 흐름은 어떠하며 그 흐름에 적합한 지표는 개발되어 있으며 그 지표에 따른 각 지방문화원마다의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복합적인 의미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문화원이 현재의 시대정신을 담보하는 문화담론을 생산하고 있는가?
문화원은 지역의 문화정책을 생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넷째, 문화원이 그 대안 문화를 고민하고 있는가?
가치와 지향의 문제이다. 목표설정의 문제이며 비전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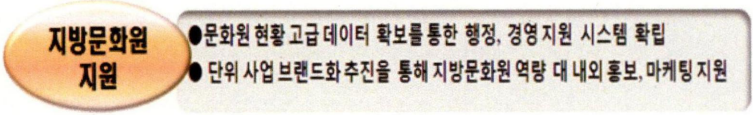
문화원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무엇을 지향하며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다.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이 아닌, 어느 하나의 길만을 합의하고자 함이 아니다.
문화원 마다 저마다 특색을 가지고 있고, 그 특색들이 모여 다양한 문화의 빛깔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자는 것이다.

문화원이 발전한다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돌맹이 하나,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역사적 맥락에서 새롭게 의미 지어지고 새로운 가치로 재탄생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핵심은 지방문화원이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원이 연합회에서 해야 할 일이다.
중심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설정한 방향은 참고가 될 만하다고 본다.



연합회 본연의 역할 모색 및 그에 따른 사업의 배치



1) 문화원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① 교육이력관리 시스템 개발
   ②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개발 (워크숍, 해외연수 등)
   ③ 세미나 조직 및 cop 활동의 강화

2) 조직, 법적, 제도적 지원
   ① 지방문화원 현황, 실시간 공유시스템 정립(정량평가를 넘는)

② 2차 고급데이터 분석 자료의 지속적 확보 (현황분석자료)
③ 제반 규정 정비와 보급, 확산 : 표준화 사업

3) 지방문화원 위상 강화
① 지방문화원 주도의 사업추진 지원
② 지방문화원중심의 문화자원아카이브사업 추진
③ 문화원 중심의 지역학협의체 출범

네트워크 연계

- 한국문화원연합회 사업네트워크
- 경기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재단사업네트워크
- 지방문화원 간 네트워크

1) 한국문화원연합회 _ 도연합회 _ 지방문화원간 네트워크
① 지원사업의 경기도차원의 프로젝트화 추진 (어르신, 생문공 등)
② 전국단위, 광역단위에서 지역문화원 지원방안 모색

2) 경기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재단 사업 네트워크
① 문예지원사업 _ 공모사업, 기획사업 추진
② 바우처사업의 확대 _ 지방문화원 재원구조의 포지셔닝 확대
③ 문화예술교육의 강화 _ 시민역량 강화를 통한 문화원 외연확대

3) 지방문화원간 네트워킹
① 경기도 문화원간 공통사업의 기획 및 추진
② 지방문화원 간 네트워크 사업의 확대

미래비전 제시

- 과거의 정당한 평가와 반성을 넘어 새로운 미래 비전 제시를 통한 연합회본연의 역할 모색

1) 실질적 분석보고서 발간

① 문화원 축제, 문화예술교육 등 부문별 성과관리분석보고서 발간, 공유

2) 정책토론회 및 워크숍의 다각화
① 문화원 발전방향 토론회 학술 심포지움의 확대
② 원장, 국장, 직원협의회의 조직 정례화 및 포럼 개최
③ 상시적 협의기구 마련 및 아젠다 회의 개최

기획사업개발 및 시범사업추진

- 한국문화정책과 맞물린 기획 사업추진을 통해 한국문화 선도
- 인문학 사업, 도시 재생 등 문화정책 개발 및 기획 사업 추진

1) 페스티벌31 _ 경기도문화원 공연예술 부문 지원
① 융복합콜라보레이션 기획공연을 통한 동아리활성화
② 미술, 공예부문의 전시 기획 지원
③ 새로운 콘텐츠 생산을 통한 문화원 기획사업의 발굴

2) 미래의 유물전 _ 지역의 현재적 재구성을 위한 아카이브 기획전시
① 향토사와 구술사 연구의 가시적 성과 보여주는 기획전시
② 생활문화를 통한 공동체 형성의 새로운 전형 보여주기

3) 경기문화저널
① 사업분석 및 정책개발
② 한국문화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발 빠른 대처와 대안마련

4) 전통문화예술부문 개발 및 지원
① "전통문화예술은 문화원의 손으로 지켜나간다"는 슬로건
② 우수전통민속예술보존단체 지원 사업의 추진

문화원은 이제 달라져야 한다.
연합회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말의 상찬'이 아니라 구체적 아젠다(Agenda)가 설정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단기, 중기, 장기적 방향이 합의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명확한 실천이 담보되어야 한다.
사업과 사업의 연계 구조를 찾고 각 단위사업의 맥락을 다시 잡아야 한다.
이제는 예전에 문화원은 이랬는데...하는 말을 되풀이 하지 말자.
이제 문화원 직원으로써 지역문화전문가로써 인정받기 위한 일련의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이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현실적 성과를 내기 위한 근거와 논리를 개발하고, 그 기획이 왜 필요한가, 이 기획을 통해 지역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 전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여 백

Ⅲ. 아젠다31

_ 지속발전가능한문화원만들기액션플랜(Action Plan)을 중심으로

[섹션 Ⅰ] 다른 곳과 다른 그래서 더 좋은 특별한 우리동네 만들기
_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섹션 Ⅱ] 역사와 전통이 현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_ 경기향토문화대학을 중심으로

[섹션 Ⅲ] 내가 노인이 되면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을까
_ 경기도어르신사업의 로드맵 만들기

[섹션 Ⅳ] 지방문화원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_ 지역문화커뮤니티활동가양성과정<품앗이안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017년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지속발전가능한문화원만들기액션플랜(이하 '액션플랜')>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역문화원을 지역시민을 중심으로 한 사업추진체계로 전환하고자 했다.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페스티벌 31>구조 내에 <아젠다 31>을 배치, 기획하여 지역문화원이 해결해야 할 과제 31개를 도출하고 각 과제의 구체적 아젠다를 도출하기 위한 포럼을 조직했다.
올 해 (2017년)는 우선 액션플랜을 중심으로 한 4개의 포럼을 조직했고, 향후 경기도문화원연합회를 중심으로 지역문화원의 과제 해결을 위한 31개의 포럼이 조직될 예정이다.
본 글은 포럼 당시 상황을 생동감있게 전달하고자 녹취, 윤색을 거쳐 정리된 글을 게재한 것이다.

[아젠다 31 _ 섹션 I]

다른 곳과 다른 그래서 더 좋은 특별한 우리동네 만들기 _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본 섹션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의왕문화원, 하남문화원이 주관, 경기도의 후원으로 생활문화동아리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마을큐레이터되기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논의한 내용이다.
지역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현재를 시민이 직접 재구성하자!'는 콘셉트로 각 20명의 시민을 모집, 마을을 큐레이팅하기 위한 워크숍, 조사, 발굴 등을 추진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아젠다를 도출하고자 했다.
특히 본 포럼에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다른 맥락이지만 비슷한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던 이천문화원의 <마을기록자양성과정>의 참가자도 함께 참여하여 포럼을 더욱 풍성하게 해 주었다. _편집자 주

포럼 <아젠다31_ 섹션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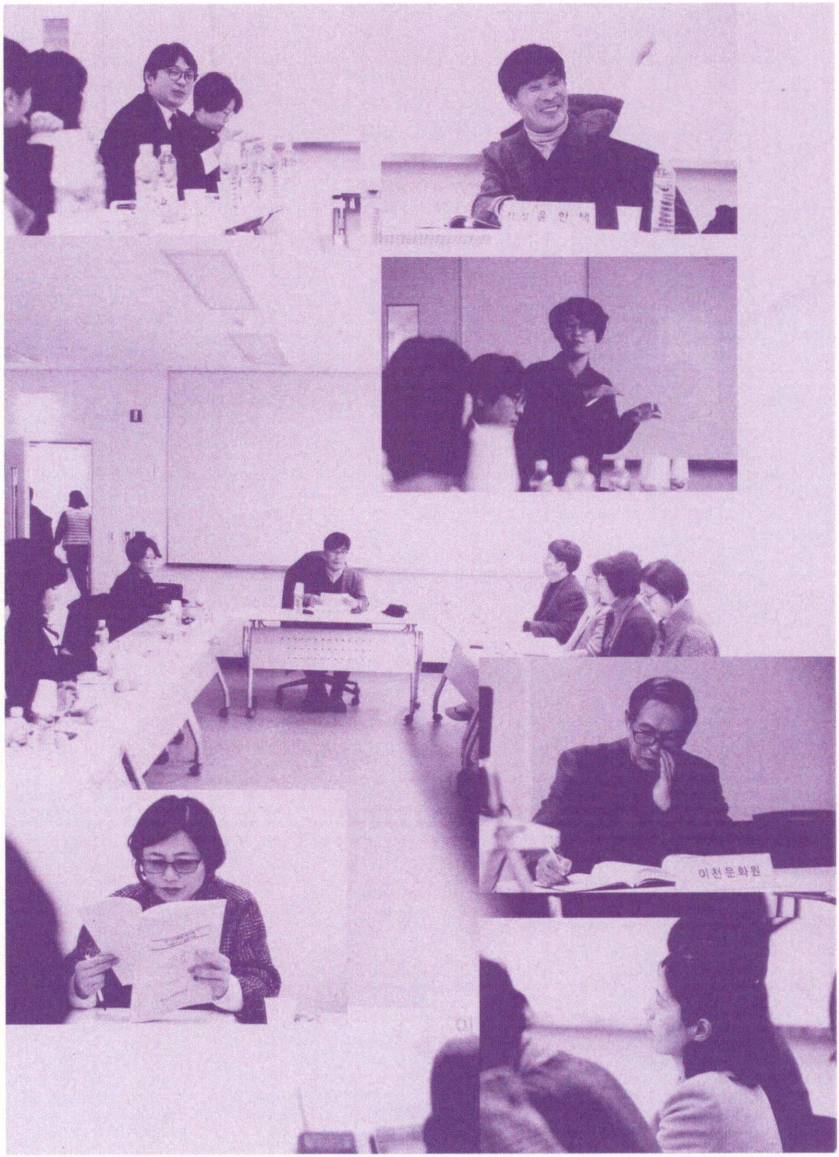
다른 곳과 다른 그래서 더 좋은 특별한 우리동네 만들기_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가. 발제문 : 문화원, 과거에서 현재로 가는 길 _ 서교송(문화기획 단비 대표)

나.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현재를 재구성하기 위한 구체적 아젠다 도출을 위한 포럼

다. 아젠다 채택 및 선언문

라. 사례발표 Ⅰ : 의왕시 고천동의 어제와 오늘 _ 고동윤(의왕문화원 마을큐레이터)
마. 사례발표 Ⅱ : 오래된 향기를 찾아서 _ 이상숙(하남문화원 마을큐레이터)
바. 사례발표 Ⅲ : 이천의 일상을 기록하다 _ 문초진(이천문화원 마을기록활동가)


이천문화원

문화원, 과거에서 현재로 가는 길

서교송 (문화기획 단비대표)

지방문화원은 각 지역의 문화적 성격을 규정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기본적으로 지역의 역사 조명사업, 선현 선양사업, 전통문화 전승사업 등을 수행해왔으며, 각종 문화 예술(교육) 활동을 통해 지역문화 창달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해왔고, 이제껏 지역의 대표적 문화기관(단체)으로써 압도적인 위치를 점해온 것이 사실이다.

전국의 문화적 거점으로 자리잡은 지방문화원의 성장은 지역문화 조성의 선구자라 불릴 지방문화원 종사자들의 열정과 땀이 켜켜이 쌓인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이제 그들의 노고를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기반위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식정보 시대의 도래를 기점으로 한 다양한 문화주체들의 가늠키 어려운 다양한 문화 활동들이 문화원의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의 변화를 압박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아젠다 31' 역시 이같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논의의 장이 '문화원의 조직적, 법제적 발전방향과 안정화'에서 개개의 사업속에서 갖춰야할 문화원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실천방안으로 보다 구체화된 담론을 엮어내고자 하는 것에서 시대에 부응하는 변화와 도약을 위한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과거에서 현재로의 이동

그간 문화원의 주된 활동 분야는 지역 역사의 조사와 정립, 전통문화의 전승에 초점을 맞춰왔고 이를 통해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평가받고 있다. 지방문화원의 활동이 없었다면, 아마 대부분의 지역사는 시간속에 사장되었을 것이다.

문화재대관, 금석문집, 시지와 군지, 지명유래집 등 각각의
지방문화원들이 행해 온 향토사료 발간사업과 세시풍습을 따라 진행해온
민속축제, 단오제, 대보름축제, 그리고 각 지역의 인물을 선양하기
위해 개최하는 각종 축제, 문화제, 서원과 향교에서의 춘추 향사
등은 문화원이 아닌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던 분야였으나, 현재는
지역문화의 줄거리를 이루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문화원의 이같은 활동은 지역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거점으로 문화원을
자리매김하게 하였으나, 한 편으로는 문화원을 시대에 처진 구시대적
문화기관으로 인식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으며, 이는 새로운
세대의 유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특히 현재와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환경 속에서, 지방문화원의 느린 걸음은 그간 문화원이
가져온 지역 문화 중심으로서의 위상에 큰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우려는 문화원의 발빠른 대처를 가져오기도 했다. 날로
다양해지는 문화기획과 사업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어르신사업처럼
방송을 통해 국가적인 성공사업(?)이 된 경우도 있다. 최근에 문화원에서
수행한 문화예술체육 자원봉사 시스템 운영이라거나, 해설을 곁들이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매마수'라는 문화사업에의 참여 등은 자발적이든
아니든 간에 지방문화원의 사업 영역을 다양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 지방문화원에서 참여하는 대부분의 지원사업에 경쟁체계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전통문화 관련 사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신선한 프로그램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는 것도 기존의 문화원의
이미지와는 다소 이질적인 시대의 조류를 반영하는 일면이 있다.

과거와 현재의 만남

지방문화원 사업의 다양화는 문화원이 역사 속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의
흐름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양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그간 지방문화원이 담당해왔던 지역문화와
전통문화의 약화를 가져오는 게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다양한 문화활동이 발빠르게 전개되는 시기에 자칫 문화원이

그간 지켜온 문화원만의 정체성과 가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상당수의 문화원들이 전통사업 보다는, 실용적이고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문화사업을 펼치는 쪽에 무게를 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변화가 바람직하지만은 않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문화원이 가지는 블루오션을 포기하고 레드오션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지방문화원이 과거에서 현재로 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과거를 품고 현재를 꾸미는 지혜가 아닐까 싶다.

문화원연합회에서 추진하는 문화원형의 공연 또는 문화콘텐츠로의 제작사업이 바람직한 사례일 것이다. 예를 들자면 파주시는 율곡선생의 본가가 있던 곳이고, 선생과 사임당의 묘소가 있는 곳이다. 율곡선생과 관련한 사료의 발간과 유적지 개발, 나아가 율곡문화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사업이 진행되었지만, 도시화 된 현재의 2/3에 달하는 이주민들에게는 친근하지 않은 역사속의 인물로만 남을 수 있었다.

문화적 욕구가 강한 신도시 주민들에게 율곡선생은 뮤지컬과 연극으로 다가갔다. 바쁜 일상과 비대면 문화속에서 사는 신도시의 시민들에게 파주가 율곡의 고장임을 생각하게 하고, 파주시민으로서의 문화적 연대감을 갖게 하는 귀한 역할을 예술이라는 통로를 활용한 문화원의 사업으로 이루어냈다. 이같은 형태의 사업은 경기도의 각 문화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반적인 양상이며, 특별하지 않아 보일지 몰라도 문화원을 현재와 시민들과 연결시키는 소중한 고리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음'

역사와 전통의 영역은 문화원이 가진 특별구이다. 이제껏 인정받아왔고, 가장 자랑스러워 해야 할 자산이다.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따르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자세겠지만, 문화원이 가진 본분과 역할을 바탕으로 삼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에서 현재로의 진입은 단절이 아닌 실용적이고 문화적인 '이음'이어야 한다.

나.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현재를 재구성하기 위한 구체적 아젠다 도출을 위한 포럼

제1섹션 | 일시_ 2017. 11. 28 (화) 14:00~16:00 | 장소_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갤러리동 2층 제1강의실

주제_ 다른 곳과 다른, 그래서 더 좋은 특별한 우리동네 만들기

주요패널

_ 좌장 : 윤한택 (인하대 교수, 역사학자)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현재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_ 마을큐레이터 활동을 바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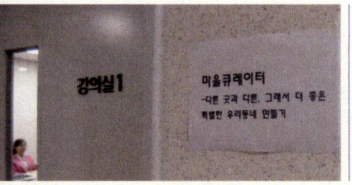
_ 패널 :

1. 민병은 (마을큐레이터 컨설턴트, 지혜로운봄 대표)
2. 강성봉 (성북문화원 사무국장)
3. 서교송 (전 파주문화원 사무국장, 현 문화기획 단비 대표)
4. 고동윤 (의왕문화원 마을큐레이터 과정 참가자)
5. 이상숙 (하남문화원 마을큐레이터 과정 참가자)
6. 문초진 (이천문화원 마을기록자과정 참가자)

_ 참가자 : 의왕, 하남 마을큐레이터 과정 참가자

시간 배정

시간	발표자 | 토론자	내용
14:00~14:02	좌장 _ 윤한택교수	개회 및 포럼취지
14:02~14:10	민병은 _ 마을큐레이터컨설턴트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마을큐레이터추진과정과 의의
14:10~14:20	고동윤 _ 의왕문화원	의왕 매핑으로 마을 읽기 사례
14:20~14:30	이상숙 _ 하남문화원	하남 이야기 지도 사례
14:30~14:40	문초진 _ 이천문화원	이천마을기록자과정 사례
14:40~14:50	서교송 _ 문화기획단비대표	지방문화원이 과거에서 현재로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14:50~15:00	강성봉 _ 성북문화원 사무국장	지방문화원은 전통을 바탕으로 한 지역특성화의 길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15:00~15:50	전 체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현재를 재구성하기 위한 구체적 아젠다 도출 포럼
15:50~16:00	좌장 _ 윤한택 교수	아젠다 채택 및 선언





좌장 윤한택(이하 '좌장') :
지방 문화원이 전통을 바탕으로 한 지역 특성화의 길을 모색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아젠다를 통하여 지방문화원,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병은(이하 '민') : 안녕하십니까. 아젠다31 중에 첫 번째 섹션이 '다른 것과 다른, 그래서 더 특별한 우리 동네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큐레이터가 하남문화원과 의왕문화원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이것과 비슷한 출발점에 개념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이천에서의 마을기록자과정은 마을을 기록 한다는 맥락에서는 비슷할 것 같아서, 기획단에서 세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코너에서는 마을큐레이터 활동, 문화를 기록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나누고 내년에는 사업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자리로 알고 있고 그래서 활동에 직접 참여해 주셨던 주인공이자 각 지역에 시민들로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초대 되어 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례지만 일 년 동안 어떻게 재미있게 활동을 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마을 큐레이터 기획을 같이하고, 진행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라서, 마을 큐레이터가 왜 시작되었는지를 짧게 이야기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마을큐레이터가 시작된 경유를 짧게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무수히 되어 왔었고, 그리고 점차 거시적 관점에서 보다 작은 미시적인 관점으로 좀 더 소소한



일상으로 문화를 읽어내는 과정으로 흐름을 타고 있는데, 마을큐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마을의 내가, 우리 동네 살고 있는 내가 우리 마을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에서 출발을 하면, 내가 내 발을 떼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사업 추진 방식과는 달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범 사업이라 처음 교육과정을 6주 동안 짧게 하고, 하남문화원과 의왕문화원에서 큐레이터 과정에 참석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모집을 해 진행을 하였습니다. 물론 각 문화원 주임님과 과장님께서 잘 선별해 주셔서, 좋은 선생님들과 6주 동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큐레이터는 내 마을을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직접 거주하시는 분들, 지나쳐 가시는 분들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정주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마을을 읽어 가는 방식을 어떻게 잡아 볼까 하는 고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문화의 성향에 맞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재미있었던 것은 의왕 문화원은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역량대로 마을 맵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제를 색다르게 잡아서 하는 소셜 맵핑이 되었습니다. 맵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 지도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하남 같은 경우에는 문화해설이나 숲 해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오시다보니 스토리로 진행 되었습니다. 지도의 내용과 개념이 다릅니다.
하남문화원과 의왕문화원에 계신 분들은 서로 만나 보신 적이 없습니다. 아마 오늘 발표를 보시고 저 문화원은 저렇게 활동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체성이라는 것, 계획성에 반한 자발성이라는 것, 물론 이분법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겠지만 그 사이에서 사람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움직이는 자발성 안에서 이 간극을 메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만큼만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점을 찾아보자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불안했던 것이, 할 때마다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해야지 불안했고, 그래도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이것이 자발성의 힘이구나, 자발성이 전제되니까 열정은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천 같은 경우 시민기록자 과정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사례까지 3개의 사례를 같이 공유하면서 내년에는 이런 강연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받아 갈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읽어주는 쓴 소리면 쓴소리 만큼, 아니면 격려의 말씀이면 격려의 말씀만큼 받아서 가면 여기에 참여하셨던 정말 발로 뛰시는 우리 시민 분들께서 내년도 사업을 그려 나가시는데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마을 큐레이터를 진행 하면서 속 깊은 시작은 미래유물전 이었습니다. 미래유물전에 대한 전시를 해왔었는데 미래로 방점이 찍혔으면 좋겠는데 자꾸 유물로 찍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물 전시로 자꾸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먼저 마을큐레이터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마을 큐레이터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동기를 얻고 싶어서 마을큐레이터를 바탕으로 미래 유물전이 새롭게 세팅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마을큐레이터의 출생 배경을 말씀 드렸는데, 내년도의 고민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신 분들의 정말 좋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의왕문화원 활동과정 영상시청

좌장 : 방금의 것은 의왕 것인데, 하남과는 다르게 의왕 쪽은 맵핑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민 : 의왕은 처음부터 맵핑을 시작한 것이고, 하남은 이야기로 시작해서 맵핑을 한 것입니다.

문화예술사는 예술사업이라 스토리 중심이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의왕문화원과 하남문화원에서 발표를 하시게 되시는 것입니까?

의왕문화원 고동윤(이하 '고') : 안녕하십니까. 의왕문화원에서 고천동의 사례 발표를 하게 된 고동윤이라고 합니다. 저희 의왕에는 4개팀이 있었는데, 그중 저희 고천동이 사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고천동의 어제와 오늘'입니다. 고천동의 어제, 과거의 이야기도 있지만, 현재의 이야기도 같이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기 보이는 사진은 고천 초등학교 전경입니다. 저희 팀원들이 만나는 장소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찍어보았습니다.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팀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면서 이 사실을 전달하려고 하였는지, 어떤 주제로 조사 했는지, 조사 범위를 지역적인 것과 지리적인 범위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고천동이 어떤 마을인가 사진과 이야기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시회 결과를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고천동의 어제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고천동은 재개발 지역이라 언젠가는 사라질 텐데, 그곳에 있는 옛날이야기와 현재 남아있는 가게의 간판들을 통해서 현재의 이야기를 같이 발견하면서 남기고 싶다는 취지로 하게 되었습니다.

팀구성



이것이 의왕지도입니다. 빨간 경계가 동에 대한 경계입니다. 오늘은 가장 위에 있는 청계동에서 한분이 오셨고, 부곡동에서 가장 많이 오셨습니다. 저는 부곡동 주민입니다. 오전동에 한 분 해서 총 5명입니다. 저희가 고천동을

왜 선택했느냐면 아무도 살지 않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낯선 동네에서 낯선 시선으로 보자고 코디네이터 선생님께서 강조하셨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고천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잘 모르는, 안다고 하면 사근행궁터가 있다 정도입니다.

조사범위



조사 범위는 고천동을 확대한 모습인데 이곳을 다 둘러보면 걸어서 3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분홍색 테두리 안을 범위로 정했고 고천초등학교하고 사근행궁터 그리고 오봉주조라는 막걸리 주조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아래 표시된 길은 파란색으로 되는 것이 삼남길이라고 서울하고 삼남을 잇는 길입니다. 그리고 갈색길이 3.1 만세운동길이라고 옛길이 포함되어 있는, 저희가 조사할 지리적인 범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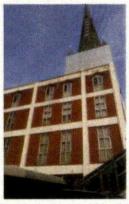
저희 팀원들이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사진을 많이 찍어서 올려야 하는데 문자로는 조금 부족해서, 밴드로 개별 조사도 하고, 합동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 올리고, 갔다 오면 후기를 공지해서 소통하는 방식으로 만났습니다. 10월에 마지막으로 조사를 마치고 11월은 많이 바쁜 시기라 밴드로 소통을 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처음에는 고천동을 잘 모르니까 각자 둘러보고 느낌을 나중에 만나서 공유해 보자고 해서 다섯 명이 만나서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합동 조사를 하면서 오래된 가게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를 하고 나니 각자 무얼 하고 싶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골목길에 관심이 있다. 어떤 분은 간판을 조사하고 싶다. 어떤 분은 옛 골목에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다. 어떤 분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중간쯤 진행되었을 때, 결과물을 내라는데 이 결과물을 어떻게 내야할까. 우리가 각자 개별적으로 고민한 것들을 엮어서 어떻게 하나의 결과물을 낼까? 이것에 대한 방향을 못 잡아서 고민을 했는데, 퍼실리테이터께서 중간 점검에

찍어 주신 게 무엇이냐면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현재를, 그 마을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미 결과를 생각했었습니다. 오래된 것 찾기. 그래서 답이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마을 전체를 다시 조사해 보자고 했습니다. 고천동에는 주거지도 있지만 가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가게들의 간판을 조사하였습니다. 생각 없이 조사하고 나열해보니 우리가 몰랐던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천동에서 나고, 자라셨던 분들을 모시고 동네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마지막으로 조사를 끝냈습니다.

고천동은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지 10년이 넘은 아주 오래된 곳입니다. 팀원들이 말하길 고천동이라는 곳은 한마디로 '공존'이라고 했습니다. 옛것과 새로운 것이 같이 있는 공존, 그리고 재개발을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 하는 사람이 같이 있는 공존, 아파트와 골목이 있는 공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에 공감을 했습니다. 다음 고천동 옛이야기를 보면 사근행궁터가 있습니다. 정조가 행차를 할 때 지나던 곳인데, 그곳에 들러서 쉬었다 가셨던 곳입니다. 앞으로 공원으로 재개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나중에 공원이 된다면 행궁이 복원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전시회 때 이 이야기에 담았습니다. 그 다음 조사한 옛이야기로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지도에서 3.1 만세 운동길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3.1 만세운동이 있었던 길인데, 의왕 면사무소에서 당시 경찰 주재소까지 드나들면서 만세운동이 있었는데, 3월1일이 아니라 3월 31일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3.1운동이 폭력화 되어 있는 시점에서 후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만세운동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천초등학교도 재개발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데, 초등학교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마을 주민들의 기성회비로 종자돈이 모아져서 만들어졌던, 1936년 재교육단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고천동 둘러보기 – 옛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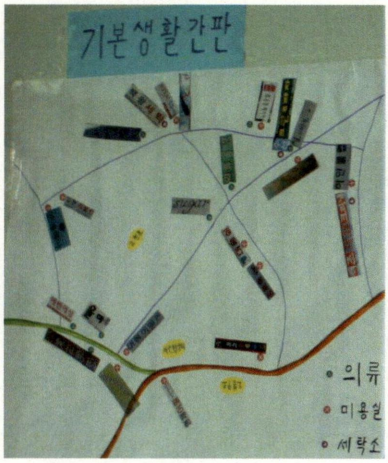


교회의 작은 공간을 지역 청소년들에게 개방해서 청소년들이 모여 함께 공부했다

이것은 성결교회인데 요즘은 청소년들을 자발적인 모임이 많이 부족하지만, 각자의 방이 없던 시절에 청소년들을 모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내 주었던 곳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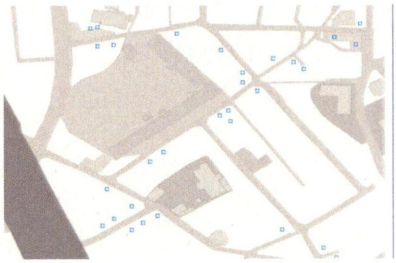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봉주조는 막걸리를 주조하던 곳인데, 50년 정도 되었습니다. 여기 막걸리를 은행나무에 부어 주었더니, 은행이 실하게 잘 나왔다는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막걸리를 제조하는 곳을 '건물에 막걸리 디자인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막걸리 디자인 전시회도 했습니다.

골목길을 보면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골목길도,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골목길도 있는데, 주변에 아파트들이 보이는 곳도 있고, 산이 보이는 곳도 있었습니다. 사진관을 인터뷰했는데, 가게에서 오래 됐다는 기준이 20년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오래 됐냐? 난 60 살인데, 20년이면 오래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게에서 지금까지도 명맥을 유지해 온 비결이 무엇이냐 여쭤봤더니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맺은 인연이 계속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발관도 2-30년 되었는데, 마침 단골손님이 이발을 하러 오셔서 자랑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탁소도 20년 남짓 되었는데 오래된 골동품 같은 것들 있었습니다. 여기는 국수집인데, 그 옆집에는 이 집에서 만든 국수로 만든 음식을 팝니다. 서로 상부상조하는 이런 사이좋은 가게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간판 이야기를 보았고, 가게를 다시 전수조사를 했는데 가게가 100개 넘게 나왔습니다. 이것들을 분류를 해 봤더니, 설비, 먹거리, 의류, 세탁, 미용 등으로 교회나 공부방 이런 것들이 몇 개 없는 것들은 기타로 분류하고 100 개가 남았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간판만 사진을 찍어서 맵핑을 해보니 이렇게 지도가 나왔습니다.



20년이 넘은 오래된 가게가 10여개가 있었습니다. 의류, 세탁, 미용으로 분류 했던 이유는, 사람들한테 가장 기본이 되는 가게들 이었습니다. 의외로 오래된 가게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먹거리는 기본적인 가게들이었고, 의외로 잘 몰랐던 것이 설비 가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수조사하기 전에는 몰랐던 사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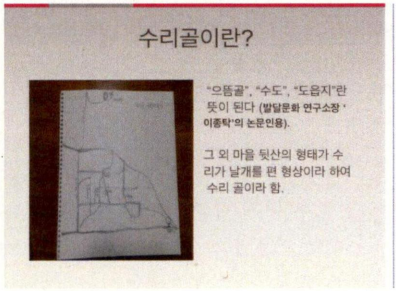


설비가게들의 위치를 보면 번화하지 않는 안쪽에,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안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했던 것들을 총합해서 활동 스케치를 했는데, 왜 이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기본 생활 간판 의류, 세탁, 미용 간판들 사진을 잘라서 전시를 해 보았습니다. 삼남길과 3.1 만세운동 길을 중심으로 옛이야기가 있는 것들을 배치하여 마무리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 다음은 하남입니다.

하남문화원 이상숙(이하 '숙') : 저희는 '오래 된 향기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하남시에서 마을큐레이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왕시에서는 지도를 중심적으로 했다면, 저희는 주제를 두 가지로 정해서 이야기를 풀어 나가 색다르게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는 '사라져 버린 곳에 대한 미련'이라는 주제로 수리골에 대해 장순란 선생님과 선린촌에 대해 박미미 선생님이 조사 했습니다. 없어졌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두번째는 하남에서 삼대 째 계속 이어져 가는 음식점이 있는데, 그 음식점은 왜 삼 대째까지 이어지는가에 대해 지금까지 봤던 시각 말고, 낯설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밴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다섯 명이 같이 가서 둘러보면서 조사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라져 버린 것에 대한 미련'을 소개드리면 이곳은 수리골이라는 곳인데, 지도를 다 손으로 그렸습니다. 이 수리골은 으뜸꼴, 수도, 도읍지라는 뜻으로 그 외 마을의 형태가 수리의 날개를 편 형상이라는 뜻에서 수리골이라 하는데, 수리의 머리로 추정이 되는 곳에 말 바위가 있습니다. 이것만 남겨두고 지금은 수리골이 장터나 오래된 골목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린촌 이야기를 보게 되면 6.25전쟁으로 인해서 경상도까지 피난 갔던 최문환 목사를 중심으로, 3만평 정도의 황무지를 개발하여 선린촌을 형성하였다고 합니다. 소, 말,



양계를 주로 해서 굉장히 부유하게 마을을 이끌어 나갔었고, 선한 이웃의 삶을 실천하며 목사님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합동촌이 발전되어 나갔는데, 이곳이 닭을 키우는 계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건물이나 도로들을 배치하여 계획 된 마을로, 현재 봐도 굉장히 정돈이 잘 되어 있던 마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가본 상태에서는 너무 아쉽게도 이런 집 두 채만 남겨두고 완전히 공장 지대로 바뀌어버린 상태입니다. 양계 사업을 주로 해서 발전한 선린촌은 안타깝게도 잊혀져가고 있고, 현재는 소규모 창고가 모인 마을로 변모 되어서 교회와 남은 주택 몇 채 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 왜 바뀌어 가는 것을 지켜내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큐레이터를 모집 한다고 해서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찾다 보니까, 팀원들이 선린촌이나 수리골에 대해서 열심히 조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저도 무작정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자료를 보면서 왜 이렇게 아름답고 좋았던 것을 지켜내지 못 했나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가 잘 조성되어 있는 곳을 보면 우리나라가 문명적으로 발전이 됐지만 그 반면에 문화유산을 너무 지켜주지 못한 부분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히틀러도 다른 나라를 침공할 때 문화유산은 공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문화는 돌멩이 하나라도 그 민족의 얼과 맥과 모든 정신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침범 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써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너무 좋고 아름답던 것들의 뿌리를 영원히 지키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 후손들은 우리가 무엇을 했고, 어떤 정신으로 살았는지를 알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라도 마을 큐레이터를 하면서 이런 유산을 조금 더 잘 지킬 수 있는 활동을 하는 커다란 동기가 생겼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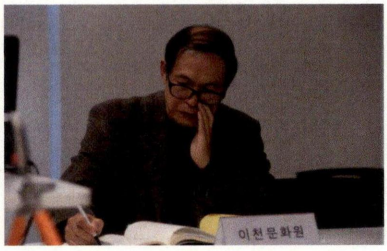
또 하나의 주제는 '왜 삼대째까지 이어져야 할까?' 라는 것입니다
동네에 낙원 떡 방앗간 있는데, 이 마을의 전통을 잇는 떡 방앗간입니다. 옛 맛을 찾으려고 하는 장인정신이 깃든 곳입니다. 호박잎, 쑥, 모시잎 이런 좋은 재료를 직접 공수해서 만드시고 계십니다. 저희는 지난번 전시회 때 떡을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떡을 먹을 때 그냥 떡이라고 생각하고 먹었지만, 이렇게 온갖 천연 재료를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하남에서 유명한 삼대째 내려오는 마방집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마방은 서울에 들어가기 전에 말을 잠시 쉬었다가 하룻밤 묵고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1920년대 1대 선조께서 주막을 운영하시면 국밥을 파셨고, 80여년에 걸쳐서 현재 3대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6.25때 건물이 파손 되었는데도 다시 지을 때, 옛것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벽돌이 아닌 흙을 사용하였고, 창호지를 사용하여 민속의 고유문화를 지키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또 음식상을 들고 다니는데, 들고 오는 사람이 3대째 손주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집을 이어갈 손주가 손님상을 11 년째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맛과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손주에게 상을 들리고 음식을 만들게 한다는 것을 보았을 때, 이런 음식점이 많이 나와서 전통을 잇고 고유한 맛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대 째 이어 가는 곳에서 오순도순 이야기 하면서 전통의, 마음의 고향을 찾고 할머니가 되어도 손주들과 같이 먹을 수 있는

이 맛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대를 이어서 그 맛을 느끼게 하는 음식에 대한 얼이 들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하는 것을 통틀어 생각했을 때, 새로운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에서는 원래 있었던 것을 겉모습만 남기고 안에 있는 것을 고치는데, 우리는 전통이 있는 것을 다 허물어 버리고 전통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선린촌에서도 마찬가지로 삼만평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의 전통을 소중히 생각하지 못 한다는 것을 이 큐레이터활동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사라져 버린 것들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없는 것이고, 전통은 깊을수록 우리 정신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맛과 모든 문화유산이 우리 후손과 연결고리가 되어 지켜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남은 맵 중심보다도 하나의 이야깃거리 중심의 큐레이터 활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 지금 발표를 대표로 해 주셨습니다만 각자 참여 하신 분들이 다 일당백이니까, 각자 한마디씩 하시고 싶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각자가 자신을 소개 하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의왕 1 : 제 소개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역 내 평생학습 일을 조금씩 하고 있어서 마을 큐레이터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마을 큐레이터라는 것이 제가 하는 일과 연관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맵핑을 처음부터 이야기 하신 것 같습니다. 처음 조원을 결정할 때부터 제가 운이 좋아서 옆에 있는 좋은 친구가 같은 팀을 이루어서 즐겁게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과물도 같이 공동으로 해서 좋았습니다. 또 저희 팀이 여기까지 와서 발표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왕문화원 공은실 주임(이하 '공') : 저는 의왕문화원 프로그램 담당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처음에 의왕 문화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조금 망설여졌던 것이,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마을 만들기 사업은 기존에 있는 사업인데, 이런 마을과 관련된 큐레이터 과정을 한다는 것이 사업에 중복성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원에서는 저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처음에 마을큐레이터라고 공고 했을 때 의왕시에 있는 마을 지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개하는 그런 과정인 줄 알고 전화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 보셨던 분들, 마을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는 이 인원 20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분들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모호했던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고, 방향성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업이라서 난감했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오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하다 보니, 담당자 입장에서는 모호하게 느껴져서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을 시킬 것인지 궁금증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수료식에서 이 분들이 소감을 이야기 할 때, 그분들의 열심히 하는 모습과 마을에 대한 애향심이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입장에서 이 좋은 인적자원들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 분들과 어떤 사업을 같이 해 볼 것인지, 그런 쪽으로 담당자로써의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를 나눠서 그 조마다 마을과 관련된 것을 조사하고, 마을을 맵핑해 보았는데 제 생각에는 다음 기회에 이런 과정이 생긴다면 그런 지도들이 많이 나올 거 같습니다. 조를 여러 개 짤수록 지도가 많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 지도를 묶어서 하나의 문화원 책자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에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문화원만의 마을 자료, 다른 곳에는 없는 문화원의 소장 자료,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배포를 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에게는 많은 사업 중에 잘 모르겠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의 표정은 너무 밝습니다. 에너지가 있는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교수님들과 선생님들께서 풀어주실지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처음에는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것과 중복된 사업이지 않을까 걱정했고, 문화원에서는 성과를 보기 때문에 2개년,

3개년 사업으로 진행 시키는데, 이 사업은 진행 시키는 목적이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만약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 몇 % 달성이 되었고, 일자리 수요가 났다는 결과치가 나오는데, 이 사업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움직이는 사업이라 이 감정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고민이 됐는데 또 한편으론 이것이 문화원 사업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남 1 :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을큐레이터로 활동했던 원지현입니다. 사실은 제가 문화 예술 공연 기획 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천문화원과 인연이 되어서 이 사업 전에 이천 시민기록자 수업을 잠깐 들었습니다. 100%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마을 기록방법에 대한 수업을 듣고 재밌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하남에서 이런 수업을 해서 참석 해보니 진행 하는 과정 속에서 마을큐레이터가 할 일이 진짜 많았습니다. 내가 아는 동네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나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하면서 조금 오래 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저에겐 오래된 기준이 10년이었습니다. 제가 하남시에 5년 밖에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기준에는 10년이긴 했지만 저희 조원들이 가지고 온 것을 보니 20년, 30년, 3대가 되버린 것입니다. 주제를 바꿔야 하나 하는 고민을 했는데, 기획자 선생님이나 저희 퍼실데이터 선생님께서 그것은 각자의 기준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편하게 하라고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의 김밥집을 조사하였는데, 부영김밥이라고 하남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집입니다. 저희 아이가 다섯 살인데 또래 엄마들은 부영김밥집에 가자고 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굉장히 가볍게 시작했었습니다. '큐레이터가 뭐 어렵겠어? 가서 몇 번 인터뷰하면 되지' 하면서 시작했는데 그 결과물을 쓰고, 중간 과정에서 토론을 하는데, 제가 한 것이 가장 빈약 하였습니다. 다른 분들은 몇 번씩 가셔서

조사하시고 심지어 선린촌 조사하시는 분은 주말마다 거기서 사시다시피 하셨는데, 저는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을 했다는 것이 큰 산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 이분들의 열정에 저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획자로서 고민을 하는 기회가 되긴 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마을큐레이터라고해서 마을에 현재의 모습을 기록하는데 그칠 것이냐고 한다면, 사실 그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큐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미술관 큐레이터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현재 있는 것에서 문화를 제시 한다거나 뭔가 포장을 해준다거나 하는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마을큐레이터는 시범 사업이라 6주 만에 그런 것까지 나오기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앞으로의 기획성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교육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메꿔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오시면, 마을큐레이터가 마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큐레이터라고 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일 텐데, 그 큐레이터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무엇인가, 내가 마을의 큐레이터야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남 2 : 안녕하십니까. 하남시 큐레이터로 저희가 오긴 했는데, 다른 조들, 하남시에 새로운 영역을 담당하는 분들, 변화하는 시선을 담당하시는 조, 그리고 오래된 것을 담당하는 조가 있었습니다. 다섯 명이 한 조가 되어서 진행하였고 저희만 오는 것이 조금 미안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하신 것도 굉장히 많고 좋았는데,, 저희 팀을 정하신 것은 저희 팀 이름이 무지개인데, 내용이 조금 다양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 조만 인문 하신 분도 계시고,, 골목 하신 분도 계시고, 음식점 하신 분도 계셔서, 그래서 저희 조를 선택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수리골을 조사했습니다. 골목을 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냥 골목이 좋았던 것입니다. 의왕시도 마찬가지 일텐데, 하남시의 작은 골목들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제가 좀 나이가 많은데, 우리 아이들만 해도 골목에서 구슬치기도 하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골목에서 노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 때도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골목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골목을 조사

하면서 아까 의왕시 팀이 하신 것과 제가 한 것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것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제가 골목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개발과 보전의 의견이 첨예하게 달라서 주민들에게 말거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의왕 분들은 오래된 가게를 찾아가 그분들을 만나시고, 이야기까지 하셨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분들 중 개발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원하지 않는 부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의견이 너무 첨예하셔서, 감히 다가간다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골목이라고 해도, 이것은 저만 좋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유년의 향수를 가지고, 그 골목이 좋고, 너무 알고 싶고, 또 그것을 사진으로나마 가지고 있고 싶었던 것인데, 그 골목이 그냥 다 허물어져 없어져도 살기 편안한 곳으로 지어 주는 것을 바라는 분들도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고 : 그런 것은 두려움이라기보다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들이 볼 때 재개발을 찬성하든 아니면 반대를 하든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같이 다녔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공부하러 왔는데 이야기 좀 들으러 왔다고 이야기를 꺼내면 재개발 이야기도 하고, 마을 사는 이야기를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다닐 때, 혹시 그쪽에서 나온 게 아니냐고 여쭤보시기도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것과 관계없이 문화원에서 공부차원에서 나왔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하남 2 : 그럼 제가 지례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좌장 : 방금 말씀하시기전에, 그 전에 이야기 하신 분이 큐레이터가 단순한 기록자가 아니라는 것과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정을 가지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더라는 부분이 매치가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부분은 화제로 남겨주시고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다음 분께 넘기시기 바랍니다.

하남 3 :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한 이웃들의 마을을 쓴 박미미 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쓰게 된 동기는 선린촌 안에 있는 선린 교회를 다니면서, 90년이 넘은 지금까지 그 선린촌의 역사와 함께 하셨던 권사님이나 장로님,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선린촌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선린촌 이야기는 6.25동란 때 어렸던 시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최문환 목사님을 중심으로 실향민, 피난민들이 모여서 선린촌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 기독교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그 어려웠던 시절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협동하여서 다른 곳에서 견학을 올 정도로, 선진적이고 성공한 모범적인 것이 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큐레이터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에 잠을 못자면서 어떤 글을 어떻게 써 갈까 작가도 되어 보고, 또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도 한번 되어 보고, 그리고 전시회를 할 때는 우리 무지개 팀에서 서로 협동해서 정말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서로 상대의 생각도 배려해주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거나 하는 모습도 없이 정말 그런 모습에 우리가 원했고 바랬던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시간 오래 오래 추억으로 간직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 사례가 두 개 외에 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맵핑과 약간 성격이 다르지만 마저 발표를 하고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천 문화원 문초진 (이하 이천 문) : 아까 하남 문화원에서 히틀러가 침공 했을 때 돌멩이 하나라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돌멩이 하나하나 속에 들어있는 얼과 문화가가 있었기 때문에 훼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말에 절대적으로 저는 존중합니다. 저희가 이천문화원에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시민 기록자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더 공감 하는

바입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천 시민 기록자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문초진이라는 사람입니다. 마을큐레이터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 하고 싶습니다. 대체 이천 시민기록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획자가 아니라 참여자입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진가입니다. 3, 4년 동안 순례 하면서 전국에 있는 수백 년 묵은 소나무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2016년에는 한 번도 출사를 못 갔습니다. 이천 시민기록자 모집 광고에 있었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는지 기가 막힌 명언을 하셔서, 저와 딱 맞아 들어가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삶의 터전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찾아서 모으고 기록하며 그 속에서 가치를 찾아 기록한다' 마을 큐레이터 활동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서 기록하자 그리고 그 속에서 가치를 찾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나무 사진을 찍으면서 수백 년 동안 침묵을 지켜내며 살아온 평범한 일상의 상황들을 기록 한번 해보자는 것 때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6월20일에서 7월27일까지 일주일에 두 번, 두 시간씩 네 시간을 한 달 넘게 진행 하였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프로젝트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까 하남시에 어느 분도 여기에 참여하셔서 강의를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제가 특히 반한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7월 28일 화요일날 했던 것인데, 9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장면 장면들을 사진으로 한번 남겨서 의미 있는 사진가가 되어보자. 이런 내용들을 이경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것이다! 사진을 찍는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가치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 생각이 들어서 더 감동 깊었습니다.

또 하나 기록을 어떻게 하였고 어떤 방법으로 남길 것이냐 대한 내용도 아주 좋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11강에 구술사가 필요한 이와 방법, 구술의 내용을 어떻게 기록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접근하기 쉬워지는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주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천 문화원에서 이틀 동안 9월7일부터 9월8일까지 이천문화원

시민기록자과정 이수자에 한해서 워크숍을 진행 하였습니다. 전에는 이론적인 사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때는 활동 방법에 대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토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수한 결과 영광스럽게 자격증과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이라고 해서 무엇인가 했더니, 이런 자격증이었습니다. 왜 이런 디자인이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을까 했는데 어쨌든 받았습니다. 그래서 29명의 시민 기록자가 탄생하였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연치 않게 29명의 기록자 참여자의 특징이 기가 막혔습니다. 이 참여자 중에는 글쓰기를 지도하는 분들만 해도 상당수 계셨고, 시인도 계셨고, 은퇴한 교육자도 계셨고, 특히 전혀 다른 경제학 교수님도계셨는데 강의를 끝까지 들으셨고, 만화가와 벽화 그리는 분도 계시고, 이천에서 직접 출판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 같은 사진가들도 있었고, 사진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도 있어서 노트북을 펴고 공부해 가면서 강의를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천 시민 기록자 29명이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사람, 다양한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모였는지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소개할 때 알게 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들이 지역 신문에 많이 알려 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명을 두 파트로 나눴습니다. 노거수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천시내에 있는 150년 이상 되는 노거수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전설 이야기것 거리를 만드는 기록을 남기고자 해서 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이천시지를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대중서를 편찬 해보자는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서, 저는 노거수 프로젝트팀의 일원으로써 활동하였습니다. A팀 B팀으로 나눠서, 글 쓰는 분, 사진 찍는 분,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는 분 이렇게 나눠서, 한 노거수를 중심으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노거수란

마을 어귀에 위치에서 마을에 있는 수백 년 역사가 그 속에 담겨 있는 나무입니다. 초등학교 갈 때는 거기에서 만나서 가기도 하고, 누굴 만날 때는 그 나무 앞에서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인연이 있는 곳, 자기 동네 역사가 있는 곳을 각자 담당해서 활동 하였습니다. 이런 활동의 내용들을 글을 써서 올리는데 21편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분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석정이라는 분인데, 메신저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분이 차를 타고 가시면서 그동안에 관심이 있었던 곳에 찾아갔습니다. 기억 속에 있는 마을을 찾게 되었는데, 그곳에 자신의 7대 선조 할아버지께서 은행나무를 심었는데, 왜 심었냐면 할아버지께는 3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이 3명에게 나무를 하나씩 남겨 주기 위해서 라고 합니다. 그곳이 권씨 집성촌으로 그 형제분들의 후손이 지금도 살고 계시는데, 참 재미있게 우애 있게 살더라, 사이가 좋아 보이더라. 이런 내용의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아까 밴드, 카톡 이야기도 하셨지만, 저희도 이 분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밴드와 카톡에 내용을 복사해서 올려 봤습니다. 박은영 이라는 분은 노거수팀이신데, 오천리 은행나무에 버스를 타고 다녀왔다. 자기 혼자 자비를 들여 다녀 온 것입니다. 이분도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신데, 은행나무에 잠깐 시간을 내서 다녀왔다고 합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동네 사람들은 만나지 못했는데, 나중에 만나서 상황도 여쭤보고 얘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 동네 그 집에서 추어탕도 한 그릇 얻어먹었다고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행나무를 보기 위해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시간을 내서 버스타고 갔다 왔다는 부분입니다. 쌍화탕 한 박스 얼마 안 되지만, 자비를 들여서 가지고 갔다는 이런 열성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다음에 내용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백사면 내촌리에 김애경 선생님과 같이 내촌리에 갔다. 이유영 어르신을 만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분은 느티나무가 너무 귀해서 나뭇가지 하나도 불 때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자기 생활에 일부를 떼어 내서 자발적으로 행동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 고향에 나무에 대해서 쓰셨습니다. 자기 어렸을 때 얘기를 하시며, 혹시 오늘 도리리 은행나무를 보러갈 시간이 되는데 같이 가실 분 계십니까? 라고 참여를 요구했는데, 1시에

만나서 같이 가요. 라고 하는 열정과 정성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록을 했는데 채록활동에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희망에 따라서 좋아서 즐겁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각자 사명감이 큽니다. 이 이야기를 남겨서 누구에게 넘겨줘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이것을 작업하였습니다. 왜 이런 정신들이 생긴 것인지, 어떤 정책 때문에 자기 일도 있는데 이런 즐거운 활동이 됐는지, 생활 방편과도 다른 일이지만 어떻게 활동하게 되었는지, 이것은 그림사진을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동네 할머니들과 같이 이 나무에 걸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이천에서는 150년 이상 된 노거수 65수에 대한 사진 촬영을 마쳤고, 20여 편에 채록한 이야기들을 설봉문화지에 기록해서 발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을 가지고 2018년도 이천문화원 캘린더를 제작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고목사진 전시회를 할 계획이고, 문화원장님께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다는데 실제로는 될지, 안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65수 중에 20여수만 채록했는데, 이천 노거수 65수의 이야기를 다 마무리 지어서 노거수 이야기집으로 묶어서 발행 하고 싶은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천 설봉 문화재 노거수 촬영한 사진을 기록할 샘플입니다. 노거수라고 하는 것은 동네 어귀에서 어쩌다 이 땅에 뿌리 내려서 숫한 동네의 애환들을 지켜본 나무입니다. 이런 애환들을 모아서 하나의 자료를 모아서 미래를 사는 사람들에게 제공 한다는 것이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기를 내버리고 열심히 뛰어든 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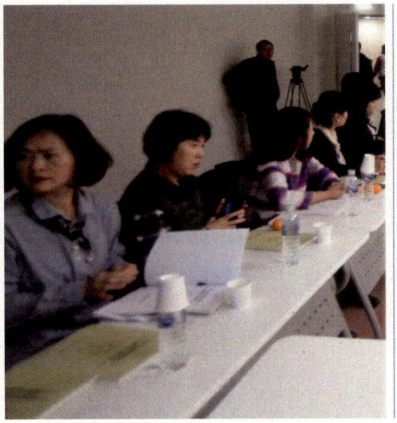
좌장 : 지금까지 각 문화원에서 활동 사례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문화원이 과거에서 현재로 진입하기 위한 활동에 서교송 문화기획 단비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서교송 (문화기획 단비 대표, 이상 '서') :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약간 당황한 부분들이 있는데, 문화원이 저한테 주신 주제가 '문화원이 과거에서 현재로 어떻게 진입 할 수 있을까?'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현재로 진입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 자체가 무슨 이야기일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가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저는 경기도 파주문화원에서 16년 정도 국장을 하다가, 보시는 것처럼 문화기획 단비라는 단체를 설립해서 지역의 문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학당이라는 것을 강사님들과 꾸려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사님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반가웠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문화원도 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역의 어떤 문화나 일들을 얘기하면서 뭔가 공부하고, 활동하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재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문화원에 한계점 때문에 같이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많다는 것 자체가 문화의 질을 높여 주는 기본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재단에서 관련된 비슷한 활동을 하면서 발표 자료는 아니고 숙제였는데,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벽화마을이 있었는데, 어디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역에서 아래 벽화골목 있었고 그 골목에는 특이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주민들이 모여서 축제를 한다고 해서 갔는데, 규모가 조금 있었습니다. 무대를 만들고 연예인이 와서 공연도 했었고, 아이들이 나와서 공연도 하고, 먹거리 마당, 체험 마당도 있었습니다. 다 좋은데 저는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벽화마을이었는데, 실질적인 행사에 벽화를 볼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사진에 전시는 있었는데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고, 특히나 축제를 보러 가는 입장에서 벽화에 관심도 있을 것이고, 이야기를 듣고자 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보다는 무대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생겨서 벽화가 어디 있지? 하고 나가봤더니 마을 골목골목에 벽화가 그려져 있어서, 제 입장에서 처음 가는 곳이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벽화 축제를 하면 이쪽을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 됐어야 하고, 그래야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것이고, 더 의미 있는 활동에 되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활동가들이 무대 뒤에서 짐 나르고 하는 행사를 보조하는 역할 밖에는 못하고, 실제적으로 주인공이 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과정들이 지역의 문화적 주체로 설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원에서 오신분이 그 사업에 대한 자료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같이 모여서 풀어야 될 숙제 같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마을 큐레이팅이라는 작업은 우리를 우리 삶의 주체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을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안다면,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을의 모습도 알 수 있고, 또 그런 일들을 같이 해 나가면서 이웃들과 관계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록하는 부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거쳐서 내가 나의 정체성, 우리 마을의 정체성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마을에 살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이런 판단을 할 수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마을의 모습이 이런 것인데, 앞으로 우리 마을은 어떻게 꾸며 가면 좋을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발전시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진집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교육 자료로 남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살아가는 터전으로써 이웃들과 뭔가를 공유하고, 공감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여러분이 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이 사업의 성공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문화원이 지역에서 지역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문화원의 일들을 보면 회원 분들이 다 이끌어 가야 하는데, 회원들 보다는 이사회 중심으로 문화원이 움직이고 있고, 이사회 보다는 사무국장 되시는 분이 거의 혼자서 사업을 다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이 문화원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문화원에서 아주 소중한 자산일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문화원에서 하고자 하는 활동들을 대신 해주시기로 하는 것이고, 그런 역할들을 담당 해 주시기 때문에 문화원 쪽에서도 아주 뜻깊은 사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해 온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 이어서 우리 이야기에 도움을 주실 성북문화원 강성봉 사무국장님께서 '지방문화원은 전통을 바탕으로 한 지역특성화의 길을 잘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강성봉 (서울성북문화원 사무국장, 이하 '강') : 소개받은 서울의 성북문화원 사무국장인 강성봉입니다. 제가 오늘 인천공항에서 왔습니다. 발제를 못해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제도 4가지 컨셉이 있다고 들었는데 무엇을 맡을지도 늦게 알아서,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지역의 사례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서울시의 사례, 궁금하셨던 마을 큐레이터의의 활동영역과 방향성, 그 다음에 학교 교육, 마을 만들기 이런 부분들은 지금 패러다임의 흐름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원에 온지 만 5년이 되었습니다. 고대사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학에서 강의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문화원이라는 직장을 얻어서 왔습니다. 처음에 대부분 문화원하면 문화 강좌만 생각하는데, 지금은 직원이 저까지 7명입니다. 5년 만에 4명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문화원의 시스템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것은 단발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들이 지속, 유지될 수 있는 관리의 영역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발표를 들었을 때 순서적으로 메모를 했습니다. 경기도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곳입니다. 문화원 연합회도 그렇고 가장 활성화 되는 곳, 1위로 치는 곳이 경기도입니다. 2위가 충남이고, 다음이 강원도입니다. 서울이 꼴등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대도심권은 시스템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사회부터 CEO분들도 계시고, 정치적인 문제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일 열정적으로 하는 곳이라면 경기도를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의 경우에는 문화원 중심으로 안갑니다. 다른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재단도 기초 재단이 생겼고 25개구 중 올해 6개가 또 생깁니다. 문화원도 생존의 문제가 있지만 고유의 영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마을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이나 아카이브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원에서 처음 제가 와서 했던 것은 지역에 대한 일입니다. 건축학개론 영화를 보시면 첫 장면이 건축학개론이라는 수업의 강사가 리포트를 내줍니다. 리포트 과제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보는 것이 건축학개론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마을에 대한 애향심, 관심, 일상생활에는 지나가는 철물점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관심을 두면 새롭게 마음에 다가옵니다. 그런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을 큐레이터라는 용어는 경기도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미 이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천의 시민 기록자 모임 이것도 처음이고, 마을 코디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라든지, 역사 컨텐츠 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민원부터, 맵핑, 사회복지, 도시재생 이런 것들을 동별로 동 주민센터에 공무원들이 계약직으로 많이 파견됩니다. 그러면서 주민과 관, 중간에 문화 예술 기관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관리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서울시로 확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것은 마을 코디네이터라고 얘기하지만, 마을 큐레이터도 원천 컨텐츠라든가 기록, 영상 뿐 만 아니라, 우리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일상생활부터 다양한 범주로 확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 문화 정책과로 또 바뀌었습니다. 전통만 남기고 지역 문화 정책과만 나왔습니다. 지역 문화에 대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문화원 말고도 생활문화센터도 60개가 넘게 확대가 되었는데, 그러면 문화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마을 만들기라든지 큐레이터 활동 트렌드는 문화, 체육, 관광 이런 것들이 다 여가를 하는 것들로 귀환이 되고 있습니다. 여가기본법의 활성화가 작년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기본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 문화의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데, 이제 노동시간의 상대 급부로 여가라는 개념으로 육아도 연결이 되고, 마을조사, 문화생활, 운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플랫폼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은 지역 활동가

내지는 기획자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지금 분위기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단순히 사업이 떨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단위 별로 주민 참여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거의 1억에서 2억 가까이 자기가 원하는 예산을 항목별로 주민투표로 해서 우선순위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마을에 대한 정체성 알기, 문화 예술, 전통 문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대한 정체성을 알려고 하는 작업들이 우선순위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을 사업으로 이 사업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 가냐면, 마을 잡지, 동 잡지, 문화원 자료실 있는 면지, 읍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천문화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분야별로 팀을 짜서 녹취하고, 구술 하고, 사진 찍고, 영상 찍고, 가능하면 미디어까지 하고 있습니다. 마을 안에서 주민들이 다 기획에서 전문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 주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도시권이랑 경기도라는 차이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각 지역에서 이런 일들을 먼저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고 방향성도 맞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그 아까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지, 재개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영상을 보셨지만 서촌, 북촌, 저희는 성북동이 화두입니다. 집값이 3배, 4배 오르고 장난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이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종로부지나 벽화마을 지워달라고 합니다. 북촌 같은 경우에는 자치규약처럼 만들어 조용하게 움직이게 짜놓았습니다. 지역주민과 간사를 두어서 커뮤니티 소통 역할을 하는 창구의 회의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수별로 마을 활동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연결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의 오래된 가게 상인과 연대하고, 지역의 예술인들과도 연대하여 공통관심사를 도출하고 같이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도심 같은 경우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마을 큐레이터 내지는 코디, 시민 기록자는 활동가 영역만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을활동가와 마을 기획자는 다릅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다 하셔야 합니다. 어떤 주제로 무엇을, 먼저 컨텐츠를 발굴하고, 어떻게 기획해서 큐레이팅을 해서, 어떻게 결과를 도출하고 주민들과 접점으로 지속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본인이 기획

단계부터 집행, 결과까지도 전체를 구상 할 수 있는 능력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와 소통하시면서 역량을 강화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대부분 맵핑 작업을 많이 하십니다. 서울같은 경우에는 희망제작소라든지, 이천, 용인에서도 많이 작업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애향심이고,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맵핑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를 잘 모르십니다. 전문가의 영역이고 중간 단계의 지역 전문가들의 영역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성북구가 50만 조금 안됩니다. 예산은 진짜 적었지만 독립 운동가를 작년 1년을 조사하여, 전문가들 영역에서는 98명을 신규 발굴 하였습니다. 12명을 공채 올려서 8명이 애국장, 독립장 이런 포상이 되셨습니다. 이런 것은 전문가 영역이 반드시 따라 줘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영역은 구술이나 생활상, 국립 민속 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전통시장, 민속자료 이런 것들은 그냥 생활 하는 곳을 그림으로 스케치도 하시고, 영상도 하시고, 분야별로 합산을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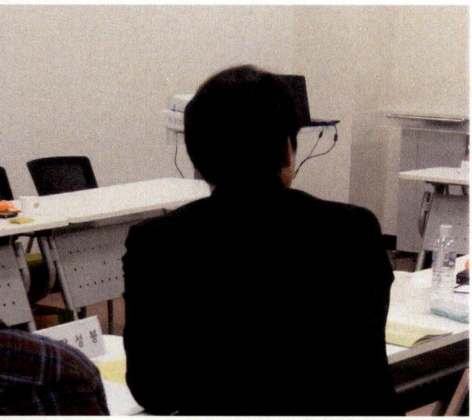
원천 컨텐츠의 원소스 멀티유즈=주민들이 주체,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원천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원소스 멀티유즈 라고 해서 하나의 소스를 노거수라고 하면, 이것을 하나의 컨텐츠를 가지고 영상, 애니메이션, 연극, 시나리오, 구술 다양하게 확산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획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자의 역할도 있어야 하고, 주민으로써의 역할도 있어야 합니다. 마을 활동가의 역할도 있어야 하고, 기획자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관심이 필요합니다. 도심권에는 문화 예술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는 크게 3개축으로 움직였습니다.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에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하나는 문화재단. 이렇게 3개축이 있는데, 이것이 외부에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모호합니다. 서울의 문제는 이것을 예술로만 풀었다는 것입니다. 예술 마을 만들기, 예술인들을 한 지역에 조금 낙후된 지역에 다 살게 하면서 마을을 예쁘게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3년, 4년 지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마을에 정체성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지역에 심우당이 있습니다. 만해 한용운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만해가 어떻게 해서 이집에서 살았고, 어떤 일이 있었고, 이집은 왜 북향이고 왜 북촌에서 이쪽으로 넘어 왔고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이것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이해하시고, 이 공간에 맞는 예술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원천 콘텐츠의 힘입니다. 공간의 의미, 역사성 그리고 사람 이것에 대한 핵심 요인들을 조금 숙지하시면, 정말 우리 지역 많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주민참여, 예산제 등이 있는데, 도시재생의 예산이 몇 천억이 들어옵니다. 도시재생 하면 단순히 건축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전기 해주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본 지역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대학 교수님들도 쉽지 않습니다. 지역 전문가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반드시 따라야 하고 단발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문화원은 이 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북구에 7천만 원을 확보해서 마을 기록단을 만들었습니다. 문화원의 직원만으로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직원도 늘어났고, 역사 대학원생들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학예사들이 문화원에 한명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4명이 석·박사 학예사입니다. 대형 박물관보다 많습니다. 이것이 유행을 타야 합니다. 문화원에서 전문가 영역에 인력이 분명히 필요하고, 중간 과정의 전문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기획서는 누가 쓰냐? 문화원 인력은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진정성 있게만 기획서를 쓰실 수 있으시면 구체적이지 않아도 사업을 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을 큐레이터가 해야 할 영역이고 우리 마을을 조금씩이나마 아름다운 마을로 바꾸겠다는 의지만 있으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천문화원에서



자료를 잘해주셨는데, SNS나 홍보를 해야 합니다. 문화원이 잘 못 하는 것이 홍보 자료, 마케팅을 잘 못합니다. 까페를 만들어야 하나? 블로그를 만들어야 하나? 부터 고민인데, 노출 빈도가 많은 것들을 중심으로 하시면 됩니다. 페이스북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알리지 않으면 모릅니다. 저희 성북동에서는 상인들이 만원, 오천원씩 걷어서 마을 잡지를 만듭니다. 이것이 더 효과가 있는 것이 우리가 만든 잡지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관공서의 구지만 나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영역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일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정보가 아카이빙이라고 해서 단순히 있는 것을 오픈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전문가라든지 애향심이 있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올리는 것입니다. 위키백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식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보를 알아서 올리면 전달이 되고, 잘못된 것들도 전문가들이 잡아주고 이런 방법으로 역할을 나누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을 따시려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청년 같은 경우는 청년 예술단체, 이런 것을 조금 더 코드를 받으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성북동 아름다운 마을 사람들, 성.아.들이라고 해서 성북동으로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들이라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해설사로만 시작하셨는데 1년에 3억 넘게 수입이 생깁니다. 마을 활동가도 하시고 다른 것도 하시고, 학교, 유치원, 방과 후 학교, 특성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학은 경기도에서 출발했습니다. 평택, 오산, 용인, 수원 다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개발 하시면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과 연계해서 지역컨텐츠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 짧은 시간에 많이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셔서 여러

가지 조직의 얘기까지, 아이덴티티를 넘어서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실 이야기는 많으신 것 같은데, 시간에 제약이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데이터를 엮어서 그중에 공통된 메타 데이터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행 할 몇 가지 슬로건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남시, 의왕시, 그리고 이천시 이렇게 각 대표 세분이 말씀하셨는데, 이분들께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몇 가지를 정리해서 이야기 하는 형식으로 진행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1년차 조사사업을 바탕으로 내년에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몇 가지 선언,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하신 선생님들께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3 :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고 싶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의왕에 다른 분들의 생각을 다 모으지는 못했지만, 마지막 날 아쉬운 것들을 얘기하게 되었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사례로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마을 사업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큐레이터 활동들이 길게는 4년 정도 있었고, 깊게는 2년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큐레이터 활동을 한 것은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을 배우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고천동을 조사하는 것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보다는 애향심이 많이 떨어집니다. 완전 형식적인,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참여를 했던 것이었고 그것이 진짜로 자료화 되고, 기록으로 남으려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조사해서 내가 살고 있는 부곡동에 대한 큐레이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내년에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할 때에 지금 했던 큐레이팅을 연결해서 좀 더 전문화 되어서 남을 수 있는 기록을 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은 지속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는 사업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아니니까 맛보기로 여기도 한번 봐라 해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아닌 다른 곳에서 경험을 해본 것이고, 내년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진짜 실전 게임을 해 볼 수 있도록 장을 펼쳐 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사업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서 내년에 조금 더 변화, 발전된 사업을 할 수 있게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좌장 : 그러면 1차적인 예산, 사업 지속성을 아젠다로 하면 되겠습니까.

의왕 3 : 그것 플러스 이 기획을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확대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실제적으로 봉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물어 볼 수 있는 창구가 없습니다.

민 : 의왕 문화원에서 사업의 시작을 낯선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내 지역으로 들어가면 이미 이야기, 스토리로 나옵니다. 팩트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로 시작해서 이미 알고 있는 목적을 가지고 정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부분 거리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아예 모르는 마을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비 시설 집이 많이 있다는 눈이 찾아진 것입니다. 그 작업을 올해 한 것이고 아젠다로는 사업의 지속성을 가져간다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는 예산 확보랑 또 하나는 지역성 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왕 쪽에서는 제시한 아젠다가 지속성과 계획성을 높이자는 이야기와 예산, 지역성도 함께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 쪽에서도 올해 이야기를 엮어서 내년에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핵심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아까 발표한분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엮어서 아젠다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숙 : 의왕에서 말한 것과 연이어서 저희는 처음으로 큐레이터를 실시하다 보니까, 하남이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조사하고 난 다음에 서울에서도 가깝고 도시 문화나 이런 좋은 점이 많아서 단순히 글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적인 가치로써 라든가 관광, 편히 쉴 수 있는 곳, 옛날에는 미사리쪽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사리 문화가 죽으면서 새로운 문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글로도 쓰지만 널리 홍보해서 최종 목적은 문화적인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우리가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연이어서 우리가 마을에 대한 것을 열심히 찾아내서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을 알리다가 보면 굉장히 좋은 하남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발전적이고 흥미 있고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좌장 :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자는 얘기 하신 것 같습니다.

민 : 도시가 다변화 되면서 많은 새로운 문화가 생기는데를 찾아보자. 하남은 계속 변화되고 있는데, 뒤에 것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고 새롭게 만드는 것 하나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하남을 알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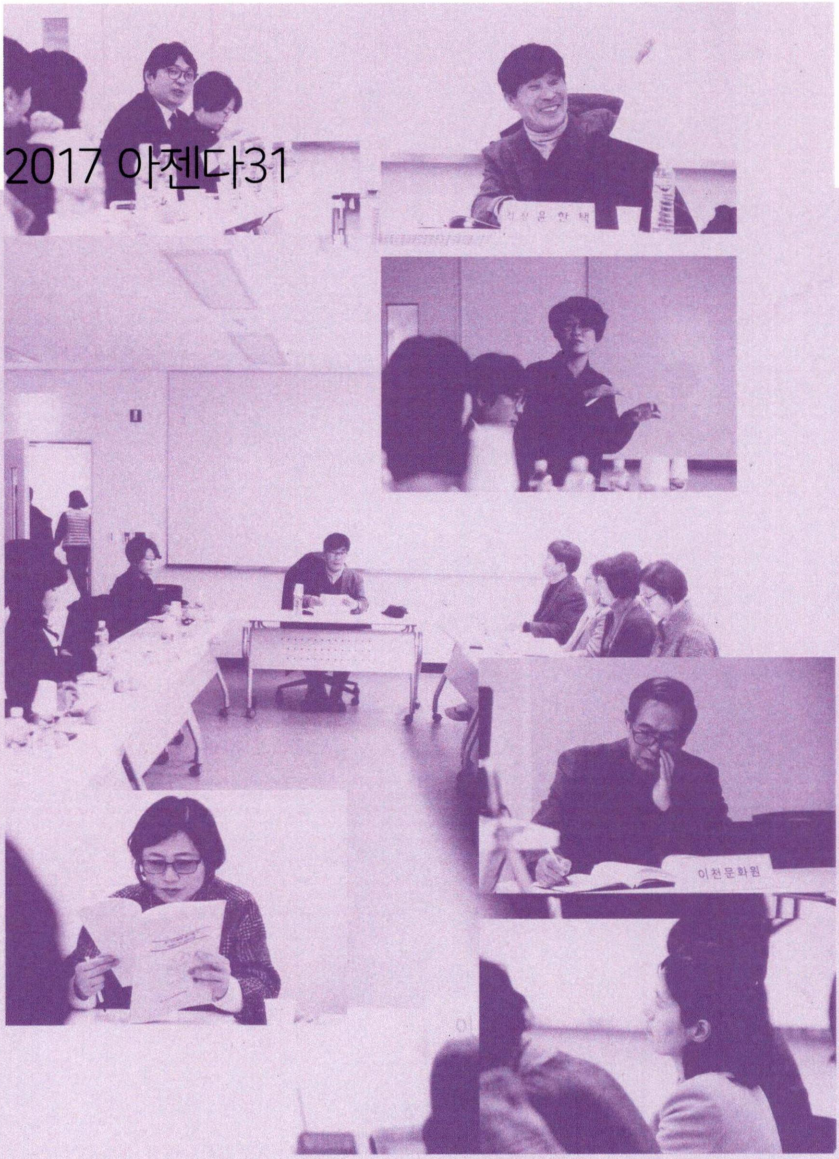
좌장 : 단순히 뭐든 하지 말고 변하는 상황을 발전적으로 나가자 이런 이야기는 것 같습니다. 또 추가로 이천문화원에서 발표하신 선생님, 하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 : 아까도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올해로 끝내기가 너무 아쉬운 사업이라, 아까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속성을 위해서 홍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끼리 만들어진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을 세상에 내보내서 이것이 궁금한 다른 분들도 같이 참여시키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2018년도에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공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노거수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컨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글로만 작성을 했는데 노거수를 중심으로만 그림 전시라든지, 지역의 행사 활동을 홍보 한다든지,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올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언뜻 생각난 것은 이천에 오면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돌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관광 루트 개발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말씀,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장 : 너무 이야기를 압축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한 내용을 몇 가지 단어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지속성, 두번째는 홍보성, 세번째는 발전성. 네번째는 다양성 그리고 관광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4개 정도를 아젠다로 가져가도록 하고, 올해 우리가 마을 큐레이터 활동을 해본 결과 내년도에 사업을

지속, 확대 발전 시켜가기 위해서, 이것이 예선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속성이 보장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젠다로 되었고, 두번째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한다. 세번째는 단순히 기존의 지역의 보전 차원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발전적으로 확대 되어야 한다. 네번째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사업 자체를 다양하게 발전 시켜야 한다. 그렇게 일단 이렇게 제출되는 아젠다는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채택, 선포를 해야 합니다.

이미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있다. 아까 사무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초점이 여가에 맞춰지고 있고, 예산도 다 그쪽으로 집중 될 것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자체는 애정을 가지고 더 많이 하기만 하면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아젠다로 선포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 아젠다31
이천문화원

[섹션 1]
마을큐레이터되기 사업의 로드맵 만들기

1. 올해 우리가 진행한 마을큐레이터 활동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 되어야 한다.
2. 여기서 도출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홍보 될 필요가 있다.
3. 우리는 단순히 이 사업 자체를 기존에 있는 과거 사실을 그대로 보전 하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서 진행 할 것이다.
4. 이 사업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더욱 더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해야할 여러 가지 조직적인, 그리고 사업내용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문제될 테니까 그 부분에서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사업을 다양화 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의왕시 고천동의 어제와 오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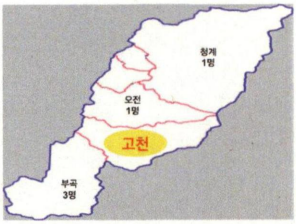
_ 고동윤(의왕문화원 마을큐레이터)

고천동의 어제와 오늘



전영순, 이정진, 고동윤, 김산혜, 서현주

팀구성



발표 내용

팀구성과 소통방법
주제와 조사목적
조사범위
진행과정
고천동 둘러보기
전시회

조사범위



주제와 조사목적

♣ 주제

고천동의 어제와 오늘의 이야기

♣ 조사목적

재개발로 사라질 고천동을 걸으며 옛이야기와 간판을 통한 생활이야기를 발견하다

소통방법



진행과정

각자 둘러보기 ⇨ 합동조사 ⇨ 오래된 가게 인터뷰
⇩
개별주제정함
⇩
결과물에 대한고민
⇩
중간점검 공유 ⇦ 가게간판 전수조사 ⇦ 새로운모습을 발견 ⇦ 고천동주민과 둘러보기

고천동 둘러보기 - 옛이야기





마을주민들의 기성회비로 학교 지을 종잣돈이 마련되었고 1936년 개교했다.

고천동 둘러보기 - 재개발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지 10년이 넘었다

고천동 둘러보기 - 옛이야기



교회의 작은 공간을 지역 청소년들에게 개방해서 청소년들이 모여 함께 공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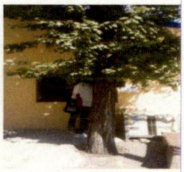
고천동 둘러보기 - 옛이야기



정조가 화성과 현륭원에 행차할 때 마다 이곳에 들러 쉬어갔다. 추후 공원이 지어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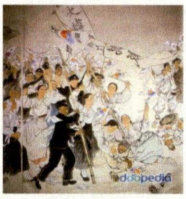
고천동 둘러보기 - 옛이야기





질문) 74년도 열었던 사장님이 이어서 계속하시는 건가요?
- 창업자본이 따로 계시고, 90년도에 아버님이 인수하셨어요. 저는 2000년대부터 같이 하고 있구요.
(양조장 담 앞에 바짝 붙어 있는 은행나무가 비료대신 막걸리를 희석해서 주어선지 열매가 실하게 열려있다)

고천동 둘러보기 - 옛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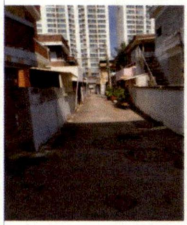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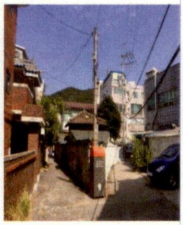
의왕지역 주민들이 당시 의왕면사무소에서 경찰관주재소를 오가며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다

고천동 둘러보기 - 옛이야기



고천동 둘러보기 - 골목길





고천동 둘러보기 - 오래된 가게



국수는 밤리고 잘라 포장을 끝낸 상태다. 천정에 메달린 비닐에는 국수 말리면서 날아다닌 밀가루가 보얗게 묻어 있다. 국수 자르는 기계는 골동품 같지만 여전히 사용한 흔적이 보인다.
서로 볼일이 있을 때는 가게도 서로 봐주시는 상부상조하는 사이 좋은 두 가게이다

고천동 둘러보기 - 오래된 가게





질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사진으로 오면서 위기도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가게를 유지한 비결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 안연이라고 봐요. 단골이 오죠. 멀리서도 와요. 한번 맺은 인연은 오래 가요.
(1989년10월 6일 의왕시 승격과 함께 이전해와 1989년 12월에 개점하였다)

고천동 둘러보기 - 간판매핑

No	구분1	구분2	오래된곳	오래된곳(년도)	간판명
1	먹거리	식당			철판돼지부속구이전문점
2	설비	설비			신일종합상사
3	설비	설비			JINWON
4	의류	수선			의류수선
5	세탁	세탁	○		
6	미용	미용실	○	30년	
7	미용	미용실			
8	먹거리	식품			
9	설비	설비			
10	먹거리	식당			
11	미용	미용실	○	20년	
12	먹거리	식당			



고천동 둘러보기 - 오래된 가게





질문) 주로 단골 손님이 많이 오시죠?
→내가 이집 단골 손님이예요. 사장님은 26년 하셨는데 나는 28년째 와서 머리자로고 있어요. 내가 손님인데 여기가 의왕시에서 이발을 제일 잘 해요. 안양, 군포, 의왕에서 최고 탑 클래스입니다.

고천동 둘러보기 - 간판매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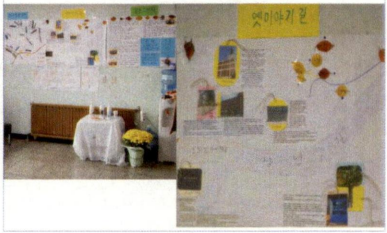
고천동 둘러보기 - 오래된 가게





주인 부부는 실은 내색이 없으시고 미소만 지으신다. 우리는 온근슬쩍 가게로 들어 가본다. 가위, 다리미, 다림솔, 세탁기 등등 골동품수준이다. 전 주인께 세탁소를 인수 받아 한지 20년 남짓 되었다다. 정미용실과, 고천초등학교 주변에 오래된 가게가 많다고 일러주셨다.

전시회



마. 사례발표 II

오래된 향기를 찾아서

_ 이상숙(하남문화원 마을큐레이터)

오래된 향기를 찾아서

하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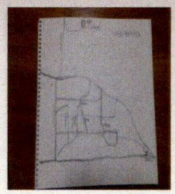
• 1. 사라져 버린 곳에 대한 미련

1. 사라져 버린 곳에 대한 미련

• 수리 골 이란?.....장 순란

• 선린 촌 이야기.....박 미미

수리골이란?



"으뜸골", "수도", "도읍지"란 뜻이 된다 (발달문화 연구소장 '이종탁'의 논문인용).

그 외 마을 뒷산의 형태가 수리가 날개를 편 형상이라 하여 수리 골이라 함.

2. 왜 삼대째 까지 이어져야 할까?

• 큰사랑 김밥 집 이야기.....원 지연

• 낙원 떡방앗간.....강 경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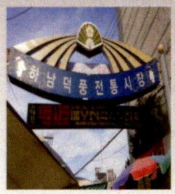
• 삼대째 이어지는 마방집.....이 상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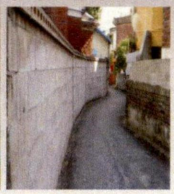
수리의 머리는 지금 어떻게 변하게 되었을 까?



수리머리로 추정되는 덕풍공원 청동기유적 말바위

수리 골은 장터로 변했고 현존해 있는 수리골 골목





선린촌 이야기



6.25 한국전쟁으로 인해 경상도까지 피난을 갔던 사람들이 희문환 목사를 중심으로 3만평의 황무지를 개간하여 선린촌을 형성한다.



선린촌의 모습





선한 이웃의 삶을 기독교 적으로 이어 나가며 협동 촌으로 발전함



닭, 소를 키우는 계사와 주택단지가 분리됨.

공공건물과 도로 등이 계획된 마을로 대체로 현재에 봐도 잘 정돈된 마을이었다고 생각한다.

현재 선린촌의 모습







양계사업을 주된 산업으로 하여 활기 있게 발전하였던 선린촌의 이름은 안타깝게 잊혀져 갔다.

현재 소규모 창고 마을로 변모하고, 동부선린교회와 남은 주택 및 채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왜 지켜내지 못했을 까? 하는 아쉬움

- 마을 전체가 보물 감 이었고 정교한 과학으로 그곳에는 기품이 담겨 있는 곳 이였다.
- 현재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기적 같이 빠르게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대국이 되었다. 그런 반면에 많은 문화 유산이 훼손되고 말았다.
- 우리의 뿌리를 영원히 지키는 것은 얼과 맥이 담긴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이다.
-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 후손들은 다시는 훌륭한 문화유산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 우리가 찾고 가꾸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유산이며 동기이다.

• 2. 왜 삼대째 까지 이어져야 할까?

큰사랑 김밥집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





•혼자 오기도, 때로는 함께 오기도 하는 이곳

•누구나 편하게 모여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다.

낙원 떡 방앗간



- 우리마을의 전통이 있는 낙원 떡방앗간 이다.
- 옛 정통의 맛을 찾으려고 노력한 곳, 장인 정신이 깃든 곳이다.





- 커다란 상을 11년 동안 들고 다니던 삼대째 손주
- 음식점의 전통의 가보를 이어지고 고유한 맛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 맛있는 떡을 만들기 위해 시골에서 직접 공수한다.
- 광주의 쑥,
- 고흥의 모시잎
- 호박오가리 등 자연의 좋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한다.

왜 지켜야 하는가?

- 혼 밥이 유행인 현실에서 한 상에서 오순도순 이야기하며 반찬을 밥에 얹어 주며 끈끈한 사랑을 전달하며 눈빛을 마주치는 전통을 이어져 주는 곳, 그런 마음의 고향의 집이다.
- 할머니가 되어 옛 음식이 그리울 때 손주들과 함께 팔짱을 끼고 이곳에 와서 커다란 상에 둘러 앉아 맛있게 도란도란 먹을 수 있는 곳.
- 옛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대물림 향토음식점이야 말로 대를 이어 꼭 존재해야 만 하는 이유인 것이다.

삼대째 이어지는 마방집



1920년부터 1대째 선조께서 주막의 형태로 국밥 장사를 시작하였다.

80여년 현재까지 삼대에 걸쳐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마치는 소감

- 무조건 새로운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 사라져 버린 아쉬움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 줄 수은 없는것이다.
- 전통은 깊을 수록 우리의 정신을 이어지는 것이다.
- 지키고 이어져야 함은 우리의 후손과 이어지는 연결고리이다 (맛이나 유산모두 포함).
- 영원히 지켜져야 하는 의식이다



- 6.25 등란 때 건물이 파손되어 다시 개축하였다.
- 개축 시 벽돌이 아닌 흙을 사용하여 벽을 만들었고 창호지를 벽에 발라 민속 고유문화를 지키려 노력하였다.

바. 사례발표 III

이천의 일상을 기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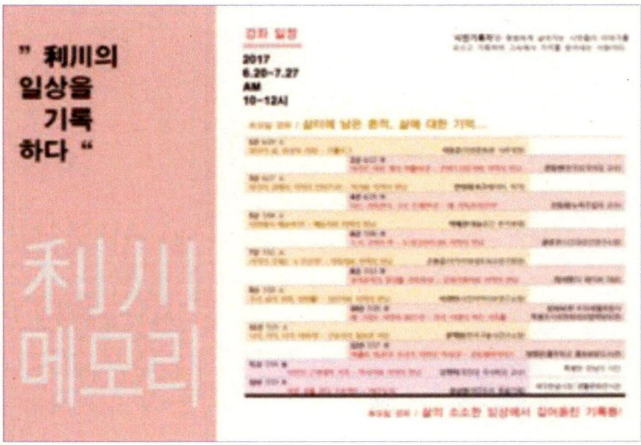
문초진 (이천문화원 마을기록활동가)

1. 이제 시민이 기록자이고 기억의 주체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기록 보존문화와 기록문화에 충실했던 민족이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과 같은 국가의 기록을 철저히 남겼고 [승정원일기]등의 공공기관 기록과 [미암일기], [난중일기]등의 개인기록까지 보존하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문화는 20세기에 들어와 많은 부분이 파기되고 왜곡되었고 권력과 통치자의 시대 상황에 따라 은폐되고 변질되었다-(한국기록학회지 제1권)
우리나라의 기록문화가 중앙집중식 문화였기 때문이다
이제는 시민이 기록자가 되어야하고 기억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시민의 기록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일상기록이고 자신의 삶과 터전, 지역사회가 중심의 대상이 된다.
다행히 최근 이제 시민이 기록자이고 기억의 주체라는 인식하에 지역과 마을이 품고 있는 일상의 기록과 사진의 재발견에 그 중심을 두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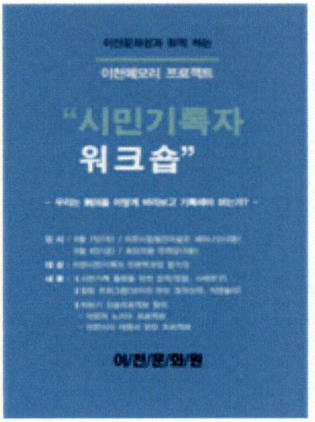
2017년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문화원은 '원천콘텐츠 발굴 전수조사 및 목록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지방문화원이 조사·발굴했거나 간행했던 향토자료와 지역의 원천자료들을 모두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잘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이천문화원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2017년 인문학 주제를 '이천의 일상을 기록하다'로 정하고 '시민기록자 양성 과정'을 6월에 개설했다. 지역의 원천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아카이빙해가기 위해서는 시민 아키비스트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천문화원은 이천에 대한 기억들을 간직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기억을 기록으로 바꾸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런데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이천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주민의 기억과 일상적 삶의 내용을 기록하는 전문적인 구술기록자가 있어야 한다. 서울에서는 기억수집가'란 이름으로[1], 원주, 파주, 시흥에서도 아키비스트 양성을 위한 강좌를 시도하고 있다. 과거에는 구술의 주관적 성격과 개인적 경험의 한계를 이유로 구술 작업에 비중을 두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구술자의 주관성이 오히려 역사적 기록의 배후에 있는 주민의 경험과 그들의 삶에 끼친 변화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과거에는 기록 작업이 권력자 중심, 중앙사 중심의 실록편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지역민들이 삶의 주체로 나서서 주민 관점에서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를 발굴하고 새롭게 써내려가는 시대가 되었다. 시민기록자란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주민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기록하며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사람이다.
이천문화원에서는 시민이 기록자이고 기억의 주체되는 시민기록자를 양성할 과정을 개설하였다.



2. 시민기록자 - 이제 주민들이 자신의 삶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

6월부터 7월에 걸쳐 실시된 시민기록자 인문학과정의 후속과정으로
9월7일부터 2일간 이천시립 월전미술관에서 시민기록자 워크숍을
실시하여



시민기록자들이 구술채록 방법론,
인터뷰방식, 마을조사와 공동체에
대한 이해 등 시민기록자 활동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식과 방법론을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고 토론하여
시민기록자들이 마을로 들어가
마을답사, 주민인터뷰, 사진 찍기,
구술채록, 기록관리 등 이천에 대한
생생한 기억들을 수집하고 기록하는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
자리에서 이천의 노거수 프로젝트와
이천시지 대중서 편찬 프로젝트,
이천 마을기록사업 프로젝트 안내와 협의가 있다

이천의 노거수 프로젝트는 마을에서 주민들의 삶의 애환을 지켜보며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노거수를 통해 마을의 역사와 숨겨진 이야기를
다루어보는 프로젝트이다. 노거수는 역사적으로 마을단위 제의의
중심이 되는 장소요, 주민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음식을 나누며
더위를 피하는 열린 공간이기도 하다. 노거수 취재를 구실로 주민들을
인터뷰하는 작업은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와 마을구성원의 삶을 복원하고
정리하는 일이기도 하며 마을에 대한 애정과 공동체성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천시지 대중서 편찬 프로젝트는 이천시지 대중서 편찬사업에서
시민기록자들이 한 챕터를 맡아 공동집필하는 프로젝트다.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시지 집필 작업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자못 크다.
이천 마을기록사업 프로젝트는 마을의 역사와 주민의 생활상을 조사,
기록하여 마을 문화의 정체성을 밝히고, 문화자원을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그런 일들은 소수의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수십 권의 방대한 시군지 편찬사업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주민 중심의 마을지 만들기 사업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지역민의 기억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하고자하는 사업이다.

3. 시민이 주체가 된 기록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6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시민기록자 양성과정은 기록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인문학적 소양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일거리 창출을 위한 이천시 지원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지역주민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생활문화를 만들고 지역의 사와 주민의 삶 등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탄생된 시민기록자는 사진작가, 시인, 은퇴한 교육자, 농업인, 자영업자 등 지역 주민 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이천시지(利川市誌)대중서'(가칭)의 일부분과 '이천의 노거수'(이천문화원이 발간하는 문화지 '설봉문화'의 주제) 기록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유로운 토론을 하고 기록 활동을 기획하기도 하고, 함께 이천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마을 주민을 인터뷰 하고 구술을 채록하기도 한다.
11월 현재 이천의 노거수 65수의 사진작업을 완료하였으며 20종의 노거수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채록하여 12월에 간행을 준비하고 있고 마을지 간행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시지 편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천의 일상을 기록하다

이천 시민기록자 소개

이천 시민기록자 문 초 진

"시민기록자 워크숍"

워크숍 9월 7일 ~ 8일

활동을 위한 방법과 사례연구

이천 시민 기록자는

삶의 터전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찾아 모으고 기록하며
그 속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사람이다

이천 메모리 프로젝트



29명의 시민기록자



누가 어떻게 기억과 이야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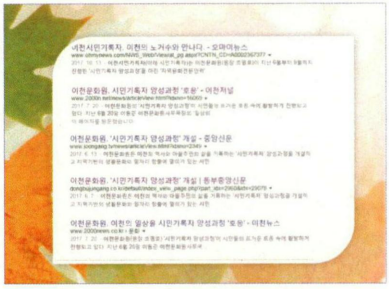
모으고 기록할 것인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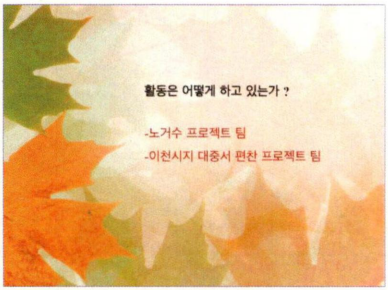
시민기록자 양성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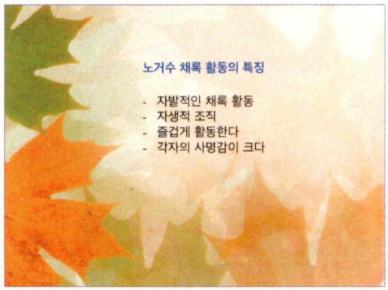
29명의 시민기록자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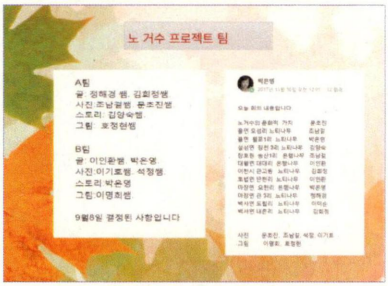
- 글 쓰기 지도사
- 시인
- 은퇴한 교육자
- 경제학 교수
- 만화가
- 벽화 그리는분
- 출판인
- 사진가
- 대학원생 등 다양한 전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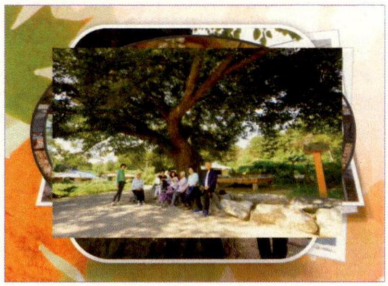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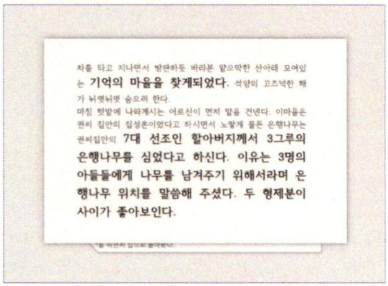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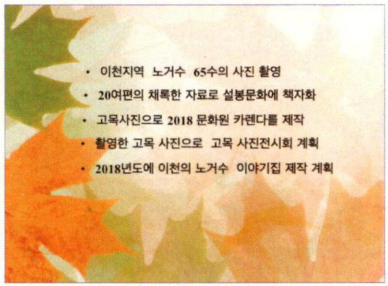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
-노거수 프로젝트 팀
-이천시지 대중서 편찬 프로젝트 팀


노거수 채록 활동의 특징
- 자발적인 채록 활동
- 자생적 조직
- 즐겁게 활동한다
- 각자의 사명감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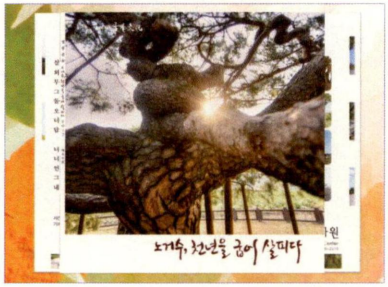

노 거수 프로젝트 팀
A팀
글 : 정해경 팀, 김희정팀
사진 조남경팀 문조진팀
스토리: 김정숙팀
그림 : 호정현팀
B팀
글 : 이인환팀, 박은영
사진 :이기호팀, 석정팀
스토리 박은영
그림 이영희팀
9월8일 결정된 사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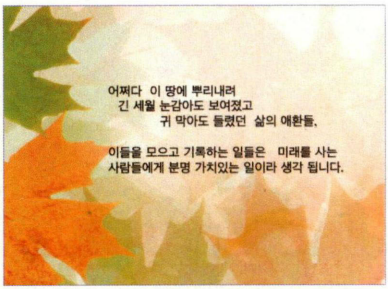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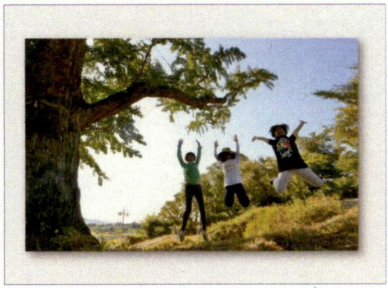

차를 타고 지나면서 방안하듯 바라본 맑으막한 산아래 모여있는 기억의 마을을 찾게되었다. 석양의 고즈넉한 해가 넘어넘어 솟으려 한다.
마침 텃밭에 나와계시는 어르신이 옛이 말을 전한다. 이마을은 원래 집안의 집성촌이었다고 하시면서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는 원래집안의 7대 선조인 할아버지께서 3그루의 은행나무를 심었다고 하신다. 이유는 3명의 아들들에게 나무를 남겨주기 위해서라며 은행나무 위치를 말씀해 주셨다. 두 형제분이 사이가 좋아보인다.


• 이천지역 노거수 65수의 사진 촬영
• 20여편의 채록한 자료로 설봉문화에 책자화
• 고목사진으로 2018 문화원 카렌다를 제작
• 촬영한 고목 사진으로 고목 사진전시회 계획
• 2018년도에 이천의 노거수 이야기집 제작 계획


노거수팀
노거수 이인환
노거수 이인환
노거수 이인환
이영희
12시이후예정입니다
노거수 이인환


노거수, 천년을 곰이 살피다





1)서울시에서는 2013년부터 기억수집가 양성을 통해 서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터뷰하고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서울의 역사를 끌어내어 기록으로 남기는 메모리[人]서울 프로젝트 사업을 해오고 있다.

여 백

[아젠다 31 _ 섹션 Ⅱ]

역사와 전통이 현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_ 경기향토문화대학을 중심으로

본 섹션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가 공동 기획, 운영한 프로젝트 <경기향토문화대학> 관계자와 참가자 그리고 지역문화원 부설기구인 향토문화연구소 위원들을 중심으로 향후 지역역사, 향토문화의 조사, 연구, 발굴, 발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아젠다 도출을 하고자 했다. _편집자 주

포럼 <아젠다31_ 섹션Ⅱ>

역사와 전통이 현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_ 경기향토문화대학을 중심으로

가. 발제문 : 경기향토문화대학의 추진과정과 의의 _ 정원철(시흥문화원장)

나.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향토문화연구의 방향찾기를 위한 구체적 아젠다 도출을 위한 포럼

다. 아젠다 채택 및 선언문

라. 지역학과 향토문화연구 _ 김장환(용인문화원 사무국장)

마. 지역사 연구, 지방문화원이 중심이 되어라 _ 황수근(평택문화원 학예연구사)

바. 지방문화원 향토문화연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_ 김성태(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수석연구원)



경기향토문화대학의 추진과정과 의의

정원철 (시흥문화원장)

1. 개요

경기도내 향토문화연구의 정체성확립과 향토사학자들의 학술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추진하였던 2017경기향토문화대학은 연초부터 경기학연구센터와 많은 협의를 거쳐서 총 15강 45시간을 이수하는 것으로 8월 23일에 개강식을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이수 자격은 대학교 전공과목 평가방식을 따라 100점 만점에 출석 70%, 과제물30%에 70점이상 취득해야 한다. 실내강의 9강, 현장강의 3강으로 총 13강을 구성하였으며 1강의당 실내강의는 3시간, 현장강의는 6시간을 배정하였다. 과제물 역시 지역의 문화콘텐츠 발굴과 연구를 유도할 수 있는 주제로 하였다.

이러한 수강생의 학사관리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고, 강의 내용과 강사 섭외는 경기학연구센터에서 주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강의주제는 크게 시,군단위 지역인물, 마을과 민속조사 연구 방법론, 문화원형과 지역축제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활용법 등 9개다.

2. 전체일정 및 프로그램

날짜	시간	구분	과 목 명	강의내용
8/23	3	총론 (재단)	◆ 오리엔테이션 Ⅰ. 경기문화유산의 이해 김성태(경기학연구센터 수석연구원)	시군 단위 지역학의 대상, 지향점과 방법론
8/25	3		Ⅱ. 지역학 자료의 수집과 결과물의 작성 김성태(경기학연구센터 수석연구원)	조사, 연구보고서 작성에 따른 자료수집과 연구방법론
8/30	3		Ⅲ. 시,군단위 지역학 어떻게 할 것인가? 정진각(안산지역사연구소장)	유적답사지 사전설명 문화재에 대한 기본이해
9/1	6	현장답사		경기북부
9/6	3	조사 연구 방법론 (북부 재단)	Ⅰ.고문서의 이해 박성호(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고문서의 종류와 서지사항 파악과 이해
9/8	3		Ⅱ. 마을조사와 민속조사 남찬원(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교수)	현지 조사방법과 조사보고서 작성 및 연구결과물 집필 방법
9/13	3		Ⅲ. 지역인물 연구 방법 김원식(부천족보전문도서관 관장)	보학과 족보읽기 기초 지식
9/15	6	현장답사		경기중부
9/27	3	지역 콘텐츠 활용론 (경기도자 박물관)	Ⅰ. 문화원형과 지역축제 윤유석(한국외대 외래교수)	지역의 문화원형을 발굴하고 이를 지역축제로 연결하는 방안 및 이해
9/29	3		Ⅱ.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활용법 서정미(백석예술대 외래교수)	역사와 민속자료에 대한 아카이빙, 문화콘텐츠 개발, 홍보 절차에 대한 이해
10/11	6	현장답사		경기남부

날짜	시간	구분	과 목 명	강의내용
10/13	3	평가 (재단)	Ⅲ. 지역학 발전을 위한 지역전문가의 역할 김성태(경기학연구센터 수석연구원)	강의 평가와 의견수렴
총계	총 45시간(실내강의: 3과목 9주제 27시간, 현장강의: 3과목 18시간)			

3. 추진경과

ㅁ최초모집결과 : 총 48명으로 개강
ㅁ중간점검시 35명이었으나 최종 과제물 32명 제출
ㅁ출석점수+과제물 점수 집계한 결과 평균 80점이상 30명으로
2018년도 경기향토문화대학 심화과정 수강확정
ㅁ총점 미달자는 겨울학기를 통한 보충학습 참여로 점수 충당

4. 결과와 의의

현재 정체 상태에 있는 향토연구자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한 경기향토문화대학이 새로운 문화 환경에 적합한 신진 지역전문가의 확보 및 양성에 얼마나 많은 영향과 효과를 얻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향토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전문성이라든지 시,군단위 지역학연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조성에 얼마나 큰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기존 향토문화연구자들과 비전문가들로 혼합된 수강생들이 지방문화원을 통한 실질적 지역연구 활동에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력강화 프로그램을 중심에 놓고 문화원 소속 향토연구자들로 하여금 향토문화를 전승한다는 목적으로 지원자 역할을 해주고,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한 사업을 공유하여 신진연구자들과 협력해 나가는 일이야말로 앞으로 경기도내 지방문화원 향토문화연구의 불균형 해소가 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본다.

나.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향토문화연구의 방향찾기를 위한 구체적 아젠다 도출을 위한 포럼

제2섹션 | 일시_ 2017. 11. 28 (화) 16:00~18:00 | 장소_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갤러리동 2층 제1강의실 | 담당_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팀장 진 숙

주제_ 역사와 전통이 현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주요패널

_ 좌장 : 정원철 (시흥문화원장)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향토문화연구의 방향 찾기"

_ 패널 :

1. 김장환 (용인문화원 사무국장)
2. 황수근 (평택문화원학예연구사)
3. 임상철 (안성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4. 김성태 (경기학연구센터 수석연구원)

_ 참가자 : 2017 경기향토문화대학 1학기 수료자

시간 배정

시간	발표자 | 토론자	내용
16:00~16:02	좌장 _ 정원철 원장	개회 및 포럼취지
14:02~14:10	정원철 _ 시흥문화원장	경기향토문화대학 개설의 추진과정과 의의
14:10~14:20	김장환 _ 용인문화원사무국장	지방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가 맞는가? 지역학연구소가 맞는가?
14:20~14:30	황수근 _ 평택문화원 학예연구사	기존 문화원의 향토문화연구가 향후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가? 향후 추진해야할 연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14:30~14:40	임상철 _ 안성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문화재단은 어떻게 지방문화원과 협력, 상생할 수 있는가?
14:40~14:50	김성태 _ 경기학연구센터 수석연구원	지방문화원 향토문화연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14:50~15:50	전 체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향토문화연구의 방향 찾기를 위한 구체적 아젠다 도출 포럼
15:50~16:00	좌장 _ 정원철 원장	아젠다 채택 및 선언





최영주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이하 '최') : 페스티벌31이라는 건 경기도 31개 시.군을 이야기하구요. 아젠다 31이라는 것은 경기도의 지방 문화원이 해결해야 될, 또는 추진해야 할 31개의 키워드를 말합니다. 그 중 4개의 키워드를 선정해서, 오늘 목표는 경기도가 전통, 역사하면 지방 문화원을 이야기 하는데, 그럼 그동안 제대로 하고 있었는가라는 평가와 반성도 좀 필요할 것이고, 경기도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라는 원칙과 방향 같은 것들이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떻게 할 것인가의 구체적인 방법도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강당에서 누구나 토론하고 전체적으로 합의를 모아내서,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좌장으로 모실 분은 시흥문화원의 정원철 원장님이십니다.

정원철 (시흥문화원장, 이하 '좌장') : 지금부터 2017년 아젠다31 심포지엄 〈역사와 전통이 현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운 좋게도 금년 가을에 경기향토문화대학에 시간을 내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직분이 지역 내의 소소한 일까지 움직여야 하다 보니 바쁘긴 하지만, 한껏 욕심을 내서 정규 강좌는 모두 참석하는 그런 행운을 누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의 발전을 위한, 아젠다 도출 심포지엄에 부족한 저에게 좌장을 맡아달라는 부탁까지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패널로 참석하신 분들은 연륜이나 학술적 내공으로나 모든 면에서 저를 능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좌장을 맡게 됐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경기향토문화대학이 가지는 깊은 의미를 반추하면서 오늘의 토론회를 의미 있게 끌어가야한다는 다짐을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의미 깊은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최 측에서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 하는 경기향토문화대학이다 보니까 저에게 향토문화대학 추진 과정과 의의에 대한 약간의 기조발언을 좀 해달라고 해서 여러분께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생각 할 때 경기향토문화대학이라는 이 용어는, 제가 들어 본 어떤 학술단체나 학교명보다도 의미 있고 아름다운 명칭이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이 경기도 권역에서 이곳의 문화를 조명할 수 있는 전문성을 키우는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진 않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문화와 예술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 할 때에 진정 뜻깊은 강좌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한 편 돌아보게 되면 아쉬운 것은, 지금까지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이런 강좌 개설을 주저하고, 하지 못했었다는 또 하나의 아픈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값지게 탄생된 경기향토문화대학이 향후 어떻게 우리가

발전시켜야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1기 수업을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어깨까지 무거워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향토사 연구라든가, 지역문화연구에 있어서 지역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간 제대로 길을 못 찾고 애써온 시간이 너무 길었다는 데에 바로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흔히 학문의 결과는 객관타당한 논문이나 보고서로 귀결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지도 없이 혼자 자가 발전한 결과, 아주 소중한 사료를 지니고 있고, 정말 태평양보다도 더 넓고 뜨거운 지역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나타내는 방식이 서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은 중앙에서 학문을 하는 분들이 와서 집대성할 때에 일부분으로 녹아들어가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문화가 중앙중심에서 주변과 주변부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또한 TV 프로그램에서도 소소한 일상을 다루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먹방 같은 프로그램이 중요시 되고 있는 걸로 볼 때, 한때 우리가 소소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진정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접하고 있는 향토애에 입각해서 만나고 있는 제반, 많은 일들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한 향토애를 가진 분들에게 적절한 지도와 전문성을 키워줘서 그들이 진정한 주인으로 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경기향토문화대학의 개설 취지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적은 몇 가지 중에서 먼저 우리 시군문화원과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 문화원의 역사가 1947년 강화문화원에서 시작해서 7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동안, 문화원은 그동안 어떤 일을 해 왔는가?
먼저 한 민족의 얼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해방 언저리 이후에 중요한 것이었고, 일제강점기에 상처 입었었던 우리의 영혼들을 달래는 일들이 주요한 일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의 것을 복원하고 되찾는데 가장 주력했던 것이라고 생각 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모든 지자체 내에서 문화원이야 말로 그러한 중심이었고 그런 세월을 지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오랜 세월 그렇게 하면서, 처음 몇몇 문화원이 생겨나고 이어져 온 것이 현재 전국에 229개의 문화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때 지역사회에 문화교육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문화원에서 문화대학 등 문화교실을 개설하였고,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 주민 센터 같은 모든 곳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사회적인 기여도 한 바 있고. 그러면서 예술 동아리를 키우고 예술문화를 활성화 시키고 근자에는 생활문화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시대는 변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에게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저는 단연코 전통문화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향토문화대학은 앞으로 오랜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문화원의 핵심 역량을 가장 근간으로 두면서 현재에 접목하는 방향으로 나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편 우리에게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을 생각을 해보면, 일자리는 더욱 감소하는데, 지성과 감성을 소재로 하는 예능 등의 부분들은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예술 작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고전의 가치를 접목한 작품이 모든 대중의 심금을 울리고 박수갈채를 받는 것을 보듯이, 우리가 고전의 가치를 계속 지키고 4차 산업혁명을 맞아드릴 때, 문화원은 새로운 직업군과 일자리까지 창출 해 낼 수 있는 근거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런 몇 가지 내용들을 제가 나눠드린 글 속에 적어봤습니다.
오늘 더 중요한 연륜 깊은 패널 분들의 토론을 함께 하면서 저희가 2018년도에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경기향토문화대학에 관련된 아젠다를 도출해내는 토의를 진행해 가고자 합니다.
먼저 김장환 용인문화원 사무국장님의 〈지역학과 향토문화연구〉라는 주제발표를 듣겠습니다.

김장환 (용인문화원 사무국장, 이하 '김') : 반갑습니다. 오늘 〈지역학과 향토문화연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발표를 하게 됐는데, 이 내용은 사실 지난번에 경기도 사무국장 연수 때, 강원도 동해시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발표하는 그런 기회가 될 거 같습니다.
왜냐면 지역학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생소하게 들리는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화원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이 어떤 쪽이냐, 어떤 미래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는 면에서

그 해답은 지역학이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지금 현재 문화원마다 운영하고 있는 향토문화연구소를 지역학연구소로 개칭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학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개념 속에서 지역사가 연구되고, 지역문화가 연구가 돼야 한다는 면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용인문화원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용인문화원이 설립된 것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설립이 됐습니다. 1954년도에 설립됐는데, 그러다보니 경기도에서는 첫 번째 문화원입니다. 현재 60년을 넘게 운영해오면서 축적된 연구 성과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문화원이라고 해서 기존의 강단사학이나 정통사학 쪽에서는 아류라고 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방문화원의 역학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사학의 발전은 그렇게 크게 융성하지 못했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지역에서 지금까지 연구돼 온 지역문화에 대한 어떤 노력과 가치는 크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문화원에 사무국장으로 들어온 것이 2008년도이기 때문에, 10년도 채 안됐습니다만, 경기도내에서 가장 오래된 사무국장 중의 한 명입니다. 그만큼 문화원 현실이 사무국장들이 굉장히 빨리 바뀝니다. 시장선거 끝나고 나면 반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과연 지역문화 발전이 가능하겠느냐? 저는 그 이전부터 지역사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분야별로 다양하게 공부는 좀 해왔는데, 사무국장으로 들어 와서 보니까 향토문화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그 중요성이나 그 업적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공무원사회나 심지어는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도 향토문화연구소라면 '뭐 하는 데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큰 틀 속에서 문화원은 향토문화연구소의 연구 기능이 핵심 기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아 이거 문화원의 미래가 어둡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토문화연구소를 용인학연구소로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2009년도에 시도를 했는데, 한계에 부딪힌 것이 기존에 이쪽에서 활동하고 있던, 용인에 대학이 많습니다. 대학교수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문화원에서 용인학이니 지역학이니 이런 걸 하느냐? 지역학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경기학, 서울학, 부산학 이렇게 광역도시의 학문적인 영역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문화원에서는 단지 지역의 향토사, 향토문화, 민속 이런 것들이나 정리하고 연구하는 조직으로, 물론 중요한 기능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폄하시키고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 2년 정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그걸 이룩했죠. 용인학연구소라고 해서 2011년도에 개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용인학연구소 개편을 하면서 용인 지역의 그 당시에 관내에 대학이 8개가 있는데, 2개정도 대학은 신학대학이기 때문에 그 대학은 빼더라도, 나머지 종합대학들에 대해서는 2010년도부터 용인학 강좌 개설을 시도 했습니다. 용인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용인학 강좌를 실시했는데, 교양과목으로 2학점에 해당하는 그런 과목을 한국외대와 단국대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강남대, 용인대, 명지대 등 현재 6개 대학이 금년부로 8년차 용인학을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용인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지역학, 용인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용인의 역사와 문화와 인문, 환경 다양한 측면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야 되느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학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함께 성과물들을 하나의 정책적인 대안으로 제시가 돼야 되겠다고 해서,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 예를 들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적인 지역의 연구 분야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쪽 측면을 의미부여를 했고요, 또 단국대 같은 경우는 사학 쪽으로 지역에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그런 측면, 강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용인대학교는 문화 예술, 그래서 학교마다 특성 있는 분야를 그 학교의 특성화 사업으로 하나의 정책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승화시켜나가자 해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것과 동시에 각 대학이 지역학을 운영하면서, 학교마다 교재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용인의 공통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2017년도에 처음으로 공통

교재를 개발했습니다. 20개 챕터로 만들어진 그런 교재를 운영을 하다 보니, 이것 자체가 용인학의 체계적인 성과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역학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학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향토문화연구라고 하는 좁은 측면에서 문화원의 향토문화연구소에서 운영했던 연구 활동이 좀 더 확장이 돼서, 각 대학의 전문성 있는 교수분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폭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문화원은 용인학이라고 하는 지역학의 허브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소년들에게 확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청소년 용인학, 그 다음에 학교 교사들에게도 확장을 하고 공무원, 군인들, 또 일반 기업체들까지 확장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정도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문화원이 살 길이 바로 이 지역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지금 현재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화기본법이라든가 지역문화진흥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지역학이라는 것이 앞으로 지역학이 활성화 돼야 되겠다.
더구나 지금 현재는 문화융성 시대입니다. 융합과 융성의 시대라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도 분명히 지역학은 이제는 지역마다 새롭게 자리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현재 지역학을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학이 지금 광역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학, 그리고 경기학연구센터가

경기문화재단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경기학, 그리고 또 강원학이라든가 제주학, 영남학, 호남학이라고 해서 지역별 광역단체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지자체들까지 세부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현재 예를 들어 천안학이라든가 안동학이라든가 대덕학, 공주학, 수원학 등 굉장히 많은 소규모 지자체나 시군단위에서도 지역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학의 경우는 경기도 내에서는 가장 앞서간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일찍 시작했고, 나름대로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내에 현재 이천학, 성남학, 평택학 특히 안산학 같은 경우도 문화원과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활성화 되어있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학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여러분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학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역사적으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거나, 문화적으로 공통의 정체성을 기준으로 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모든 연구를 통해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며, 지역의 미래 방향을 제시해주는 학문이 바로 지역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관점에서 향토문화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만, 우선은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향토문화연구소나 또 아니면 향토문화연구소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연구하고 있는 향토문화의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우선 연구기반이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학문적인 연구 시스템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다음 굉장히 다원화되고 다양화 돼있는 사회구조 안에서 수요층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연구의 목적이나 기능의 측면에서 필요와 방향성은 공감을 하면서도, 명확한 진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향토문화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저인망식의 연구 시스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현재 향토문화연구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타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학영역을 확대 운영해 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향토문화연구소를, 지역학 연구소로 확대

개편해서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장 : 김장환 국장께서 지역학에 대해 실제 적용했던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문화원의 핵심 역량을 증대시키면서 문화원의 활로를 지역학이라는 부분으로 찾자는 제안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음는 황수근 학예사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근 (평택문화원 학예연구사, 이하 '황') : 저에게 주셨던 내용이 '기존 문화원의 향토문화연구가 향후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가? 향후 추진해야할 연구가 어떤 것이 있는가? 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가져갈 수 있는 주제가 아닌데 참 큰 주제를 주셨다. 아마도 제가 평택에 있으면서 역사를 조금 전공하다보니까, 아마 역사 연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의견을 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따로 연구사적인 의미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진 않고요. 제가 현장에서 있으면서 느꼈던 '아 이렇게 개선되면 좀 더 좋겠다. 이런 식으로 연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고요. 연구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외하였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고 문화원에서 일하면서, 역사를 전공하는 후배들이라든지 동기들을 만나서 물어보게 돼요. '너는 어디로 취업할거니?'라고 하면 주로 박물관, 재단, 연구소 등을 가고자 하더라고요. 아니면 대학에서 좀 더 공부를 한다든지.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문화원은 염두에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화원이 연구에서의 기능이 그렇게 강화되어있지 않다고 느껴졌기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고, 접근도가 많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친구들이 여태까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들은 문화원이 여태까지 연구는 꾸준히 해오긴 했지만 대중들에게까지 접근하긴 아직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조금 더 발전될까 하면서 생각했던 거, 일단 문화원의 처한 상황을 조금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적이게 될 것이며, 연구방법으로는 어떤 주제를 하면 좋을까 하는 정도만 파악을 해봤습니다.
지방문화원이 너무나도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처한 상황도 모두

다르고요, 저희 평택문화원 같은 경우는 문화원사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무실만 빌려 쓰고 세미나실조차도 대관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할 때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이곤 했습니다. 어떤 곳은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곳도 있을 테고, 이것뿐만 아니라 예산 부분,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사실 전담인력이 지역마다 적어도 한명씩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더 많으면 물론 더 좋고요. 전문 인력이 부재한 경우가 많이 있고, 혹은 전문 인력이 있다 하더라도 문화원에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분들이 향토사나 지역사 연구에 전념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 연구를 하고,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발전 방향을 생각해야 될 시간에 자꾸 다른 업무를 하게 되면서, 많이 아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화원에 전문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전문 인력이 있고, 그 사람들이 그것만 전담하게 된다면 장기적인 플랜에서의 연구 기획이나 연구 방향 수립도 가능하고, 연구자로서도 개인으로서도 지속적으로 연구 성과를 축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 인력이 없다보니까, 자꾸 외부 인력에 기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예산이 꾸준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어가기 힘들고, 지역에 있는 향토사학자분들이 너무 소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굉장한 열정을 갖고 있지만 어떤 때는 저희가 향토사 관련된 업무가 과중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 많이 힘듭니다. 전담인력이 있으면 그 쪽의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확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서 자료수집이나 보관에서도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일반 콘텐츠 사업하면서 자료를 다시 목록화하면서도 저 스스로도 많이 반성이 됐어요. 아 이렇게 지방문화원에 숨겨져 있는 좋은 자료들이 많았는데, 디지털화 돼있지 않으니까 활용하고 인지하기가 많이 굉장히 어려워졌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특이성을 갖추도록 자료수집 등이 이루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향토사학자와 더불어서 전문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사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문화원에서도 학술제 만들고 계시고 한데 정기적인 학술제도 만들었으면 합니다. 사실 요즈음은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수원학연구센터에서 지난번에

평택, 용인과 같이 세미나 한 적이 있었는데, 연구과제 하나에 대해서 논문합평을 쓰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굉장히 높은 단가를 책정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요구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질을 더 높이고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지속적 예산 수반도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이나 혹은 전시실, 향토사연구 전시실이 있는 문화원 있잖아요. 그런 문화원들이 전시 하고 유지 하는 것이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도록을 만든다든지 할 때 수장고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이 지역에서 역사나 문화에서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만약에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예산확보와 인력확보가 돼서,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면 역할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역사 연구가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향후 추진해야할 연구 과제에 대해서는 하나로 말하긴 어렵지만 몇 가지 방향성 제시 정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차 자료 수집입니다. 문화원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지역의 인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 수집에 있어 문화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디지털화 되면 더 좋을 거 같은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을 때가 조선왕조실록이 DB화 되면서 역사적으로나 연구적으로도, 또 그걸 활용해서 드라마나 영화를 만든 경우도 많았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연구를 할 때는 세분화하기도 하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문화인류학적으로 접근도 해보고 다른 지역과의 문화권 설정, 혹은 비교 대상으로 가서 비교문학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든 혼자서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지역연구하시는 분들은 한 세 분이 같이 나가시곤 하십니다. 각자 민속학, 역사학, 인류학 으로 꾸려서 가시기 때문에 다양성 있게 살펴보면 스펙트럼도 넓어지고 자료도 풍부해지는 연구가 됐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학문 간의 연계 등이 충분히 팀프로젝트를 이용해 지역사 연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원에서 이러한 지역사 연구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더욱 더 앞으로 발전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좌장 : 황수근 학예사께서 지역사 연구에 있어서 지방문화원의 중심역할,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또 박물관이나 전시관을 운영하면서 원활한 예산을 확보하는, 보다 열린 시각으로 연구 과제를 도출을 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소장님이신 임상철 소장님께서 〈문화재단은 어떻게 지방 문화원과 협력, 상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발표해주시겠습니다.



임상철 (안성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소장, 이하 '임') : 이번에 새로 아트홀을 지어서 이런 시설에서 심포지엄을 할 수 있는 게, 참 뿌듯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안성의 문화시설 기반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여기 용인이나 평택 같은 옆 동네서도 오셨지만, 안성은 인구가 옛날 인구 19만 그대로 입니다. 인구가 조금 늘어난 곳이 공도 (6만)인데 실질적으로 다 평택 생활권입니다. 안성문화원도 1955년에 창설이 됐습니다. 저희도 60년이 훨씬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10년사, 30년사 책자 한 번 만들어 낸 적도 없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향토문화연구소도 저희가 지금 이름만 달고 있지 초창기에 움직이셨던 분들은 생존해 계신 분들이 거의 80이 다 넘으셨고요. 향토 책자를 다루다보니까, 향토문화연구소에서 55년도나 60년도에 창립 돼있다고는 보지만 거의 80년도 초까지는 책자 발간 등이 전혀 없습니다. 전국문화원이 다 비슷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한 85년도 정도부터 우리문화라는 이름으로 용인문화, 평택문화 이렇게 지역 이름을 따서 발행되는 책자들이 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85년도부터 95년도 사이에 다 창간됐어요. 그런데 내용도 그렇고 많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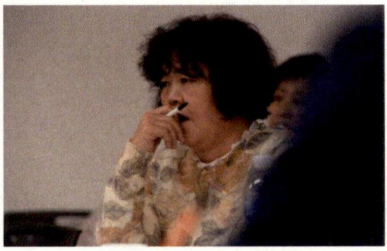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안성문화원의 회원들이 평균 연령이 75세가 넘어서 이번에 도서목록화 작업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영입했습니다. 문제점은 한자를 몰라서 책을 입력을 거의 2/3는 못 시켜요. 젊은 친구들은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라고 하는데, 어른 분들은 그게 굉장한 지식이었었는데, 지금 젊은 친구들의 80% 이상은 자기들이 어디든지 들어가면 빼 쓸 수 있는 자료라고 얘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목록화 작업하면서 느낀 것이 향토사연구소를 운영을 계속 하려면 젊은 사람들하고 어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노하우를 어떻게 접목 시켜야 될까 하는 것도 저희가 문화원에서 풀어야 될 숙제일 거 같습니다.

안성문화원의 현재 실정을 비롯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향토대학을 하면서 느꼈던 건 처음에 '아 뭐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일거리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문화원에 향토문화연구소 활성화를 제안했습니다. 문화원에서 도와주셔서 도서목록화 작업을 했습니다. 도서목록화 작업을 하게 된 이유는 안성에서 어른들이 책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다 가져가거나 관리를 못하는 바람에 저희 안성문화원에서 발행한 창간호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거의 없고, 다른 문화원에서 보내 준 것들만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거 초창기에 1권, 2권 이렇게 내 놓거나, 아니면 지명유래집에 관한 책자들은 찾을 수 없어요. 어떻게 체계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번 향토문화대학 교육을 수강하면서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목록화 작업을 하면서 더 절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어른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가지고 계신 자료들을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의 어른들은 그게 큰 재산이라 잘 얘길 안하신다고요. 그리고 자기 본인들이 수기로 써 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컴퓨터랑 워드 작업들을 못하셔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받아낼 수 있느냐는 것도 저희 문화원에서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안성에 와서 제가 따로 설문지를 100장을 돌렸습니다. 안성의 인물, 문화재부터 가장 생각나는 것들을 적어달라고 설문지를 돌렸는데요. 100장중에서 80%가 공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원도 역할이 크다, 지역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안성시에서도 얼마나 활동을 안 하고 안 가르쳤으면 80%정도도 모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비해서 안성은 문화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젊은 사람들과

풀어가야 될까 하는 문제를 같이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타 문화원들 하고 교류, 협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좌장 : 모든 지역이 다 똑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각 지역별로 입지가 있고, 특성이 있고, 앞서가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앞서가다가 잠시 주춤하는 곳도 있고, 뒤따라가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를 이야기하고 또 인근에 아주 유수한 기관, 경기문화재단과 같은 그런 기관의 협조와 지도를 또 필요로 하는 것이겠죠. 저희가 지금 토의하고 있는 구체적인 주제는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향토문화연구의 방향 찾기〉입니다. 나름대로 각자 접근해주셔서 좋은 말씀 듣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경기학연구센터의 수석연구원으로 계신 김성태 선생님께서 〈지방문화원 향토문화연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주 구체적인, 저희 그 향토문화대학 때도 많은 부분을 지도를 해 주시고 좋은 자료로써 저희들 눈을 뜨게 해 주셨는데, 오늘도 또 좋은 말씀 기대합니다.



김성태 (경기학연구센터 수석연구원, 이하 '태') : 제가 연구자이지만 스물여덟부터 공무원 생활해가지고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행정전문가입니다. 문화행정. 제가 생각할 때 이론적인 거 보다 어떻게 전략적으로 행정하고 예산 전문가를 그룹해서 뭔가를 밑그림을 그릴까? 이런 쪽에 계속 일을 해 온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의견을 제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에 향토문화대학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저희 경기문화재단, 어차피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도의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경기문화재단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큰 덩어리의 예산확보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그리고 시군의

문화원의 향토연구소, 이 세 사람들이 인적 네트워크가 됐다는 겁니다.
이 점이 가장 큰 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더 확충해 나가느냐,
더 좁혀 가느냐. 이게 앞으로 지방향토사연구의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들과 접촉이 없었던 양주도 접촉이 되고, 양평하고 접촉이 쭉 되면서
도문화원연합회와 저희 재단이 인적 네트워크가 공고하게 될 때, 실제로
경기도의 지역학은 경기학 뿐 아니라 시군단위 지역학도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향토문화대학을 했는데, 우리가 이론을 배워서 실제로
써먹기가 힘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공동연구를 같이 해야 합니다.
내년에 향토문화대학생 중 적극적인 분을 대상으로, 마을 조사에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 분들을 투입해서 같이 조사 보조원으로 하면서, 민속학
전문가와 같이 가서 실전을 계속 배워야 합니다. 또 우리가 요새 유행하는
게 현대사의 구술사와 생애사를 많이 하거든요. 생애사를 하는데 그 많은
분들을 다 하기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내년에 경기 1000년인데
1000명의 경기인을 다 구술사를 한다고 하면, 시. 군당 30명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분이 가서 취재를 하는 거예요. 녹취, 정리 등. 그
과정에서 힘든 것이 있을 때 구술사 전문가를 붙여 주고. 이렇게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든 공동프로젝트를 만들어 같이 참여하도록 하면서 실전을
쌓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가 볼 때 교육의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희 재단하고 시군문화원하고 1대1 매칭으로 마을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평택, 파주, 그리고 이천의 마을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적어도 내년에 다섯 군데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은
인력이 투입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실전을 쌓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기학 연구자 모임도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계속 만나면서 공부하는
습관이 돼야 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누가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누가 학술적으로 정리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시군문화원에 관심 있는 분들과 적어도 그러한 연구자모임을 가지고,
항상 공부가 하나의 생활이 되고, 계속 서로 자극도 받고, 이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경기 남부, 북부가 너무 이동이 힘듭니다.
내년부터는 봄, 가을로 나눠서 봄은 남부, 가을은 북부로 해서, 이 지역적
편중을 없애는 데도, 그리고 기회 부여도 균등하게 되도록 문화소외지가

없는 이런 부분들에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인트를 두는 것이 차세대 향토전문가로서 정년 퇴직자들의 중요성입니다. 이유는 일단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해서도 파트타임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고학력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분들을 향토사에 흡수하는 것도 저희들이 발굴하고 육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지금도 60살부터 5년간만 쌓으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조사는 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 군 단위 문화원에서 어떻게 흡수하느냐? 그리고 공직에 있던 분들 중에는 자기 고향에 애착가진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 고향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여건을 마련해주고 그걸 체계적으로 인도해주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경기향토문화대학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제가 고민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신입생을 합류시켜야 합니다. 3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인력들이 들어오게 해야하고, 경기향토문화대학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연합회와 저희들과 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때까지 말씀 다 하셨지만 나침반도 없이, 지도도 없이, 그리고 도면도 없이 건물을 지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역학 발전을 위해서는 10년 정도의 중장기 로드맵이 있어야 됩니다. 10년 정도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밑거름이나 설계도를 가지고 진행 돼야 된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욕심을 내는 것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좀 해주셔야 될 것 중의 하나가, 향토문화대학을 학점은행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정규 수업만 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수강생이 내일 만약에 북한산성 학술대회를 한다, 그럼 거기에 가서 세 시간을 들으면 인정 해주는 과목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북한산성 학술대회를 가서 사인을 하면, 이 분이 수료했을 때 800학점을 들었다, 정규학점을 이수를 하고, 그 외에도 이분이 300학점을 들었는데 이런이런 과목을 들었다, 이렇게 해줄 때 훨씬 공부가 탄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지면, 자극을 자꾸 받는 거예요. 학술대회 가서 자기분야의 어떤 이야기를 어느 날 듣는 순간, 유레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러한 학점은행제를 운영해서 향토문화대학에 들어 온 분이 어디

가서 교양강좌를 들었을 때, 그 교양 강좌가 여기서 인정해주는 교양강좌라면그 학점을 계속 누적해서 어느 정도 될 때, 수료 외에도 확인증을 끊어줄 수 있거든요. 그럼 이분이 어디 가서 활동할 때 이 강좌의 역할도 생기게 됩니다. 제가 내년에 마을 조사 할 때 여기 향토문화대학 수강생을 쓰려고 할 때, 조건에 향토문화대학생 이렇게 하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격이나 확인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분이 활동할 수 있는 뭔가 자격증이나 확인서 이런 걸 시스템 있게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전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좌장 :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 주제 〈역사와 전통이 현재를 어떻게 만들고 이끌어 갈 것인가〉, 그리고 소주제로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향토문화연구의 방향 찾기〉에 관해서 네 분의 패널이 각자 맡은 주제에 대한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 플로어에 우리 지역문화를 사랑하고 향토문화연구소에서 이런 저런 일을 하고 계시는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들으시면서 느끼신 바 갑론을박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니까, 기탄없이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분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화성 향토문화연구소장님.

참여자 : 저희가 향토연구소를 한지 지금 한 3년 이렇게 돼 가는데, 중간에 굉장히 어려운 게 많았습니다. 지금 한 22명 정도 있어서 매주 만나서 토론을 하는데 문제는 정통 사학과 부딪히는 겁니다. 정통사학자들이 '니들이 뭘 알아, 니들이 전문가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더러 많아요. 그래서 그럼 정통사학하고 부딪히는 문제를 용인의 김국장님은 어떻게 해소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좌장 : 지역에서 향토사를 연구를 하는데, 애정도 가지고 노력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견해를 가지게 되고, 글로 쓰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학위를 가지신 분들이 이거는 그렇게 받아드릴 수가 없다. 뭐 이렇게 하는 어떤 일련의 일들을 맞닥뜨리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김장환 국장님 경험 있으시면 얘기 해 주시죠.



김 : 사실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기존에 연구된 연구 성과물들에 대해서, 학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거나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정상적으로 어떤 참고문헌으로 등재하기가 어렵다는 표현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어요. 아까 정통사학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정통사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문화원에서 연구되는 향토사학은 일종의 아류 취급을 받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모든 문화원에서 겪고 있는 한계점이고, 극복해야 될 앞으로의 과젠데, 이 부분은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방문화원에서도 지금까지 아까 제가 저인망식의 연구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의 학제적인 연구를 통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연구 성과물을 확보한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뭔가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지역학 연구자들은 개인적인 연구라는 것 보다는 공동의 연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동의 연구과정에서 상당히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요. 협의도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어떤 향토문화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장 : 그 관련된 문제가 여러 경로로 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첫 번째가 우리 경기향토문화대학의 개설 취지가 향토사학자들이

정규 학자들이 생각할 때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그러한 논지를 펼쳐갈 수 있게 공부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석, 박사 학위를 가져서 학회에 등록 돼 있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제도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31개 시, 군의 문화원의 향토문화연구소가 모두 이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으니까, 관련된 보고서들을 한 자리에 모으고 또 그것을 또 다시 전문가를 통해서든 또는 우리 자체 내에서든 간에 그 자체에 대해서 다시 또 논의하고 하는 끊임없는 과정을 거쳐서 또다시 자료를 내고 하는 것이죠. 자료라는 것은 정돈된 자료만 자료는 아니거든요. 구술 자료도 자료이듯이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게 되면 그 안에서도 또한 진주가 발견이 되는 거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질향상과 함께 내부에서의 자구 노력을 우리 연합회 단위로, 또 시, 군 문화원 단위로 문화원장과 향토문화연구소장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고, 관련된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면 경기학연구센터가 있으니까 협조를 통해서 다 방법을 찾으시면 되리라 봅니다.

태 : 그 문제는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정규적인 코스를 밟아가지고 공부를 했고, 대학에서도 겸직교수를 꽤 오래하고 있습니다. 제품도 ISO가 있잖습니까. 규격에 맞아야 합니다. 학계나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규격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향토사학가라고 지역사를 아마추어 사학자더라도 소양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학문적 기본을 갖춰서 이 게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향토사 연구를 강화시키는 건데 첫 번째 해야 될 주제는 경기향토사연구 책자를 낼 때에도 심사를 해서 수정안이 나와야 하고, 두 번 세 번 반복하더라도 심사를 해서 돈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 학계에 자료를 낼 때, 저도 가면 수정이 들어와요. 그럼 6개월 더 하거든요. 그 정도로 책에 글을 싣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학진에 실리려고 하면, 정상적인 교수들도 캔슬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요. 글이 한번 실리고 어디로 나갈 때는 상당한 인고의 노력이 있어야하고, 세 명의 학자의 공정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향토연구를 위해서는 뼈가 아프더라도 그 점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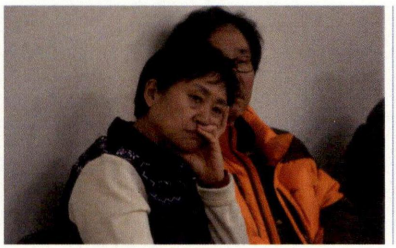
방법 중의 하나는 공동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이 가진 새로운 자료와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제안해서 연구가 되어야 가능성이 커 진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 그런데 이 공동연구라는 것을 우리도 접근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라든가 '이것 좀 봐 주십시오. 우리가 옳은가 그른가.' 우린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많이 그렇게 하는데 완전 무시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다른 문화원도 마찬가질 겁니다.

참여자 : 저는 화성문화원 향토문화원 연구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가입한 지 얼마 안됐어요. 제가 느끼는 점을 좀 말씀 드릴게요. 아까 용인에서 문화원이 제일 먼저 생겼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우리 대륙법계에서 문화진흥법이 생긴 바람에 의무적으로 다 그냥 각 시, 도 자체를 법으로 문화원은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딱 못박았습니다. 그때 일률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문화나 문명이라는 것은 자연 발생적이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튼튼한 기반이 되는데, 국가에서 만드니까 그냥 다 일률적으로 만들어져서 지금 그 부작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첫 번째 그게 오늘 토론의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방단체에 보면 서울시 하면 서울시장이 대표고, 그 다음에 의장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화성하면 시장이 1번, 2번이 시의회 의장, 3번이 문화원장이거든요. 그게 문화원장이면 지역에서 추앙받고 존경받고 누구보다 덕망 있는 사람이 앉아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는 정치하고 항상 뗄레야 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연속성, 지속성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지역에서 덕망 받는 사람들이 문화원의 그 장을 해야 된다는 게 바람직한데, 그건 아직까지는 기우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선 조금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용어 중에서 향토라는 걸 지역학으로 바꿨다는데, 지역이라는 용어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지역이나 향토나 포괄적인 개념에선 같은 뜻이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용어를 바꿔서 중요하다지만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건가. 어차피 향토문화원은 그 지역을 공부 해야 되니까 당연하겠지만, 그런 면에선 조금 제 견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전문 인력 확보하는 문제, 저도 도시 생활 40년 동안 했다가 고향에 내려와서 생활하는데, 우연찮게 향토문화의 연구를 하는데 제대로 길을 찾은 거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제 발전을 위해서 참 좋은 거 같아요. 그 지역에 지금까지 몰랐던 거를, 우리 지역에 이런 인물이 있고, 이런 역사와 전통이 있다는 거를 여기 와서 하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다음에 젊은 사람하고 노인세대하고 접목해서 우리에 맞는 그 융합과학 만드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세대 차이 있거든요. 그런 걸 잘 접목하면 참 아주 좋은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트워크는 모든 학문은 지금은 종합응용과학이니까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나타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오늘 보니까 주제가 토론을 잘 하면 좋은 아젠다가 나올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좌장 : 네, 아주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양한 부분 말씀해주셨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향토문화 연구하는데 정통사학자와의 맞딱드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얘기가 갑자기 커져서 문화원의 생성에 관련된 그 어떤 정체성과 또 문화원장의 여러 가지 적절한 모습과 함께,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의제 얘기를 했던 지역학의 부분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또 문제제기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다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참석하신 분들 말씀 듣겠습니다.

참여자 : 단답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화원장님이 아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원연합회라든가 경기학센터에서 문화원장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의 사항이기도 합니다. 문화원장 교육 좀 시켜 달라.

태 : 이때까지 막힌 걸 뚫는 게 소통이라고 합니다. 막힌 걸 뚫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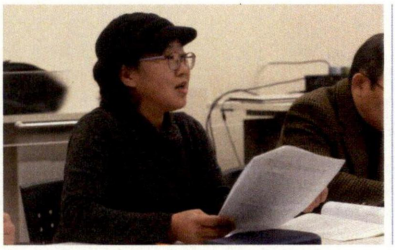
이번에 이번 아젠다라든지 우리 향토문화대학, 아까 저 인적 네트워크 그게 뚫리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얼마든지 여기에 우리는 중간에 학계에 그런 인적네트워크로 사람을 붙여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재단에서 여력이 되면 연구비를 같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 한 마을 조사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면서 점점 접촉면을 넓혀 가면 서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때까지는 그 접촉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학원생 데리고 가서 마을 조사를 해도 해도 이원화 되서 했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하고.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런 공동 프로젝트를 갖고 공동으로 움직이면서 설령 실패하더라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여자 : 화성문화원 연구위원 임철빈입니다. 첫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연구소 연구위원들이 예산이나 이런 걸 탓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오늘 여기 와서 배운 것 중의 하난데, 연구소 활동 중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역에 있는 자료 수집과 보관, 정리. 특히 자료를 디지털화 해 놓으면 좋겠다는 것. 이거 아주 참 좋은 생각인 거 같아요. 저희들도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의사항인데요. 경기향토문화대학 신입생을 앞으로 계속 모집할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신입생들을 모집 할 경우 제 개인 생각인데 그 신입생들과 기존의 공부했던 사람들과 같이 앉혀놓고 수업을 하는 것 보다는 공부 내용을 달리 해서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 건의 사항 중에 또 한 가지는요. 다른 문화원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화성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 연구위원들의 활동비로써 쓰여 지는 돈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문화원에서 각 시 문화담당 부서와 각 시군의 문화원 원장님 앞으로 보내는 게 더 좋겠지요. 공문으로 그 지역의 향토문화연구소에 재정적인 지원도 적극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좀 공문으로 좀 보내주시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태 : 첫 번째 신입생 문제는 요즈음 대학이 수업을 분리 안하거든요. 다음 학기에 듣고 그 친구는 올해 들었던 걸 3년차에 듣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이 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이 듣고 또 올 가을에 했던 프로를 3년 뒤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고, 두 번째로는 아까 재정문젠데, 제가 재정문제 부분은 아까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었던 거예요. 연합회하고 저희들 하고 돈을 매칭해서 각 문화원의 향토연구소의 분들이 합류해서 공동의 조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재정을 마련해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이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운영하고 확보하는 방법에 있어서 훨씬 현실적입니다.

좌장 : 네,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김성태 선생님께서 이제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연합회의 공동 투자에 의해서 하는 것은 공동 작업의 형태로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정도 선으로 진행이 되고 그 정도 하게 되면 충분히 학습 효과나 여러 가지의 충분할 거라는 답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공문을 보내서 하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 문화원장 회의에서, 각 지역의 향토문화연구소에 대한 조금 더 깊은 관심과 가능한 예산의 확보를 노력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말씀을 좀 나누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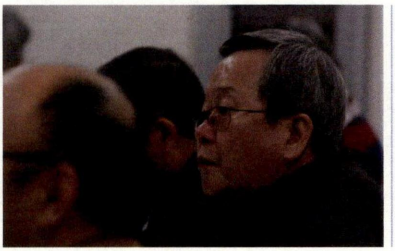


자 이제 이 자리는 향토문화대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역문화 연구를 하고 문화원의 활로를 찾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답답했던 얘기들도 나와서 푸는 자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얘기를 다시 경기향토문화대학의 발전과 그를 통한 우리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시, 군 문화원, 또 향토문화연구소나 지역학연구소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우리 청중들께서 질문도 조금 또 해주시고 답변도 하는 걸로 하면서 이제 아젠다 도출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자 : 저도 이제 문화원에서 활동한 것이 96년도부터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 했죠. 실질적으로 수강생으로부터 시작하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96년도에는 그래도 문화원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죠. 문화 예술 쪽으로. 그런데 문화재단이 생기고, 화성시에서도 역사문화연구관 인가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각자의 역할에, 거의 비슷하기도 하고, 각자의 어떤 정체성이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문화원이 역할은 더더욱 본질적인 향토문화 연구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제 행사라든가, 문화 예술 쪽으로 더 많이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향토문화연구소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자료라도 수집해보자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기 부소장님하고 연구위원들이 모여서 지금 2년, 2015년 10월, 8월부터 거의 2년 이상 진행했습니다. 나름대로 자료를 많이 구축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거처럼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마찰이 생겼는데, 그 부분은 경기향토문화대학에서 조금이나마 해결 해주신 거 같습니다. 아까 김성태 박사님도 말씀하셨던 거처럼 경기문화재단과 문화원연합회와 지역 향토문화원구소하고의 대면 관계, 네트워크를 이룬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20년 동안 굉장히 답답하고 해결책이 없는 막연함을 뚫어주시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신 거 같아요. 그런 것들을 경기 연구센터에서 해주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소통을 하고 있는 것들도 역으로 다시 내려와서 소통할 수 있는 저희들이 그런 1세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저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 부족했던 부분은 학문적인 기본은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반이 여태 없었지만, 열정은 모여져 있으니까 이 열정을 가지고 우리 교육을 받으면서, 한 3년차 받고 나면 저희도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향토사학자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건, 분명히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여기서 저는 이제 아젠다 도출 문제로 첫 번째는요. 어떤 문화원의 역할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 아주 기본적인 그런 평가 문항이 좀 있어서 피드백을 해주는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문화재단에서 해주시든지 문화원연합회에서 해주시든지. 왜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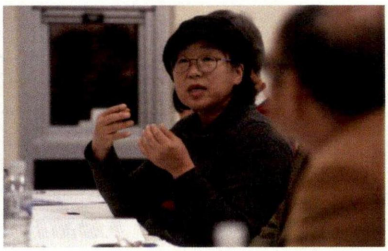
우린 그런 국가 신용지수라든가 아님 뭐 경제지수라든가, 교육지표, 행복지수 이런 건 다 평가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평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그런 피드백은 없는 거 같아서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좌장 : 네, 우리 화성문화원에서 오신 분들 말씀 다 들은 거 같습니다. 다섯 분. 어, 이제, 일단은 저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건 경기향토문화대학의 나아갈 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를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요. 여기에서 조금 아젠다라든가 또는 논점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좌장의 판단으로 진행한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에 시, 군의 향토문화연구소가 있지만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도 경기향토문화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곳에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 나왔던 많은 기능들을 해내고 있었더라고 하면 오늘의 토론의 시간은 아마 절반으로 줄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경기도연합회의 향토문화연구소에서 아까 공동연구 프로젝트 하는 문제서부터 각 시, 군의 향토문화연구소의 여러 역할 같은 거에 대한, 그러나 현재는 〈경기향토사연구〉라는 책 한권 발간하는 정도 선으로만 그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 부분들이 활성화 되면서 경기향토문화연구소가 사실은 경기학 연구센터와 돈독 긴밀한 연구를 하면서 경기향토문화대학이 활성화 되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겠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요청도 있는 걸로 판단합니다.



저 쪽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 또 계신 분 없으신 걸로 제가 알고요. 아젠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먼저 우리 첫 번째 발제해주신 김장환 사무국장님이 지역학 연구소를 문화원에서 해야지만 될 필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형태로 얘길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저쪽 화성문화원 선생님처럼 향토문화연구소에서

바꿔야 될 이유가 있느냐, 또, 아까 또 안성의 열악한 상황을 말씀드리게 되면, 현재 지역문화를 연구해 나가는 부분도 아직 정비가 안 돼 있는데, 학제적으로 지리와 철학과 사상까지 다 포함하는 지역학을 한다는 거에는 바람직해 보이지만 엄두가 안 난다는 문제도 있고, 또 그간에 이 문제는 처음 얘기 된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되서 지역 향토문화연구소의 간판을 포기하면 다른 어느 단체가 지역 향토문화연구소의 간판을 달고 나서게 되면, 바깥에 외침을 나갔다가 안방 빼기는 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 해 주신 대로 미래를 향해서 저희가 비전설정을 하고 나가야 되는 데는 정말 아주 간절한 또 출구일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젠다는 이 지역학과 향토문화연구에 관련된 이 용어에서 부터 이 지역문화연구를 어떻게 해야지 올바르게 할 것인가라는 방법론까지 포함하는 심포지엄을 별개로 이 부분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광역 단위에서만 필요할 것인지, 시, 군, 구까지 다 필요한 것인지, 선별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그럼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럼 경기향토문화연구소도 경기학연구소로 바꿔야 될 것인지 산적해있는 우리가 논의해야 될 문제들이 무척 많습니다. 이것은 한 번에 결론 내릴 수도 없고 모두의 이러한 논점 있는 거를 만방에 알려서 논의하는 것을 첫 번째 아젠다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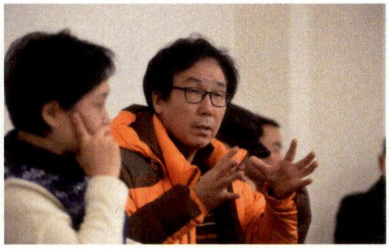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우리 황수근 선생이 얘기하신 부분들은 결국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에 여러 가지 박차를 가하는 그 부분들을 얘기 했다라고 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김성태 선생님 말씀 하신대로 이제 그 지역문화 조사사업 뿐만이 아니라 콘텐츠화 하는 부분들 까지도 전부다 공통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그동안 각자 자기의 길만

걸어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채 돌아보지도 못하고 목록화 사업하면서 돌아보니깐 우리 문화원의 책자 발간이 몇 십 년 지난 뒤서부터 됐더라고 겨우 자기 자신을 아는데, 주변에 있는 나의 분신일 수도 있는 것들을 서로 알아가는 이것이 무척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과 문화원연합회 네트워크의 연계라는 부분들을 활성화라는 용어도 좋고, 이 부분들을 또 하나의 그 아젠다로 삼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김성태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10년 중장기 로드맵을 그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문화원연합회에서는 문화비전선언을 채택하면서 문화원의 미래 비전을 연구합니다. 경기향토문화대학이 어렵사리 탄생을 했는데, 그대로 계획도 없이 무계획하게 갈 수는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맵은 경기향토문화대학의 중, 장기 계획에 대한 것을 수립하는 것을 하나의 아젠다로 채택을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향토문화대학을 조금 더 시스템을 공고히 하면서 학점 인정제 대학으로 조금 더 어떻든 현재의 시스템보다 더 외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걸로 격상을 시켜서 거기 졸업하는 문화원 내, 외의 향토사학자들이 좀 더 배운 지식과 그래도 또 하나의 공부를 했다는 그런 수료와 함께 좀 더 밝은 대로를 연구의 대로를 활보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은 진실로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 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4개의 아젠다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경기문화대학을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서 하는 부분들은 아젠다로 설정을 안 하더라도 당연히 그래야지만 될 부분인데 아젠다로 포함시켜야 되는지 여부는 집행부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부분들을 저는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그 생각에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 외에 추가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참여자 : 저는 성남시민 하원철이라고 합니다 아까 김성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년퇴직하고 나서야 이제 향토문화라든지 이런 걸 겨우 느끼기 시작하고 막 시작한 사람인데, 정말 좋은 대학 커리큘럼 만들어주셔서 들어와서 배우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거도 느끼고 희망적인

거도 느끼는 게, 절망적인 건 뭐냐면 그렇게 오랜 세월동안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는 것도 얘기가 안 됐고, 자료 관리도 서로 안 돼 있나, 이게 좀 굉장히 실망스러웠고요. 반대로 희망적이라고 보는 건 이런 뭔가 큰 대학이라든지 뭔가를 통해서, 향토에 있는 분들 네트워크도 정말 잘 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공부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성남시민으로서, 거꾸로 아, 내가 성남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연구해봤다 또는 흥미를 가져봐야겠다는 그런 모티브를 제공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여기 모이신 분은 대부분이 이미 전공자신데, 사학계에서 인정 하든 안 하든, 일반 시민과의 브리지 할 수 있는 것들. 지난 대학에서 강의도 받았지만, 그 어떤 아젠다들이 살아나려면 시민참여들이 좀 많아야 될 거 같아요. 그런 것들도 뭔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전문적인 대학도 필요하지만, 오픈 돼 있는 그런 편한 대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조금 고민해 주시면,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장 : 네, 알겠습니다. 제가 메모를 해 놨었는데 사실 빠졌던 부분을 지금 말씀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경기학토문화대학을 수료하신 분들 중에는 기존의 문화원에 소속된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는 대학이지만 수료생 분들을 어떻든 각 지역의 시, 군 문화원에서 모두가 활동하실 수 있게끔 아주 편안하게 소프트 랜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를 문화원연합회와 각 시, 군 문화원 전체 차원에서 이 부분은 아주 주효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사전에 경기향토문화대학에 대한 모집 공고를 할 때에는 더욱 더 시민에게까지 공고를 분명하게 더 해서 경기도 전역에 경기도민이라면 '아, 그거 있는 거, 나도 알아.' 정도가 얘기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거에 각 문화원에서, 물론 문화원의 힘이 안 닿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제 경기문화재단에서 해 주셔야죠. 문화원에서 이 부분들을 아젠다로 채택을 해서 그 분들이 수료하고 활동하시고 시민들도 참여하실 수 있는 이 부분을 아젠다에서 앞부분 쪽에다 넣어서 수용을 할까 합니다.
네, 또 이제 다른 사항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 말씀이셨습니까?

참여자 : 저는 그게 아니고, 저는 경기향토문화연구소가 있다는 걸 잘 몰랐어요.

좌장 :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문젭니까?

태 :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걸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경기도, 경기학 연구자 모임도 그거로 가져가면 되거든요.

좌장: 그렇죠. 그걸로 가면 되죠.

태 : 관심 있는 분들 와서 매주 월요일마다 강의도 하고, 만원씩 가져와 가지고 강좌 듣고, 이런 계속 공부가 계속 일상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젠다에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 : 경기향토문화연구소와 관련해서 정원철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김성태 연구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향토문화연구소와 관련해서는 화성 소장님하고 같이 저도 활동을 꽤 오랫동안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경기향토문화대학이 개설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이런 향토문화에 관한 교육을 받고 관심을 많이 갖게 되신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 사업도 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향토문화연구소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안산 쪽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 때 경기향토문화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1박 2일 동안 토의를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거기서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해서 도출된 여러 이야기들, 내용들은 사실은 그냥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경기향토문화대학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경기문화재단 쪽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기도내의 향토사를 연구하는 문화원마다의 연구기관이 다 있긴 있는데, 사실 이것이 지금까지 네트워크라든가 아니면 조직화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활성화 되지 못했던 것은 재단에서 지금까지 문화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화원 저것들은 연구자도 아니야, 정말 전문가도 아니야.'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 왔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와서 문화재단과 문화원연합회와 이렇게 같이 네트워크 형성이 돼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런 자리까지도 만들어지게 된 거지, 실질적으로 몇 몇 사람들 외에는 그동안 재단에 계신 분들이 어떤 분인지 얼굴도 한번 제대로 못보고 그렇게 활동을 해왔거든요. 아젠다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향토문화연구소를 활성화 시키고, 그것을 현실에 맞는 비전을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진중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장 :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데, 제 아무리 좋은 얘기도 수면 위로 노출이 돼야 되고, 그것이 실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곳과 연계가 돼야 됩니다. 다행스럽게 오늘 이 자리는 아젠다를 도출을 해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전체 모두가 내년도에 대한 하나의 지침으로 삼는 것을 얘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관련된 녹취자료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우리 문화원장님들과 사무국장님, 또 전체 문화원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면 이러한 문제는 구름 걷히듯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이 자리를 마칠까 합니다. 이 자리가 이루기까지는 이 자리를 기획한 어떤 분들의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또 패널을 맡아주신 분들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또 글 한 줄, 한 줄 써 내려가는 그런 것들이 배경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특별히 다들 우리 문화원 식구지만, 우리 경기문화재단의 김성태 선생님께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경기향토문화대학의 미래 로드맵을 주장하신 분은 우리 김성태 선생님 한 분이신데, 이 불씨를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그것도 내 집에서 살리는

것도 아니고, 옆집에다가 불 놓고선 살려야 된다는 그 부분들이 저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논제들을 얘기해주신 패널 분들 감사드리고,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분들, 특별히 화성문화원에서 오셔서 사안마다 말씀을 주셔서 전체 경기도 연합회가 발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심포지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아젠다31

[섹션 2]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향토문화연구의 방향 찾기를 위한 아젠다

○ 지역학과 향토문화연구에 관련된 용어나 개념을 정리,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지역문화연구를 어떻게 해야지 올바르게 할 것인가라는 방법론까지 포함하는 심포지엄을 열기로 한다.
구체적 제안으로는,
1. 지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광역 단위에서만 필요할 것인지, 시, 군, 구까지 다 필요한 것인지, 선별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합의하기로 한다.
2. 그럼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럼 경기향토문화연구소도 경기학연구소로 바꿔야 될 것인지 산적해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다.

○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과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네트워크의 연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한다.

○ 경기향토문화대학의 중, 장기 계획에 대한 것을 수립하기로 한다.
구체적 제안으로는, 경기향토문화대학 학제시스템을 공고히 하면서 학점 인정이 가능하도록 격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부설기관인 경기향토문화연구소를 활성화 시키고, 현실에 맞는 비전을 수립하도록 한다.

지역학과 향토문화 연구

김장환 (용인문화원 사무국장)

1. 지역학의 성립 배경과 현황

○ 배경 : 문화융성의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는 문화기본법(2013. 12. 30)과 지역문화진흥법(2014. 1. 28)을 제정하여 문화국가의 토대가 될 각 지역의 문화진흥을 위한 제도적 체계를 구비함.
- 특히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는 2013년 10월 25일에 발표한 8대 과제 중 네 번째 과제로 '지역문화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역문화 진흥의 체계적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학의 활성화'를 제시하였음.

○ 지역학 연구의 흐름 : 1990년대 후반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으로 지방의 문화적, 역사적 특수성과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자료 발굴과 수집 및 연구가 병행됨.
- 각 지역마다 지역의 현실적인 이슈를 포함하여 향토사, 유.무형 유산, 자연환경, 공동 의례와 축제, 문화공간과 시설 및 인물 등에 대한 연구 활동들이 축적되면서 1990년대에 이르러 '지역학'이라는 학문적 영역이 확산되었으며, 현재 민간이나 대학 내 연구소 안에 머물러 있던 지역학이 이제 지자체의 공식적인 지역학 전담시설 설립의 단계로 진전됨.

○ 현황 : 현재 광역자치제 레벨에서는 서울학을 필두로 인천학, 부산학, 경기학, 영남학, 호남학, 충청학, 강원학, 제주학 등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로는 용인학, 안산학, 수원학, 성남학, 안양학, 이천학, 평택학, 전주학, 안동학, 천안학, 대덕학, 공주학 등이 있음.

2. 지역학의 개념

가. 사전적 개념

○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지역학은 '일정한 지역의 지리나 역사, 문화 따위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의미함.

- 일정한 지역이라고 했을 때, 크게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와 같은 단위도 지역이고, 그보다 낮은 단위의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단위도 지역이며, 국가와 국가 내부에서 일정한 요인에 의하여 나누어진 공간을 지역학의 대상으로 표현할 수 있음.

나. 학문적 개념

○ 지역학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 '지역학'은 일정한 공간을 토대로 연구대상을 설정하고, 종합적 또는 학제적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학문으로 논의되고 있음.

- 각각의 지역 그 자체를 하나의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지역학
- 특정 지역의 역사적 사건들, 사람들, 그리고 집단에 관한 연구, 다양한 문서에 근거하고 지역 차원과 국가차원의 상대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하는 연구
- 지표면의 일정 공간을 토대로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유무형의 자취들, 즉 문화를 종합적으로 분석, 고찰하여 지역을 보다 나은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는 학문이며, 인간 중심의 가치들을 찾고 그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실천 학문
-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지역의 특징과 정체감을 찾아내고, 지역을 보다 나은 주민들의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는 학문

○ 지역별 지역학의 정의는 목적과 대상과 방법론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음.

- 지역별 지역학에 대한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강원학: 강원학은 강원도와 강원인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지역학으로 강원도민의 과거와 현재에 이르는 고유한 적층된 삶과 문화의 총체적 표현물을 대상으로 강원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그것을 현대적 시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주민 정체성을 인식시키고 지역관을 바로세우며 새로운 발전의 정신적 틀거리를 만들기 위한 정신학

-경기학: 경기학은 경기지역의 역사와 문화(전통문화) 및 기타 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의 본질과 가치를 밝혀내고 현재 및 미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실천적 활동을 지향

-부산학: 부산학은 부산시민의 시선에서 상호 관련된 다양한 영역-부산의 역사·전통, 문화·예술, 정치·경제·사회,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특수성, 시민들의 일상생활 등-을 포착하고 종합적·학제적으로 연구하여 지역 정체성과 고유한 미래상을 발견함으로써 부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학문적 지향 및 실천 활동임.

-서울학: 서울학은 서울의 장소의 이력을 기록하고, 그 의미를 새기는 작업으로, 서울의 시간을 편년하고 인문적 의미를 규명하고, 서울의 공간과 구조를 정의하고 형태를 유추함. 서울학은 역사·문학·철학·사회·건축·도시·조경 분야의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조명하는 융합학임.

-인천학: 인천의 역사·문화·사회적 정체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동시에 인천 사회의 현실적인 역동성을 인문학적으로 규명하여 도시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전주학: 전주의 자연·지리·역사·사회·문화 등 제 학문 분야에 대한 체계적 연구분석을 통하여 전주의 지역 정체성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주와 전주인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당면 과제 해결과 미래의 발전과정을 모색하는 이론적·학문적 논리를 제공

-제주학: 제주학은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며, 제주지역에 대한 학제간의 총체적 접근을 요구하고, 지역 정체성 추구를 목적으로 함. 또한 제주지역의 내재적 발전을 위한 실천적 학문을 지향하며, 제주의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를 조명하며 미래를 추구하는 학문임

나. 관련 법 응용적 개념

○ 지방문화원진흥법(2007년 12월 21일 제정, 2011년 7월 21일 개정)
-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르면,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임.

◈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2011. 07. 21)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문화원의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역문화진흥법(2014년 1월 28일 신규 제정)
-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지역문화진흥의 목적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문화 발전'임.

◈ 지역문화진흥법 (2014년 1월 28일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와 같이 지방문화원진흥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은 공히 지역문화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동일한 맥락에서 지역학을 정의하면,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간 문화격차가 해소되는 문화국가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임.

다. 유사용어와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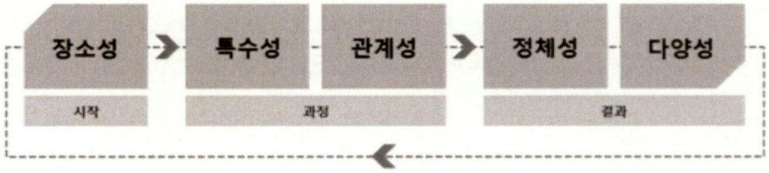
○ '서울학''제주학''호남학''영남학' 등 개별적 혹은 권역별 지역에 대한 학문을 통칭하는 종합적인 명칭으로 '지역학'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지방학'은 국가의 정치권력을 형성하는 중앙정부의 영역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지방행정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 차원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게다가 '지방학'은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언론에서도 지역학이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음.

- 지역학자들에 의해 모색되고 있는 개념인 '장소인문학'은 도시, 건축, 지리 뿐만 아니라 인문, 역사까지 포괄하는 학제 간 연구를 의미하며, 우선적으로 '장소'를 모티브로 시작해야 '지역학'에 포함될 수 있음.
- '로컬리티(Locality)'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학자들의 경우, 'local'을 번역한 지방, 지역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정한다거나 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념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로컬'이라 하여 양자의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자 함.
- '향토사' 또는 '향토문화'는 자연 지리적인 지방의 전통이나 역사문화를 연구할 때 주로 쓰여 왔으며, 이 경우 지역학의 범주가 과거 지향적으로 협소하게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음. 특히 한글학회의 '우리말 큰 사전'에 따르면, '향토사'는 '각 지방의 역사'라 명기되어 있음.

라. 지역학의 속성 및 개념 정립

○ 지역학을 구성하고 있는 학문적 속성은 다음과 같음.



〈속성들의 관계도〉

- 장소성: 특정 장소로서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설정
- 특수성: 특정 지역의 특수하고 고유한 역사, 문화, 사회, 주민들의 일상적 삶의 과거, 현재적 해석과 미래의 방향 도출
- 관계성: 해당 지역의 과거,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지향할 때,

그러한 해석에 있어서 지역주민 간 혹은 주변지역 혹은 중앙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됨
- 정체성: 연구의 결과는 지역주민이 지역주민으로서 고유한 지역 정체성을 인식, 강화 혹은 확대하는데 기여함.
- 다양성: 지역학의 연구결과는 결국 각 지역의 문화다양성을 보여주고 그것들의 총체인 국가의 문화다양성을 풍부하게 함.

○ 지역학 개념 정립: 역사적으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거나, 문화적으로 공통의 정체성을 기준으로 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모든 연구를 통해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며, 지역의 미래 방향을 제시해주는 학문

3. 향토문화 연구의 한계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학의 개념은 대체로 역사 문화적으로 동질성, 정체성을 지닌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모든 연구를 통해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의 미래 방향을 제시해주는 학문 영역이라 정의될 수 있음.

○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학의 속성을 정리한다면, 우선 특정 지역이 연구대상이라는 점과 오랜 역사, 문화적 전통에 토대한 지역 정체성을 인식, 강화 혹은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지역의 문화다양성을 통하여 지역민의 주체적 자기문화 인식과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며 나아가 지역의 현재와 미래의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학문 분야임.

○ 그런데 지방문화원 향토문화 연구의 현실을 돌아보면, 낙후된 연구기반, 다양화하는 수요층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 필요와 방향성은 공감하면서도 명확한 진로를 찾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난제가 서로 뒤얽혀 있음.

○ 지금까지의 향토문화연구는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저인망식 시스템과

자기 성취욕을 바탕으로 성숙해 온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래서 지역별로 개별성, 고립성을 지니게 마련이고, 또 향토문화 연구가 미약한 곳에서는 경쟁력과 객관성도 약하여 주관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함.

○ 특히 향토사 중심의 연구가 해당 지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연구로서의 확장성이 높은지의 여부, 학술 연구로서의 학문적 방법론의 적용 여부, 연구 내용에 대하여 '지역학'이라는 명칭으로 호칭할 수 있는지의 여부 면에서 '지역학' 연구자들은 대체로 회의적인 평가가 내리고 있는 바, 현재 시점에서는 지방문화원을 지역학의 원천 자료를 제공하는 정도의 활용기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임.

○ 이러한 현실에서 문화 현장의 변화를 인식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면 낙오될 수밖에 없고, 미래에 대한 비전과 기대가 없다면 현재까지의 힘든 노력도 의미가 없을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함. 이제 지방문화원의 향토문화연구는 경쟁력과 대응력의 확대를 위한 조직화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고, 그 대안이 바로 '지역학'이라 할 수 있음.

지역사연구, 지방문화원이 중심이 되어라

황수근 (평택문화원 학예연구사)

들어가는 말

역사를 전공한 학생들에게 역사를 연구하는 곳은 대학, 박물관, 재단, 연구소 등이다. 그들의 인식 속에 지방문화원은 없다. 아직까지 지역사연구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방문화원이 역사 혹은 지역사를 연구하는 곳이라고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방문화원이 지역사연구의 중심에 설 수 있을까? 우선 지방문화원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보려한다. 그 후, 향후 추진해야 할 지역사연구의 방법과 과제를 제언하겠다.

지방문화원의 상황과 발전방향

지방문화원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지방문화원의 내부인력 중 지역사연구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재한 경우가 많다. 전문인력이 있다고 하여도 지방문화원의 인력부족으로 지역사연구에만 전담하지 못하기도 하다. 하지만 전문인력이 지역사연구를 전담하게 된다면, 지역사연구의 체계적인 방향성과 연구기획설정이 가능하고 연구자로서의 성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전문인력의 확충은 지역사연구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지방문화원의 전문인력 부재는 향토사학자 등 외부인력이 지역사연구의 방향성, 연구기획에도 큰 역할을 수행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그럴 경우 연구의 연속성에 한계가 생길 수 있으며, 소수에게 업무가 집중되기 쉬울 뿐 아니라 일부는 전문성이나 연구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연구를 맡기기도 한다.
이 때문에 자료의 수집 및 보관, 활용에 있어서 산발적이고 무계획적으로(체계적이지 못한)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일부는 자료가

사장되기도 한다. 향토지 발간에 있어서도 지속성과 체계성을 갖춘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고, 불명확한 현장조사와 자료수집이 일어나기도 한다.
높은 수준의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배치와 더불어 전문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사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수연구과제를 공개적으로 발굴·지원해야하며 학술대회를 열고 정기학술지를 만드는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지역사연구의 성과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박물관(혹은 전시실)을 가지고 있는 일부 지방문화원은 이러한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사연구를 활발히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상설전시공간의 협소함과 노후화, 기획전시의 부재 등 박물관이 박제화되고 있어 아쉽다. 이러한 문제점은 상설전시의 유물교체와 현대화, 정기적인 기획전시, 박물관대학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면 박물관이 지역사연구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한편, 지방문화원이 이러한 약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밀접한 지역네트워크는 지역사연구에서 지방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다. 지역네트워크는 현장조사나 자료수집에 있어서 지역사연구를 원활하게 해주며, 연구도입의 장벽을 낮춰준다.
이처럼 지역사연구가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은 기본이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방향제시는 협소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이며, 산발적으로 끝날 수도 있다.

향후 추진해야 할 연구과제

지역사는 지역이라는 공간에서 역사를 말하기 때문에 그 공간이 다르면, 그 정체성과 역사 또한 다르다. 이렇듯 다른 정체성과 역사를 가진 지역의 연구과제들을 일률적으로 다루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역사연구과제를 일일이 제시하기보다는 도출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겠다.
일차자료의 수집은 지역사연구의 우선적 연구과제이다. 여기서 말하는 일차자료의 수집은 자료의 수집과 보관·정리를 말한다. 일차자료를 디지털화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해제와 목록화라도 해야 할 것이다. 파악할 수 없는 일차자료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장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차자료가 풍부하게 확보되고 접근성이 높을수록 연구의 진입장벽은 낮아지게 된다. 더하여 연구 시 자료조사에 소모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보다 높은 수준의 연구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듯 일차자료의 지속적인 수집이 이루어진다면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해질 것이다.

지역사연구 과제는 분야별연구, 시대별연구, 인물연구는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주제이며, 이러한 주제의 특징을 찾아 더욱 세분화하는 것도 연구수준을 높일 수 있다. 나아가 세분화된 연구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시각에서 시대에 얽매이지 않는 인류학적 방식으로 연구과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열린시각으로 연구과제를 설정할 수도 있다. 주변지역과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연구나 나아가 문화권을 설정하는 방식도 좋은 주제를 설정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공간적으로 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점과 차이점을 드러낼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비교대상으로 삼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시각에서의 주제들이 도출되고 연구가 진행된다면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개인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만약 가능하더라도 그 연구는 완결성이 있는 연구라고 하기 힘들다. 현장연구에서는 다양한 학문의 연구원들로 팀을 이루어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다각도의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고 오류를 줄여 양질의 연구를 도출한다. 이처럼 문헌연구 및 다양한 연구에서도 현장연구처럼 학문 간의 연계와 팀프로젝트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사연구가 발표·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술대회·세미나·강좌 등과 같이 연구성과를 공개하는 자리를 만들고, 보고서·단행본·학술지 등을 발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가는 말

이처럼 간략하게나마 지역사연구에 있어 지방문화원이 처한 현실,

발전방향을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향후 연구과제들을 살펴보았다.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지방문화원마다 처한 상황과 선결과제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추진방식을 따르기는 어렵다. 하지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앞의 연구과제를 진행해나간다면 지방문화원이 지역사연구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지방문화원 향토문화연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김성태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본 발표에서는 향토문화연구의 측면에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시군문화원, 그리고 경기문화재단이 어떤 방식으로 네트웍을 구축하고, 그것을 토대로 어떻게 전략을 구사하여 접근해 갈 것인가를 피력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경기향토문화대학'의 지속적 발전 도모

2017년 3개년 계획으로 시험적으로 실시한 향토문화대학의 개설은, 앞으로 향토문화연구를 위한 시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기학연구센터와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협업의 중요성이 확인되었고, 또 인적 네트웍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삼자의 네트웍은 경기도 향토문화연구의 바탕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계망을 유지, 확충, 확장해 나가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공동조사연구 프로젝트의 개발과 추진

위와 같은 네트웍을 유지·확장하고 향토문화대학 수강생의 역량을 강화하며,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동조사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이런 조사에 향토문화대학 수강생들을 우선적으로 조사보조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 조사대상으로 '전통마을조사'와 '지역인물 조사(구술사, 생애사)'가 적합할 듯합니다. 이를 위하여 연합회와 센터는 공동조사를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마련에 적극적이어야 하겠습니다.

'경기학연구자모임'의 결성과 운영

임의단체로 가칭 '경기학연구자모임'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이는 학계전문가와 향토전문가를 묶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성격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지는 서로 고민해 보아야 하겠지만,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지속적으로 학술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작은 규모라도 시작하여 학계전문가와 향토전문가의 접촉면을 넓혀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기남부 중심의 사업 편중 해소

이번 '경기향토문화대학'과 '경기인문학강좌'를 담당하여 추진할 결과, 향토문화연구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전반적인 문화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수원·성남·용인 등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문화향유기회를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강좌 등을 순화강좌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예컨대 봄학기는 수원, 가을학기는 고양(혹은 의정부) 등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으면 합니다. 어쨌든 운영자의 편의를 위하여 모든 프로그램을 수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차세대 향토전문가로서 정년퇴직자의 발굴과 육성

저는 젊은 세대에게 향토문화연구를 적극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고학력의 정년퇴직자들에게는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인 학문적 소양을 갖추고 있고, 경기도 출신의 경우 자기 고향에 대한 애착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에 의미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경제적,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그들의 합류는 향토문화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를 감안할 때, 고용문제에서 자유로운 그들의 합류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연합회와 센터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전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기향토문화대학'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토대 마련

경기향토문화대학은 학점제로 운영되며, 3년 과정을 거치면 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2년차에 새로운 인력을 등록시켜도 되는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강생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경기향토문화대학'의 연속성이 담보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단과 연합회의 경우 사업의 가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걱정이 되곤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비예산 사업으로도 계속성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에 제도적으로 '경기향토문화대학'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10년 중장기 로드맵의 마련

한문의 문리를 깨치는 데에는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인문학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의 주제인 '향토문화연구'를 위해서는 중장기 로드맵을 그리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흐지부지된다면, 앞으로 또 다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뢰감 회복이라는 숙제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여기서 필요한 것은 '나침판'과 '설계도'입니다.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기본적인 밑그림을 바탕으로 장기적, 전략적, 지속적, 생산적, 경제적, 현실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젠다 31 _ 섹션 Ⅲ]

내가 노인이 되면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까?

_ 경기도어르신사업의 로드맵 만들기

본 섹션은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원으로 전국 시,도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한 <권역별어르신성과사업>의 일환으로 배치된 포럼이다. 지방문화원의 대표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과제를 도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시,도문화원연합회-지방문화원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 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고자 했다. _편집자 주

포럼 <아젠다31_ 섹션Ⅲ>

내가 노인이 되면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까? _ 경기도어르신사업의 로드맵 만들기

가. 발제문 Ⅰ : 경기도 노인대상사업이 현재 그리고 향후 방향의 제안
_ 유설아(문화활동가, 전)경기일보 기자)

나. 발제문 Ⅱ :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 제안
_ 김인숙(대전광역시 대덕문화원 사무국장)

다. 발제문 Ⅲ :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경기도 지방문화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을 과연 성공시킬 수 있는가? 그 전제조건은?
_ 박정근(의정부문화원 사무국장)

라. 경기도류(流)의 어르신 사업 로드맵 및 향후 방향수립을 위한 구체적 아젠다 설정을 위한 포럼

마. 아젠다 채택 및 선언문



경기도 노인대상사업의 현재 그리고 향후 방향의 제안

류설아 (문화활동가)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 노인 대상 사업의 현재

50대에 퇴직해 늘어난 평균수명까지 대부분 20년 이상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경제적 위기와 더불어 사회적 역할의 부재로 자존감마저 사라지는 이 시간을 어떻게 버틸 것인가가 화두이며, 정부나 광역지자체 등이 이를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제도 및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경기도가 운영 중인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노인지원사업의 현재를 살펴보기로 한다.
일단 도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확인한 결과 크게 4개 부문으로 구분해 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4개 부문은 ▲공익활동 ▲재능나눔활동 ▲창업활동 ▲경력유지활동 등이다.

1. 공익활동

이중 공익활동은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지원사업 개념이다.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구 및 경증치매노인 등 취약노인의 안부확인, 말벗, 생활실태 점검 등을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공익활동 노인 8만명을 2인1조로 구성해 취약노인을 주당 2~3회, 월30시간 케어하고 월2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만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이고 활동할 수 있는 건강한 노인이면 참여 가능하다.
경기도만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는 참여자격과 방식은 비슷하지만,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CCTV 상시관제,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자전거보관 및 수리지원사업, 친환경 EM활용사업, 도시농업환경관리사업,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사업, 지역사회 문화재관리지원사업, 주정차질서 계도지원사업, 지하철·철도이용질서 계도사업,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근린생활시설 관리지원사업, 공공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관리지원사업, 1~3세대 강사파견사업, 노~노교육 강사파견사업, 체육건강 강사파견사업, 숲생태해설사업, 문화 및 문화재해설사업, 보육교사도우미사업, 노인 사회사업지원 모니터링 사업, 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사업, 장애인 돌봄지원사업, 청소년 보호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연계지원사업, 다문화가정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등이다. 이중 도내 노인은 자신의 활동욕구에 맞춰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주당 2~3회, 월30~35시간 활동시 월20만원 활동비를 지급한다.

2. 재능나눔활동

노인 재능나눔 활동지원 사업은 노인이 재능나눔을 통해 성취감과 자기만족을 느낄 수 있는 자원봉사적 성격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참여대상은 만 65세 애상 기초연금 미수급자 또는 월 10만원 미만을 받는 수급자까지 포함한다. 참여자 1인당 월 10만원 이내(2~3개월)의 활동 실비를 지급한다. 참여방법은 수행기관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하다. 이 역시 '생활재능나눔'과 '전문재능나눔'으로 나뉘는데, 생활재능나눔은 독거노인돌봄 등 취약계층을 돌보고 노인보호시설을 모니터링하는 등 권익증진을 꾀하는 것이다. 전문재능나눔은 변호사·회계사·수의사 등 전문 자격증을 갖춘 노인의 연관된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고 자신의기술을 전수하거나 치매예방과 웰다잉 등 교육공간에서 평생교육을 활동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창업활동

노인의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다.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다. 쇼핑백 제작과 제품 포장 등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기업과 연계하여 제품 혹은 반제품을 생산·조달하는 사업, 콩과 고사리 등을 재배하는 등 지역영농사업 유·휴경지를 활용하여 농산물 등을 공동으로 경직하고 판매하는 사업, 참기름과 장류 등을 만들어 상품화하는 식품제조 및 판매 사업, 카페나 음식점 등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 짚풀공예나 수공예품을 공동 제작해 이를 판매하는 기타 공동작업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4. 경력유지활동

경력유지활동의 개념은 민간기업·공공기관, 직능협회(단체)와 상호 협력·연계를 통해 동일 전문기술·능력과 경험·지식을 보유한 퇴직자에게 일자리 제공 및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조직 구축을 지원한다.
퇴직예정자 및 퇴직자가 있는 민간기업,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직능단체) 동일 직업능력을 보유한 퇴직예정자 및 퇴직자가 있는 직능협회 등이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설립단계에서 시설비 등 최대 8천만원 이내 지원하고 복지부 지정을 받아야 한다. 운영 상에 있어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경영·교육·홍보 부문을 지원한다.

◇'언 발에 오줌누기'식 노인 사업, 어떻게 바꿔나가야 하나

현재 노인지원사업은 총체적 난국이다.
경기도가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대표 지원 사업은 '일자리'에 집중돼 있지만, 실상 지원 내용은 그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일자리'인지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예를 들어 2017년1월29일부터 영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의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이 의무화됨으로써 이를 겨냥해 노인의 일자리로 제공한다고 설정해놓았지만, 실상이 일자리는 경력단절여성이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지원 일자리가 노인을 '모셔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고 대체 인력이 있는 상황에서 사업주나 공공 주체나 노인이나 모두가 현실화하는 것이나 공감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적 가치에서도 최저 생계비 개념과는 동떨어진, '재능기부'나 '자원봉사' 수준에 머무는 활동비 지급으로 결국 노인 스스로 자존감과 자신의 가능성을 따지기보다는 돈을 더 조금이라도 모을 수 있는 일자리로 내모는 격이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예로 도가 지난 2015년부터 실시한 '폐지 줍는 노인 지원사업'은 수요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시·군 위주로만 사업량이 몰리면서 실제 지역의 저소득 폐지수집 노인 수와는 별개로 행정기관의 행정 상황에 따라 지원량이 좌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3천589명을 지원, 내년에는 1억7천400만 원을 들여 3천131명을 지원할 계획인데 대상자에게는 방한복과 야광조끼·테이프 등의 안전장비, 안전교육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지역별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량 격차가 최소 11명에서 539명까지 크게 벌어졌는데 지원대상 수가 539명으로 가장 많은 수원시는 65세 인구가 10만3천992명이지만 이보다 65세 인구 규모다 더 크고, 노인가구 절대빈곤율이 높은 성남시(10만9천700명·26.9%)의 사업량은 145명으로 ¼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노인가구 절대빈곤율이 50%를 넘어선 시흥시(3만1천650명·사업량 81명), 여주시(1만9천778명·사업량 32명), 동두천시(1만6천172명·사업량 108명)는 65세 이상 인구 수와는 무관하게 사업량이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난다.
이 한 가지 사례만 봐도 노인 대상 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도내 시군별 상황이 다름에도 신청자를 중심으로 한 지원이 이뤄짐으로써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꼼꼼한 실태조사, 신청자 대상 홍보 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현실과 괴리된 각종 노인 사업에 대해 현실적인 조사와 문화원을 비롯해 교육기관과 중소 기업 사업주 등 각종 기관 및 단체와의 촘촘한 네트워크 구축을 토대로 한 실질적인 지원사업 기획 및 공유가 절실하다.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 제안

김인숙 (대전 대덕문화원 사무국장)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정의를 살펴보면, 고령화시대 어르신의 능동적인 사회활동참여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르신들의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난 2005년 땡땡땡!실버문화학교란 명칭으로 시작된 사업은 회를 거듭하며, 전국의 지방문화원 뿐만 아니라 문화시설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문화원연합회 주관으로 전국의 어르신 대상으로 운영되는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은 〈어르신문화활동지원사업〉,〈어르신문화일자리〉,〈어르신-청년협력프로젝트〉,〈찾아가는 어르신문화예술 공연지원〉,〈권역별성과사업〉으로 구분되어, 전국의 문화원,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2,662개 프로그램에 89,211명의 어르신 참여 및 3,263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가장 큰 성과임이 확실하다.

2007년도부터 대덕문화원에서 어르신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인생의 황혼기를 따뜻하고 아름답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연극을 문화콘텐츠로 운영되는〈대덕실버극단 다솜바리〉, 나무를 소재로 생활목공예 제작판매형〈장동공방〉,연잎을 이용하여 연잎전, 연잎밥을 제조 판매하는 〈연축동 연마을〉,〈실버오케스트라 은빛소리〉,도자마을을 소재로 운영되는 〈이현동 협동문화학교〉,사진예술을 통한〈청자마을〉6개 분야 150여명의 어르신들이 한국문화원연합회 주최 사업을 통해

활동하였으며, 이외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노인일자리사업)은 〈대덕문화실버멘토〉,〈작은도서관 실버도우미〉,〈우리동네 문화재 지킴이〉등 3개 프로그램에 60여명이 어르신들이 함께 했었다.

현재는 〈대덕실버극단 다솜바리〉,〈장동공방〉, 〈청자마을〉,〈이현동 협동문화학교〉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르신 관련 사업의 축소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 9개에서 4개로 축소운영 하게 된 배경에는 전국의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지자체와의 관계성, 그리고 연속지원의 한계성이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은 단위사업명으로 구분되어 어르신문화활동가,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문화일자리, 청년협력프로젝트로 공모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방문화원은 구분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어르신문화활동가,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어르신문화동아리 2년~3년, 어르신문화일자리로 2년~3년 지원 받으며,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대덕문화원의 경우에도 대덕실버극단 다솜바리, 장동공방, 연축동 연마을 경우 한국문화원연합회 연속지원의 한계에서 지속성을 위해 선택한 방안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운영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실버극단 다솜바리, 장동공방, 연축동 연마을 사업에 초기부터 참여 하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다.

대덕문화원은 사업운영의 지속성에 대한 고민을 한다.
예산지원을 통한 지속성과 참여어르신들의 참여에 대한 지속성이다.
예산지원의 방안으로는 어쩔수 없이 사업지원방식을 전환해가며, 그 명백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지속적이기는 힘들 것이다.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 참여 어르신의 연세가 최소 65세에서 이제는

최고 93세까지 활동에 참여하면서 활동연령층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참여의지도 높다.
초기 2005년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업이 시작되었던 그 시점에서 머물러 변화하는 어르신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느끼는 부분이다.

2005년에 시작된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은 그간 10여년을 지나오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참여자 확대를 통해 만족도와 성취도로 사회적 효과성을 극대화 하였으며, 각 문화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한국문화원연합회를 비롯한 전국문화원의 큰 성과임을 확실하다.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근거하여 어르신신이 운영의 주체이자 교육의 주체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기반의 조성이 마련됨과 동시에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운영을 위한 참여어르신들의 사고전환이 필요하다.
어르신들의 생애주기별 논리정립을 통한 기존프로그램의 관성화와 피로도를 해소하며,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담긴 정책마련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한국문화원연합회 및 문화원이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경기도 지방문화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을 과연 성공시킬 수 있는가? 그 전제조건은?"

박 정 근 (의정부문화원 사무국장)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경기도문화원 네트워크 활성성화를 위한 노력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그동안 경기도의 31개 시·군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그 성과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 사업으로 경기도민속예술제, Festival31, 미래유물전, 시가예찬, 경기도문화가족 합동연수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표면적으로만 보여 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경기도의 문화원들의 네트워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였는지는 잘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연중 진행되는 사무국장과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과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그리고 지역 아카이브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경기도의 문화원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치열하게 해오고 있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도전과 노력은 단지 경기도문화원연합회만의 주도적 의지뿐만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 지방문화원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바라는 적극적 의지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처음 경기도문화원들의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친목과 정보교환이란 1차적인 목적을 도출해내기에 급급했다면 지금의 네트워크는 다양한 사업의 긍정적인 결과를 위하여 지역을 나누고 또 재구성하며 단순한 정보교환이 아닌 협업 기능을 강화하려 하는 단계까지 다가가고 있다.

물론 지금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구축하고 확장해 온 지방문화원 네트워크가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비로소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경기도 지방문화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은?

지방문화원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사업을 잘 만들어 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문화원에서 일하고 있거나 또는 문화원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긍정적인 대답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문화원의 근간이 되었던 문화학교를 오랫동안 운영하였고 또 문화원의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어르신들이었던 시기를 기억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문화원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있는 일이 어르신 문화사업이라고 너무 당연히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문화원의 이러한 생각과는 다르게 어르신문화사업에 문화원이 독보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2017년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는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 선정된 기관을 보더라도 문화원 이외에 노인전문기관 및 다양한 유사기관 다수가 선정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프로그램 역시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경쟁을 해야 하고 그 경쟁을 통해서 한층 발전한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총사업수	경기도	문화원	기타기관	참여문화원
310	52	31	21	28

[2017 한국문화원연합회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경기도 사업선정]

그렇다면 지방문화원 특히 경기도의 지방문화원은 그 해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아마도 그 해답의 열쇠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를 중심으로 31개 시군문화원들이 그동안 준비해온 네트워크의 강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어르신문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전제조건을 찾고 해결해야할 것이다.

첫째, 지방문화원을 찾는 어르신들의 특성을 연구하고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한다.

- ▶ 고학력자, 엘리트계층, 고소득층이 많고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 문화원을 활용하고자 한다.
- ▶ 어르신들이 복지관보다 문화원을 찾는 이유는 노인복지관 보다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기 때문에 젊은 계층과의 소통을 위해 문화원을 선호한다
- ▶ 정년후 제2의 사회복귀의 형태로 자신의 재능을 활용한 사회기여 방법을 찾고 있다.

총사업수	활동지원	일자리	청년협력
31	28	3	0

[2017 한국문화원연합회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경기도 선정 사업별 구분]

둘째, 경기도 지방문화원이 생각하는 어르신 문화사업의 공통된 목적을 찾아야한다

- ▶ 문화원의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해 새로운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실험 및 개발
- ▶ 문화원이 보유하고있는 기존의 우수 프로그램의 맞춤형 어르신 사업으로의 전환.

셋째, 경기도 지방문화원만의 특화된 어르신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찾아야한다

- ▶ 기존의 문화원 및 노인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의 양적 확대 지양.
- ▶ 각지역의 지역성을 담고있는 프로그램 개발.
- ▶ 지역의 스토리와 정서를 가득 담은 독창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총사업수	전통문화	생활예술	향토사
31	12	15	4

[2017 한국문화원연합회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경기도 사업별 구분]

넷째, 경기도문화원연합회를 중심으로 도의 문화정책을 분석하고 소통 할 수 있는 방법연구 필요.

▶ 경기도는 2018년까지 경기도를 6개의 문화권역 및 7개의 벨트로 설정하여 특성 있는 문화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전략적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

▶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만 의존 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및 경기도문화원들의 공동사업 및 특화사업으로 어르신 문화사업을 기획, 경기도의 지원을 이끌어 내고 나아가 도내의 노인복지기관과의 경쟁과 협력의 방법을 찾아내야한다.



[경기도 문화권역별 주요사업현황]

구 분	사업현황 (주요사업)
DMZ생태문화교류권	연천군, 동두천, 양주, 의정부, 파주북부 (4개시 1개군)
	• DMZ 세계평화공원 유치(기존 정부사업) – 파주 • DMZ 평화·생태 예술창작 중심지 조성 – 동두천, 포천 • 북한 및 한민족 문화플라자 건립 – 연천
미디어콘텐츠문화권	김포, 고양, 부천, 파주남부
	• 문화시설의 세계화·아시아 문화교류 허브 – 고양 • 한류 거점화 프로젝트 – 고양 • 콘텐츠산업 클러스터 심화 및 확장 – 부천, 파주, 고양, 성남
레저·예술문화권	남양주, 가평, 포천, 양평 (2개시 2개군)
	• 창작공간 확충 및 운영 활성화 – 양평 • 문화와 생태관광을 결합한 문화힐링 의료관광 – 가평, 양평 • DMZ 평화·생태 예술창작 중심지 조성 – 동두천, 포천
생활문화예술권	광명, 군포, 의왕, 과천, 성남, 안양 (6개시)
	• 생활문화공동체 교육 및 지원센터 설립 운영 – 성남, 안양 • 생활문화동호인/공동체 축제 지원 – 성남 등 • 콘텐츠산업 클러스터 심화 및 확장 – 부천, 파주, 고양, 성남
복합문화예술권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 (5개시)
	• 커뮤니티 아트 문화공간 조성 – 안산, 화성, 오산, 평택 • 안산 도시재생·도시힐링 프로젝트 – 안산
역사정신문화권	구리, 하남, 광주, 여주, 이천, 용인, 수원, 안성 (8개시)
	• 수원 화성 예술 프로젝트·남한산성 벨트 – 수원, 광주 • 청년문화허브 – 수원(고양) • 인문정신문화지원센터 건립 – 수원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발전계획 2014]

라. 경기도류(流)의 어르신 사업 로드맵 및 향후 방향수립을 위한 구체적 아젠다 설정을 위한 포럼

제3섹션 | 일시_ 2017. 11. 28 (화) 14:00~16:00 | 장소_ 안성시 안성마춤아트홀 갤러리동 2층 제2강의실 | 담당_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연구원 김정희

주제_ 내가 노인이 되면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까?

_ 경기도어르신사업의 로드맵 만들기가 가능하기 위하여

주요패널

_ 좌장 : 정원철 (시흥문화원장)

_ 패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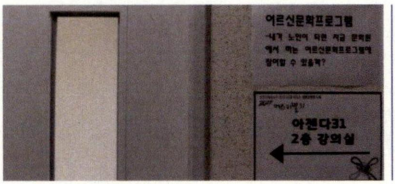
1. 최영주 (경기도문화원연합회사무처장)
2. 김인숙 (대전광역시 대덕문화원사무국장)
3. 유설아 (문화활동가)
4. 박정근 (의정부문화원사무국장)

_ 참가자 : 경기도 어르신사업 담당자 및 강사

시간 배정

시간	발표자	내용
14:00~14:02	좌장 _ 정원철 _ 시흥문화원장	개회 및 포럼취지
14:02~14:10	최영주 _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한국 어르신사업의 현황과 추진방식에 대한 개괄 _ 인생나눔, 문화이모작, 어르신문화프로그램 등
14:10~14:20	유설아 _ 문화활동가	경기도 노인대상사업의 현재 그리고 향후 방향의 제안
14:20~14:30	김인숙 _ 대전광역시 대덕문화원사무국장	기존 한문연 주관 어르신사업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 제안
14:30~14:40	박정근 _ 의정부문화원 사무국장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경기도 지방문화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을 과연 성공시킬 수 있는가? 그 전제조건은?
14:50~15:50	전 체	경기도류(流)의 어르신사업 로드맵 및 향후 방향수립을 위한 구체적 아젠다 설정을 위한 포럼
15:50~16:00	좌장	아젠다 채택 및 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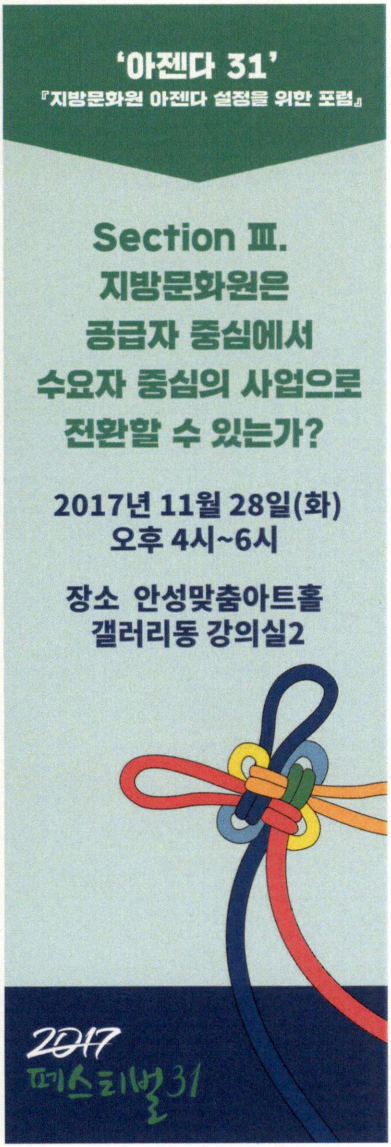
내가 노인이 되면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까? _ 경기도어르신사업의 로드맵 만들기가 가능한가



다들 아시겠지만 아젠다(Agenda)는 의제, 약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의제, 약속'이라는 뜻의 맥락은 어떤 사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그것들의 합의를 모아내고 다 같이 합의된 결론을 도출한 것을 약속으로 삼고 그 약속을 실현하자. 모두의 합의된 의견을 실천하자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섹션은 경기도의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들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평가와 반성, 그 다음에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어르신 사업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야 될까? 향후 경기도류(流)의 어르신 사업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번 포럼을 통해 아젠다를 도출해내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아젠다를 선언해 주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 기획에 반영해 보자는 취지의 포럼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시흥문화원 정원철 원장님을 좌장으로 모시고, 〈아젠다31〉 제3섹션 '내가 노인이 되면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까 _ 경기도어르신사업의 로드맵 만들기가 가능한가' 라는 주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철 (시흥문화원장, 이하 좌장) :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은 시흥문화원장 정원철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7년도 아젠다31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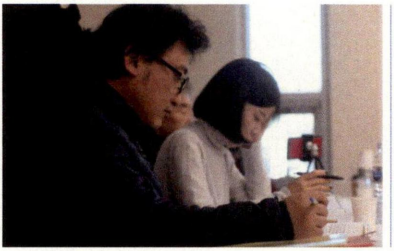
오늘 패널은 대덕문화원 사무국장 김인숙 선생님, 전 경기일보 기자이신 유설아 선생님, 의정부문화원 사무국장 박정근 님, 이렇게 세 분이 수고를 해주실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토론할 주제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연관된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 관해서 생각해보면서, 내가 노인이 되면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까? 경기도 어르신 사업에 로드맵 만들기가 가능하기 위하여'입니다. '지속성'에 관련된 고민이 주제에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르신이라는 용어는 근자에 많이 쓰고 있죠. 통칭으로 노인이라는 용어도 쓰고 있고, 저희들에게 더 가까운 용어는 그저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개념인데, 과거에는 효도를 바탕으로 해서 위의 어르신들을 전부 다



모시고 지냈던 분들이 지금 어르신들이신데, 오늘날에는 그런 효도의 맥이 흐트러지면서 각자 어려운 환경 속에 국가에서, 어르신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그분들의 복지와 심신의 안정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우리 한국문화원연합회에 적지 않은 돈이 어르신문화프로그램으로 배속이 되면서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지속성 문제에 있어서 한문연에 예산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저희가 이러한 토론을 하는 것은, 보다 차별성 있고 변별력 있는 무언가를 도출을 해서, 이 상태로 갈 수 없는 새로운 어떤 타개책을 찾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패널 분들께서 좋은 말씀 들려주시고, 함께 참석해주신 분들께서도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내년도 2018년도에 경기도 문화원연합회에서 중요하게 취급할 아젠다를 이곳에서 함께 토의하겠습니다.
먼저 첫 순서로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최영주 사무처장의 한국 어르신사업의 현황과 추진방식에 대한 개괄을 발표해주시겠습니다.



최영주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이하 '최') : 사실 한국 어르신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개괄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많은 소양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기회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이것은 학자가 연구를 해도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르신 사업하면, 보통 실버사업이라는 용어를 그동안

써왔습니다. 요즘에는 어르신, 골든 에이지라는 이름으로, 즉 개념 자체가 실버에서 골든 에이지라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예산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쪽을 중심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표로 나와 있는 것들이 2017년 신청한 예산에서 국회통과한 5조6천9백7십1억 원이 우리나라에서 쓰여 지는 문화예산입니다. 체육까지 포함된 부분인데요. 그중에서 문화, 예술 쪽으로 투여되는 예산이 28.2% 정도입니다. 대충의 계산이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한국문화원연합회 지방문화원과 관련된 예산을 다루는 문화정책관 편성 예산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5조6천억 중에서 9백9십3억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에서 문화원과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로 다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백만 원 단위입니다.
지금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이, 2016년 예산에 46억7철7백에서 42억9백만 원, 그러니까 예산이 4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매년 줄어듭니다. 2015년에 52억, 2014년은 56억 정도에서 줄고 있는 상황이구요. 주로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이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지방문화원이 진행하는 형태의 사업인데, 지역문화진흥, 전통문화진흥, 문화유산발굴 및 활용 쪽은 문화원 쪽과 관계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화원에서 전혀 다루고 있지 않은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 쪽에 227억 정도가 전국적으로 뿌려지고 있는 거죠. 그 밑에 자세한 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굳이 이렇게 써 놓은 것은, 지역문화전통 예산으로 474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문화원에서 해야 될 지역문화역량강화 예산으로 7억 6천정도가 배정이 이미 되었는데, 문화원에서 이 예산은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비 지원이 한 17억에서 15억으로 준 상태구요. 그 다음에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원하는 것이 4억8천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문화재단 쪽으로 전부 다 지정이 돼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이 만들어지지 않은 지역, 지방문화원 밖에 없는 곳은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없습니다.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들이 몇 개 문화원밖에는 참여를 안 하고 있고, 올해 신규로 지방문화원천컨텐츠발굴지원이 168억 편성이 되어 올해로 마치는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영남호남문화인재양성을 하는데 3억 정도 편성이 됐다가 삭감이 된 것이고, 화살표 다음이 17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진흥을 하는데, 전통생활문화활성화지원, 우수문화상품, 세종문화상, 전통문화운영지원으로 예산이 각각 편성이 되는데도, 문화원들은 전혀 그런 쪽 사업에 들여다보고 있지 않은 모양새인데,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도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활용도 마찬가지구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어르신사업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 9개정도의 프로그램이 지원 되는데, 복지관 쪽의 골든에이지지원사업으로, 전국 169개 노인복지관에서 341개 프로그램이 운영 되고 있습니다.
어르신체육활동지원에서는 경로당에 운동용품을 지원하는 것들이 추진이 되고 있구요.
실버영화관은 문화바우처 기금사업으로 지원되고 있고,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책 읽어주는 실버문화봉사단, 문화이모작, 인생 나눔, 생활문화공동체사업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봤으면 하는 것이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은 문화 프로그램이니까 잘 아실 것이고.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가 2013년까지 한국문화원연합회 주관으로 47억 정도 예산으로 진행됐던 것이, 2013년 하반기부터 국학진흥원으로 사업이 이관이 됐습니다. 문화원 사업이 줄어든 셈이 됩니다.
문화봉사단은 예산이 크지 않습니다. 문화이모작사업이 문화원연합회에서 2016년까지 하다가, 생활문화진흥원이 만든 쪽으로 사업이 이관이 된 상황입니다.
인생나눔교실이 대표적으로, 어르신문화프로그램과 문화이모작, 인생나눔사업이 주된 어르신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만, 인생나눔교실이 맨 처음에 34억, 50억 정도로 했다가 2017년에 150억 정도로 예산이 늘어난 상황이구요. 생활문화공동체사업도 2016년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14억 정도로 주관했다가, 생활문화진흥원으로

이관이 된 상황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원이 일을 잘 한다. 열심히 한다. 일이 많다고 하는데, 왜 문화원연합회에서 하는 사업들은 자꾸 다른 곳으로 이관돼서, 예산은 계속 축소되고, 활용을 못하고, 사업을 확장시키지 못하는가? 어르신 사업만 보더라도, 세 가지 대표적인 어르신 사업의 예산들이 다른 데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문화원연합회 또는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어르신 사업들은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가? 이 부분에서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저희가 어떻게 관여를 못하고, 그럼 경기도만이라도 어떻게 방법을 찾아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오늘 아젠다를 통해서, 경기도만이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아젠다를 도출하고 싶어서 개괄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좌장 : 자료를 또 모아서 정리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어르신사업이 상당히 축소가 되어가는 것을 예산상의 수치로 아주 리얼하게 드러냈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되돌아보고,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를 심도 깊게 연구해야 된다는 상황이 설정이 된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설아 선생님, 문화 활동가이신데, 경기도 노인대상사업의 현재, 향후 방향의 제안에 대한 부분을 발표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은 10분을 드리겠습니다.



유설아(문화기획자, 이하 '유') : 안녕하세요. 유설아입니다. 제가 3주전까지만 해도 기자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일을 그만두고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기획 쪽으로 길을 다시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번에 노인대상사업에 대해서 아젠다를 도출하는데 패널로 초대를

해주셔서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고, 그 이전에 기자생활을 하면서 특히 문화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어르신대상 프로그램들과 어르신들의 공동체를 굉장히 많이 접했던 사람으로서, 저에게 주어졌던 것은 경기도의 어르신대상 지원 사업으로 한정을 지어서 살펴봤던 건데, 문화예술 쪽을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도의, 정부의 큰 얼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사실 문화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라든지, 그곳에서 어르신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봤던 사람으로서, 현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 하는 어르신들이 더 많은 상황이고, 그 문제들을 문화원이 중심이 되어서 해결해 나가야되지 않을까? 하는 결론이 났는데요. 그 진행 과정에서 현재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크게는 4개 부문으로 공익활동, 재능나눔활동, 창업활동, 경력유지활동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에게 최소한의 경비와 활동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공익활동은 기존의 노인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독거노인들 비율이 너무 높아지면서 혼자 돌아가시는 독거사라든지, 아니면 혼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경제적 빈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도저히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없는 관계에 처한 분들이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감마저 다 무너지고 질이 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서, 이 공익활동으로 노인 분들이 서로 도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간다는 걸로 이 지원 사업은 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 분들이 2인 1조로 취약한 노인층을 직접 찾아가서, 주 2,3회 말벗이 되어준다든가 청소라든지 간단한 집안 생활을 돌봐주면서 취약 노인에 대해서 도와주는, 서로 친구가 되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이 있었구요. 이거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초등학교에 급식 도우미로 나간다든가, CCTV, 이것은 많이 화제가 됐던 영역이긴 한데 학교에서나 공공영역에서 CCTV를 관찰하고 있다가, 문제점이 있을 때 활동하게 되는 그런 노인 인력에 대한 지원.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이런 식으로 세분화 되어 있었습니다.

재능나눔활동은 아마 문화원에서도 이런 활동을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분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들을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신다던지, 아니면 기존의 직업군에서 변호사 같은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무료형식으로 지식을 나눌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창업활동으로는, 최근에 어르신 사업으로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조명이 많이 되는데, 이것이 한참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었구요. 그거 외에도 쇼핑, 지역의 상품들을 포장하거나 이런 형태로 개발하는 것에 소규모 5인 이하의 사업장이 생성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한다는 방식, 그리고 경력유지활동이라고 해서 기존의 일하셨던 분들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준다든가 하는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업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겉으로는 굉장히 세분화 되어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노인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가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노인들이 가장 이 어르신사업에 있어서 두 가지 문제가 제일 중요하게 해결돼야 하는데, 노인 분들이 갖고 있는 경력단절로 인한 최소한의 생계비, 활동비. 그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데 해당 지원 사업들에 지원규모가 월30시간에서 35시간 일을 하고 월 20만원을 받는데, 이것은 기존의 봉사활동과 관련했을 때, 더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 노인이 이 일을 함으로써 최소한의 생계 유지비를 벌겠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지원 사업들을 받겠다고 30시간에서 35시간을 활동할 것인가? 물론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이 갖춰지신 분들은 자신의 재능 나눔에 있어서 자존감을 확보할 수 있으니 그런 프로그램들에서 만족도가 높겠지만, 그 정도의 활동을 하실 분들은 문화원을 중심으로 이미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이런 지자체 차원의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로, 노인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독거사라든지 하는 최소한의 것들을 다 낮추는데 목적을 둘 텐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에는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는 판단이 들었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적인 사업으로 인건비 2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영유아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차에는 반드시 운전자 외 보호자가 1인씩 동승해야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경기도에서도 그 인력을 노인인력이 대체를 하면 좋겠다고 판단을 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부모들이, 젊은 부모들이 어르신들이 그것을

케어 하는 것에 대해서 능동적인 대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신이 있고,
안전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서 노인인력을 수급을 해 달라는 요청이 없는 걸로
지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다양하고 세분화 되어있지만,
현실과는 괴리가 너무 떨어진 지원 사업들이 결국에는 노인 분들한테,
공공기관들에서도 호응을 얻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생계비를 떠나서 다른 것이 경기도 자체적으로 폐지를 줍는
노인들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원 사업은
2015년부터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그분들한테
방한복이라든지 야광조끼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도구들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부분들도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일단 한다고 예산을 받아서 지급하고, 또 각 시군별로 그 능력에
따라서 자신들이 접수받은 그 노인수라든지, 어디어디 지역에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신다는 꼼꼼한 실태조사도 없이 그냥 진행이 되다보니까,
어느 지역에는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 생각보다 더 없고 그러니까,
그런 곳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지역별로 아주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지적을 받은 걸로 파악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폐지를 줍는 분들한테, 이게 또 중간에 안전교육을 이수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야광복과
안전옷을 받기 위해서 그 시간을 투자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과연 누가 호응을 할 수 있는 사업인가라는 고민이 드는 지점입니다.
대부분의 지원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현실과 동떨어져있어서, 누구에게도
호응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능동적인 어르신들은 문화원에서 이미 형성이
되어있고, 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실 최저생계조차 유지하지 못하시는
취약계층의 노인층이라든지, 아니면 퇴직을 하신 이후에 자기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더 많은 상황이잖아요.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이 직장생활을
영위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 지역 안에서 자신의 활동 영역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적극적인 노인층이 형성했던 곳에 끼어들어 갈 수 있는
틈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도, 재능을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모른다든가, 아니면 생계비가 필요하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고, 이걸 할 바에는 다른 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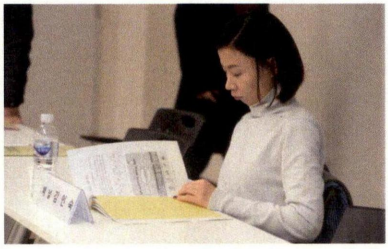


선택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든가 해서, 결국에는 이 광역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원사업도 그냥 보여주기 식, 생색내기 식의 사업에 그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문화원에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 좀 더 파급력을 가지게 갈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사업은 아직 없는 상황인거죠.
이분들을 노인들의 공동체, 수동적으로 있는 노인들 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형성으로 가져가야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배우고 있는 분들이 자기들만의 장으로 가져가는 영역이 좀 더 뒤쳐진 상태로 보여져서, 제가 제안을 마무리를 하자면 이미 기존에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재검토가 이루어져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엮어 낼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문화원에서는 삶의 질을 만족시키고, 노인 어르신들이 자존감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에서는 생계유지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선택과 집중을 고민해야할 때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정리가 되어있을 때 문화원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인프라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의



마을리더를 또 만들어 내는 거죠. 어르신 리더들이 새로운 층을 흡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여기 사무국장님도 계시고, 처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기획인력들이 그 부분을 가장, 그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론을 고민해서 적용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좌장 : 유설아 선생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표현이 있는데, 한마디로 집약이 된 거 같습니다. 경기도 광역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인사업이 '언 발에 오줌 누기' 공공기관에서 몇 푼 지원해주는 것도 이십만 원 십만 원 하면서 일자리로 내모는 듯한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는 문화원 내부의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이 부분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함께 있는 지방정부에서 함께 하고 있는 어르신 사업들의 잘 되고 있는 점, 그렇지 못한 점들을 보면서 우리 문화원이, 시군문화원이나 연합회가 파고들어갈 부분 우리들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광역지자체의 예산이나 중앙정부의 예산이 좀 빠지면, 그런 부분으로 보충할 수 있는 여지도 우리가 또 여기서 찾아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우리 문화원연합회 입장에서는 좀 더 희망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발표로 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대전대덕문화원의 김인숙 사무국장님께서 한국문화원연합회 주관 어르신사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인숙 (대전광역시 대덕문화원 사무국장, 이하 '김') : 반갑습니다. 전 대전대덕문화원 사무국장 맡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페스티벌31을 작년 이어 올해 제가 두 번 와봤는데요. 작년에도 왔던 느낌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올해도 좀 일찍 와서 처장님께서 이렇게 주변 설명해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경기도의 압도적인 선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다시 한 번 감동을 받고 돌아가는 기회가 될 거 같습니다. 저에게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전반적인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를 주셨는데, 제가 문화원에 온지 18년이 돼요, 사실 초기에 왔을 때는 어르신이라는 개념, 혹은 어르신문화사업이라는 개념은 문화원에 전혀 있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2005년도부터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시작을 하면서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시작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받는 지방문화원들이 지원금에 의존을 하면서 프로그램들을 유지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발제하는 부분들은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주관했던 많은 사업들 중에서 대덕문화원이 실시했던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전국적인 큰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현장에서는 이런 단위사업에 대한 상당한 불편함을 갖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를 주최로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는 어르신사업은 사업명칭이 단위사업명으로 구분이 되어있는데요. 어르신문화활동지원사업, 어르신문화일자리, 어르신-청년협력프로젝트, 찾아가는 어르신문화예술 공연지원, 권역별성과사업으로 사업명이 구분이 되면서 전국 문화원,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2662개 프로그램에 8만9천여 명이 참여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전국적인 큰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현장에서는 이런 단위사업에 대한 상당한 불편함을 갖고 있는데요. 그건 무엇이냐면 저희가 단위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들은 사실은 지방문화원들이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다 보면, 예산의 지속성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위사업에 의존하면서 2년, 3년에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문화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덕실버극단 다솜바리, 장동공방, 연축동 연마을, 실버오케스트라 은빛소리, 이현동 협동문화학교, 청자마을 등 6개 분야의 프로그램에 150여명이 참여를 하셨었어요. 그 이외에 이 사업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택했던 방법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었는데,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진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들이 중간에 취소가 되고 지금 현재는 대덕실버극단 다솜바리와 장동공방, 그리고 연축동 연마을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덕실버극단 다솜바리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7년으로 10년을 맞이하는 전국적인 실버극단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에서 부딪히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한테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통한 지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 올해년도 어르신들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에 빠졌던 부분이, 어르신사업이 지속적인 부분의 연속지원에 대한 예산의 문제일까, 혹은 어르신 참여가 연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십년간 실버극단 다솜바리를 운영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은 분명히 10년의 그 팀 속에서 성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꼭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실버극단 다솜바리 어르신들은 신체적인 변화가 옴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월 20만원을 받고 있으면서, 이걸 이제 그만두셔야하는 상황인데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 혹은 이걸 다른 동아리로 전환해서 이분들을 그냥 양성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어있는데, 사실 엊그저께도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어르신들 올해 이 팀이 졸업이 되시면 뭐 하시겠어요?' 여쭤봤는데, 노인정에 있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 이게 지금 문화원이 하고 있는

것들이 맞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대덕 실버극단 다솜바리, 장동공방, 연축동 연마을 등 사업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구요. 또한 단위사업으로 구분되는 이 사업들이 한국문화원연합회가 과연 단위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더 하게 되었어요. 어르신문화사업이라고 하면 통으로 전체적인 사업이 현재 지방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혹 연합회 측에서 본인들의 성과위주의 단위사업으로 좀 잘라놓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 어르신문화일자리에 대한 부분들도 어르신들은 문화로 만나면 그게 일자리로 전환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 측에서 강요적인 문화 일자리 사업을 전환을 요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애주기별로 프로그램 개발, 혹은 욕구에 맞춘 프로그램들이 이제 문화원들이 움직여 줘야 되지 않을까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이 최소 65세에서 이제는 93세까지 되신, 아까 말씀드린 실버극단 다솜바리 같은 경우 어르신이 93세까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연기를 너무 잘하세요. 잘하시는데 인제 보시는 분들에 대한 반응들이 저희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어르신들은 분명히 활동을 할 수 있고 본인은 자신이 있으나, 보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무대에 오르고 내려오는 것들에 대한 불안감을 자꾸 호소를 하시더라고 저희 쪽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문화원이 이 사업을 지속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분들이 졸업을 하고 이분들을 노인정에 남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는 부분을 다시 여차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혹시 2005년도 어르신문화프로그램으로 사업이 시작된 그 시점에서 머물러서, 어르신들의 욕구에 부흥하지 못하고 있음을 느끼는 부분과 함께 생애주기별로 프로그램 개발, 혹은 욕구에 맞춘 프로그램들이 이제 문화원들이 움직여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은 그간 2005년도 이후에 많은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참여자들 확대는 무한한 성공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혹은 경기도도 마찬가지일 테지만, 지방에서 이루어진

참여자들의 개개인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없이 그냥 프로그램 유지에만 신경을 쓰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발제를 좀 준비했는데요. 2005년은 시작된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은 그간 십여 년을 지나오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참여자 확대를 통해 만족도와 성취도로 사회적 효과성을 극대화 하였으며, 각 문화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음은 한국문화원연합회의 큰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케어의 대상이 아닌 문화 주체자라는 대상을 단어를 쓰셨는데, 전국의 문화원이 아직도 어르신을 케어의 대상으로서만 존재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을 참여자로만 보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근거하여 어르신이 운영의 주체이자 교육의 주체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기반의 조성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부분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작년에도 제가 그 문구를 봤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번 전시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어르신은 케어의 대상이 아닌 문화 주체자라는 대상을 단어를 쓰셨는데, 맞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문화원이 아직도 어르신을 케어의 대상으로서만 존재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을 참여자로만 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반의 조성의 마련과 함께 자발적으로 자생적인 운영을 위한 어르신들의 사고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다솜바리 같은 경우는, 공연은 전문극단에 못지않게 공연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공연 나가고 하시는 건 1년에 한 삼십 회 정도를 계속 공연을 하세요. 어르신들 공연의 퀄리티는 높으나, 이분들이 문화원이 운영주체로서 빠졌을 경우에 이분들은 그냥 노인정에 가시는 어르신으로 남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운영에 대한 사고전환이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부터라도 체크를 해가면서 그 부분들을 좀 건드려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생애주기별 논리정립을 통한 기존프로그램의 관성화와 피로도를 좀 해소해야 될 거 같은데, 대부분의 전국 문화원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뭔가를 전시하고 체험하면서, 그 프로그램들이

1년 2년 3년을 유지해요. 참여자들을 바꿔가면서 유지하는 데도 있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도 있으나, 이제는 그런 기존의 1차적인 프로그램에서 2,3차적인 프로그램 쪽으로 발전방향을 좀 설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점이 됐는데, 오늘 전시를 보면서도 이분들은 분명 아마추어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예로 장동공방 같은 경우, 문화융성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님이 저희 장동공방을 찾아오신 적이 있으셨는데, 공방어르신들이 나무를 가지고 생활 목공예를 만들어서 생활용품을 파시는 공방임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하셨던 말씀은. 이 제품은 인사동에 공예관에 판매로 전환해도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담당자와 저희가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부딪혔던 부분이, '이것은 상품화 하긴 어렵다.' 왜냐면 어르신들이 만든 제품이 상품이라고 하면 똑같은 제품이 또 일률적으로 나와야 되지만, 어르신들이 그런 능력이 안 되셨던 거예요. 그러다보니 공예관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1차 공정과정에서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을 통해서 혹 이런 것들을 양성화하고 컨설팅하고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같이 양성화하면, 어르신 프로그램들이 1차에서 넘어간 2차,3차에 또 다른 성장과정을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끝으로 사업 지속성을 위한, 저희는 사업지속성이 예산지원의 지속성도 있지만, 참여 어르신들의 지속성에 대한 부분 이 지원이 끊기고 자체적으로 운영했을 때, 문화원이 주체로서 빠지고 진짜로 이 어르신들이 주체로 남았을 때, 운영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지금부터라도 그것들을 키워나가고 만들어 가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서없이 이것저것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 : 오래된 된장이 묵은 맛을 내듯이, 현장에 오랜 기간 몸담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주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예산지원의 지속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줄 수밖에 없다는 외부적인 요인을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금 다른 측면을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어르신들 참여의 지속성의 문제, 프로그램의 단계별 진화, 예를 들면 그것을 상품화 한다든가, 하나의 문화원 네트워크 내에서 여러

가지 협조 해 줄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도 강구할 수도 있을 텐데, 전부다 예산만 받아서 그 부분만 소화해내고 예산이 끊어지면 그대로 끝나는 것은 우리 문화원이 다시 한 번 연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아주 중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패널로서는 마지막으로 박정근 의정부문화원사무국장님께서 '지방문화원 대체 어떻게 변해야하는가?'에 대한 일갈을 한번 좀 해주시겠습니다.



박정근 (의정부문화원사무국장, 이하 '박') : 안녕하세요. 의정부문화원 사무국장입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처장님께서 저한테만 맨 날 어려운 걸 시킵니다. 저는 문화원에서 일한지는 14년 됐는데, 직원으로서 4년 하고 사무국장으로서는 10년째가 되는 거 같아요. 직원으로 일할 때, 처음으로 외부사업을 했던 게 어르신사업이었습니다. 대전에서 사업설명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어르신사업에 대한 부분을 문화원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고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발표를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열광을 한 사람 중의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사업을 문화원이 갖고 가겠다는 것에 열광을 한 게 아니라, 어르신사업을 문화원이 갖고 가야되는 이유에 열광을 했던 거죠. 그 목적에 굉장히 열광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제가 보시다시피 젊고 어리니까, 문화원연합회에서 지방문화원이 만들어내는 어르신사업은 샘플링 될 것이고, 가꾸어져서 최적화된 어르신들만의 상품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문화교육사업, 문화상품 등 여러 가지 문화 사업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이 되면 전국에 있는 노인기관과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들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명감도 느끼고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러다보니 사업을 처음 지원할 당시부터 고민을 했는데 어떤 고민을 했냐면,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또 답습할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해 낼 것이라는 확신과 열정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언제부턴가 그 목적은 없어졌어요. 목적이 없어지면서 프로그램이 대중화되고 일반적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10년 이상을 이 사업에 참여했던 담당자 입장으로서 저는 굉장한 실망을 갖고 있습니다.

목적이 없어지면서 프로그램이 대중화되고 일반적으로 변했다
그래서 경기도연합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짚어야하는 때가 오지 않았나 싶어서 이 문제를 거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저한테 주어진 이야기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의 문화원들의 네트워크를 어르신사업하고 어떻게 매칭을 하고 어떻게 연계를 시켜서 그 시너지를 최대한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어르신사업을 성공시킬 것이냐는 이야깁니다.
제가 한참을 계속 생각해봤는데, 사실은 이게 좀 연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였어요. 그래서 역시 나는 미움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답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그동안에 경기도에 있는 문화원들의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노력에 대한 부분이 성과로 한눈에 보여 지는 부분보다는 어떤 사업으로만 나타났기 때문에, 페스티벌31 오늘 하는, 아젠다31, 미래유물전, 시낭송의 밤, 경기도 합동연수와 같은 사업들이 나타나니까, 그 네트워크가 얼마나 많이 발전됐고 견고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서는 문화원 직원들, 사무국장들, 원장님들, 또 여러 임원들을 계속 교육하면서, 만나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지는데 굉장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생활문화예술사업, 아카이브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그 효과가 녹아들게 만들었죠. 그것이 실질적으로 눈에 수치로 볼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한 10여 년 동안에 경기도문화원에 있으면서 지켜 본 바로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견고해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어떻게 어르신사업을 또 연결을 할 것이냐?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딱 바로 답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네트워크가 마찬가지겠지만, 처음에는 단순한 정보교환과 친목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중심이 되어있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확장되어서 발전을 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문화원이 이제 어르신사업이라는 부분을 딱 떼어놓고 보면, 어르신사업을 문화원이 잘 할 수 있냐고 누가 질문을 한다면, 문화원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또는 문화원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문화원은 어르신사업을 잘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문화원의 근간인 문화학교를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또 노하우가 쌓였고, 또 문화학교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어르신들이었던 시기가 분명히 오랫동안 존재했으니까요. 어쩌면 문화원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어르신문화사업이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의 이러한 생각과는 별개로 어르신문화사업은 문화원이 독보적인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017년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 선정된 것을 보면, 전체에서 경기도만 따졌을 때 52개의 기관이 선정이 됐고 그중에 문화원이 31개의 프로그램, 그리고 기타 다른 기관으로 21개 기관이 선정이 됐다는 것이죠. 그것은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주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반 정도밖에 프로그램을 따내지 못했다는 사실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저희 문화원이 밀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지방문화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답을 찾아야 되느냐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아마도 저는 그 해답이 지금 주어진 경기도 31개 시군문화원들의 네트워크의 힘에서 그걸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것이 다는 아닐지도 몰라도, 그것의 시작의 키는 거기에서부터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어르신사업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데는 사실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죠. 아주 많은 전제조건이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방문화원을 찾는 어르신들의 특성을 연구하고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과연 문화원을 찾는 어르신들은 어떤 분일까. 대부분 고학력자, 엘리트, 고소득층이고 많은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자기개발을 위해서 문화원을 찾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복지관보다 문화원을 찾는 이유는 복지관보다 다양한 계층이 문화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젊은 계층과 소통을 위하여 문화원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정년 후, 제2의 사회복귀의 형태로 자신의 재능을 활용한 사회기여방법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의 생각도 들어가 있지만,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문화원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를 한 부분에서도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어르신들이 가시면 어르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화원에 가서 같이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면, 어르신이지만 호칭이 어르신이 아니라 언니가 되고 오라버니가 되고 이렇게 변하는 거죠. 문화원으로 들어왔을 때는 어르신으로서의 어떤 한 계층으로 나이로서 나눠지는 그런 분리가 아니라, 한 구성원으로의 동일한 시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어르신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에 보시면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이번 2017년도에 경기도 사업이 선정 된 것을 보면, 문화원에서 총 31개의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28개, 일자리 사업이 3개, 청년협력을 하는 사업이 0개라는 것이죠. 그럼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문화원을 찾고 있는 이유하고 사실은 또 반대가 되는 이유도 있는 거죠. 젊은 사람들과 여러 계층과 소통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찾아오는데, 아까 김인숙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어르신을 어르신으로 오히려 가둬서 케어하는 문제로 우리가 바라봤기 때문에, 어르신이 다양한 계층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오히려 막았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경쟁에서 졌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지방문화원이 생각하는 어르신문화사업의 공통된 어떤 목적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어르신사업에 대한 목적을 이야기 할 때처럼, 경기도만의 공통적인 어떤

목적을 찾아야, 그 목적을 위한 네트워크가 강화될 것이라는 것이죠. 목적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목적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네트워크의 힘을 발휘해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목적과 방향을 갖고 있겠지만,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문화원의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어르신프로그램을 실험하고 개발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우수 프로그램을 그냥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원에 맞는 또 다른 어르신들에게 맞는 사업으로 맞춤형 어르신문화사업으로서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문화원이 어르신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경기도지방문화원만의 특화된 어르신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기존의 문화원 및 노인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이제는 지양해야 될 때입니다. 또 각 지역의 지역성을 담고 있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그 강점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문화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지역의 스토리와 정서를 가득 담은 독창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분명히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이것도 2017년도의 어르신사업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31개의 사업에서 전통문화와 관련된 사업이 12개, 또 생활예술과 관련된 사업이 15개, 향토사와 관련된 사업이 4개입니다. 실제로는 지역성을 강화시켜서 만들어낸 사업은 숫자상으로는 전통문화와 향토사라고 보면 16개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내부를 들여다보면 지역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전통문화와 같은 사업을 거의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몇 개의 사업은 앞서가고 있는 그런 의지들이 분명히 있음을 밝혀둡니다.

끝으로 경기도문화원연합회를 중심으로, 경기도가 갖고 있는 문화정책을 분석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경기도 문화원들이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르신문화프로그램만 갖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어르신사업이 굉장히 단순해질 것이고 또 기회가 굉장히 적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많은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하지만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다양한 문화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고 거기에 우리 지방문화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을 찾고 그들이 원하고 있는 방향과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일치될 때, 보다 많은 기회를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전체 31개의 시군을 6개의 벨트로 나누어서 거기에 맞춘 문화발전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문화발전계획 정책에 따라서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문화원도 전체 31개의 네트워크도 있지만, 또 권역별로 나누어지는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고 거기에서 발전될 수 있는 시너지를 모을 수 있는, 문화벨트로서의 공통점을 갖고 있는 문화원들의 강점을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르신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경기도와 함께 고민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단순히 서로의 정보와 어떤 친목을 다지는 그런 네트워크에서 끝날게 아니라, 사업을 함께 고민하고 또 분할하는 여러 가지 유기적인 네트워크로 강화했을 때,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만들고자하는, 또 경기도 문화원들이 만들고자하는 어르신 사업에 중심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서없었지만 이상 발표마치겠습니다.

좌장 : 박정근 국장께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몇몇 가지들을 이야기 해 주셨죠. 첫 번째로 어르신들의 특성을 연구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각 지방 시군의 문화원이 생각하고 있는 어르신문화사업에 어떤 공통점들을 찾아내서 그걸 하나의 목표로 해서 나가야한다는 부분, 그 다음에 지역성을 담고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게 되면 문화원만의 또 경기도문화원연합회만의 그러한 어르신프로그램의 성격을 띨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더더욱 경기도문화원연합회 31개 시, 군문화원의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함께 일해 나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4분 패널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처음 최영주 처장께서는 문체부의 예산현황을 들면서 경각심을 높여주셨고, 유설아 패널께서는 광역지자체의 경기도의 노인 관련된 사업의 현황을 얘기해주면서 우리 문화원과 문화원연합회가 조금 더 지평을 확장하고 시선을 보다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제안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김인숙 패널께서는 예산의

지속성 뿐 아니라 참여의 지속성 또 자생성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주목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변별성 있는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일거라는 얘기를 또 해주셨고, 우리 박정근 사무국장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정리를 해서 어르신에 대한 특성연구와 또 문화원만의 특색 있는 그런 지역성과 관련된 부문의 도입, 또 문화원의 강력한 네트워크 활용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현황은 암울합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놓고 볼 때에 아직 우리가 움직이고 함께 할 수 있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반부 한 시간은 패널들의 말씀을 들었고 후반부 한 시간은 각 패널께서 발표하신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들으면서 저희 모두가 구체적인 아젠다 도출을 해서, 2018년도부터는 특색 있는 우리 경기도만의 어르신프로그램 가동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서 후반부의 한 시간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관중석에, 어느 분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명수 (경기향토문화연구소장, 이하 '이') : 제가 지금까지 네 분의 패널들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다 좋은 말씀이죠. 지금 현재 패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은 그래도 좀 생활에 여유가 있고 건강한 노인들만이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요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고독사라든가 독거노인들, 기본은 빈곤층 노인들의 생활사가 문제거든요. 이웃이나 각 사회단체에 보면 노인들을 위한 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인숙 패널께서도 아까 말씀하시길 문화원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 하셨는데, 문화원은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우리 김인숙 패널께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옛날에는 '독 짓는 늙은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폐지 줍는 늙은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모든 게 그래요. 세월이 흐를수록 노인인구가 늘다 보니까, 또 돈 버는 젊은이들은 점점 줄어가고, 일본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고용문제가 대두된다고 봅니다. 저도 올해 나이가 70입니다. 1948년생인데, 월남전에도 갔다 왔습니다. 오늘 젊은 패널들한테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기본으로는 어떻게 하면 노인들에 대한 관심과 또 빈곤층의 노인네들에 대한 예우문제 등 모든 게 예산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냥 생각한 것만큼 예산이 그렇게 따라주질 않아요. 모든 게 다 돈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웃집 노인들한테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뭐하려고 도회지에 사시면서 맨 날 폐지를 주우십니까? 농촌에 일손이 딸리는데, 거기 가서 일하시면 건강에도 좋고 또 이웃이 있고. 특히 아파트촌 같은 경우는 이웃이 없어요. 아래층에 누가 사는지, 위층에 누가 사는지, 앞집에 누가 사는지, 엘리베이터에서 학생들을 만나면 인사를 합니까?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노인네들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소외계층의 노인문제를 어떻게 이끌어내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라는 큰 문제가 대두되는데, 앞으로도 우리 문화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인네들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행복감에 조금 젖어들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좌장 :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대안을 찾는데 시간을 쏟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마음을 한번 적셔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빈곤층의 어르신들, 고독사,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회에서는 이제 노인복지차원에서 정부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제 문화부분이니까 문화로 접근하면서 문화사업, 문화프로그램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인데, 사실 아주 절실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손을 못 쓴다는 안타까움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회에서 각자 자기의 맡은 바들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중요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금 향토문화연구소장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시 심도 깊은 질문과 토론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실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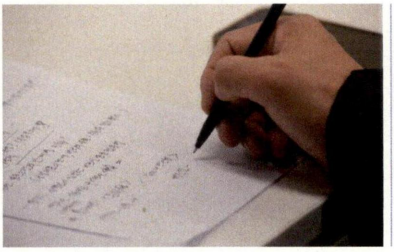
최 : 사실 〈아젠다 31〉은 키워드를 어떻게 뽑아 낼까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화원이 뭘 해야 될까.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문제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생각하면 좀 답답합니다. 단적으로 박정근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문화원연합회에서, 지방문화원에서 어르신프로그램을 어떤 걸 하냐면 어르신의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쪽은 3개 밖에 없습니다. 근데 김인숙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어르신 사업을 이런 거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는 꼭지가 무려 7개, 8개 돼요. 다시 말하면 경기도의 지방문화원에서 어르신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박정근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르신사업을 맨 처음에 만들었던 문화원의 어떤 사명감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열광할 수 있는,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고민들이 문화원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문화 활동 지원하는 쪽은 전부 치중돼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애주기별로 어르신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 내야 되느냐의 키워드도 있고, 그 다음에 세대가 통합된 형태의 어르신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 다음 어르신이 가진 적정기술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사회에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의 다양한 키워드를 뽑아내는 일련의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될 거 같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을 더 심사숙고해야 되고, 지방문화원이 고민하는 부분을 연합회에서는 한국문화원연합회든 경기도문화원연합회든 잘 받아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일련의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드는 데로 집중을 할 것이냐? 일거리를 창출해야 될 것이냐? 이건 굉장히 핫한 주제거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수혜자로 남을 것이냐? 생산자로 남을 것이냐? 그러니까 사업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냐? 사업의 주체로 될 것이냐? 의 문제는 더 핫한 문제구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문화원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문제들을 같이 오늘 논의 됐으면 좋겠고, 거기에 근거한 아젠다가 도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좌장 : 도연합회의 보충 발언이 있었구요. 또 다른 분 말씀 해주십시오.

이천문화원 회원 : 말씀 잘 들었구요. 저는 아직 노인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제 퇴직을 한 지 1년 됐는데, 저도 이제 안성에 살다가 이천으로 이사를 가서 올해 이천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요즘에 백세시대라고 퇴직 후에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길잖아요. 제가 현역에 있을 때의 일과 연계 되서 할 수 있는 것은 연령제한 때문에 못하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들을 살려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마땅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문화원에서 문화적인 활동, 이천일생이라는 글쓰기도 하고 경기야학 공부도 해 보고 그랬어요. 사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도움이 되는 것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문화원, 노인복지관, 여성복지회관, 이런 기관들의 여러 프로그램들이 중복돼 있을 거라고 봐요. 저도 교직에 있었는데 교직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지관과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활동들이 모두 중첩 돼서, 결국은 서비스의 질보다는 학생들을 나눠먹듯이 서로서로 끌어가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구요. 저도 그렇지만 문화원을 이용하는 분들은 정말 절실하게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보다는 이동성이 있고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는 분들이 와서 문화적인 혜택을 보고, 본인들이 그런 여가활동을 하는 분이 많다고 봐요. 안성에서는 정말 어려운 어르신들이 모여 사시는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노인정에 오면서 그냥 점심 어찌해 주는 거 드시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이 많더라구요. 이렇게 문화원에 와서 자기 여가를 즐기고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각 지역 노인복지관, 여성복지회관, 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중첩되지 않도록 특수성을 살리는 프로그램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생애주기형 프로그램이 참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저같이 정말 노인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퇴직 후에 사람들에게 재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그들도 뭔가 생산적인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 하는 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프로그램, 아니면 여가활동을 통해서 뭔가 배워서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문화원연합회에서도 전체적으로 그런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문화원의 정체성을 살리는 프로그램도 있고, 오늘 패널분이

이야기 한 것처럼, 문화원이라면 노인들에게 어떤 것들을 해주는 것이 다른 지역의 프로그램하고 중첩되지 않으며, 중첩이 되더라도 특수성을 살리는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노인복지관 하고 다르게 조금 더 깊이 있게 운영을 해준다든가, 요즘에는 읍, 면, 동에서도 프로그램들이 참 많더라고요.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 또한 문화원에서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중첩되는 프로그램들을 차별성 있게 운영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렇게 정말 생계형이 필요한 분들은 시군의 관공서에 프로그램이나 할 수 있는 거지, 문화원에서 그분들을 다 끌어안기에는 인력적인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나? 노인복지관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된다면 그분들의 요구가 '난 이런 걸 이런 걸 배우러 왔다'고 하면 그쪽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해주는 것도 문화원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원에서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적절한 수요와 요구가 있는 분들한테 적절한 기관을 연결 시켜 줄 수 있는 것과, 그러면서도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몇 가지하고 아홉 개 꼭지가 여기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특수성 있게 문화원의 설립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다른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적절하게 연결해주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올해 1년에 문화원을 참 많이 이용을 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개설될까 기대도 되는데, 노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평소에 느낀 것들, 좀 더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준다면, 많은 것을 하기보다 몇 가지를 질적으로 깊이 있는 운영하는 것이 타 기관하고의 차별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김 :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문화원이 찾아오시는 어르신이라는 개념에서 좀 벗어나야 될 시기가 된 거 같아요. 예전에 2005년도 땡땡땡 실버문화학교는 저희가 학교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어르신들이 찾아오기 보다는, 문화원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마을과 만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문화원들이 마을로 찾아가야 한다고 봐요.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복지관이나 이런 곳을 보면 복지관에 어르신들 엄청 많이 오시더라구요. 거기 가서 하시는 게 다 댄스, 탁구 같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본인이 그냥 참여하시는 참여자로 가신다고 하면, 그건 사회복지 쪽에서 복지관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고, 문화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마을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저희 문화원은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좀 어려운 동네를 많이 찾아가요. 찾아가서 무얼 하냐면, 어르신들과 만나면서 마을 이야기들을 듣고, 그이야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거든요. 제가 내용 정리한 것 중에 청자마을이라는 곳은 저희가 처음 마을에 들어갔더니 어르신이 방송을 하셨어요. 안내방송을 하시면서 '문화원에서 왔으니까 노인정으로 다 모여주세요' 하세요. 대전이 그렇게 향토색 짙은 마을이 남아있는 곳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을을 찾아갔더니, 어르신들이 그런 깊은 첫인상을 주시면서 '왜 방송을 하세요? 어르신' 그랬더니 자기마을에 이렇게 찾아 오는 데는 한군데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을의 어르신들하고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간 게 3년이 됐거든요. 어르신문화사업으로 시작은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불구하고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1년, 2년, 3년을 지나면서 분명 복지관과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구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3년 이후에 이 어르신들이 저는 노인 사회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아니고, 그것은 복지 쪽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면 문화 쪽에서 문화특징을 갖자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20만원의 활동비를 못 드리더라도 어르신들이 활동비 외의 것에 대한 문화적인 향유를 조금 더 갖고 가자는 생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만난 어르신들을 1년,2년,3년을 만났더니 '내년에도 또 올 거지?'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마을이 청자마을인데, 청자면 도자기 청자를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담배 청자더라구요. 담배가 생산됐던 마을인데, 담배가 생산되면서 거기 모여 사셨던 분들인데 한 번도 외부인의 출입이 없었고, 본인들 집단에서 모이시고 공장에 둘러 쌓여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노인정에서 매일 식사를 같이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사시는 집단이에요. 저희가 처음 갔을 때, 저희 그럼 이렇게 사라지는 청자를 사진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했더니, 어르신이 폴더형 휴대폰에 그 전날 산에 올라가 찍어갖고 오신 걸 저희한테 보여주시면서 '나 이런 거 찍으면서 프로그램을 좀 하고 싶다.' 고 하시면서 마을에 이런 게 너무 많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어르신, 우리 이런 것들 어떻게 풀어갈까요? 하고 만나면서 시작됐는데, 이 어르신들이 그럼 앞으로 3년을 무얼 할까 어르신들하고 고민을 했어요. 그러자 어르신이 청자, 동네사람들만 찍고 내 모습만 찍었으니까, 대덕구 전체를 노인정마다 돌아가면서 어르신들의 사진도 좀 찍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이렇게 향후 방향을 잡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는 문화원에 어르신들이 찾아오기만을, 박정근 국장님 자료 중에서 찾아오는 쪽의 프로그램들을 거의 조사를 하셨더라구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문화원이 살길을 찾아가야 된다고 봐요. 마을을 찾아가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 생애주기가 됐든, 지역특성이 됐든 타 기관과 분명히 차별성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좌장 : 얘기를 좀 정리하고 좁혀보겠습니다. 우리문화원은 어떤 특, 장점이 있는가?. 문화원에 맞는 어르신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 또 그 대상인 어르신들을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고, 주기별로 연령대별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또 경기도라는 광역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실태는 어떻고, 또 중앙정부에서의 복지차원은 어떻고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 우리가 현황을 분명하게 노인에 대한 것도 알아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아까 노인들의 특성연구와 실태 조사하는 부분들을 외부의 통계자료에 의해서만 그렇다라기 보다는, 우리들이 스스로가 그러한 조사를 해서 우리연합회 차원에서 노인의 특성연구를 해서 심포지엄에서 발표하는, 그렇게 되면 보다 노인들에게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연구할 수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원의 경우에 요즘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이 이제 시작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문화 사업이라는 것은 미래 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도 아주 중요한 미래 산업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그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문화원의 특성에 맞는 그렇게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모여서 의논을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과 문화원이 잘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을 좀 더 심도 깊게 연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 부분들을 말씀해주신 것들 정리해 볼 때는 일단은 그 두 가지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은 과연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수혜자로 그칠 것인가 아니면 생산성 있는 어떤 주체로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김인숙패널님께서 말씀하신 찾아가는 노인프로그램도 역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지역별로 선정해서 가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가 그냥 얘기만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2018년도에 움직일 아젠다를 도출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행동을 정하는 것도 아젠다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단체를 조성을 해서 이러이러한 연구의 기회를 갖자. 임의단체를 조성을 해서 진행해 갑시다. 이러한 부분들도 아젠다로서 아주 훌륭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 구체적인 아젠다를 도출 하는 데에 용어를 정리해서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진전이 있을 거 같습니다. 말씀들 해주시죠.

임상철 (전 안성문화원 사무국장, 이하 '임') : 저는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안성문화원에서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많이 뵙고, 여기 좌장님도 뵀는데, 제가 있을 때 2007년도에 실버사업을 처음 했을 때거든요. 그 당시에 실버벽화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수당지원이나 이런 목적으로 하면 생산성도 없고요. 그래서 그 당시 생각해 낸 게 그 어른들한테 그림 그리는 걸 붓 가지고 하시면 경제적인 면에도 좋다고 그래서, 벽화나 공공벽화 같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문제점은 페인트 비용이 엄청 많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지원되는 사업비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면 소재지나 아니면 면하고 학교 같은 몇 군데 진행을 했었는데, 학교 애들 시설물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면서 굉장히 좋았던 게 그네 같은 것을 칠 하면서, 학생 애들과 같이 하니까 어른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애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실버사업을 하면 꼭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청년이나 어린이들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구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그런 얘길 했어요. 공중전화 어르신이라고, 그게 뭐냐 하면 공중전화마냥 돈이 들어가야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게 어르신들한테 참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들끼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금전적인 지원이나 다른 지원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 문화원 같은데서 전체적으로 끌고 갈 순 없거든요. 아까 여기 교장선생님도 말씀하신 거처럼, 특화된 걸 하려면 진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사업을 계속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문화원 가지고만 말씀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고, 제 생각 같아선 그래요. 어떤 지원 프로그램보다 생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야 지속적으로 갈 거 같구요. 지원받아서 하는 건 한계가 있을 거 같습니다. 국장님들 두 분 계시지만, 아마 끌어나가는데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다고 손 놓을 순 없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좋은 방법 찾아서 할 수 있는 것밖엔 없을 거 같습니다.



좌장 : 자 이제 이야기를 정리 할 때가 된 거 같습니다. 패널분들 중에 더 말씀하실 분들 계십니까?

유 : 마지막으로, 오늘 오신 분들이 말씀해주신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지금 일관되게 나오는 게 문화원이 어떤 이용자들이 온다는 게 저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신 거 같아요. 경제적으로 빈곤한 층이라든지, 수동적으로 계시는 소외지역에 계신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다라고 다들 공감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서 다른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타 기관과의 차별화가 요구가 되지 않냐?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이것이라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이제 일관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문화원연합회라든지

지방문화원들이 그럼 이제 문화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노인,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할 순 없으니 필요로 해서 오시는 분들, 아까 국장님도 분석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생산자이면서 수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가질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그분들이 어떤 금전적 수혜를 받기 위해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는 게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그분들에게 심적인 만족도,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그것으로 수혜자가 되면서 그분들이 문화원 밖으로 나가서 케어 할 수 있고 같이 공동체를 엮어 낼 수 있는, 생산자가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3세대, 최근에 어르신들이 가정들이 한 곳에 살지 않고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시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저희 같은 집을 찾기조차도 어렵죠. 3세대가 사는 집을 찾기가 어려운데, 양육에 있어서 그래도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준 게 어르신들이고, 3세대가 같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이라든지 어린이기관에서는 오히려 3세대 어르신들을 찾고 있는 상황이고, 어르신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소통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걸 들어본 적은 아직 없었는데, 어르신들이 다른 곳의 문화원 몇 군데가 경기도 내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자신만의 이야기가 갖고 있으신 게 특장점이신거잖아요. 그 분들이 한 지역에 오래 사셨으면 이천에 나무를 다 조사하고 다니는 거처럼, 자기 지역의 소중한 것을 다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이 어르신이라고 판단을 했을 때, 문화원에서 이 분들이 글을 쓰는 능력이 필요하다든지, 조사도 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친밀하게 다가가서 소외계층이나 내 먼 이웃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분들에게는 수혜가 될 수 있고, 돌아오신 분들이 다시 생산을 하시는 거죠. 마을의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현대사가 다 그런 방식으로 기록이 되는 거니까, 구술사가 기록이 필요한 상황에서 예산 지원은 받을 수 있다 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고민해야 될 때라고 다들 공감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것을 할 때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노인층을 수혜자, 생산자로 나눌 것이 아니라, 이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결국 문화원의 독자적인, 최소한의 단위, 굳이 타이틀을 붙이자면 마을 어르신들의

마을 지도 그리기라든지, 진짜 이분들이 원하거나 지금 이분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쪽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고 이런 세세한 조사부터가 선행이 되어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의 말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프랑스의 에코 뮤지엄이라고 해서 70대가 평균연령이신 퇴직하신 분들이 버려진 학교 건물에서 가르쳤던 교사출신들이 다 공동체를 엮어서, 그분들이 마을 사람들을 만나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이야기를 수집하고 그분들이 갖고 있던 공책, 그때 당시 신었던 신발들,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박물관처럼 전시를 하는 공간이 있었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노령화시대와 지방의 사람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게 마을의 관광 자산화 되기도 하고, 그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이기도 하고, 새로운 공동체, 노인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축이 되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 있더라구요. 이런 것들, 해외 사례들도 반영이 되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장 : 네. 이제 정리에 착수하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 있어서 수혜자로서의 어르신, 생산자로서의 어르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수혜자로서의 어르신은 생산성이 없는 어르신을 이야기하는 것일 테고요. 생산성 있는 어르신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은 수혜자의 개념을 포함하겠죠. 생산하게 되면 그 관련된 반대급부가 있고, 또 그 부분들은 수혜를 받으니까. 생산적 어르신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수혜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상당히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강렬해서, 저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첫 번째 아젠다로 생산자로서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어르신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들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가장 강력하게 반복된 이야기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원다운 지역성 있는 어르신 프로그램 개발을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공동사업으로도 개발을 하고, 또 특화사업으로도



개발하는 그 부분들을 문화원에 맞는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개발, 지역성 있는 문화프로그램 개발을 두 번째 아젠다로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개선위원회가 잠시 임시조직으로 활동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유설아 패널께서 말씀해주셨던 네 분들과 박정근 선생이 얘기해주신 노인특성에 관련된 연구, 또 현재 노인프로그램사업은 한문연의 경우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내부 모니터링, 우리 사회의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오늘 얘기 된 것보다 조금 더 심도 깊게 심포지엄을 위원회에서 연구를 해서 열고, 그 자리에서 더 생산성 있는 그런 아젠다를 도출해 낸다고 하게 되면, 문화원연합회로 나오던 줄어들던 예산이 거꾸로 주목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번째로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31개 시군문화원이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염상덕 회장님과 처장의 긴 시간 노력으로 인해서 상호 유대관계와 정보교환은 물론 여러 가지 액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서로 유통하면서 생산성 있는 어르신들 일자리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판로가 있어야지만 되는데, 각 문화원들이 서로들 예산 잘 살펴 보면 구매해줄 수 있는 여력들이 웬만큼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그렇게 활용해 주게 되면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전국에 있는 어느 도에 광역지자체 못지않은 부분들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아젠다로 찾아가는 어르신프로그램을 특화프로그램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비문학적인 녹취를 해서 책을 발간하는 것들도 결과적으로 한 방법일 테고, 김인숙 패널께서 말씀해주셨던 여러 가지 찾아가서 함께 문화적으로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 이게 이제 문화원에서는 발품이 많이 들어야 되겠죠. 인력도 조금 더 많이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예산을 받아서 그저 아래로 통과만하는 그런 유형의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제 애정을 담아가지고 한다는 것을 다만 몇 개의 사례라도 저희가 추출해낼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물꼬를 다시 되돌릴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의 지속성 여부는 다시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기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의 자생성, 자발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문화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에 아젠다로 삼게 되면 패널분들과 함께 참석하신 분들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간과한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말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으시면 우리가 이상 6가지 아젠다를 추출한 것으로 오늘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 관련된 심포지엄을 마치겠습니다.


2017 아젠다31

[섹션 3]
경기도어르신사업의 로드맵 만들기

1. 경기도 지방문화원은 생산자로서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어르신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 문화원다운 지역성 있는 어르신 프로그램 개발을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공동사업으로도 개발을 하고, 또 특화사업으로도 개발하는 그 부분들을 문화원에 맞는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개발, 지역성 있는 문화프로그램 개발한다.

3.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개선위원회가 잠시 임시조직으로 활동한다.

4.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31개 시,군지방문화원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일자리 창출 부분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한다.

5. 찾아가는 어르신프로그램을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하기로 한다.

6. 어르신들의 자생성, 자발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문화원은 일정한 역할을 하기로 한다.

[아젠다 31 _ 섹션 Ⅳ]

지방문화원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_ 지역문화커뮤니티활동가양성과정<품앗이안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본 섹션은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추진한
<문화체육자원봉사매칭시스템사업인 '문화품앗e'>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자원봉사 거점사업을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지원받아 추진한
'지역문화커뮤니티활동가양성과정'<품앗이안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구체적
아젠다 도출을 위한 포럼을 기록한 내용이다. 지방문화원의 사업추진체계의
근본적 전환, 즉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대전제 하에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를 모색하는 포럼으로 조직하고자 했다.
_편집자 주

포럼 <아젠다31_ 섹션IV>

지방문화원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_ 지역문화커뮤니티활동가양성과정<품앗이안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가. 지방문화원이 시민 주도적, 잘발적, 창의적, 지역적 활동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 아젠다 설정을 위한 포럼

나. 아젠다 채택 및 선언문

다. 시민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의 의미 _ 조두호(관인 플레이그라운드 예술감독)

라. 문화향유를 넘어 시민창작예술의 시대로 _ 박성희(인천 남구학산문화원 사무국장)

마. 사례발표 Ⅰ : 시흥 품앗이안프로젝트가 문화원, 그리고 시민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었는가 _ 이병권(시흥문화원 사무국장)

바. 사례발표 Ⅱ : 스스로 즐기고 함께 나누는 힘 <알고 타는 의정부경전철 역명이야기> _ 서영진, 유정순(의정부문화원 품앗이안)

사. 사례발표 Ⅲ : 차와 함께하는 노강서원 이야기 _ 고경화, 이진욱, 김춘옥, 정갑자(의정부문화원품앗이안)

가. 지방문화원이 시민 주도적, 잘발적, 창의적, 지역적 활동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 아젠다 설정을 위한 포럼

제4섹션 | 일시_ 2017. 11. 28 (화) 16:00~18:00 | 장소_ 안성시 안성미디어센터 2층 제2강의실 | 담당_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연구원 김정희

주제_ 지방문화원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주요패널

_ 좌장 : 양원모(경기도어린이박물관 관장)

"시민문화활동가 양성을 통해 지방문화원 사업추진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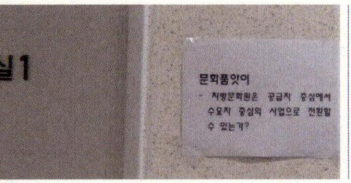
_ 패널 :

1. 박성희 (인천남구학산문화원 사무국장)
2. 조두호 (관인공동체&문화재생연구소 예술감독)
3. 이병권 (시흥문화원 사무국장)
4. 사례발표 (의정부문화원 품앗이안 프로젝트 참가자)

_ 참가자 : 지역문화커뮤니티활동가 양성과정(품앗이안프로젝트) 참가자_ 안성, 의정부, 시흥, 화성지역

시간 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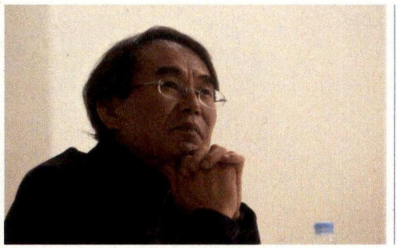
시간	발표자 | 토론자	내용
14:00~14:02	좌장 _ 양원모 관장	개회 및 포럼취지
14:02~14:10	양원모 _ 경기도어린이박물관장	피어라 커뮤니티 사례를 통해 본 시민활동가 양성의 가치와 의미
14:10~14:20	서영진, 고경화 _ 의정부문화원 품앗이안 프로젝트 참가자	품앗이안 프로젝트 사례발표
14:20~14:30	이병권 _ 시흥문화원 사무국장	시흥 품앗이안프로젝트가 문화원 그리고 시민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었는가?
14:30~14:40	박성희 _ 인천남구학산문화원 사무국장	지방문화원은 과연 공급자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수요자 중심으로 바뀔 수 있는가
14:40~14:50	조두호 _ 관인공동체& 문화재생연구소 예술감독	시민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의 의미
14:50~15:50	전 체	지방문화원이 시민주도적, 자발적, 창의적, 지역적 활동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 아젠다 설정을 위한 포럼
15:50~16:00	좌장 _ 양원모 관장	아젠다 채택 및 선언





최영주 (경기도연합회 사무처장, 이하 '최') :
경기도에 있는 지방문화원들이 사업의 영역을 31개 키워드를 뽑아 봤습니다. 키워드 내에서 올해 4개정도 키워드를 가지고, 관계자들만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각각의 이야기들을 녹취를 해서, 이후의 자료집을 발간을 하려고 자료들을 간단하게만 하고, 특별히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지방문화원이 '내년도엔 어떤 일들을 하자'하는 아젠다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번 네 번째 섹션에 '지방문화원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화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2017년에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고 답답한 일일 수 있겠지만,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좌장으로는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 관장님이시고, 경기도 문화 재단 내에서 문예진흥 작품을 하시면서, 재단 내에 피어라 커뮤니티와 관련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잇는 역할로 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분을 좌장으로 모셨습니다. 어린이 박물관 관장을 맡고 계시는 양원모 관장님입니다. 저는 토론이라기보다는, 관계자들이 서로 중심이 되어서 깊은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념해주시고 마지막에 좋은 아젠다가 도출이 돼서, 내년도에 이 결과를 바탕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원모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관장, 이하 '좌장') : 안녕하십니까? 안성의 멋진 아트홀이 12월 7일에 오픈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문화원 분들이 뜻있는 자리를 갖게 돼서 기쁘고 초대해주셔서 반갑습니다.

저는 안성에서 1996년도부터 4년 동안 살았습니다.
안성에 보면 믿음의 마을이라고 이대건 신부님이 성당 안의 마을에 칩거하면서 4년간 살았는데, 그때가 제 시절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안성에서 품을 넓혀 주셔서, 시골집에서 이제 장인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외지인으로 그 마을에 녹아들어 가는데 3년 걸렸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제 처에게 꽃을 코스모스 심으라고 하고, 저는 효도관광으로 온천 따라가서 등도 밀어 드리고 하면서 삼년이 지나니까, 마을 분들께 받아 들여 졌습니다. 마을 분들께 받아들여진 그때부터 이 마을에서 활동해도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도산 저수지 중심으로 활동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기독교 농민회 같은 농민회가 있었습니다. 농민분들이 추곡수매 할 때 백만 원씩 떼서, 한 3억 정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젊은 날 의료 봉사하러 왔던 대학생들이 나중에 의사가 돼서 3억을 만들어, 농민들이 만든 3억과 합쳐 6억을 만들어서,의사 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베이스가 원체 예술 쪽 베이스인데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안성에서 처음으로 '안성무료생활협동조합'과 '안성 농민 병원'을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드시면 되지 저를 왜 찾아오셨냐 했더니,
'안성무료생활협동조합과 농민병원을 널리 알리고 싶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술제를 열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기도 일대에 있는 제 네트워크에 있는 작가 분들을 이십

여분께 연락해서 '활생 미술전'이라고 전시회를 열고, 당시에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성시이지만, 그 당시에는 안성군이었는데,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군단위에는 안내려온다고 하시는 걸,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연장을 빌려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공연을 하면서, 농민병원이 출발한다는 것을 알리는 공연을 했습니다. 그 문화제의 이름을 '활생예술제'라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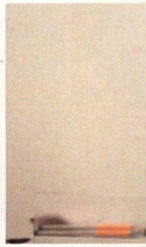
지금은 농민 협동조합이 안성은 물론이고, 제가 지금 도민 미술관 일을 하는 안산에도 있고, 수원에도 있어서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들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라고 이야기 하는 상호 의존적인 집단, 특히 서로와 서로가 챙길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자기 보존을 위한, 자기 개발을 위한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하나의 사례들입니다.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문예진흥 사업도 확대되고, 문화원도 함께 하자는 느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오니 굉장히 반갑고, 사랑방 모임같이 오붓한 분위기라서, 제가 나중에 패널로 발제하신 분은 따로 인사를 드리겠지만, 이제 서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병권 (시흥문화원 사무국장, 이하 '이') : 안녕하십니까? 시흥문화원에서 온 이병권입니다. 오늘 패널로 와서 이야기 할 것은 많이 없고, 인사는 이정도 하겠습니다.

서영진 (의정부문화원 사례발표자, 이하 '서') :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정부 문화원에서 온 서영진입니다. 사실 저희 원장님께서 어려운 자리가 아니다, 그냥 가도 된다 해서 왔는데, 이렇게 어려운 자리인지는 몰랐습니다. 발표를 잘 할 수 있을지, 좀 실수하더라도 유치하더라도, 좀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장 : 두 분이 사례발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고경화 (의정부문화원 사례발표자, 이하 '고') : 의정부 문화원에서 고경화입니다. 저도 발표자로 왔습니다. 저희 의정부를 소개해 드리고 방문을 하실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추옥 (의정부문화원 참여자, 이하 '참여자') :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문화원에서 참가자로 참석한 김추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가겠습니다.

박정근 (의정부문화원 사무국장, 이하 '박') : 안녕하십니까? 저도 의정부 문화원에서 왔습니다. 의정부 문화원 사무국장인데, 사실은 전 타임에 패널로 왔었는데, 이곳에 저희 가족분들이 오셔서 그냥 참석했습니다.

손채수 (작가, 이하 '참여자') :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에서 행궁동 레지던시에 작가로 있는 손채수라고 합니다. 오늘 열심히 공부하고 잘 듣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희 (인천남부학산문화원 사무국장, 이하 '희') :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남부학산문화원 사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좌장 : 학산에서 마당극 놀래라고 생활예술동아리를 만들어 왕성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중추적인 일을 맡으신 분입니다.




조두호 (관인공동체&문화재생연구소 예술감독, 이하 '조') :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는 곳은 오산이고, 개인적인 일은 용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최북단에 있는 의정부를 살짝 비켜서 왔는데, 포천에 관인면이라고 있습니다. 농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철원 경계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서 제가 일주일의 반을 거주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두호입니다.

좌장 : 조두호님은 수원시 미술전시관에서 큐레이터로 계셨고, 공공 예술 프로젝트를 향상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붓하게 좋은 분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논의해야 부분들이 '아젠다 31'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마 31개 시, 군 문화원과 관련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 문화원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가 공식의 테마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제 4섹션인데, '지방문화원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문화 활동가 양성을 통해서 지방문화원 사업의 성격을 변화시켜야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은 아마 대 전환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 단체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문화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광복이 된 직후 미군정 때, 문화원이 설립이 되어서, 해방 이후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저도 젊은 날 문화원에서 하는 향토 문화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로 도움을 많이 받고, 지금도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 곳이 문화원입니다. 사실은 문화원이 둥지가 돼서, 예술단체들도 거의 형성돼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가 사실 좀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의 공급자 중심의 문화원의 활동에서 앞으로는 시민사회에서 요구되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호흡 맞추면서 하려고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린인데, 아마 의정부의 사례발표를 듣고, 그 이후에 토론을 나눈 다음에, 아젠다 추출을 위한 논의도 있을 예정입니다. 제가 좌장을 맡아서, 시작할 때 소개도 하고 같이 하는 것이 피어라 커뮤니티였습니다.

경기도는 의외로 전국단위의 광역도시와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전국에서 다양한 분들이 올라오셔서 이미 알고 계시듯이, 서울보다 더 인구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특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특성으로 하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섞이고 또 나름대로 상부상조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종교배라고 하는데 혼종이 일어납니다. 혼종이 일어나면 사실은 생물학에서는 접종 강세라고 있습니다. 의외로 혼종이 일어났을 때, 두뇌 감성 쪽으로 기본적으로 정보도 풍부하게 갖고 있고, 잡종 강세로서 역동성을 갖는 지역인데, 그래서 보통 경기도를 이야기 할 때, 다양성, 혼종성, 그 다음에 역동성, 실험성이라고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특성이 사실은 저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정조 시대 때 문예 진흥이 일어날 때에도 당시 실학자들이 거의 경기도에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곳, 새로운 문물과 문물이 만나는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재된 곳에 문화예술이 응축되는데, 경기도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학 때도 그렇듯이, 지금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게 아마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 재생, 마을 만들기 이런 것의 베이스가 됐던 부분들이 공공 예술이라든지, 공공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을 전국에서 가장 발 빠르게 실험하고 확산시키고, 결이 다른 다양한 문화 단체들이 서로 호의적 관계로 풀어온 곳은 아마 경기도만한 곳이 없을 것입니다. 다른 데라면 문화단체들이 서로 경쟁적 관계인데, 경기도는 한편으로는 경쟁하지만, 한편으로는 호의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피어라 커뮤니티를 검토했던 부분들은 공동체에 대한 문제제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사회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중앙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니, 제일 일순위로 올라왔던 부분이 의외로 '자연을 살리자'였습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정년을 앞두면서, 그분들이 자신이 어렸을 때 개천에 뛰어 들어가 멱도 감고 놀 수 있었고, 한강 같은 데서도 배타고 가족들이 야유회하고,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도 아주 좋았고, 공기도 좋았고, 구태여 물 안 사먹어도 되는 좋은 자연, 그래서 '자연을 살려 달라'는 것이 일 순위였습니다. 이 순위가 '공동체를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이웃끼리 굉장히 정감 좋은 관계를 가졌고, 한국 사람들 정이 많다 그랬는데, 다정다감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작은 계모임부터 품앗이 이런 걸 하면서, 국가가 사회 안정망이 부실해서 책임지지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온 지역사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것을 형성해서 이웃과 함께 이웃사촌같이 지냈습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구가 뭐였냐면 '사람만이 아니라 동식물도 잘 살 수 있게끔 배려해주고, 더불어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도 두 번째 나왔던 공동체 부분입니다. 공동체가 해체되어가고 있고, 소멸되어가는 공동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새로운 공동체는 어디로부터 맺어지고 갈 것인가? 어떤 분들은 상호 의존적인 것으로 공동체를 이야기하지만, 외국의 사회학자는 공통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태학자들은 공생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라는 사회적 존재들은 어차피 혼자 살 순 없고 더불어 살게끔 그렇게 진화해 왔고, 더불어 같이 잘 살기 위해서는 커뮤니티를 검토 안할 수 없어서 그것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살리기에 가장 적합한 문화와 예술 활동이 무엇일까? 라고 검토하게 되니, 공동체 기반 예술이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기반 예술은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시골에 가면 풍물패 두레패라고 하죠? 공동체 기반의 예술 활동과 민화도 다양한 공동체 기반의 예술과 문화입니다. 그래서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3개 기초 문화 단체 기초 문화 재단과 손을 잡고, 경기도를 투어하면서 실천적인 업적을 가졌습니다. 그 자료집이 이것으로 엮어져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논의와, 공동체 기반 예술에 대한 이야기와 기반과 문화 예술을 하기 위한 기획자에 대한

소양이나 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문화원에서 이제 수요자 중심으로 시민사회 시민에게서 올라오는 것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셨는데, 이번에 보니, 더 진전되어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품앗이라는 것을 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례발표부터 들어보면서, 이것이 내표한 가치나 의의를 나누고 커뮤니티에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가졌던 의미, 뜻 이런 것들도 상호 연계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시흥 품앗이안 프로젝트 문화원, 시민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었는가?
에 대한 이병권 시흥 문화원 사무국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이 : 반갑습니다. 문화 품앗이가 저희만 해당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문화품앗이는 현재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지방문화원 몇 개 문화원들과 협력해서 하는 프로젝트로, 지역문화원을 상징하는 명칭이 품앗이안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사례발표라고 생각하진 않고 왔는데 사례가 됐네요. 시흥 품앗이안 프로젝트가 우리 문화원과 시민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었는가? 그런 주제로 접근하다 보니 사례라고 하면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2년차 진행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프로젝트가 진행된 것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초창기에 저희 문화원에서 시작을 할 때는 연합회 내에서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문화 품앗이를 영어 e로 해서, 문화체육자원봉사 및 체제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전국에 확산시키려고 하다 보니, 그게 1365라는 자원봉사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온라인 구축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터넷으로만 구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갖고 있는 조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문화체육 쪽에서 이걸 다 진행할 수 있는가?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사무국장들이나 많은 분들이 토론을 하면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히 지원 내에서 이걸 꼭 해야 하는가 하는 필요성, 인센티브개념 이런 것들이 추가되지 않으면 이 문화자원봉사 시스템이 활성화 될 수 없다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회에서는 국고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어느 정도의 성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광역 단위로 해서 전국의 몇몇 광역 문화원연합회를 통해서 성과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시흥 품앗이안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연합회에서 일정부분을 기획을 하고, 협의체라는 조직을 마련하여, 저희가 파일럿 사업을 시행할 지방문화원으로 2016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일단 사업 명칭을 정할 때, 이 사업을 방향을 어떻게 잡으면 좋겠는가? 지방문화원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사회적인 요구이고 변화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사업 명칭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품앗이, 우리 전통개념에 있어서 품앗이는 노동의 상호교류 형태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자원봉사 모임을 좀 강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품앗이안 프로젝트'로 명명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일단은 지역에 활동하는 커뮤니티 활동가들이 많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 사람들이 단순하게 문화 활동만을 하는 것에 한정을 두진 않았지만, 각각의 활동들을 통해서 커뮤니티 활동가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보자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각자가 구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 그 고민에서 계획이 나오고, 그 계획을 통해서 실행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으로 가자고 해서, 처음 진행을 할 때의 핵심은 우리 협의체를 통해 방향을 잡은 것들에 대해 지역 내 커뮤니티 활동가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에게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하려면 워크숍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준 이천문화원 사무국장님을 통해서

파일럿 워크숍을 진행을 했고, 실제로도 파일럿 워크숍을 통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생각, 그리고 문화를 통한 자원봉사는 또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생각, 그리고 내 개인이 자원봉사라는 것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동기부여 내지는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는데 있어서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었던 좋은 워크숍이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역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모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활동비를 크진 않지만 1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각자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대한 결과물을 제출해서 결과물을 얻었는데, 그게 자료집에 보시면 2016년 시흥 품앗이안 활동과 2017년 2차 시흥 품앗이안 활동들이 내용들은 제가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서 낸 결론은 아니고, 어쨌든 제가 이분들과 직간접적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나름대로 생각한 결과입니다.

이 시흥 품앗이안 활동은 일단 첫해년도 파일럿을 시행할 당시 개념을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개념을 잡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것은 이동준 국장의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 그리고 품앗이안에 대한 개념을 파일럿 워크숍을 통해서, 이 커뮤니티 활동가들이 시흥 품앗이안을 하면서 문화 활동가로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유홍숙씨 같은 경우인데, 이분은 큰돈도 아닌데 10만원을 가지고,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쓰이지 않는 공간을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놀이방을 활용한 작은 축제형태까지 기획하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까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작은 단위의 마을 축제까지도 만들 수 있는 사례가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고, 이걸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품앗이안을 하면서 계획을 갖고 한 결과에 대한 것을 받아보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보통 자기가 관심을 갖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활동을 잡고, 계획을 하고, 활동 문화를 이어 가는데, 이런 유홍숙씨 사례 같은 경우엔 단순히 재능을 넘어선 기획까지도 할 수 있었다는 점이 특이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들이 2017년에 가서는 유홍숙씨 사례처럼 큰 사례는 안 나왔지만, 점차적으로 파일럿 워크숍을 통해서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일단은, 이 문화 품앗이안 자체가 문화체육자원봉사 시스템은 1365에서 매칭한 것인데, 단순히 1365를 끌어와서 하려고 했던 것을 탈피해서, '문화 자원봉사는 일반 자원봉사와는 다르다'라는 차별화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어떤 모습이 다르냐? 우리가 기존의 순수한 자원봉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의 자원봉사는 주체성 자발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자발성 때문에 주체적이라고 말 할 수 있겠지만, 완전한 주체성을 갖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면 양로원이라던가, 환경 정화와 같은 활동들만 생각 하는데, 그런 것들은 주체적인 생각의 발로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들에 의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자원봉사 품앗이안 프로젝트를 하면서 얻은 것은, 본인이 직접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따라서 실행까지 이어지니까 매우 주체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하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꼭 문화원에서 할 필요는 없다. 문화원에서 할 수 도 있지만, 공간의 제약이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특징을 갖게 되니까, 그동안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공급자 중심의 문화정책 문화 사업들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문화 사업도 가능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문화원이 이런 일들을 많이 안 해 줘도 시민들은 많은 혜택을 받고 삽니다. 시흥시민들은 시흥시가 평생학습도시이기 때문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고, 거기다가 우리 시장님이 또 박원순 시장님을 아주 사랑하고 계셔서, 박원순 시장이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일도 꽤 됩니다.

참이슬 아파트 마을 사업도 있는데, 경기도지사까지 다녀 갈 정도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의 마을 사업이 활성화가 되어 주목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여한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계획도 하고 실행까지도 다양하게 이어져왔습니다. 그 영향으로 2016년과 2017년 각자 개인들이 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본인들이 이제 본인의 재능을 가지고 다양한 문화 행사들을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 문화자원봉사 측면은 단순하게 일상적인 형태가 아니라 정말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나눔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각자가 생각하고, 각자가 하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이 돼서, 그것이 수요처가 발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요처가 욕구를 가지고 이러 이러한 활동들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접속하셨을 때 할 건지 말건지에 대한 자발성만 요구 합니다. 하지만 문화라는 것은, 본인이 본인의 관심과 본인의 뜻에 따라서 수요를 만들고, 그 수요를 만듦을 통해서 나눔과 공동체적인 활동을 발현해 나갈 수 있다는 특징을 통해서, 이젠 우리가 많은 화두를 가지고 있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에 대한 생각, 그리고 문화자원봉사는 일반자원봉사랑 좀 달라야한다 라는 차별화, 그런 것에 많은 시선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를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에 이런 것들이 녹아지게 되면, 그거 하나로도 우리 삶의 가치라던가 방향이 많은 곳에서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시흥 품앗이안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변화 했는지 실제 시민들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본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장 : 문화자원 매칭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에서 출발하셔서 지금 시민들이 자발적인 자기실현 욕구를 드러내는 건강한 사례까지 끌어오셨는데, 거꾸로 이런 발표를 하시는 것 보니 문화원이 작업을 더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원에 많은 자원들이 있지만,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역사에 특화돼 있다 보니, 문화 행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적습니다. 그러다보니 저는 간섭보다는 문화 방임주의 쪽으로 많이 서 있는데,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자발적인 동력에 의해서 스스로들이 할 수 있는, 정말 우리 문화원이 공급자 중심보다는 플랫폼과 같은 형태 특히 우리가 협의체를 통해서 개념을 확장할 때 많은 도움이 됐던 것이 처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생활문화랑 많이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생활문화적인 시스템이 정말 우리 문화 사업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다보니까 이 '품앗이안'이라는 것이 앞으로 문화원의 사업에서도 전부일 순 없겠지만, 정말 시민들이 문화원을 필요로 하고 문화원이라는 곳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쪽으로 우리가 많은 아이디어나 생각을 모아간다면 어떨까? 라고 생각해봤습니다.
꼬리표 없는 조건 없는 시드머니(종자돈)를 가지고서 나름대로 자발적으로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도 사업을 하시거나 확장해 가시려면 스스로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기획하고 조직하고 어떻게 해 나갈 건지에 대한 아주 좋은 선례가 나타났습니다.
품앗이안 이라는 사업이 시흥, 안성, 의정부, 화성 네 군데서 시범적으로 진행된 거라고 하시는데, 의정부에서 오신 두 분께서 실제로 활동한 품앗이안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례발표 해 주시겠습니다.

서 :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의정부에서 온 서영진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례발표가 아닌 활동가 발표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안성에 태어나서 오늘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안성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 조금 알아봤는데, 안성맞춤이라는 주문한 사람에 뜻에 맞춰 잘해준다고 해서 안성맞춤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성에는 유기가 유명하듯이, 제가 살고 있는 의정부에도 굉장히 유명한 게 있습니다. 바로 부대찌개입니다. 혹시 의정부에 와서 드셔 보셨나요? 오셔서 꼭 드셔보세요. 10월에 오시면 저희 문화원에서 주체하는 회룡문화제라고 하는 전통 축제가 있으니, 와서 문화제도 보시고, 부대찌개도 드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프로젝트의 주제를 '알고 타는 의정부 경전철 역명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활동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사람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제 이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났는지, 저의 아버님께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저의 이름을 서영진이라고 지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이름에도 나름 어떤 의미가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름이 사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도 가치고 있습니다. 땅의 이름은 지명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지명도 사람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연히 의정부의 역사를 알게 되어

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명공부를 해왔고 또 과거 의정부엔 어떤 사람들이 살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들 속에서 자연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것을 말하는 것을 가지고 의정부 시민들이랑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었다는 의미에서 주제를 '의정부 경천절과 함께하는 역명이야기'라고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명공부를 하다가 제일 먼저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집 주소입니다. 원장님께서 보셨던 그곳이 신곡동입니다.
제가 신곡동에 살고 있는데 추동이라는 도로명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곡은 왜 신곡이고 추동은 왜 추동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신곡은 신촌이라는 곳과 발곡이라는 두 마을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입니다. 신곡동 안에는 신촌과 발곡 뿐만이 아니라, 많은 여러 마을이 자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곡동이라고 묶이면서 자신들의 마을이 신곡동 안에 묻혀버린 것입니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그 안에는 같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1914년 일재시대 때 자신들의 행정 편의상 이렇게 지명을 바꾸자 통폐합을 시킨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많은 문화재도 소실 됐습니다. 그런데 지명도 그 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는 추동이라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과연 이 추동이 뭘까? 추나무 또는 다래나무라고 이야기 하는데, 사실 이 나무는 잘 모르시는데 여기 샘플을 가지고 왔습니다. 추나무의 열매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것은 호두고 이쪽에 있는 것이 열매입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지압용으로 많이 쓰셨던 열매입니다. 이 다래나무 추나무의 특징이 재질이 굉장히 단단해서, 스님들의 밥그릇 발우 혹은 바리때라고 하죠? 그것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과거 저희 동네에는 추나무가 굉장히 많고, 추나무를 재배해서 바리때를 만들어서 팔아 생계를 유지했던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도로 명 주소를 정할 때, 그 마을의 특색을 잘 이야기 해주는 것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을엔 이런 유물이 있었어. 이 마을엔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 이 마을엔 자연환경이 이랬어. 라고 하는 걸 정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곡동이 일본에 의해서 이름이 사라지거나 존재감이 없어졌다면, 도로 명 주소는 자신들의 마을의 이름을 하나씩 꺼내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명공부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됐던 책은 의정부

문화원에서 낸 책으로, 여기에 회룡 문화라는 것이 있는데, 의정부의 지명 하천, 산, 동네 이름이 왜 그렇게 지어졌는지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판넬 작업을 하였고, 판넬 작업을 한 것을 가지고 의정부 경전철 회룡역에서 활동 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이 두 칸밖에 되지 않는데, 사이즈는 굉장히 작아 열다섯 정거장입니다. 가운데 보시게 되면 물줄기가 보이시는데 중랑천입니다. 중랑천을 중심으로 동쪽에서 서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순환하는 아주 가벼운 전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기 1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곳인 회룡역이라고 되어있는 곳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데, 활동을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잘 보셨습니까? 저 날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 재미있게 잘 마쳤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고 나서 나타낸 성과는 시민들이 지명에 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설명해 드리면, 아 그래요? 그런가요? 하셨고, 그럼, 그 다음 역은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시거나, 제가 어디서 내리는데 그 역은 왜 그렇게 지어졌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이 꽤 많았습니다. 어르신들은 환경에 관한 지명에, 학생들은 역사에 관한 지명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의정부 지명의 유래에 관해서 의정부가 왜 의정부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시분이 많아서, 의정부만이라도 그 의정부가 이래서 의정부입니다 라고 확실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로 사실 판넬을 가지고 다니면서 설명해 드렸는데, 전시하기에는 좀 작았다는 데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의정부의 배차간격이 4분에서 5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명의 시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몇 시까지 해요? 또 언제해요?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역사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이걸 다 기억할 수가 없다. 대신 사진을 찍어가도 되겠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원문제였습니다. 설명하는 사람, 반겨주는 사람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향후 계획은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의정부 경전철 역명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정형화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월 1회나 2회 순회를 하는 것, 또 역을 좀 돌아보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두 번째 사실 저는 의정부 문화원에 소속된 문화 관광 해설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사회 수업으로 우리고장 바로알기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 고장의 역사에 대해 탐방하고 공공시설을 탐방하는 것에 해설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학년만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요즘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를 많이 탐방합니다. 외부가 아닌 바로 우리 문화 고장 마을 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코스를 선정해서 '우리 마을 바로 알기'라는 사업을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발표는 마쳤고, 저의 마지막 소감은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해서 좋았습니다. 저는 의정부에서 태어났고 5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의정부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 많이 배우게 되었고 의정부를 사랑하는 그런 애향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살고 계신 주소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무사히 잘 마치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장 : 문화 관광 해설사로서 축적된 저간의 지식이나 경험에 대해서 드러난 것 같은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선생님께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해보시겠다고 기획을 하신 거고, 함께하신 네분도 그렇습니까?

서 : 사실 활동가로서 저하고 한 분 유정 선생님이 같이 활동 했는데,

보조로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이랑 3명이 같이 하다가, 나중에 한 분이 더 오셔서 4명이 같이 했는데, 4명이 하니까 잘 돌아갔습니다. 3명이 할 때는 제가 설명이 끝나도 기다리고 계시면 설명을 해드리는데, 전철을 타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래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 계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좌장 : 경전철에 초점을 맞추신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까?

서 : 네. 사실 의정부 경전철에 대한 선호도는 조금 안 좋습니다. 러시아워 시간 이외의 시간엔 바쁘지 않다 하는데, 프로젝트를 하는데 경전철에 초점을 맞춘 것은 의정부 경전철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했습니다. 또 마을의 이름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를 잡아 보자 해서 경전철을 했습니다.

좌장 : 문화원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활동가가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서 : 네. 저하고 유정선생님은 지명공부를 계속 해 왔는데, 두 분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했고, 저는 이 회룡문화가 굉장히 잘되어 있어서 시민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좀 연습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좌장 : 프로세스가 의정부 문화원에서 이러한 것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기획안을 제출받아 기획안을 보고서, 괜찮은 기획안을 지원해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시드머니만 갖고 알아서 기획하신 것입니까?

박 : 전자가 합쳐져서 있는데, 원하시는 거, 개인 기획자로서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싶으신 분들 모여라 해서 모이신 거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사업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원하시는 기획서를 작성 그러니까 어느 분을 선정 안선정이 아니고 작성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 가신거고 저희는 시드머니만 전달 된 것입니다.

좌장 : 좋은 이야기 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의정부 지역에서 고경화 선생님께서 참여자로 활동하신 내용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화원에서 관광해설사로, 예절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7년 문화 품앗이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다 오시지는 못했지만 함께 활동하신 분들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김춘옥, 정갑자 이렇게 4명이 함께 활동을 했고, 앞에서 의정부 지명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들으셨다면, 이번에는 저희 의정부 우리 고장에 있는 문화재를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저희는 한복을 곱게 입고, '차와 함께하는 노강서원 이야기'를 프로젝트로 잡았습니다. 의정부에는 서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노강서원인데, 조선시대 서원은 교육기관입니다. 교육 기관 중에서도 사립학교, 중등교육 기관에 해당됩니다. 이곳 노강서원은 조선 숙종때 문신이셨던 박태보 선생님은 기리기 위한 사당 형식의 간략한 서원입니다. 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박태보 선생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보선생님은 숙종 임금이 왕후인 인현왕후를 폐위하자, 이에 폐위를 반대하는 상소문을 앞장서 작성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노한 숙종 임금이 박태보 선생님을 잡아다가 심한 고문을 하고 진도로 유배를 보냅니다. 가는 도중에 노량진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때가 숙종 21년이었는데, 그 후 5년 뒤에 인현왕후가 다시 복위되면서, 죄인으로 몰렸던 박태보 선생님은 영의정으로 추증되고, 문열공 이라는 시호를 받게 됩니다.
숙종 21년에 노량진에 박태보 지사라는 것을 짓고, 정조 15년 1791년도에 노강이란 사액를 받게 됩니다. 원래 노강서원은 노량진에 있었는데, 6.25전쟁 때 소실되면서, 1969년도에 이 분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지금의 장안동으로 후손들에 의해서 옮겨져 복원 된 것입니다. 서원의 양식은 선현을 모실 수 있는 사당과 학생들이 잠을 잘 수 있는 기숙사에 대한 형태와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방, 강당과 서적을 보관하는 장경각이 다 갖추어 있어야 했는데, 이곳 노강서원은 노량진에 있을 때는 학교에 규모를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만 이곳으로 옮겨 오면서 사당과 동재, 서재 삼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원은 제사를 지내고, 잠을 자고, 공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강서원은 흥선대원군 때 서원 철폐에도 폐쇄되지 않은 47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역사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이 노강서원을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이 찾아와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정부 오시게 되면,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즐길 수 있는 여행을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노강서원을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나 전철 타고 의정부 장안역에서 하차하시면, 수락산 등산로를 따라서 올라가다보면 고즈넉한 곳에 노강서원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락산 등산로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많은 등산객들의 왕래 잦은 곳이지만, 역사가 있고 가치 가 있는 노강서원을 찾는 방문객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문이 닫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문화 품앗이 프로젝트로 인해 닫혔던 우리 고장의 문화재를 열어서, 많은 방문객들이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고유의 한복을 입고 따뜻한 차를 나누면서, 방문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와, 방문객들의 여유와 쉼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방문객들의 호응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색다른 경험이기 때문에, 많이들 들어 오셔서 참여도 해 주시고, 호응도 많이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참여한 저희도 보람을 느꼈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꾸준히 진행된다면 우리지역주민 뿐 아니라, 역사나 관심을 가지고 문화재 관심을 갖고 찾아오시는 방문객들에게 조금 더 우리 고장의 문화재를 알리고 방문객들과의 소통에 시간이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이것이 조금 더 꾸준히 진행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방문객들의 이런 반응과 관심 호응도를 찍은 동영상을 저희 활동한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다보니까 의외로 관심이 많으시고 일부러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닫혀져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사업이 활성화 되어서 문화재를 알릴 수 있는 홍보의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좌장 : 의정부는 역사가 오래된 도시라서 그런지, 의정부에서 마을 활동하신 분들은 애향심도 두텁고, 지역민으로써의 자긍심, 이런 것들이 초점이 많이 맞춰져있어 보기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초점 자체가 지방문화원으로써 문화원 사업의 성격이 바뀌는 게 가능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것이 시민문화와 관련된 활동가를 하시든, 기획자를 하시든 품앗이안이나, 이런 분들이 양성이 되면, 지방 문화원에서 가능하냐? 그래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인천에서 오신 박성희 선생님께서 본격적으로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인천의 사례가 학산 바닥에서 축적된 것이라 굉장히 방대한데 발제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희 : 간단하게 하고 토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좌장님께 저희 발제를 의뢰를 받았을 때, 며칠 안 된 상태에서 제목을 보니,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다른 전체적인 시스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학산문화원에서 지난 5년간 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발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할 일을 넘어 시민 예술 창작 공동체, 시민 예술창작센터를 중심으로 한 학산문화원, 저희가 2년 동안 했던 것입니다.
2012년에 준비한 오래된 미래 마당을 선택을 했고, 문화예술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급자 중심, 수요자 중심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문화와 지역의 패러다임이 전세계적으로 공동체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이 되고 있고, 사람과 문화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활성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사회가 성장하면서 집단지성 사회로 변화되면서, 예술이 향유자를 넘어서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경계를

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공유자 중심에서 지식기반 창의적인 시대에서 문화예술이 통합 예술로써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주민 중심의 지역 문화가 문화기반시설과 상업 문화관광 이전에 주민들의 자체 역량들을 어떻게 확보해 낼 것인가?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문화를 보는 안목과 창의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전체적인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민주주의, 문화향유를 넘어서 스스로의 문화 민주화가 아니라 문화 민주주의 시대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학산문화원이 다른 문화원과 달라서 그 배경을 좀 얘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03년에 출발했는데, 출발 하면서 위탁 시설로 학산 소극장을 설립하고, 전체적인 축제 같은 것을 진행하면서 영화음반이나 영상 등의 위탁 시설을 받았습니다. 그런 위탁 시설을 설립하면서, 문화원 자체사업들이 조금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외형상의 발전은 굉장히 컸지만, 문화원 전체의 정체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의식 속에서 전략들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비전이 오랜 마당 예술 생태계 구축이었고, 전체적으로 참여나 주체나 형식의 면에서 구체적인 키워드가 공동체, 시민, 문화 예술 동아리, 이런 형식에 참여 주체 형식면에서 이런 목표를 소화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로 위상을 회복하고 지역공동체를 위한 문화예술 구심처로 가자는 것이 학산 문화원에 모토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저희가 했던 것이 마당문화 예술 생태계인데, 두 번째 보시면 '하는 이와 보는이의 경계 없이' 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공급자와 수요자의 경계 없이 더불어 참여하고 어우러지던 공동체 문화예술에 상징이었던 마당을 모토로, 주민들의 문화를 향유 창작하며 문화예술을 하는데 문화원에 판이 되고자 한다는 것이 저희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창작의 주체가 되고, 행사의 소비가 선순환 되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들자.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체계를 만들어 보자 해서, 5단계 작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1번에 마당 예술학교가 진행되고 있고, 2번은 마당 예술강사 협의회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 전체를 모아놓은 동아리 축제가 현재

학산 마당에 진행이 되고 있고, 온라인 문화예술체, 지역 시민들이 만든 블로그. 지역 신문처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가 마을 공동체 만들기 체험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마당예술학교, 학산마당 축제, 마을 영화, 세대,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전부 다 저희는 동아리들이 창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당예술들을 발견하고 조직하면서 주민 자치 활동이 전체적인 지역적 차원에서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남구가 21개 동입니다. 21개 동네 주민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동별 거점공간과 연계하거나 만들어서 각 동에 마당 예술 동아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마당예술 동아리를 거점으로 하여 각 주민센터나 자치위원회와 네트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둥아리 조직과 순환하는 구조는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 예술 마당 동아리, 전문 강사와 커뮤니티 활동가 중심으로 하는 마당예술 강좌, 축제 민간 거버넌스 형태 축제, 이것들이 지속 심화하는 과정도 전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드렸던 것처럼 마당, 문화 예술 모임, 학산 문화원이 중간에 매개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동 창작을 하는 과정과 방법론이라고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동아리 공동 창작하는 과정이 밑에 보시면, 스토리를 발굴하고 주민들이 주제를 선정하고, 같이 공동 창작해 대본을 쓰고, 발표하고, 평가하는 전체적인 예술가가 있긴 하지만, 예술가는 그야말로 안내, 멘토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소재와 발표 모든 과정에서 공동 창작의 과정을 거칩니다. 모든 동아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창작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공공, 공동, 마을 중심의 문제입니다. 마을의 화두나 남구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재개발인데, 마을에 공동, 공공의 문제, 소외계층의 고독사라든지, 편견, 지역의 역사 향토 유물, 일상과 삶의 편리를 사회 전반의 정부라든가, 국가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창작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장르를 결합한 협의체 예술, 마당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연 예술, 전통 이야기, 현대 장르, 시각, 영상 저희는 주안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시민 리포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상까지 찍어서 이 모든 내용들을 총체적인 형태로 만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강사 협의회가 진행되고 있어서 여기에서 강사를 양성을 했으면 하는데, 문화원으로서는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끝나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민주주의 되기라든지, 문화 예술 보기를 꾸준하게 하고 있고,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네트워킹해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마을 기획이나, 공연, 예술 하는데 의견을 개진하고 기억할 수 있는 관계로, 전체적으로 그런 모임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로 2013년에는 남구의 구립도서관이 7개인데, 도서관과 연대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17년 까지는 각동 주민센터나, 지역의 복지관, 문화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동별 동아리나, 기관 동아리를 만들고, 테마가 있는 주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일련의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 전체가 주민센터나 이런데 다 모여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말하자면 민간 거버넌스가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동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과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상설화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했던 동아리 과정으로, 2017년까지 했던 것이고, 세대별 동아리활동 창작 동아리 인형극을 순회에서 도서관 중심으로 공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을 영화를 제작했는데 주민들이 직접 기획해서, 배우로 참여 하고, 마당극 같은 공연 예술도 같은 방식으로 공동 창작의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성과라고 하면 도심에서 옛날에 두레패 같은 활동이 공동 기반의 마을 축제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창작으로 문화적 자치를 형성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실천해 낼 수 있는 역량도 확보가 가능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문화 발신자로써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인 어떤 민간이라기보다 지자체, 주민센터, 도서관, 학산문화원 민간 거버넌스의 형태로 지역공동체 예술을 해보는 그런 목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마당 문화 예술 동아리가 동아리 사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구조와 시스템 안에서 남구 전체적인 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 저변을 확대할 것인가, 이런 것에 고민이 조금 있습니다. 주민센터 외에도 문화기반시설이라든지, 무엇보다 학교와 연계라든지, 저변 확대가 어떻게 이야기 돼야 하는지 그런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21개 동 말고도 어린이 청소년이라든지 기관별 1번하고 똑같은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확산시켜 낼 것인가가 저희 문화원에 과제이기도 하고 한계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당 예술 강사를 문화원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양성하고, 지원 한다는 것이 재원적인 한계와 전문 인프라의 문제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당면한 문제이고, 그런 것들 속에서 구조적인 한계가 조금 있어서, 그것에 관한 논의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보성 대전문화재단 실장님께서 작년에 학산문화원의 현재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평가해서 보내신 내용입니다. 학산문화원이 커뮤니티 아트, 민간 거버넌스 차원에서 공동체 예술을 잘 진행하고 있고, 그런 성과들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전제하에서 문화원이 가고자 하는 전체 방향이 현재 학산문화원이 전체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재원이라든지 시스템과 기초문화재단 속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문화원 자체가 어떤 역할과 정체성을 찾을 것인가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질문으로만 되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좌장 : 인천 남구에 있는 학산문화원에서 얘기를 했던, 마당예술 동아리 흔히 보면 생활 예술 동아리의 하나인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서 굉장히 다양한 결의 다양한 단체들이 많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 지역 문화, 지역 공동체 문화에서 새롭게 영글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일방적으로 공급되는 문화가 아니라 필요해서 스스로 개척하고 개발하고 확산하는 자기 전환, 확산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발제자로 조두호 선생님 것을 듣고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두호 선생님께서는 관인공동체와 문화재생연구소 예술감독을 맡고 계시고, '시민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라는 발제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조 : 반갑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 오후 2시 정도까지 관인에 있다가 왔습니다. 관인이 어디냐 하면, 관인은 철원군청보다 북쪽에 있고, 동송이라고 있습니다. 신철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 최북단의 마을입니다.
38선을 지나서 30분은 더 들어갑니다. 재미있는 것은 원래 철원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처음 가자마자 물어봤는데, 1913년경에 연천군으로 병합 됐다가 연천 관내까지 가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 1박2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 처리를 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분들이, 관청이 가까운 다른 곳으로 기자고 했는데, 그러면 철원으로 가야 하는데, 강원도 감자 소리 듣기는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경기도에서 가장 가까운 포천으로, 실제로 경기도 포천의 지도를 보시면 마지막 북쪽에 V 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철원이 쑥 들어와 있고, 그곳이 톡 튀어 나와 있는 부분이 관인면입니다.

지금은 연천과 포천과 함께 한탄강 국가지질 공원으로 함께 지정된 땅이다 보니까 관인면 안에도 한탄강 국가지질 공원 2020년 직전까지, 그 지역에 대한 문화적 혹은 자연적 요충지, 환경들이 그 지역에만 해도 7-8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아주 행복하게도 저는 지나다니면서 매번 한탄강가에 있는, 아주 재미있는 주상절리와 천혜 환경들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저한테 과제로 주신거라서 제목은 그대로 달아 있습니다만 무엇을 써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엘리트 전문 예술 집단에서도 일을 해왔지만, 반대로 공동체 현장에서 현장 문화기획자로서 계속 활동했던 간단 간단한 에피소드 중에서, 제가 시민 혹은 주민, 지역주민공동체와 활동 혹은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일부만 뽑아서 에피소드 형태로 일기 쓰듯이 써 붙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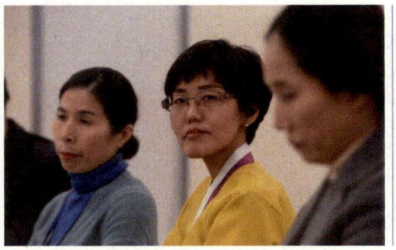
일단 첫 번째 에피소드는 안양에 있는 석수시장입니다. 제가 주로 활동하는 곳이 도시의 원도심에 쇠락하고 쇠퇴한 지역으로만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소비구조나 자본주의에 약간은 반해서, 단순히 재개발, 재건축에 형태가 아닌 문화 예술적 시도를 통해서 이 지역들이 어떻게 어떤 형태로 문화를 보전하면서, 다음 세대로 알려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는데,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석수 시장에 있을 때는 지금 현재 미술관에서 관람했을 때보다 더 난해한

형태의, 아주 실험적인 예술가들과 함께 석수 시장이라는 아주 오래 된 재래시장의 빈 점포들에서, 시장 상인들과 예술가들과 예술적 실험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시민 중심의 사업, 시민과 소통하는 지점에 대해서까지 생각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단적으로 그 기관에서 만들었던, 그 당시 활동을 했던 소식지를 가지고 야심차게 마을 시장 주민들한테 나눠 주려고 가지고 갔다가, 마치 잡상인 취급을 받으면서 거기 두고 가세요 하는 곳이 세, 네 집, 가다가 중도 포기를 하고 나왔던 웃지 못 할 현실에 대해서 써보았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 정릉동 오르막길은 서울문화재단에서도 '예술마을 가꾸기'라는 사업을 진행 하였습니다. 정릉동이 평창동과 언덕 하나를 사이에 두고 평창동은 부촌인데, 언덕 밑에 있는 정릉동은 아주 쇠락하고 낙후한, 서울에서 첫 번째 만들어진 럭키아파트라는 다 무너져 가는 아파트 옆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곳 역시도 서울문화재단에서 요구했던 바가 70%의 하드웨어와 30%의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주민참여 형태의 공적 서비스의 네트워킹을 해보자는 것이 저희한테 주어진 미션이기 때문에, 저희가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만날 수 있는 복지관 이라든지, 학교 공동체라든지, 거기는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주민자치 공동체들과 빠른 속도로 합의를 해서, 간단히 보면 주민참여 형태로만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를 보시면 '오래된 폐허, 장흥역에서'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경기 북부에 있는 양주시의 일영, 송추, 장흥으로 이어지는, 저보다 좀 윗세대가 대학시절 MT를 많이 가던 곳입니다. 이곳은 서울 교외선이 중단되면서 폐허로 변해버렸던 곳이었습니다. 이 당시가 2011년, 2012년 이었으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이 때는 마침 관장님께서 경기문화재단의 사업팀장이셔서 현장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새로운 주문자라는 컨셉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과거에는 관에서 디자인하고, 기획자가 들어가서 설계를 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에피소드 2 정도의 주민참여 형태를 통해서 공적 서비스를 진행했다면, 이것은 조금 더 주민들이 주체로 떠오를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시도 했던 사례입니다. 비교적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 속에 마을 이장님이라든지, 소위 빅맨 분들의 협력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다행히 장소의 개발이나, 장흥역 오래된 공간에 대한 장소적 재생도 들어갔지만, 더 값지게 남은 것은 그 이후에 그분들께서 마을 기업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마을 이장님이 주축으로 해서 마을 기획자를 발굴하시고, 마을 기업을 만들고, 협동조합도 만들어서 경제적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공공조각공원 안에 있는 매점의 사업권을 따내서 매점을 직접 운영하여 재원을 확보 하시고, 사무실 공간은 시에서 오래된 모텔들, 장흥 지금 가보시면 모텔이 엄청 많은데, 모텔들도 노후가 되다 보니 사기업들이 매입하기도 하고, 오래된 모텔 중에 간혹 좋은 것은 시에서 매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텔 하나를 리모델링해서, 거기 있는 프로그램 하시는 집단이나 예술가들에게 장소를 할애하는 것 중에 한 공간을 할애 받으셔서, 지금도 활동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반은 실패고 반은 성공이라고 보는 것이 사이트를 저희가 뺏겼습니다. 그 사이트는 장흥역 앞에 있는 폐허였는데, 그곳의 쓰레기를 치우는데, 상가의 건물 두 배에 달하는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쓰레기가 켜켜이 쌓이다 보니까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건물주가 쓰레기를 치워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 2년 정도 무상 임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자마자 재계약을 해 주시지 않으셔서 사이트는 다시 폐허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공동체가 어느 정도 구축 됐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2시까지 있었던 관인이라는 곳은 의정부나, 양주, 포천 시내에 계시는 분들조차도 생소해 하시는 지역일 것입니다. 해방이후 5년 정도는 이북의 통치를 받다가 한국 전쟁이후에 수복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30-40%가 실향민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향민들을 소위 당시 미 40사단이 트럭에 싣고, 관인이라는 지역에 판자와 나무를 주면서 정착하게끔 만들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의 군인 상권에 의해 초반에 적응을 하다가, 어느 정도 살아가는 시점에서 군인들이 있으면 이런 저런 폐해들이 생기니 미군부대나, 군 관사나 이런 것들을 밖으로 내모는 단계를 70년대에 겪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거꾸로 발목을 잡아서, 지금 현재는 70년대 이후로 신축 건물이 거의 없는, 40년 가까이 거의 그대로 완전하게 노쇠해 버린, 그런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심상가 같은 경우에도 상가에서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100%에서 중에서 60%는 이미 주거를 하고, 공동화 현상도 15% 정도가 진행 되었고, 빈 공가가 많고, 폐가들은 이미 지붕이 내려앉아서, 제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지난 3개월 중에도 건물들을 헐어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지역에 문화 재생 도시, 문화적 도시재생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논의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달라진 것은 저희 포지션에 변화입니다. 제가 과거에는 디자인하고 설계를 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심지어는 거기서 주거를 합니다. 포천시 노인회장님 집에서 1주일에 2박3일 정도 주거를 하고, 저희 팀원들 같은 경우에도 최소 3박4일 정도를 함께 지역에서 같이 먹고 자면서, 인류학에서 얘기하는 참여 관찰이라고 하는데, 참여관찰 방법을 활용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과 스킨십을 통해서 이야기를 끌어내고, 그 이야기에서 그분들이 공동체 그 기존, 기성에 있던 공동체 분들이 어떻게 다시 문화재생을 논할 수 있을까? 하는 지점이 와있습니다.
사실은 문화원 선생님들 와계시는 계시는 상태에서 이 이야기는 약간 더 과거의 이야기고, 미래 이야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인면 같은 경우에는 불과 10년 정도가 지나면, 그 마을 자체의 생존 자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30년이 지나면 아마 소멸 단계에 갈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빠를 뿐이지 우리나라 국가적인 모든 상황이 가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통계적으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어지럽게 들리시겠지만 2050년이 되면 외국인 포함 한국 인구가 5,200만명에서 4,300만명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2100년이 되면 2,000만명 단계로 줄고, 2150년이에는 1,000만명 이하로 떨어졌다가, 2200년이 되면 한국 소멸 이라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것이 매일 듣는 그 이야기가, 관인 같은 경우에는 한 30년 후, 2050년이면 소멸단계에 이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북부 최북단에 있는 마을 지금 가보시면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거의 주축이 60대 중반이고 오늘도 난로 워크숍을 했습니다. 남양주에서 난로를 만드시는 팀이 오셔서, 난로 만드는 기술을 배우는 참여 워크숍 했는데, 30-40명이 모이셨습니다. 그 작은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난로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백 살까지 살 수도 있겠지만, 한 10년 후에는 사라지고 난 후의 일이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제에서 시민 중심이 아니고 이 필수불가결적으로, 시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뽑은 사업을 추진해야만 하는 조건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지점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 대도시라고 해서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워낙 연성으로 글을 쓰고 연성으로 말을 하고 있어서, 공동체에 대한 시민 중심이 왜 되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그 이후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장 : 발제만 하는 데도 시간이 두 시간 가까이 갔습니다. 이모임은 발제 이후에 토론까지 주어진 시간 두 시간이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발제를 하다 시간이 다 갔습니다. 그래도 쉽게 만나는 것이 아니니, 만났으면 끝장을 봐야 합니다. 10분 쉬고 기타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좌장 : 행사가 '아젠다 31' 이라고 아젠다를 추출하는 것이 최종 산출 목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섹션에 '지방 문화원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면 시대적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이것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고민이나 동력이나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성찰하고 점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건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대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시대 요청으로 이런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은 자각이 전제되지 않으면 전환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각이 전제된다고 하는 것은 절실함입니다. 절실함이 과연 얼마만큼 공감대를 형성 하고 있느냐는 것인데, 조두호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발제하신 것을 들어보면 관인이라고 해서 무엇인가 했는데 오늘 알았습니다.

관인이 지명 이름이었습니다. 아마 이 추세는 본격적으로 더 강화 될 것입니다. 이미 지도는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에서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지역과 인구가 증가 하는 지역, 여전히 자기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나와 있는데 그것을 보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추세로 가게 된다고 하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너무 줄어서 공무원 월급 주기도 힘들어지는 것이고, 공공부분의 기금을 조성 하여서 투입한다는 것이, 국고에서 지원 해주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도 이미 신자유주의의 끝을 보았습니다. 전세계적인 자본주의 자체가 더 이상의 성장 동력을 가지고 이끌어 가기에는, 현재 몇 몇 젊은 떠오르고 있는 동남아의 몇몇 나라들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조성 작업해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굉장히 씁쓸할 수도 있지만,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지구별 차원에서 본다면 새로운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아주 역설적으로 경기도는 DMZ가 넓게 펼쳐져 있는데, DMZ가 분단의 상징이지만, 거기 살고 있는 동식물 세계에서는 제 2의 천국입니다. 훼손되지 않은 천국이고, 생태계에서는 보물 금광과 같은 곳입니다. 문화적 이력을 구사하는데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같은 경우에는 보다 여유 있게 인간적 품위를 유지 하면서 또 인간적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이 생 자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을 그것도 굉장히 놀랍고 귀한 것이긴 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상황이 조금 바뀌고 있다면 큰 차원에서의 그림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문화원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이 학산문화원과 의정부문화원에서 품앗이안 두 가지가 발표 되었고, 관인은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별 프로젝트로 예시를 하고 있는데, 공동체기반으로 얘기되고 있는 예술 활동이나 문화 예술 활동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될 때, 1980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사회 기층을 이루고 있는 생산 일을 하는 공동체와 연계 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성 같은 경우에도 농민회와 함께하는 농민 병원 이런 것을 하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과 함께 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직장

공동체들과 연계 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90년대는 거의 시민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 여러 결의 공동체와 함께 했는데, 21세기로 넘어갔을 때 공동체로 기반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차원 변경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지구시민 공동체, 지구시민으로서의 소양 이라든가 과제, 이런 것들과 연계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이미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쉽게 변화할 것 같지 않은 중국조차도 상하이에서 도시 엑스포를 하는 것을 보면, 씨앗의 정원, 씨앗의 궁전, 공중정원, 생태 전략들을 구상하고 있고, 문화 예술 쪽에 선례를 보면, 뉴욕 같은 경우에 뉴욕경영센터가 생태전략을 가장 주요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지리산 프로젝트를 할 때, 성직자분들을 모셔서 빅스토리에 대한 검토들을, 생명평화, 기후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순례길과 연결 되는 것들을 하시는 것들을 보았을 때, 징후는 뚜렷하게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공동체나 그로부터 비롯되는 예술문화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품이 필요하고, 숙성 되려면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방 산파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하에 아젠다, 과연 전환을 위한 아젠다, 지방 문화원이 시민 출발, 시민 주도적으로 자발적 참여 지역 활동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오늘의 마지막 끝장 토론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인류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사례를 들어 말씀하셨지만 국제적인 석학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례는 2030년이 변곡점일 것이라고 보고 있으니, 지금 2017년 이니까 13년 남아 있습니다. 13년에 따라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의 지속 가능하다는 표현은 너무 순화된 표현이고, 지탱 가능한 발전인 것입니다. 지구별 받쳐 낼 수 있는가? 지탱 가능한 부분으로 방향을 잡으면.

앞으로 인류가 만년은 더 간다고 하고, 그렇지 못 하다고 하면 과학자들 얘기하기로, 현재 지금 태어난 아이들까지라고 합니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의 마지막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류가 될 것이다는 이런 상황까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에 대한 절절함, 공감대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에 따라서 자각이 있을 때만 자기 동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거의 갈무리 하는

발언으로 하시면서, 과제로 아젠다로 내었으면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없습니다.

희 : 제가 문화원에 중장기 전략을 하면서 사실은 그것이 위기의식이었습니다. 문화원의 역사가 70년인데, 그사이에 정책과 변화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위기가 오면 문제를 해결 하려고 합니다. 방금 자각이라고 하셨는데, 자각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문화원 전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타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문화원들이 많은데, 프로그램이 아니고 전체 지역의 구조적이고 시스템 차원에서 문화원이 어떤 정책을 가져갈 것인가 그런 논의가 한국문화원연합회나, 지역문화원 차원에서 캠페인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문화 재단이 내년 지역문화진흥법이나 기본법을 시행하면서 전국 단위의 기초 재단이 설립이 되었을 때, 거기에 역학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규정되어 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모든 문화원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내부에서의 어떤 공통의 분모, 이런 것들이 파편적으로 되어 있어서 쉽지 않은 상태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 프로그램 이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프로그램을 전향할 것이냐가 아니고, 전체적인 정책과 구조적인 차원에서 문화원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논의가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문화의 구조나 흐름 속에서 문화원이 어떤 위치와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을 특히 원장님들끼리, 이사님들, 문화원 연합회 이런 모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집중적인 정말 끝장토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일찍 되었으면 하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 : 지역의 커뮤니티 베이스에서의 사업들에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지금 이런 섹션들이 다른데서는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장 시흥 국장님 혼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현재 문화원의 현실인 것입니다. 경기도 잘 한다

잘 한다 하면서도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집중 되어 있거나 관심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앗이안'이라는 것들을 하면서 조금씩 문화원이 한 개, 한 개씩 변화되고 있고, 새로운 것들에 대한 가능성들이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열 걸음 뗄 수는 없는 것이고, 첫걸음을 뗄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그러려면 첫걸음을 떼서 가려고 한다면 내부에서 작더라도 소중한 것들을 해야 한다면 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이 : 제가 마지막 발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품앗이안 프로젝트가 협의체를 통해서 수동적으로 참여했지만, 앞으로 우리문화원, 지방문화원이 지금과 같은 형태의 체제나 방식은 벗어나야 한다는 자각으로는 충분하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문화원도 공급자 중심의 사업 형태를 떠나서 생활문화 같은 형태로 얘기를 하자면, 지방문화 플랫폼 같은 형태로 전면적인 개선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아젠다로써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난 과거에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관장님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하고 경험한 바로는 지난 과거는 계몽적인 시대였습니다. 따라와라 하는 시대였고, 지금부터의 시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개개인의 욕구나 개개인에 동력이 매우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문화원이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언제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것인가는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원이 시민 속으로, 전에는 계몽적인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문화원이 진정으로 시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플랫폼과 같은 형태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좌장 : '품앗이안'이라는 부분을 명명해서 이 프로젝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품앗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의 노동, 마을에서 했을 때 옆집에서 일손이 바쁘면 일손을 보태 주고, 우리 일손이 바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보태주는 상호 구조적인 형태를 가졌었는데, 지금 최근의 시장을 본다면, 예전에 동학을 이어서 원불교까지 내려오는 것인데, 내게도 이롭고 상대에게도 이로운 일들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계몽적인 시대에는 자기를 헌신하거나 희생하더라도 전체의 바람직한 것을 하기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강조 되었다면, 자기비판에는 그런 것들에 헌신이나 희생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내게도 의미 있고 상대에게도 의미 있고, 내게도 가치 있고 상대에게도 가치 있는 것, 내게도 즐거움이고 상대에게도 즐거운 그런 부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동력이 살아서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타인화하거나, 누군가를 대상화하지 말고, 더불어 함께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문화원연합회에서 요청을 해서 저널에 생활 문화란 부분이 갈수록 중요해 지는데, 생활 문화를 뒤집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활생 문화로, 활생이라고 하면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것들입니다. 살리는 문화로 활생, 문화로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살리는 것, 뒤집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을 조사하면 아주 특이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이만 불 정도만 넘어가게 되면 타인 물질주의적인 문화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과시한다거나 물질적으로 풍부한 부분들을 자랑하거나 이런 문화가 아니고, 거꾸로 한 인간으로서 공동으로서 의미 있는 가치를 지향하면서, 정신적인 영역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그 경계를 넘나드는, 이제는 위, 아래 정도가 아니고 전체가 거의 다 물질주의 문화로 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 몇 평 사느냐? 어느 아파트 사느냐? 조금만 더 가면 무슨 자동차를 가졌냐? 먹방 스토리, 옷을 뭘 입었느냐? 전부 그런 것들이 한국적 특성, 한국적 특징입니까? 다른 나라들은 계급 혁명을 통해서 시민사회를 만들었는데, 한국은 봉건시대 때, 몽땅 90% 이상 스스로 계층 상승을 해서 양반이 되고, 지금은 100% 양반이 다 되어서 차도 가지고 다니는 굉장히 독특한 경우라고 합니다. 과연 21세기로 들어가는 이

골목에서도 그런 것인지 문화연구자들이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레블루션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코에볼루션으로, 공진화로 가자 한국적 특성이라면 평화적으로 공진화해서, 몽땅 다 양반되듯이, 정도로 한국 사회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차라리 한국적 전력을 채택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경우에 어떤 곳으로 찾아 들어가야 할 것인지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조 : 사실은 공급과 수요의 전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경기문화재단 쪽 사업을 주로 5-6년 정도 해오다보니까, 계속 한 10년째 고민해왔던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께서 지역에서 지역의 것들을 확장하셨다면, 저는 비교연구 형태로 갔습니다. 지역과 지역을 비교하는 형태로 하였는데,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제가 근무했던 원도심도 있었고, 6-7개 정도의 전혀 다른 성격에, 전혀 다른 공간들에서 비슷한 고민들이 관이나 혹은 프로그래밍, 국가적으로 의도하는 지점에서 항상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시민사회가 결국은 관이 디자인한, 국가가 디자인한 쪽으로 지원금 형태든, 국가적인 국가 기금이 형성이 되는 형태로 개념들을 바꿔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틀이 먼저 만들어지고 거푸집 안에 밀랍이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처럼 진행해 왔는데, 저는 지금 현 정권이 주제에 맞는 고민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가장 최근에 한 일이 관인지역, 여기가 어찌 보면 자연생태에서 DMZ가 50년 넘게 된 천혜 보고라면, 거기 사시는 분들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 박물관에 박제된, 40-50년 동안 한번도 외부적 자극이 없었던, 그 지역 역시도 DMZ 같은 공간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포천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 그것이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수많은 부처들. 국토교통부, 농림부, 문체부 등 뭘 하든지 아주 유사한 형태의 사업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 지역에도 문화원이 있을 것이고, 연합회가 있을 것이고, 시청이 있거나, 시청에 관련된 관계부처가 있고, 예총이나 밑에 산하단체가 있는 것처럼, 비슷한 듯 다른 형태의 수많은 지원시스템과 시민을 발굴해내는 작업들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것들을 동폐합해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언발에 오줌

누기 같은 형태로 치부합니다.
지금은 예산 규모도 기본이 백억 단위입니다. 55조를 5년 동안 문화 재생에다가, 도시 재생에다가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는 수원, 안산, 고양이 일차적으로 통과 되었습니다. 제가 참여한 포천 관인 지역은 서류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대도시 중심의 3개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그 전 단계에서의 포트폴리오가 풍부한, 가성비 면에서 그 지역이 제가 봐도 뛰어난 상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선택적인 입장에서 쇠락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관인이 1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포트폴리오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수원만 해도 마을르네상스 센터가 생긴 지가 벌써 5년이 되어 갑니다. 아시겠지만 행궁동에서 수많은 살인사건 일어났습니다. 안산도 그런 강력범죄가 형성되는 그런 지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국가적으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재건축 재개발 형태가 아닌 하드웨어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아예 전환시키는 대전환의 시기가 이미 올해부터 도입된 것 같습니다. 저는 10월에 서류를 쓰다 보니까, 그 지역은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젠다 형식으로, 절대 늦지 않고 국가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는 아주 시기적절한 때에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역 한군데 한군데에서는 관에서 디자인한 것들을, 아까 계몽의 때 말씀하셨지만, 나를 따르라 해서 따라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군대에서나 가능한 것이고, 새마을 운동이나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하면 정말 수요자가, 수요자라는 단어도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이미 생산자로 국면이 전환 됐으니까. 과연 주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중심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아젠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문화원에서 포커싱해서 만들어낼 것이냐? 저는 아미 품앗이안을 보면서 한 팀, 한 팀 해서 얼마의 예산이 지원이 됩니까? 개인에게 10만원이면 가성비가 엄청난 일입니다.
문화재단 같은데서 3백만 원, 5백만 원 사업지원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걸로 뭘 하는데? 하고 얘기하는데, 시민 실천가를 양성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이 시도되는 자체가, 그리고 세 분께서 의정부에서 오셔서 사례를 발표하는 것부터가 문화원에서 이미 가는 방향성도 좀 앞당겨 놓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 나가면, 저는 관인에서 이런 활동들을 어떻게 끌어낼까 고민하고 있는 상태라, 이런

지역을 어떻게 접근 할 것인지? 이런 것들까지도 저는 긍정적으로 오늘 이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저는 상당히 기분 좋은 자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 :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성희 선생도 말씀하셔야 되는데, 피어라 커뮤니티 공동체 기반 예술할 때도 그렇고, 학산마당 놀래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이야기 주권을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부분은 발화자, 발신자가 있는데, 그 발신자가 현재 우리의 상업적인 문화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문화 상품으로 공급해주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다 소비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시민은 중심의 문화를 이끌어 내는 힘은 시민 스스로가 소속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발화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야기 주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예술로 조성이 되는 이야기이건, 문화를 이야기 하는 것이든 주권자로서 권리를 예술이나 예술에 기본이 되는 서사로 이야기를 돌려주자 하는 것입니다. 끝끝내 웃으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아마추어 예술 동아리인데도 창작 예술로 하시겠다는 분들이십니다.

희 : 주민들이 이제는 4년쯤 지나니까, 주민들이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먼저 강사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런 훈련들과 스토리가 어떻게 해서 무대 올라가는 과정을 느끼니까, 기획자로 성장을 하고 컨텐츠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최 : 지방 문화원 차원에서 생각보다 현장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저는 아무래도 연합회에 있다 보니까 광역단체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시흥문화원 혼자 와있지만, 시흥지역에서 다양한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도시가 문화를 중심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일련의 변화를 지켜보면, 일단 지역의

커뮤니티를 회복하는 일에 한개 지역을 변화 시켜가고 있다. 의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 경기도 31개의 문화원이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가는 모양새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연합회 차원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구도를 잘 짜서, 잘 맞춰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잘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젠다에서 4개 섹션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것을 녹취해서 잘 정리를 할 것입니다. 정리한 것을 배포하면, 문화원의 장점이 생각보다 책을 잘 읽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말씀들이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잘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 : 한 가지 제가 정말 아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지역에 문화원 말고, 복지관, 평생학습원, 자원봉사센터, 각 동에 주민센터 심지어는 지역아동센터 이런 문화예술교육과, 이런 것을 하는 마을 만들기 센터에서 전 기관과 시설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다 합니다. 사실은 그런 문화원이, 이런 모든 기관과 시설과 단체와 문화예술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전체적인 네트워킹과의 연대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문화원이라는 기관이 균형상 봤을 때 중심에 있다기보다는 상대적인 병렬 속에 하나로 위치 지어집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 속에서 그러면 문화원이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만들것이고 어떻게 위치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집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의 예산이 문화원보다 10배쯤 훨씬 많습니다. 예산으로 보면, 인력이라든지 인프라들이 훨씬 많고 그래서 처음에 문화원 시작했을 때, 학산 마을 만들기 센터와 도서관 쪽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TF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생활 문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연대해서 지역 단위에서 같이 일어나고 프로그램이란 것도 같이 예술센터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공식적인 커리큘럼과 인증이 되면서 마을학교와도 연대에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었는데, 문화원으로써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한계라고 했을 때 문화원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뒤로는 이런 제안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가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현재 있고, 다른 분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문화원은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 : 개별로 지방문화원 차원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연합회 쪽에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이 들어가 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 포럼에서 문화원을 규정할 때, 어떻게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책에 있는 말을 찾았습니다. 그 말이 딱 지금 현재 지방 문화원을 규정하는 한마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합리적인 아비투스로 구성된 연고주의 네트워크', 현재 지방문화를 규정하는 것에는 굉장히 좋은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야 할지 연합회 차원의 노력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경기도문화원 차원에서 어디까지 가능할까 계속 되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를 보니까, 내년 아젠다 때 다시 한 번 모여서 다른 형태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 : 경기도 연합회, 문화원 그래도 전국 사무국장들이 모이면, 경기도 문화원 연합회가 정책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국문화원연합회가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 합니다. 답답하긴 한데 기대를 못하겠습니다.

조 : 저는 제 3자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문화원 일을 하고 있으면 문화원이 사실 대한민국의 문화단체 중에 제일 맏형인 셈이고, 더 의미 부여를 한다면 종갓집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1세기적 상황이 오면 저는 좀 다변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청년 미술관 구상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 미술관 따로





구성 들어가고, 어린이 미술관 따로 들어갑니다. 그것 전체를 도립 미술관이라고 해서 품는 것입니다. 종갓집으로써 해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포기하더라도 한국문화원 안에, 각 지역 문화원 안에, 시흥문화원 같은 경우, 시흥 청년문화원, 시흥 여성문화원, 시흥어린이 문화원 이런 식으로 산하 부설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적층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 세대가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옛날 99칸 집, 으리으리한 집에 들어가도 원로이신 할아버지들이 모이셔서 노는 자리 따로 있고, 아버지들 세대 따로 있고, 일꾼들이 모여 사는 곳이 따로 있는데, 문화원도 그렇게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데, 보기 좋은 선례가 학산 문화원 같은 경우, 놀래 극장이 만들어져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지역사회를 연계하니까, 원래 문화원으로서 향토사업을 연구하고, 지역의 정신문화를 보전하고 재해석하는 것 못지않게, 그런 것이 연계 되어 있으니 활기가 돕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원에 다변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 : 그런 맥락에서 민간단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우리가 문화원에서 당장 청년문화원은 만들 수 없으니까 사회적 구조를 만들려고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희 : 연계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하기에는 문화원 체질이 너무 허약해졌습니다. 전국 시, 군, 구에서 예산을 받다보니, 자기 스스로 헤쳐 나간다거나 의존 형태가 약간 매너리즘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체질도 강화시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 : 멀긴 하지만 어쨌든 해야 하는 일입니다.

좌장 : 수원에서 오신 손채수 행동레이젼시 작가는 의견 있으시면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자 :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모든 생명들은 다 존중 되어야 하고, 특히 지금의 문화원 중심은 어떠한 부분에서 어르신들이 모이셔서 한다는 이미지가 맞습니다. 저도 문화원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한 적도 있고 옛것을 전승하는데 이미지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시도를 하시는 것을 보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서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열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문화원 그러면 소통의 구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수평적인 되면서 요새 얘기하는 프렌드쉽 같은, 지금 이 시대를 함께 사는 사람들로서의 어떤 부분으로 조금 더 생각을 바꿔야 이 부분들이 열려지지, 우리가 옛날에는 효라든지 예라든지 그것도 역시 중요하지만, 옛날식의 그 개념 가지고는 지금 이 부분들의 헤쳐 나가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이 21세기 지구적 상황이 연결 되는 시기에 그럼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문화원에서 가이드를 해줄 수 있다면, 문화원이 가진 역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공감대가 훨씬 더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좌장 :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제가

거칠게 아젠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뽑아봤는데, 보시고 본인이 얘기한 것을 조금 다듬어서 제출해 주시면 아젠다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면 채택 하겠습니다.

최 : 나중에 녹취를 풀면 4개 섹션 중에 가장 밀도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정리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서 세팅, 좋은 얘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젠다 채택하고 추후에 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의 6개 항목을 아젠다로 하는 것에는 동의하십니까? 다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연합회가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전환에 대한 검토들을 저도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한살림 같은 곳에서도 전환에 대한 발표들이 요즘 나오고 있는 거 같고, 경기도에서도 경기 천년을 내다보면서 경기 천년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단순한 차원의 지역적 발전을 넘어서 문명 대전환에 대한 검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에 있어서도, 마을에서도 미래도시나, 사회구성을 하면서 사고의 대전환들이 되지 않는 부분이 쉽지 않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환에 대한 논의들이 오늘 이 자리에 본격적으로 정리되면, 심포지움 같은 집중논의 되는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애쓰셨습니다.

2017 아젠다31



[섹션 3]
문화품앗이안 사업 로드맵 만들기

1. 문화원연합회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을 집중하여 논의하는 장을 정례적으로 열자.
2. 품앗이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생활 문화를 건강하게 이끄는 플랫폼이 되자.
3. 주민 또는 시민이 중심이 된 공동체 문화를 품어서 육성하자.
4.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스스로 문화를 갖고 가게 하자.
5. 문화원은 지역사회 단체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문화원을 연령별, 성별로 다변화하자.
6. 소통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21세기형 패러다임의 전환을 도모하고 논의할 수 있는 문화원이 됐으면 좋겠다.

다.

시민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의 의미

조두호 (관인 플레이그라운드 예술감독)

episode 1. 석수시장에서

꽤 오래전 일이다. 공공의 현장에서 공동체 예술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던 시절, 격월간으로 발간하는 소식지를 한 뭉치 들고 밖을 나섰다. 첫 번째로 들어간 순대국밥집에서 "소식지가 나왔으니 재밌게 읽어 달라"며 몇 부를 건내니 국밥집 이모는 무심하게 "거기다 두고 가라"며 손가락질을 했다. 식사중인 손님도 한 투팀 있으니 길게 설명 못하고 다음집으로 나섰다. 화장품 가게였는데 손님이 없이 주인만 조용히 물건을 정리 중이었다. 내가 들어가자 손님인줄 반갑게 인사를 하는 주인에게 '어디'에서 소식지가 나왔는데 읽으시라고 가져왔노라 웃으며 인사를 건냈다. 실망한 표정의 주인은 그게 어디냐며 되물었다. 십년가까이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라고 설명하자 처음 들어봤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리고 다음가게 또 다음가게에서 그와 같거나 유사한 패턴의 대화가 오고 갔다. 당황감과 실망감, 한 편으로는 쑥스러움이 감돌았고 시장 전체에 소식지를 나눠주고 돌아오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episode 2. 정릉동 오르막길에서

어른들도 숨이 차도록 가파르고 긴 오르막길을 매일 아침마다 어린학생들이 오른다. 겨울에 눈이라도 오면 가파른 내리막길은 어르신들에게 위험천만한 무기로 변한다. 정릉동 주민들이 항상 오르내리는 언덕의 경관을 가꾸고 안전성이나 편의성을 도모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의 일이다. 당시 사업의 주최 측은 주민의 참여를 요구했고,

짧은 실행기간에 맞춰 주변 복지관과 양로원, 주민자치센터, 초등학교 등을 방문했다. 나름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과 만나기 위한 전략이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던 대안중학교 프로그램의 아이들과 함께 타일벽화를 꾸미고, 양로원에서 요구하던 오르막길에 평상과 벤치를 설치해드렸다. 초등학교 앞에는 아이들이 부모님의 차를 기다리는 쉼터를 조성했다. 주민들의 아이디어와 예술가들의 실행이 결합된 형태의 프로젝트로 성황리에 종료되었다는 평이었다. 공공미술과 공공디자인을 통해 마을의 경관을 가꾸고 주민들이 희망하는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형태의 사업이었다. 주민이 참여하는 형태였지만 기획과 실행을 모두 전문기획자와 예술가들이 맡았다. 2010년의 사례이니, 지금쯤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

episode 3. 오래된 폐허, 장흥역에서

서울 교외선 운행이 중단되면서 경기도 양주시의 일영, 송추, 장흥역 등이 수 십년째 방치되었고 특히, 과거 서울과 수도권지역 대학생들의 단골 MT촌이었던 장흥역은 폐허가 되어있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제안한 '새로운 주문자'사업은 기존에 단순히 주민 참여방식에서 더 나아가 주민이 기획단계에서부터 실행까지 동참하게 하는 모델이었다. 사업 초반에는 이미 구성된 지자체와 전문예술가 그룹의 연합에 의해 지역의 주체인 시민이 배제되었다. 지자체가 요구한 것은 일종의 자산취득성격의 Plop Art(퐁당예술)였으나 갈등과 진통을 거쳐 어느 정도 공동체 기반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마을 이장과 같은 공동체의 리더들이 예술가단체와 결합하면서 폐허가 되어버린 장흥역 주변의 상가를 마을의 문화적 허브로 꾸몄다. 마을의 역사와 프로젝트의 추진과정을 아카이브해서 전시장을 만들고, 사진관과 카페 등을 조성했다. 프로젝트의 기간과 기금의 한계가 명확했기 때문에 시민활동가들의 조직화를 격려했다. 전문기획집단이 빠져나간 후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급한 사항이었다. 사업이 종료된 후 5년여가 지나고 있다. 폐허를 재생시켜 문화허브로 구축했던 장흥역의 주변은 다시 쓸쓸한 적막감이 돈다. 당시 2년을 무상 임대했던 상가 주인이 집을 비워 달라 한 것이다.

그 나름의 사정이 있으리라 짐작한다. 하지만 공동체는 남았다. 이장을 중심으로 부녀회, 번영회 등이 모여 '장흥대박협동조합'을 설립했다. 기금마련을 위해 시에서 운영하는 조각공원에 매점을 운영하고 예술가 레지던시 건물에 마을기업 사무실을 개소했다.

episode 4. 궁예의 땅, 관인에서

경기도 최북단 마을을 가기위해서는 38선을 넘어선다. 영화를 통해 어렴풋이 기억할 만한 '백마고지'를 내다볼 수 있는 곳이 관인면이다. 현재 '경기북부 문화재생 모델개발'을 위해 참여관찰 및 연구하고 있는 지역으로 사실상 철원이라고 무방한 장소이다. 농로 하나를 사이로 철원과 포천을 경계하고 있으니 경기도라는 것이 새삼스럽다.
관인면은 현재 인구 3000여명으로 인구감소 추이가 가파른 상황이다. 1980~90년대까지 인구 만2천명을 유지하다가 90년대 후반부터 생산인구의 이탈과 현주민의 노령화가 이뤄지면서 향후 30년 후면 마을 전체가 송두리째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상황이다. 면소재의 초등학교 2개소의 올해 6학년 졸업생이 총 14명이다. 이들 전부가 이탈하지 않고 관내 중학교로 입교하더라도 위기상황은 여전하다.
최근 문재인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쇠락한 원도심에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재생방식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인데, 관인에서 연구 중인 문화재생과 관련이 높다. 관인지역에는 마을 전체의 생존을 담보로 한 문화재생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9월 현장에 연구소를 마련했다. 포천시 노인회장의 상가겸 주택에 일부분을 할애 받았는데, 지역주민과 자연스러운 동거의 기회가 성사되었다. 관인면사무소 주변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4개리의 문화, 역사, 인물, 장소 등을 파악하고 본격적으로 마을 공동체를 찾아 나섰다.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재생 아카데미를 열어 주민들의 인식개선과 문화재생의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마을을 물건이 아닌 유기체이자 생명으로 보고 주민 한명, 한명이 주체로서 가꾸고 보존·발전해야만 하는 가치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관건이다. 하지만, 참여율을 높지 못했다. 생업에 종사하는 상인들과 이미 몇 세대를 지나 초고령에 도달해 있는 노인 인구들에게 문화재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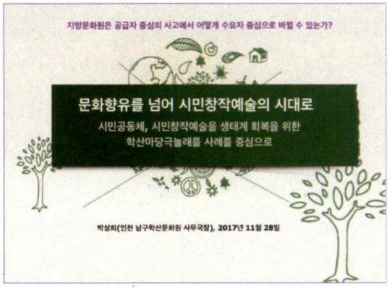
상당히 피로한 제안일 것이다.
관인에서 만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손을 잡으며 이야기한다. "우리 마을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마을 발전 좀 시켜주세요." 이들이 후세를 위해 던지는 간절한 소망이 느껴지는 말들이다. 하지만 외부 기획자나 관이 주도하는 마을의 발전이나 보존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꿈이다. 계획적으로 구축된 몇몇의 신도시가 아닌 이상 대부분 시민의 자발적 모임에 따라 형성된 원도심은 꿈틀거리는 유기체이다. 시민 하나하나가 세포이자 혈관이고, 장기이자 근육이고 뼈다. 시민이 중심이 돼서 마을을 디자인하고 운영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관이 주도했던 공적 서비스에서 그칠 것이며, 한계치에 도달하면 붕괴되거나 폐허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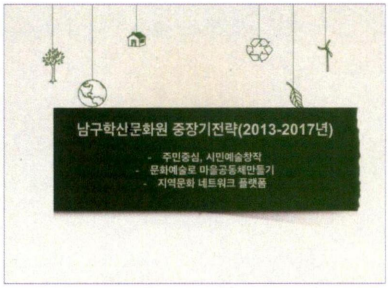
문제는 시간과 비용이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는 고작 3개월 남짓이다. 마을 주요 의제와 갈등을 파악하고 문화자원을 파악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장에 연구소를 차리고 밀착 참여관찰을 하더라도 이미 굳어져있던 주민들의 단단한 외피를 찢고 물렁거리는 속살을 드러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공적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은 간편한 행정적 절차이다. 하지만 지속가능성이 부재한 외길 서비스는 결국 마을의 소멸을 불러올 것이다.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유지는 시민이 중심으로 서고 관이나 공적 서비스가 이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구성될 때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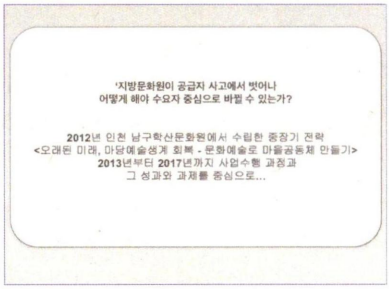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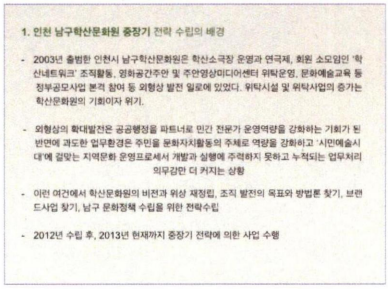
문화향유를 넘어 시민창작예술의 시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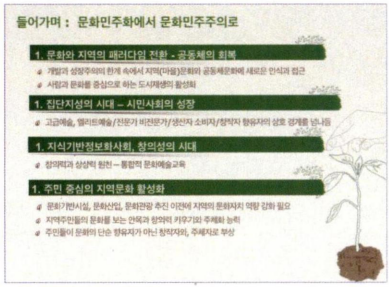
_ 박성희(인천 남구학산문화원 사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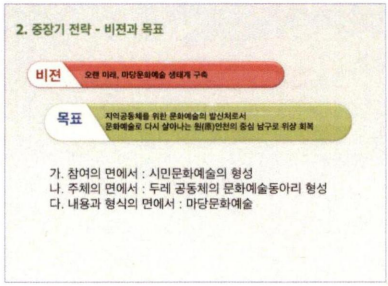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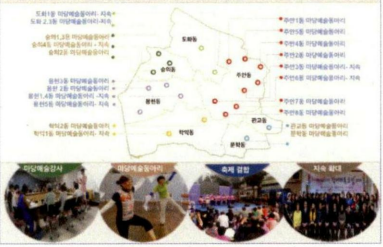
마당문화예술생태계란?

오랜 전통과 문화유산에 남구 주민들의 창의적 상상과 실천이 더해
남구다운 미래를 만들고

하는 이와 보는 이의 경계없이 더불어 참여하고 어우러지던 공동체
문화예술의 상징적 공간이었던 '마당'을 모토로
주민들의 문화를 향유하고 창작하며 나아가서 지역문화를 창조하는
데 문화원이 그 판이 되고자 한다.

이는 주민이 창작의 주체가 되고
문화의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되는 문화예술생태계를
지역공동체로부터 만들어가는 동시에
지역공동체의 문화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

3-2. 마당예술동아리 거점공간, 각 동의 주민센터



2. 중장기 전략 - 5대 과제와 현재

1) 참조적 문화예술학습의 장, 마당문화예술학교 운영 -> 현재 마당예술학교운영 (야간대학)

주민의 지역공동체를 위한 참조적 문화예술의 잠재자원 생성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과 의견을 반영하고 하는 '마당문화예술학교' 를 운영?

2) 지역문화네트워크 한마당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 -> 마당강사양성심화과정 운영 및 문화를 소비하고 생산하는 주민과 지역문화를 매개하는 단계별 심화 과정 운영, 조직 지원, 시민문화리더십 실현을 위한 순환 구조(생태계) 지역자원의 네트워크를 가짐으로 '마당문화예술학교'에 공급할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읽드백 하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한다.

3) 동아리축제 '학산 더 신명(한계 "학산마당극 놀이") 추진 -> 4회 학산마당극놀이 개최'

하나두 전략을 통해, 형성된 문화예술 동아리들이 스스로 만들고 함께 나누며 더 신명나게 더 즐겁게 지역공동체를 위한 문화예술활동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동아리 축제 '학산 더 신명'을 추진한다.

4) 지역문화예술의 공동체의 '학산문화예술tv(온라인 플랫고 원진) -> 온라인 학산문화예술tv 운영 중

그 모든 전 과정을 학산문화예술TV라는 매체에 담아 학산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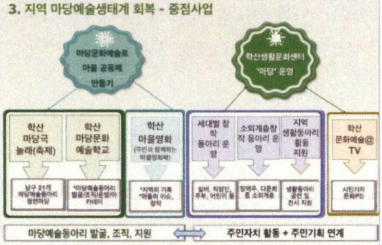
5) 전성화와 확보 및 참여를 통한 참조적 조직운영 -> 남구 각 동 마당예술동아리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전략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3단명 전성화와 확보와 개방과 참여를 통한 참조적인 조직문화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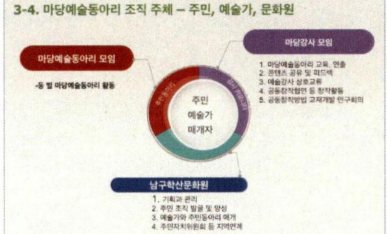
3-3. 마당예술동아리의 조직과 순환



3. 지역 마당예술생태계 회복 - 중점사업



3-4. 마당예술동아리 조직 주체 – 주민, 예술가, 문화원



3-1. 지역 마당예술생태계 회복 – 남구 21개 동 별 마당예술동아리 조직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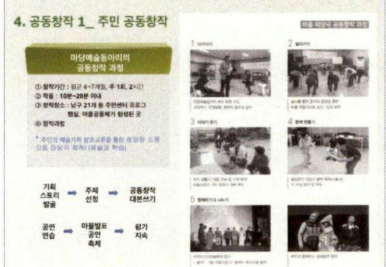
1. 목표

남구 21개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예술가와 함께
마을의 역사를 비롯해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촌극으로
공동창작하여 경연마당을 펼치는 시민창작예술동아리 양성

주민이 자아를 발견하고
이웃과 공감하여
주민이 마을축제를 만들어 가는 마당예술운동을 지향

- 이웃과 마을이 겪고 있는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풀뿌이 활동
- 소외계층의 아픔을 공유, 치유하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집단신명
- 주민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표현하기 위해 공동창작
- 마을만들기를 하는 생활예술의 주민조직

4. 공동창작 1_ 주민 공동창작



4. 공동창작2 _ 주제찾기(공공, 공동, 소외 이슈나 중심)

1. 마을의 화두 : 재개발 등
2. 마을의 공공 또는 공동의 문제
3. 소외계층의 문제 : 고독사, 편견
4. 지역의 역사, 향토, 인물
5. 우리의 일상과 다양한 삶의 편린
6. 사회 전반의 관심사 등

7. 학산마당극놀래 경연마당 추진 결과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기획	남구 학산문화원	남구 학산문화원	남구 학산문화원	남구 학산문화원	남구 학산문화원
마당예술동아리 조직 및 발굴 (민관협력 연계)	관내5.서관	동 주민센터 도서관 동두레	주민자치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동 주민센터 도서관	주민자치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동 주민센터 도서관	주민자치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동 주민센터 학교 - 동 주민센터 참여 동 기반 마련
공연 참여자	8개 동아리 62명	18개 동아리 234명	25개 동아리 323명	21개 동아리 258명	19개 동아리
공연참여자 (마당예술동아리)	도서관 자원활동가 -8개 동아리	동장자율회 도서관 동아리 -기존 주민 커뮤니티 동두레아리	동장자율회 -자생단체 동아리 -주민자치위원 -주민 커뮤니티	동장자율회 -자생단체 동아리 -주민자치위원 -주민 커뮤니티	• 주민 커뮤니티 • 자생단체동아리 • 지역 복지관 및 시설단체
작품 수	8개	18개	25개	21개	19개

4. 공동창작 3_ 모든 장르를 결합한 총체예술

1. 공연예술 : 전통연희 (탈춤, 민요, 판소리, 풍물, 춤 외)
1. 공연예술 : 연극, 난타, 퍼포먼스, 노래극 외
1. 시각예술 : 공동창작 - 판그림(판화) 외
1. 마당영상 : 마당영화 등

총체극 : 위의 모든 장르를 결합한 총체극

남구 21개동 마을 마당극 창작과 축제



* 남구 21개 동 별 마당예술동아리 공동창작, 연습 과정



*학산마당극놀래 경연마당

5. 마당예술강사 협의회 운영 : 강사 양성과 네트워크

1> 마당예술강사 협의회 운영
* 좌장, 총감독, 자문위원
* 마당예술강사 정기 모임

2> 활동 내용
* 동아리 교육 및 연출
* 예술강사 장르별 융합 및 상호교류
* 지속 시범모델 개발 및 운영 참여(공동창작 연구회의)
* 마을축제 준비 참여 콘텐츠 공유 및 피드백
* 강사 워크샵



6. 주민 마당지기 양성 및 교육

1> 마당예술동아리 교육과 워크샵

2> 마당지기 회의

3> 정기적인 교류

마을 순회공연하는 주민인형극 동아리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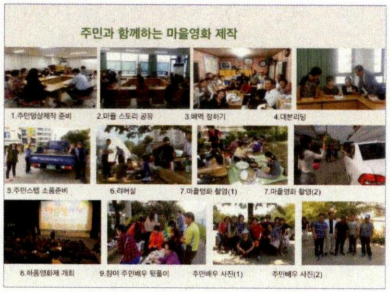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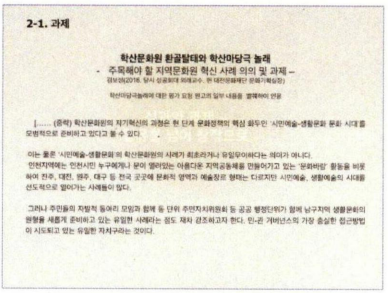
1.천해지기 2.스토리 공유 3.인형극 만들기 4.인형 제작 5.마을 순회공연

* 엄마 마음에 그려진 마을 활동 과정



1.나를 알아가기 (문화예술교육 &엄마프 활동 계획) 2.우리를 만나기 3.마을을 만나기 (마을 탐방) 4.가족과 함께 하기 (실천 활동) 5.생활 속 전이 (발표회)




2-1.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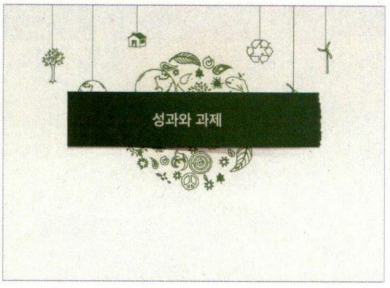
학산문화원 환골탈태와 학산마당극 놀래
- 주목해야 할 지역문화원 혁신 사례 의의 및 과제 -
경보영(2019. 당시 성공회대 회원수, 현 대전문화재단 문화기획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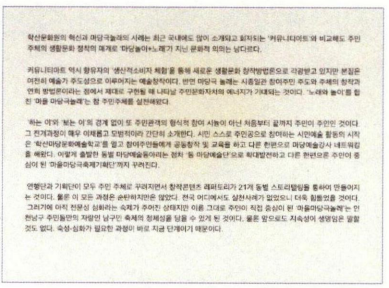
학산마당극놀래에 대한 평가 요점 편고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인용

[……. (중략) 학산문화원의 자기혁신의 과정은 현 단계 문화정책의 핵심 화두인 '시민예술-생활문화 문화 시대'를 모범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이는 물론 '시민예술-생활문화'의 학산문화원의 사례가 최초라거나 유일무이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인천지역에는 인천시민 누구에게나 꿈이 열려있는 아홉다온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문화바람' 활동을 비롯하여 전국, 대전, 경주, 대구 등 전국 곳곳에 문화적 영역과 예술정신 영역는 다르지만 시민예술, 생활예술의 시대를 선도적으로 열어가는 사례들이 많다.

그러나 주민들의 자발적 동아리 모임과 함께 등 단위 주민자치위원회 등 공공 행정단위가 함께 남구지역 생활문화의 정형을 세웠다 문화회고 있는 유일한 사례라는 점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민-관 거버넌스의 가장 솔솔한 접근방법이 시도되고 있는 유일한 차사구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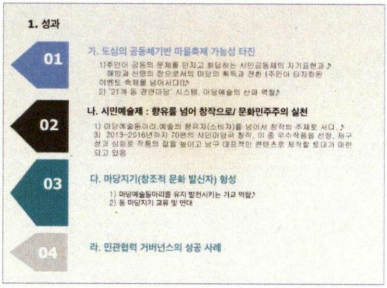



학산문화원의 혁신과 마당극놀래의 사례는 최근 국내에도 많이 소개되고 회자되는 '커뮤니티아트'와 비교해도 주민주체의 생활문화 정책의 계개로 '마당놀이'노래가 지닌 문화적 의의는 남다른다.

커뮤니티아트 역시 참여자의 '생산적소비자 체험'을 통해 새로운 생활문화 참여방법론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본질은 여전히 예술가 주도성으로 이루어지는 예술참여이다. 반면 마당극 놀래는 시종일관 참여주민 주도와 주체의 창작과 연희 방법론이라는 점에서 재대로 구현될 때 나타날 주민문화자치와 에너지가 기대되는 것이다. '노래와 놀이를 통합한 마을 마당극놀래'는 현 주민주체를 설명해왔다.

'하는 이와 보는 이'의 경계 없이 또 주민공개의 형식적 참여 시놓이 아닌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이 주인인 것이다. 그 전개과정이 매우 이해롭고 모범적이라 간단히 소개한다. 시민 스스로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시민예술 활동의 시작은 '학산마당문화예술학교'를 열고 참여주민들에게 공동창작 및 교육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마당예술강사 네트워킹을 해왔다. 이렇게 솔밭한 동별 마당예술동아리는 현처 '동 마당예술단'으로 확대발전하고 다른 한편으로 주민이 중심이 된 '마을마당극축제기획단'까지 꾸려진다.

연행단과 기획단이 모두 주민 주체로 무려지면서 창작콘텐츠 레퍼토리가 21개 동별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전국 어디에서도 실천사례가 없었으니 더욱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기에 아직 전문성 심화라는 숙제가 주어진 상태지만 이른 그대로 주민이 직접 중심이 된 '마을마당극놀래'는 인천남구 주민들만의 자랑인 남구만 특제적 정체성을 담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정모도도 지속성이 생명임은 말할 것도 없다. 숙성-심화가 필요한 과정이 바로 지금 단계이기 때문이다.


1. 성과

01 가. 도심의 공동체기반 마을축제 가능성 타진

1)주민이 공동의 문제를 인지고 풀일하는 시민공동체의 자기표현과 ?
대학과 시민의 참여문화도 마당의 특징과 전환 (주민과 감지하면 어렵도 축제를 넘어서다)?
2) '21개 동 권역마당' 시스템, 마당예술의 산파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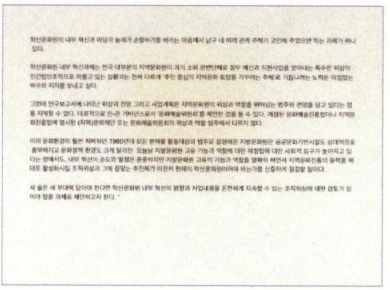
02 나. 시민예술제 : 향유를 넘어 창작으로/ 문화민주주의 실천

1) 마당예술동아리, 예술의 향유자(소비자)를 넘어서 창작의 주체로 서다 .?
3) 2013-2016년까지 70편의 시민마당극 창작, 이 중 우수작품을 선정, 최우수상 상금은 작품의 질을 높이고 남구 대표적인 콘텐츠로 육작을 도다고 마련되고 있음

03 다. 마당지기(창조적 문화 발신자) 형성

1) 마당예술동아리를 유지 발전시키는 가교 역할?
2) 동 마당지기 교류 및 연대

04 라.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성공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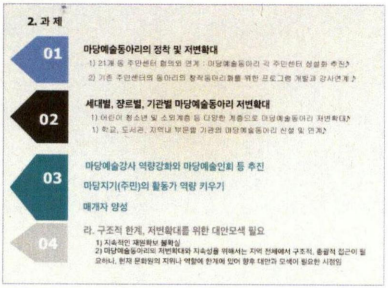

학산문화원의 내부 혁신과 마당극 놀래의 공동비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남구 내 여러 관계 주체가 그런에 주었으면 하는 과제가 하나 있다.

학산문화원 내부 혁신과제는 한국 대부분의 지역문화원이 과거 소위 관변단체로 점무 예산과 지원사업을 맡아왔는 특수한 위상의 인건비성조직으로 머물고 있는 점을 떠나 전체 다르게 주민 중심의 지역문화 활성을 가무하는 주체로 거듭나려는 노력은 마땅히 박수의 지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인구보고서에 나타난 위상과 현실 그리고 사업과제만 지역문화원의 위상과 역할을 뛰어넘는 범주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인근 기타단으로서 문화예술위원회 제안한 것을 들 수 있다. 계양의 문화예술진흥센터나 지역문화재단에 명시된 (지역문화재단 또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범주에서 다루지 않다.

이미 문화원장이 협한 제제하면 1960년대 일본 문예활동대장과 법무로 설립해온 지방문화원은 공공문화기반시설도 심격적으로 풍부해지고 문화향적 환경도 크게 달라진 오늘날 지방문화원 고유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내부 혁신이 송도의 일환은 문화바탕은 지방문화원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 바탕서 지역공동단체의 육적을 제대로 활성화시킬 조직이공과 기에 합일는 추진체가 이중적 한계의 학산문화원이야말 하는 것을 인정하여 필요할 일이다.

세 살은 내 위에 당이어 한다면 학산문화원 내부 혁신의 방향과 사업내용을 운전에게 지속할 수 있는 조직의상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을 과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


2. 과 제

01 마당예술동아리의 정착 및 저변확대

1) 21개 동 주민센터 협의와 연계 : 마당예술동아리 각 주민센터 설립화 추진?
2) 기존 주민센터의 동아리의 참적동아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강사연계 ?

02 세대별, 장르별, 기관별 마당예술동아리 저변확대

1) 어린이 청소년 및 소외계층 등 다양한 계층으로 마당예술동아리 저변확대?
1) 학교, 도서관, 지역내 부문별 기관의 마당예술동아리 신설 및 연계?

03 마당예술강사 역량강화와 마당예술인회 등 추진

마당지기(주민)의 활동가 역량 키우기

매개자 양성

04 라. 구조적 한계, 저변확대를 위한 대안모색 필요

1) 지속적인 재원확보 불확실
2) 마당예술동아리의 저변확대와 지속성을 위해서는 지역 전체에서 구조적,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나, 현재 문화원의 지위나 역할에 한계에 있어 원주 대한과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시흥 품앗이안프로젝트가 문화원, 그리고 시민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었는가?

이병권 시흥문화원 사무국장

시흥 품앗이안프로젝트는 한국문화원연합회 주최로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문화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시도지원본부 운영 및 "문화품앗이안" 양성 사업으로 2016년부터 시흥문화원이 결합했다. 시흥 품앗이안프로젝트는 파일럿 사업이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구성한 협의체와 기획 및 진행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였고, 그 결과 시흥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커뮤니티활동가들의 활동을 알아보고자 했다. 문화라는 키워드에 한정하기보다 지역 내 활동가들을 자연스럽게 참여시켜 파일럿 워크숍을 진행하는 한편, 이들의 다양한 활동을 모니터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시흥 품앗이안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

2016 시흥 품앗이안 활동

이름	활동	분야
김경윤	마을여행 가이드	마을활동가
김순영	마을 자원을 통한 학교 연계 방안 찾기	협동조합운영
박영교	고전읽기 토론 모임	주부
박옥순	다문화 기타강의	가수
박지온	한국무용 함께하기	한국무용 강사
소정미	한국무용 함께하기	주부
신정화	한국무용 함께하기	주부
유홍숙	아파트 내 놀이방 만들기	시민기자, 도슨트
윤은화	내가 사는 아파트 내 손편지 엮기	주부
이창수	사물놀이 나눔 공연	전 문화원직원
조양임	건강체조 활동	한국무용 강사
주문선	지역사랑방 북카페 소통	컴퓨터 강사
최미희	한국무용 함께하기	주부

협의체는 문화자원봉사라는 개념에서 확장하여 생활문화와의 접점을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지역 내 활동가들의 다양한 활동은 생활문화사업의 중요한 특징인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이기 때문이다. 시흥 품앗이안 역시 이러한 큰 틀에서 진행하고자 하였다. 위의 활동에서 '한국무용 함께하기'참여자가 가장 많지만 그 외에는 여러 분야의 참여자들에서 다양하게 활동한 양상을 볼 수 있다. '고전읽기 토론 모임''지역사랑방 북카페 소통'과 같은 소통과 공동체적 접근 통한 활동과 '기타강의''한국무용' 등과 같은 참여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관심에 따라 진행된 활동으로 나누어진다.
이중 가장 주목되는 활동은 많지 않은 지원비를 가지고 아파트 단지 내 활용되지 않는 공간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방과 작은 축제를 만든 유홍숙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흥 품앗이안이 단순한 활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마을사업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는 확장성을 엿볼 수 있었던 사례였다. 이는 품앗이, 즉 공동체 일원으로서 품앗이라는 미풍양속을 통해 공간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체적으로 능동적인 사고와 활동성을 가지는 시흥 커뮤니티 활동가의 잠재력을 보여준 사례였다. 따라서 협의체에서 만들었던 개념인 "품앗이안"은 문화자원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닌 문화활동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중요한 사례이다.
올해로 2년차가 된 시흥 품앗이안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

2017 시흥 품앗이안 활동

이름	활동	분야	비고
김경윤	페이스페인팅 청소년 교육	공정여행'동네'디자이너	2016년 마을여행 가이드
김성일	환경교육	환경교육자	
김영례	청소년 집단 심성수련	청소년 인성교육 강사	
김영선	자원순환교육	환경자원교육가	
김해숙	도심 속 생태 즐감 놀이	생태체험지도사 게임놀이지도사	
박남순	소래산 탐방(생태체험)	생태체험지도사	

이름	활동	분야	비고
박영교	책 '무탄트 메시지' 읽고 토론하기	시흥시 바라지 해설사 마을 기록가 인문학 동아리 활동	2016년 고전읽기 토론 모임
김성일	환경교육	환경교육자	
김영례	청소년 집단 심성수련	청소년 인성교육 강사	
김영선	자원순환교육	환경자원교육가	
김해숙	도심 속 생태 즐감 놀이	생태체험지도사 게임놀이지도사	
박옥순	재활용품 활용 diy 소품 만들기	가수	2016년 다문화 기타강의
박지온	한국무용	한국무용강사	2016년 한국무용 함께하기
서영신	생태수업 자연물 놀이	창의체험 교육강사	
송혜지	동물보호(고양이 집 만들어 주기)	회사원	
우성숙	생태교육활동	생태체험지도사	
원은주	전문직업인의 만남(플로리스트) / 진로체험	플로리스트, 생태교육강사	
이병일	군자봉 성황제 모니터링	회사원	
이창수	사물놀이 나눔 공연	전 문화원직원	2016년 사물놀이 나눔 공연
임봄이	생활문화디자이너 활동	생활문화디자이너	
장순옥	창의놀이	사고력독서지도사 놀이문화지도사	
정유나	환경보호 활동(손수건 만들어 나누기)	주부	
정진성	생태수업	회사원	
조정숙	보드게임	보드게임강사	
최은순	특기적성교육(비누만들기)	학습지,공부방,어린이집교사	

이번 년도 품앗이안활동 사례의 특징은 지역커뮤니티활동가들의 참여이다. 아울러 이들이 보유한 재능과 관심에 기초한 활동이 다종을 이루고 있다. 1차년도 사업과 연속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워크숍의 효과라고 판단된다.

1차년도 사업에서 파일럿 워크숍의 이동준(이천문화원 사무국장) 컨설턴트의 교육은 참여자들에게 문화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었다. 2차년도에 워크숍이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고 성숙되었다. 1차년도 참여자들이 어떤 활동을 할지에 대한 혼란이 많았는데, 반해 이번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자연스레 문화와 접점을 찾아 계획하고 실천하였다.

2년에 걸쳐 참여한 김경윤은 청소년에게 페이스페인팅 교육을, 박옥순은 재활용품을 활용한 소품 만들기 등을 하면서 1차년도 활동과 달라졌는데, 자신이 가진 재능 기부 활동에 한정하지 않고 새로운 활동으로 확장한 경우가 눈에 띈다.

1, 2차년도 사업을 통해서 문화원과 시민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단언하긴 어렵지만 시흥 품앗이안의 활동 결과와 참여자들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자원봉사가 기존의 자원봉사의 개념과 달리 주체적이라는 것이다. 1365'는 봉사자의 활동 계획과 실행,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까지 무엇 하나 빠지지 않고 잘 갖춰진 체제이다. '1365' 또는 각 계에서 시행되는 자원봉사 시스템은 개인의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잘 갖춰진 시스템으로 인한 수동적 활동으로 변질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단점을 가진 '1365'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문화품앗e-문화체육자원봉사매칭시스템은 웹상에 진행된 체제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의 협의체에서 기획하고 진행한 시흥 품앗이안 사업은 수요처에 봉사자(단체)를 공급해주는 시스템과 달리 참여자 개인이 중심이 되어 봉사를 하고자 하는 관심과 재능을 기초로 다양한 문화 활동을 기반으로 주변 사람들과 나누느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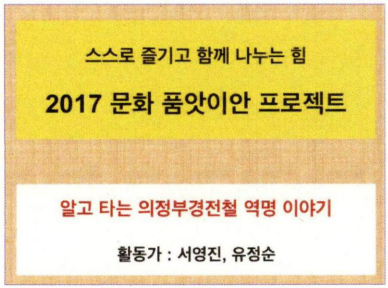
시흥 품앗이안 사업은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과 다양하게 펼쳐지는 생활문화와 같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공급자 중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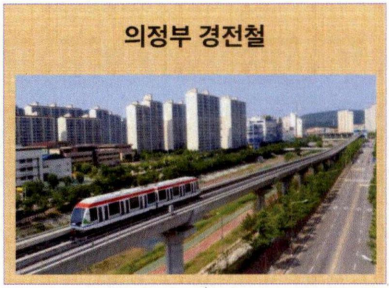
사업이 아닌 수요자 중심이며, 공간의 제약이 없다.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문화원 밖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활동한다. 이는 지역커뮤니티활동가들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환경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손수건을 만드는 주부 정유나의 사례로 시민 누구나가 자신의 관심과 재능을 통해 지역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소통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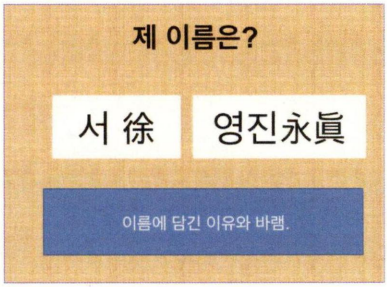
이러한 능동적이고 주체적이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시흥 품앗이안은 향후 문화자원봉사활동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능케 한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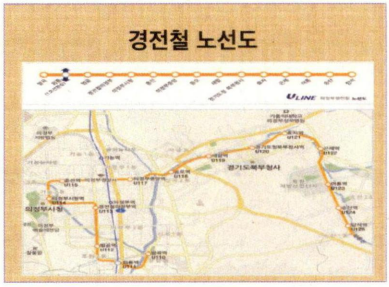
스스로 즐기고 함께 나누는 힘 <알고 타는 의정부경전철 역명이야기>

_ 서영진, 유정순(의정부문화원 품앗이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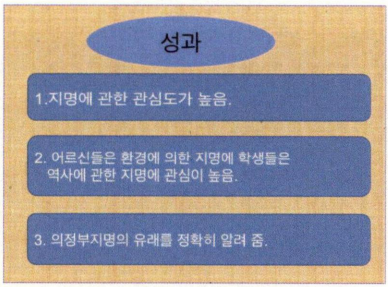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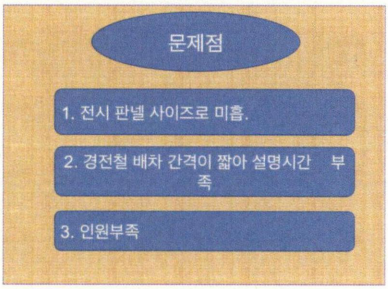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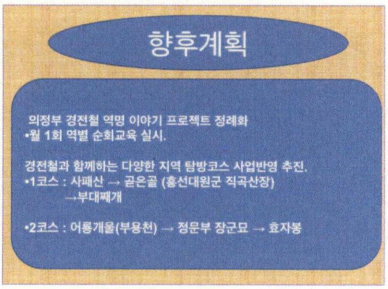





성과
1.지명에 관한 관심도가 높음.
2. 어르신들은 환경에 의한 지명에 학생들은 역사에 관한 지명에 관심이 높음.
3. 의정부지명의 유래를 정확히 알려 줌.


감사합니다.


문제점
1. 전시 판넬 사이즈로 미흡.
2. 경전철 배차 간격이 짧아 설명시간 부족
3. 인원부족


향후계획
의정부 경전철 역명 이야기 프로젝트 정례화
•월 1회 역별 순회교육 실시.
경전철과 함께하는 다양한 지역 탐방코스 사업반영 추진.
•1코스 : 사패산 → 곧은골 (흥선대원군 직곡산장)
→부대찌개
•2코스 : 어룡개울(부용천) → 정문부 장군묘 → 효자봉

차와 함께하는 노강서원 이야기

_ 고경화, 이진욱, 김춘옥, 정갑자(의정부문화원품앗이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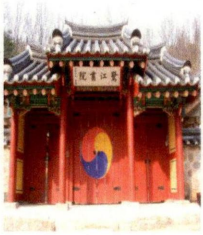
2017 문화품앗이안 프로젝트

차와 함께하는 노강서원 이야기

활동가 : 이진욱, 고경화
김춘옥, 정갑자



사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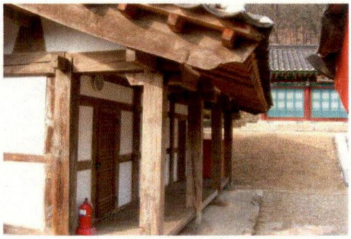


시대 : 조선 후기
문화재청 : 경기도 시도 기념물 제 41호
건립시기 : 1695년(숙종 21년)
성격 : 교육기관 서원
유형 : 유적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산 146-1



동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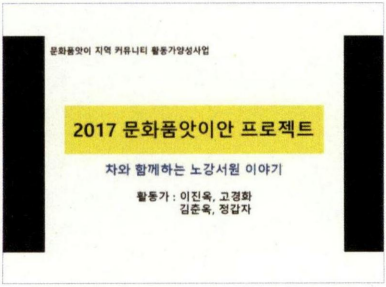


서재



삼문




문화품앗이 지역 커뮤니티 활동가양성사업
2017 문화품앗이안 프로젝트
차와 함께하는 노강서원 이야기
활동가 : 이진옥, 고경화
김준옥, 정갑자

경기문화저널 특별호 「담론2017」

발행인 | 염상덕
편집인 | 최영주
기　획 | 신희영
진　행 | 오다예
발행일 | 2017. 12. 31
발행처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6층)
TEL | 031-239-1020
FAX | 031-239-3785
H/P | www.kccfgg.org
웹진 | www.ggjournal.or.kr
제작 | 글그림

본지의 내용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2017년 경기도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비매품>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6층
031-239-1020

본지의 내용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2017년 경기도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비매품〉